



2019 Art Politics – Project_Border Crossing “ONSAEMIRO”

실험공간 | EXPERIMENTAL SPACE UZ



기획 / 슈룸
ShurooP 4352

2019 예술정치-무경계 프로젝트 “온새미로”

Art Politics – Project_Border Crossing “ONSAEMIRO”

실험공간 | EXPERIMENTAL SPACE UZ

2019 예술정치 – 무경계 프로젝트

2019 Art Politics – Project Border Crossing



기획 / 슈룹
ShurooP 4352

실험공간 | EXPERIMENTAL SPACE UZ

2019 실험공간 UZ “온새미로”

안녕하세요^^

2017년 ‘연대, 공유, 동행’의 정신으로 출발한 예술정치 – 무경계 3년 프로젝트는 올해 총 결산하는 마무리 단계로서, “갈라지거나 풀어지지 않은 원래의 온전한 자연 상태”를 일컫는 우리말인 ‘온새미로’를 화두로 삼았습니다.

특히, 2019년 9월21일~10월6일까지 16일간 국내외 70여명의 예술가들이 함께 한 국제 DMZ 예술정치-무경계 행사는, 슈롭과 다국적 네트워크 나인드래곤헤즈_NDH의 협력 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랜기간 국내와 세계 여러나라의 작가들과 국제적으로 작품 활동의 영역을 넓혀 온 나인드래곤헤즈와 이번 프로젝트에 함께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실내 · 외에서 진행한 워크숍, 현장답사(4박5일), 행위, 설치, 개막회의, 전시회, 프레젠테이션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방식으로 펼쳐졌으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긴밀하게 연결하는 흥미진진한 예술 행위로 실천되었습니다. 본 행사를 통하여 ‘무경계-온새미로’의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과 실천 의지 및 행동이, 분명 남북한을 비롯한 국제적으로 경계 지어진 사회 전체를 움직여 새로운 시간과 혁혁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큰 지렛대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처음 선언 한 바 원하는 현실적인 계획과 목표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나, 이번 행위를 통해 남북이 온새미로 된 한반도 둘레 길을 한발 두발 뚜벅이 걸음으로 걸어 갈 수 있는 꿈과 희망이 머지않은 앞날에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 3년간 실천해 온 서해에서 동해에 이르는 수십 차례의 250여km DMZ 현장답사와 여러 기획 전시회에, 올해 일체 공공 문화 예술 기금 등 지원을 받지 못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국내 및 20개국에서 참가한 외국작가들의 자비와 후원을 통한 여러분들의 순수한 열정과 땀 흘린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김성배

실험공간 UZ, 2019 국제 온새미로전 감독

2019 EXPERIMENTAL SPACE UZ “ONSAEMIRO”

Hello ^^

The art politics–border crossing three–year project, which started in 2017 with the spirit of solidarity, sharing and accompaniment, is the final closing year of this year. We make a topic “Onsaemiro”, which is the Korean word for “the original intact natural state that is not divided or split” for this year.

In particular, the international DMZ art politics–project border crossing event was held by 70 artists from Korea and abroad as a collaboration between Shuroop and Nine Dragon Heads for 16 days from September 21 to October 6, 2019. I am grateful to be working with Nine Dragon Heads, who has been acting internationally with artists from various countries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for a long time.

It was conducted in a wide variety of ways, including indoor and outdoor workshops, field trips (4 nights and 5 days), performances, installation, conference, exhibitions, presentations, and other exciting art activities that closely connect the past, present and future. Through this event more positive and active thinking, willingness and action of ‘Borderless–Onsaemiro’ will clearly move the entire internationally bordered society, including the two Koreas, and become an important channel for new time and transformation. It will act a big lever as an important link.

At this time, we did not complete the realistic plan and goals we wanted. However, we are confident that the dreams and hopes for the two Koreas to walk step-by-step on the roa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will come true in the near future through this act and activity. Dozens of 250km DMZ field trips and various exhibitions from the West Sea to the East Sea, which have been practiced for the past three years, have been difficult to receive any public cultural and arts funding this year. Nevertheless,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you for your pure passion and sweating through the mercy and support of the foreign artists who volunteered in Korea and 20 countries!

Kim Sung Bae

Experimental Space UZ, Director of 2019 International “Onsaemiro” Exhibition

境界를 鏡戒하다

현재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도 섬이다.

몸으로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은 배나 비행기를 타야만 가능하다. 걸어서 이 땅을 넘어 대륙으로 넘나들던 먼 옛 얘 기들은 우리시대엔 전설처럼 멀다. 70년간의 고립이 의식을 잡아 먹고, 외부에 의존하고 위탁 받아온 안락함은 익숙함에 젖어들었다. 모호함, 생경함, 두려움, 불손함이 더 이상 이쪽에서 저쪽으로의 넘나들기를 권장하지 않고, 깊은 늪에서 침잠한다. 이미 축 처진 정신의 쇠락은 주도적이며 창의적인 삶을 가까이 둘 수 없지 않은가.

경계 안에서 몸이 굳은 우리는 섬에 안주하며 다른 세계로의 호기심으로, 궁금증은 대답으로 움트는 많은 질문들도 함께 묻어 버렸다. 지금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는 물리적 철책은 실재이며 환상인 것처럼 때에 따라 알맞은 바람인 듯 들려준다.

무경계 이름으로 첫 발을 내딛은 따스한 봄 날, 한반도 서쪽의 영하강 철책이 경계의 날카로운 이빨을 세우며 용처럼 흘렀다. 그 동물의 투명한 비늘을 쓰다듬으며 견고한 시간의 멈춤을 숨죽여 들여 마셨다.

이름 없는 강 조강! 고구려가 머물렀던 땅! 불이 만든 임진적벽! 따라온 용이 물길 따라 북으로 머리를 숨긴다.

이듬해 차가운 봄 날, 거꾸로 자라는 고드름을 지나고, 지뢰밭을 끼고 돌아 무수한 총탄들의 상흔을 가득품은 얇은 무대 같은 건물과 마주하며 서성이는 허무를 봤다.

마고가 사는가? 고석정! 원시의 야생을 품은 생태평화공원! 금강산을 못 오르는 슬픈 길목 두타연! 하늘이 엄마 젖처럼 푹 내려앉는 편치볼! 저기 해금강은 바다로부터 등줄기를 세우며 오른다. 화진포 새벽! 동해의 붉은 해가 가슴에 박힌다. 올해는 아홉 용머리들과 함께 정중하고 빠르게 그 길들을 다시 걸었다. 긴장의 땅에서 오히려 평화로운 모호한 풍경들,

철책 위 능선 넘어 이질적인 같은 땅, 편안한 잠자리, 풍성한 먹거리, 예술가들이 아니었다면 관광객이었을 착각들...

2017년부터 시작한 3년차 무경계프로젝트는 2년차까지 경계에 대한 과거의 관습과 이론, 익숙함 따위로 수축된 대답들을 한 꺼풀씩 걷어내며 걸었다면, 3년차에서는 다른 세계에서 우리 섬으로 넘나드는 아홉 용머리와 함께 외피를 걷어낸 속 살 질문과 의문들을 함께 탐색해 봤다. 큰 성과다.

예술정치 – 무경계는 실험공간 UZ에서 진행된 3년간의 기획과 전시형태, 그리고 그 내용들이 프로젝트가 뜻하는 바의 선언적 내용들을 통해 다양한 시각적 언어로 구축되며 실천됐다. 기존예술이 쌓아온 경계를 재인식하며 제시된 방법론들은 대안의 필요충분조건으로써 설득력을 지닌다. 그것은 또 다른 영역의 발견과 더불어 작가로서 필히 만나지는 탈 영토로의 넘나듦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무경계답사는 만만치 않은 250Km를, 서(강화도)에서 동(고성)까지의 철책과 그 주변을 걸으며 각 지역들의 생(生), 태(態), 활(活)을 몸 각(覺)으로 받아들이고 체화한 큰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돌아갈 수 없다. 내딛은 발은 이미 통념(通念)의 경계를 경계한다.

2019.11

무경계 총괄기획_김수철

Pay a close heed to border

Currently, Korea is an island geopolitically and geographically. The only way to be connected with the rest of the world physically is to go there either by boat or plane. The old stories that we used to travel across the continent became legends of far distance in our time. Seventy years of isolation has eaten up our consciousness, and we became so familiarized with the comfort that was given from the outside, yet made us dependent on. Ambiguity, unfamiliarity, fear, and unkindness are no more encouraged for us to cross from side to side, but to submerge in a deep swamp. Will our already weakened spirit allow us to lead autonomous and creative lives? As we settled within border, we are trapped on the island that many questions and curiosity to other worlds have to be buried at a same time. As the physical fence that cuts the waist of the Korean peninsula currently would be real and illusory, the only right answer seems to be untouchable like a wind.

On a warm spring day when the first step was taken in the name of Art politics–Border Crossing project, the fence of Yumha river at the west of the Korean peninsula was flowing like a dragon with sharp teeth at the border. Stroking the animal's transparent scales, we posed to breath in a solid pause of time. Unnamed River, Jogang River! The land where Goguryeo stayed! The wall of Imjinjeokbyeok made by fire! The dragon following us is hiding its head to the side of north. On a cold spring day the following year, I passed an upside down icicles, turned around a minefield and faced and saw a thin stage-like building filled with scars of countless bullets. Does Mago live? Goseokjeong! Ecological peace park encompassed with primitive wild! The trail to Mt. Geumgang stops at Dootayeon sadly! Punch–Ball that sky falls like mother's breast! There is HaegeumGang river, which is rising from the sea with a ridgeline. The Dawn of Hwajinpo! The red sun of the East Sea is lodged in our heart. This year, along with Nine Dragon Heads, we walked the path politely and quickly. In the land of tension, rather peaceful vague landscapes, alien lands beyond the ridges above the fence, comfort-

able lodging and abundant food, all of these would have made us tourists if we were not artists,

The third year project of Art politics–Border Crossing began in 2017. We had walked for first two year, pulling out answers to questions that had been hidden under convention, theory and familiarity from the past. In the last third year, we explored the inner questions with Nine Dragon Heads who used to travel around the world and came to our island. It resulted in a great achievement. Art Politics–Border Crossig project was established and practiced in various visual languages through three years of planning and exhibitions and experimental contents in the Experimental Space UZ. Recognizing the boundaries of existing art, the methodologies presented are persuasive as necessary and sufficient alternatives. It was enough to thrill the crossover to the post territories that he must meet as artists with the discovery of another realm. In particular, the expedition of Art Politics–Border Crossing project covered 250km–long walk in trails and their surroundings from the west (Ganghwado) to the east (Goseong). It was a great action that made us sensing lives, topological forms and vividty of places we visited.

We cannot go back form here. This forward step let us pay a close heed to the border of our conventional though.

November. 2019

CURATOR _ KIM SU CHEOL

‘다모기’와 ‘흘뿌림’의 실천 : 예술정치-무경계 프로젝트의 행동주의 미술

김성호(Kim Sung-Ho, 미술평론가)

I. 프롤로그 – 대장정의 막을 내리며

《예술정치-무경계 프로젝트》가 3년간의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 이 프로젝트는 올해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종료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다. 이 프로젝트는 “DMZ(韓半島 非武裝地帶, Korean Demilitarized Zone)의 모든 철책 선, 즉 경기도에서 강원도에 걸쳐 있는 동서 약 250km에 달하는 남북한 사이의 철조망을 걷어 내, 가운데 지점(강원도 철원 백마고지 및 승리전망대 일대)에 대규모 원형 구조물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프로젝트는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의 도래를 염원하고, 전 세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평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표는 명확하지만, 목적은 이상적’인 깊이에 이 프로젝트는 ‘미완(未完)’을 처음부터 노정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는 매해 이름 앞에 년도를 표기해 왔듯이 향후 이 프로젝트가 언제든지 재출현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케 한다. 현실적으로는 올해 마감하지만, 이상적으로 ‘미완의 프로젝트’인 셈이다. 이것은 왜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향후의 전망은 어떠한 것인가? 이 글은 그것에 관한 종합적인 의미를 다각도로 탐구한다.

II. 온새미로, 무경계 그리고 예술정치

《예술정치-무경계 프로젝트》는 3년간의 현실적 성취를 거쳐 ‘통일과 평화’라는 이상적 목적을 지향하는 ‘영원한 미완의 장기 프로젝트’이다. 언제 이룰지 장담할 수 없는 남북통일과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세계의 평화!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염원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늘 가능태로 존재한다. 적어도 남북통일은 우리의 예전보다 더 일찍 성취되고 실현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이상의 목적지를 위해 달려 나가는 노력 자체가 가치 있음을 알고 있는 예술가들이 발 벗고 나서서, 서로의 손을 잡아 이끌고 서로를 밀어주는 ‘상호 협력’의 프로젝트이다.

3년 동안의 《예술정치-무경계 프로젝트》는 총 7차 프로젝트로 구성되었는데, 2017, 2018, 2019와 같은 해당연도를 표기하고 하이픈으로 세부 전시명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기획을 하나의 이름 아래 모아 선보였다. 또한 전시명에 ‘온새미로’, ‘DMZ 국제’라는 용어들이 붙으면서 세부적인 이름을 달리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 무수한 전시와 아트 이벤트들의 본질은 하나이다. ‘예술정치를 통한 무경계 프로젝트의 실현’이라는 목적의식이 그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예술정치, 무경계 그리고 온새미로’로 명명되는 세 가지의 개념을 학두로 삼는다.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온새미로, 무경계 그리고 예술정치’라는 순서대로 살펴본다.

첫째, 온새미로! 이것은 ‘경계를 전제하는 사유’, ‘경계 이전의 시원(始原)에 대한 본원적 사유’로 정의된다. 순우리말인 ‘온새미로’란 “가르거나, 쪼개지 않고, 생김새 그대로, 자연 그대로, 언제나 변함없이”라는 뜻을 지닌다. 즉 《예술정치-무경계 프로젝트》가 화두로 삼은 ‘온새미로’란 갈라지고, 쪼개진 ‘여기, 지금’의 시공간을 인식하고 그 이전의 시공간을 가리키는 용어이자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이 프로젝트에서 온새미로는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 이남의 쪼개진 좌우 이데올로기, 세계 각지로 흩어진 한민족의 이산(離散)을 비유하면서 그 ‘경계 짓기’ 이전의 시공간을 상정한다. 즉 “사물, 현상 따위가 시작되는 처음”이라는 의미의 ‘시원’이라는 개념을 공유하는 것이다.

온새미로는 ‘경계 짓기 이전’을 상정한다는 점에서 일견 통시적(通時的)으로 보이지만, 현실의 지평과 역사의 흐름을 초

월하는 시공간인 유토피아와 같은 ‘시원의 공간’을 상정한다는 점에서 이념적이고 본질적이다. 그래서 이 온새미로는 경계 짓기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가역적(可逆的) 사유’이기보다 ‘여기, 지금’의 상황을 무경계의 상황으로 재수립하려는 ‘비가역적(非可逆的) 사유’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

둘째, 무경계! 이것은 ‘경계를 전제하는 사유’, 즉 ‘경계에서의 사유’로 정의된다. 이 개념은 직접적으로 남과 북의 ‘경계 있음’의 상황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되묻는다. 한국 전쟁 직후 미국과 소련과 같은 열강의 제국들에 의해서 ‘경계 짓기’를 피동적으로 감수해야만 했던 약소국의 상황을 되볼 뿐만 아니라 거꾸로 한민족의 기상이 만주까지 뻗었던 밸해와 같은 당시의 상황을 되새기며 민족적 정기를 다잡는 것이기도 하다. 즉 식민 종주국으로부터 떠나온 한반도 평화의 지대, 오염된 피식민의 땅, 변형되고 갈라진 영토를 회복하려는 사유인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무경계의 개념은 통시적이다.

또한, 이 ‘무경계’는 이분법적 사유에서 출발하는 모든 ‘경계 짓기’를 거부한다. 즉 민족, 국가와 같은 전 지구적 경계뿐 아니라, 이념, 인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는 사유와 실천을 요청하는 것이다. 즉 한 시기를 무경계라는 개념 아래에서 두루 성찰한다. 나아가 ‘여기, 지금’의 시공간에서 주체와 타자를 나누고 주체와 사물을 구조적 틀 속에 가두는 모든 사유를 거부하고 그것으로부터 탈주하는 일련의 ‘자유 지대’를 상상한다. 따라서 이런 차원에서 무경계의 개념은 공시적이기도 하다.

이처럼 무경계는 경계를 전제하고 이 경계로부터 탈주하는 한민족의 과거 역사와 더불어 ‘여기, 지금’에서의 인류의 현재적 염원을 동시에 담는다. 즉 무경계란 통시적이자 공시적인 개념이다. 한편, 현실 지평에서 꿈꾸는 미래의 세계를 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계의 전제 – 경계의 넘나듦 – 경계의 통합 – 경계의 탈주 – 무경계’와 같은 순차적인 노정들에 대한 실현을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꼭 성취하겠다는 열망을 드러내는 것이다. 결국 ‘무경계 프로젝트’에서 ‘무경계’의 의미란 ‘여기, 지금’에서 ‘경계를 전제하고 경계 위(혹은 언저리)에서 자유로운 월경(越境)’을 사유하는 것이라, 미래적 비전으로 ‘경계 없는 넘나듦’을 열망하는 것이라 정리할 수 있겠다.

셋째, 예술정치! 이것은 ‘경계를 전제하는 실천’, 즉 ‘경계에서의 행동주의 미술’로 정의된다. 우리가 위에서 ‘온새미로=무경계’라는 등식이 개념적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보았듯이, 여기서는 ‘무경계 프로젝트=예술정치’의 등식이 넉넉히 가능해진다. 또한 온새미로와 무경계의 개념이 ‘사유’를 진작(振作)하는 것이라면, 예술정치의 개념은 ‘실천’을 가시화하는 것이다. 즉 ‘변혁에 대한 사유 또는 변혁에 대한 정치적 열망’을 예술을 통해 실천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남북통일과 세계 평화’라는 이상적 목적을 아우르면서 ‘남북 사이의 철조망 제거와 원형 구조물 설치’라는 현실적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일련의 예술적 실천을 강행하는 것이다. 이들이 지향하는 ‘예술정치’는 그런 면에서 이데올로기의 전투적 실천을 의도하기보다 한반도에서 온새미로의 상황을 되찾으려는 근본주의적이고 자연주의적인 ‘정치 미술’ 혹은 ‘행동주의 미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예술정치란 온새미로와 무경계라는 근본주의적이고 자연주의적인 변혁의 사유를 같은 지침의 ‘행동주의 미술’로 실천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III. 무경계 프로젝트의 행동주의 미술 – ‘다모기’의 실천

《예술정치-무경계 프로젝트》의 첫째 해인 2017년 프로젝트의 예술정치 강령이 있었을까? 근본주의적이고 자연주의적인 예술정치를 지향하고 느슨한 행동주의 미술의 실천을 도모했던 깊이에 딱히 강령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 당시 제시된 모토(motto)는 ‘연대, 공유, 동행’이었다.

필자는 이러한 세 가지 ‘강령 아닌 강령’을 ‘온새미로’처럼 국어사전에 있는 순우리말로 ‘다모기’라 부르기로 한다. ‘다모기’는 ‘더불어, 함께’라는 뜻이다. 이것은 위의 세 가지 개념뿐 아니라 공존과 공생 그리고 소통을 함유하는 용어라는 점

에서 이 글에서 매우 유의미하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술정치-무경계 프로젝트》는 여러 장소에서의 다양한 아트 이벤트들이 ‘무경계 프로젝트’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모여 펼쳐졌기 때문이다.

《예술정치-무경계 프로젝트》는 3년 동안, 실험공간 UZ를 중심으로 한 실내 기획전과 개인전, 오픈에어 프로그램인 한반도 이남의 DMZ 답사와 그것에 따른 설치, 퍼포먼스 그리고 《2019 DMZ 국제 예술정치-무경계 프로젝트 온새미로》라는 이름의 국제전에 이르기까지 ‘총 7차’로 구성된 무경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름처럼 이 프로젝트는 그룹전과 개인전 그리고 국제전에 대한 특별한 구분보다 1차전, 2차전, 7차전과 같은 차수를 표기하면서 모든 프로젝트가 《예술정치-무경계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모이도록 한 것이다.

《예술정치-무경계 프로젝트》는 ‘예술정치-다쓰기 무경계 프로젝트’라 표현할 정도로 2017년 6차례 기획전과 DMZ 경기도 지역 답사를 필두로, 2018년 한 해만 하더라도 다수의 전시와 프로그램이 더불어, 함께, ‘연대, 공유, 동행’했다. ‘무경계 4차전-손 그림’(3~4월)을 시작으로 ‘Workshop’(5월), ‘무경계 69 New Media’(6월), ‘적응방산_適應放散’(7월), ‘설경-온새미로’(9월), ‘무경계 5차전-온새미로’(10월), ‘신망리를 만나다’(10월, 연천), ‘원웅회통’(11월, 대구) 등 총 8차례의 기획전 뿐 아니라 강원도 일대의 비무장 지대 답사와 관련한 일련의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한편 2019년에는 ‘무경계 6차전’으로 ‘온새미로-흔들리는 눈동자-김재연’(3월), ‘상고사(上古史)-하늘이 위에, 하늘이 밑에, 별들이 위에, 별들이 밑에’(4월), ‘빛 무늬-即-박지현’(5월), ‘온새미로-집집집宙-경계에서-홍채원’(6월)이 펼쳐졌고, ‘무경계 7차전’으로 슈룹과 나인드래곤헤즈 협업 ‘DMZ 국제 예술정치-무경계 프로젝트 온새미로’(9~10월), ‘아수라판-김수직’(11월)이 열림으로써 3년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위에 언급한 세부 전시들을 출발부터 한데 묶은 《예술정치-무경계 프로젝트》는 가히 ‘더불어 함께’라는 의미의 ‘다쓰기’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라 하겠다. 개인전과 기획전이, 국내전과 국제전이, 회화, 조각, 설치, 영상, 사진, 퍼포먼스의 다원주의 장르가 그리고 미술과 비미술이 한데 어우러진 ‘다쓰기 프로젝트’인 것이다.

또한 최종 목표 지점인 일명 ‘DMZ 철조망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현장 답사와 사전 리서칭과 같은 준비 단계의 여러 과정을 결합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위해서 그룹 내외의 여러 구성원의 협력을 도모하는 것도 ‘다쓰기’의 정신을 실천한다. 프로젝트의 최종적인 성취를 위해 DMZ의 공간들을 탐방하는 일련의 답사 활동은 이미 30여 차례에 이른다. 이러한 활동은 다양한 다큐멘터리와 예술적 결과물을 축적해 나간다. 즉 답사 공간과 연관된 역사와 사회적 맥락의 정보를 담은 아카이브, 답사 현장을 기록한 사진, 영상물과 지역민과의 인터뷰, 답사의 노정에서 실현하는 퍼포먼스와 설치 작업이 그것이다. 이러한 결과물을 전시의 형태로 재점검하고 논의하는 단계를 지속적으로 거치면서 프로젝트는 진행되어 나간다.

그렇다. 긴 호흡의 순차적인 단계를 거치는 현장 답사를 위해서 팀원들과의 공유, 연대, 동행, 즉 ‘더불어, 함께’라는 ‘다쓰기’ 정신과 실천은 필수적이다.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는 선발대의 사전 계획,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한 역할 분담, 프로젝트의 참여를 독려하고 동행하길 요청하는 열린 연대, 답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대한 치밀한 기록과 자유로운 형식의 참여 예술의 실천 그리고 프로젝트의 개선을 위한 난상 토론과 답사 후 프로젝트를 기념하는 전시와 난장과 같은 축제는 무엇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이 프로젝트의 연속적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이다.

IV. 무경계 프로젝트의 행동주의 미술 - ‘흘뿌림’의 실천과 예술의 정치화

《예술정치-무경계 프로젝트》의 행동주의 미술은 ‘다쓰기’의 정신을 실천하는 한편, ‘흘뿌림’의 네트워킹을 도모한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예술의 정치화’ 개념과 함께 살펴본다.

우선 지난 2018년 무경계 프로젝트에 관한 필자의 글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예술의 정치화’란 용어는 원래 벤야민

(Walter Benjamin)으로부터 온 개념이다. 그는 예술을 나치즘 이데올로기의 선동 도구로 활용하려는 히틀러의 ‘정치적 미학화’에 맞서기 위해 이 개념을 고안했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벤야민의 ‘예술의 정치화’라는 테제는 아우라(Aura)의 예술이 아닌 ‘비(非)아우라’의 예술로 실현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비아우라의 예술? 그것은 ‘예술을 위한 예술’, ‘예술의 일품성을 중시하는 순수 예술’을 반대하는 편의 모든 예술이다. 즉 아우라의 예술이 종국에는 나치즘과 같은 이데올로기의 도구화가 되는 것을 반대하고 비아우라의 예술로 정치를 실천하는 것이다. 즉 ‘예술의 정치화’인 것이다.

‘무경계의 프로젝트’에 등장하는 예술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프로젝트는 참여 구성원들의 독자적인 개인의 예술 작품을 버리고 공동의 예술을 통해서 정치를 실천한다. 개별 작가의 작품 세계가 형성한 아우라는 공동의 ‘예술 정치’에 있어서 외려 방해 요소이다. 벤야민은 이러한 점을 자신의 논문 ‘기계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 속에서 간파했다. 무수한 에디션과 복제를 통해 복수의 예술 작품이 가능해지는 시대에, 예술 작품은 아우라를 상실한다. 그것은 작품이 지닌 제의적 가치로부터 전시적 가치로 변동된다. 벤야민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예술의 ‘제의적 기능’은 ‘정치적 기능’으로 대체되고, 대체되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역설한다. 즉 그의 ‘예술의 정치화’란 예술 본연의 ‘제의적 기능’이 소멸한 자리에서 ‘정치적 기능’이 부활하면서 가시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벤야민이 진술하는 ‘변증법적 전회(Dialektische Umschlag)’이다.

정권과 이데올로기의 시녀로 봉사를 일삼던 ‘아우라 가득한 제의적 예술’이 사라진 곳에서 ‘비아우라의 전시적 예술’이 자란다. 벤야민이 사진과 비디오 영상과 같은 복제 예술 속에서 현실 사회를 변혁하는 대중의 정치적 실천의 가능성을 찾았던 것처럼, ‘무경계 프로젝트’ 역시 여러 차례의 현장 답사를 통해 프로젝트의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면서 이 가능성을 실천한다.

물론 그것만이 아니다. ‘아우라가 탈각된 예술’을 통해 실천하는 벤야민의 ‘예술의 정치화’가 미디어를 통해 ‘시공간이 뒤섞이는 몽타주(montage)’를 주요 전략으로 삼듯이, 같은 방식을 실천하는 무경계 프로젝트의 ‘예술 정치’ 역시 몽타주의 철학과 전략을 공유한다. 필자는 그것을 이전 글에서 ‘산포(散布)적 행동주의 미술’로 정의한 바 있다. 여기서 필자는 ‘산포’란 말을 같은 의미의 순우리말인 ‘흘뿌림’으로 교정한다. 단선적인 노마드적 행보, 산발적으로 등장하는 무작위적인 퍼포먼스, 특별한 주제 없이 벌어지는 난상 토론, 프로젝트 중간에 개입하는 예정되지 않는 일정, 전시와 프로젝트가 뒤섞이는 혼성의 프로그램, 특별한 중심과 경계가 없는 개방과 연합 등과 같은 양상이 바로 ‘흘뿌림’의 실천적 예라 할 것이다.

이 ‘흘뿌림의 행동주의 미술’은 1980년대 한국의 민중미술이 견지했던 걸개그림, 목판화, 회화 등에서 표현되었던 비판적 리얼리즘, 사회적 리얼리즘이 표방하는 ‘응집(凝集)적 행동주의’와는 사뭇 그 결이 다르다. 즉 하나의 목표와 하나의 이념과 같은 공유의 지점을 설정하는 일은 양자가 같을진대, 목표에 이르는 과정이 양자 간 확연히 다르다고 하겠다. 달리 말해 ‘민중미술’의 행동주의가 전복하고 혁파해야 할 대상을 늘 설정하는 경직된 실천인 것과 달리, 무경계 프로젝트에서는 전복할 대상이 특별히 없다. 다만 완수할 목표 설정과 그것에 이르는 자유로운 과정이 더욱 더 주요할 따름이다.

이러한 흘뿌림의 행동주의 미술의 특성은 3년간의 《예술정치-무경계 프로젝트》를 마감하는 세부 프로그램이었던 《DMZ 국제 예술정치 - 무경계 프로젝트 온새미로》(9~10월)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지역과 인종의 정체성을 달리하는 해외 작가들과 국내 작가들이 뒤섞이고 프레젠테이션, 퍼포먼스, 실내 전시, 야외 설치가 혼합된 채, ‘DMZ 캠프그리브스 워크숍’과 현장 답사 그리고 전시가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펼쳐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국제 프로젝트는 한편으로는 ‘연대, 공유, 동행’을 포함하는 ‘다쓰기’ 정신을 넉넉히 실천하고, 또 한편으로는 흘뿌림의 전략을 효율적으로 실천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것은 벤야민식으로 말하면 예술의 정치화를 실현하는 ‘몽

타주의 전략'이자, 우리의 논의대로 말하면 예술의 정치화를 실현하는 '흘 뿐 림의 행동주의 미술'이라 할 것이다. 그것은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는 노마디즘의 예술정치와 흘 뿐 림의 행동주의 미술을 실천한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보고전이 되는 전시를 실험공간 UZ, 예술공간 봄, 신풍초등학교 강당 그리고 야외의 공간들에 산포적 상태로 전시함으로써 '흘 뿐 림의 행동주의 미술'을 이념적, 실천적으로 극명하게 드러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V. 에필로그 – 대장정의 막을 내린 후

《예술정치-무경계 프로젝트》가 3년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관객은 모두 떠났다. 또한 느슨한 네트워크로 만났던 이 프로젝트 그룹 중 다수의 참여 작가들은 관객의 박수를 받으며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긍심을 품고 하나님 무대를 떠났다. 관건은 남겨진 이들이다. 연출자와 주요 배우 그리고 스텝이다.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더라도 그 정체성이 자명한 이 프로젝트의 중심인물인 기획자와 참여 작가들 몇 명은 고민할 것이다. 향후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긴 휴지기의 시간 동안 그들은 여전히 바쁠 것이다. 3년간의 프로젝트를 곱씹으며 자기 비판적인 성찰을 거듭할 것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의 미래적 계획을 입안해 나갈 것이다. 회한도 있겠고 논쟁도 있을 것이다. 관건이 있다면, 이들의 자발적 행동주의 미술을 지켜보는 관객의 기대를 과거 그대로의 모습으로 안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관객의 기대와 예측을 벗어나는 다음 단계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예술정치의 확장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물론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될지 필자는 가늠하기 쉽지 않다. 아마도 그것은 이 프로젝트의 출발 당시의 초심을 곱씹을 때 그 새로운 방향성이 구체화될 듯싶다.

당시 기획자의 발언을 보자: "경계가 지어진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다시금 우리 눈으로 직시하게 한다. 이에 '예술 정치'라는 화두를 바탕으로 지금 우리는 경계 안의 제한된 선택을 넘어 모든 경계들을 다시 인식하고자 한다. 그 경계를 걷어 낼 수 있는 정치적 방법 모색과 실천 행위를 자유롭게 실험, 연구하고, 예술을 넘어 다방면의 관점과 소통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는 전 세계의 미(예)술계가 노골적인 부패와 '투기'의 장이 되어 버린 형국에서 새로운 예술 실천 방안이기도 하다."

그렇다. '실험, 연구, 예술을 넘어 다방면의 관점과 소통'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이 프로젝트 그룹이 예술정치를 선언한 만큼, '무언가를 가져와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일련의 행위'로 번역되는 전유(appropriation)와 그것을 다시(re)라는 접두어로 접속시켜 원전의 의미를 재고(再考)하는 재전유(re-appropriation)의 방식을 곰곰이 성찰할 필요가 있겠다. 예술 정치란 '예술 활동을 도구로 일련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 그룹이 아무리 정치적 프로파간다(propaganda)와는 다른 지점에서 '예술 정치' 혹은 '예술의 정치화'를 작동시킨다고 할지라도, 이들의 예술 정치는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현실적 이상을 공유하면서 '당연히 그래야 할 실천'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재전유의 실천 방식을 면밀하게 연구하고 고민해야만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이 프로젝트 그룹만이 아니라 모든 문화 실천가들에게 요청되는 과제이기도 하다.

이제 '미완성 속에서 1단계 완성'의 열매를 거둔 《예술정치-무경계 프로젝트》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 남겨진 과제를 곰곰이 성찰하고 면밀하게 연구하면서 향후의 프로젝트를 준비해 나가길 기대한다. 서구의 오랜 구전(음기 8 : 7)이 이렇게 말했으니 힘을 내면서 말이다: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

The Practice of 'Dameugi' and 'Heutppulim' : The Project of 'Art Politics–Border Crossing' As A Practical Art

kim Sung-Ho (Art critic)

I. Prologue–Closing the Journey

Art Politics–Project Border Crossing marks the end of the three-year journey. The project finishes after the planned schedule this year, but it is not the end. This is because a long term project to lifte out all the barbed wire lines of the DMZ(Korean Demilitarized Zone), that is, the barbed wire between GyeonGgi–Do and GangWon–Do about 250 km from east to west in Korea. At the same time, it aims to build a large circular structure on the center point (GangWon–Do Cheol–Won Baegmagoji and Seung–Li observation area). In addition, the project is proposed to "wish the unification and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break down all the boundaries of our world and suggest a network for peace." Because "the goal is clear, but it is a ideal goal", the project targets 'unfinished' from its beginning. In this sense, the project has been foreseen that the project can be re–appeared at any time in the future, as shown the marked year preceded to each title in the project. In reality, this year is a deadline, but it is ideally "unfinished projects." Why did this project begin, how did this project go, and what are the future prospects of this project? This article explores the comprehensive meaning of this project in various ways.

II. Onsaemiro, Border Crossing and Art Politics

The Art Politics–Project Border Crossing is 'an eternal, unfinished long-term project' that aims for the ideal goal of 'unification and peace' after three years of practical achievement. Can not guarantee the time of inter–Korean unification and do not know the time of World peace! But it always exists as a sense because it is always the object of aspirations. At least inter–Korean unification may be accomplished and realized earlier than our predictions. Therefore, this is a project of "cooperation" in which artists who know that the effort to run for the ideal destination is worthwhile take their steps, and then hold each other's hands and push each other. The Art Politics–Project Border Crossing consisted of seven projects for three years. A number of projects were gathered under one name by marking the corresponding year such as 2017, 2018, 2019, and including the detailed exhibition name with hyphens. In addition, the names of the exhibitions have been renamed 'Onsaemiro' and 'DMZ International', so they have different names. However, the essence of these myriad exhibitions and art events is indicating only one purpose. The purpose is to realize the "Border Crossing through Art Politics." As the name suggests, the project focuses on three concepts: Art Politics, Border Crossing and Onsaemiro. I would like to look at this backwards in the order of 'Onsaemimi', 'Border Crossing' and 'Art Politics'. First, Onsaemiro! This is defined as 'premise of Premise reason' and 'primary reason for pre-boundary'. The pure Korean word 'Onsaemiro' means "do not cut, split, look as it is, as it is, always unchanged." In other words, 'Onsaemiro', which is a topic of "the Art Politics–Border Crossing Project", is a term and concept that recognizes the time and space of the divided and here and now. Specifically, Onsemiro compares the Kore-

an Peninsula divided into North and South, the divided left and right ideologies of south, and the separation of Korean people scattered around the world. At the same time, it assumes the time and space "before the boundary". In other words, they share the concept of "origin," which means "the beginning of things and condition."

Onsamiro seems to be synchronistic in that it assumes 'before the boundary', but it assumes 'space of origin' like Utopia, which is a space-time that deviates from the horizon of reality and the flow of history. This is ideological and essential.

Therefore, this Onsamiro can be defined as 'irreversible reason' to reestablish 'here and now' as borderless rather than 'reversible reason' to go back to the boundary.

Second, Border Crossing! This is defined as 'premise the boundary', that is, 'the reason at the boundary'. This concept directly asks where the situation of "building boundaries" in North and South comes from. This reminds right after the Korean War, the powerful empires like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reminded us of the situation of the underdeveloped nations, which had to passively accept "building boundaries." It is also a reminder of the situation at the time, such as the sea called Bal-Hae, where the spirit of Korean extended to Manchuria. In other words, it is the reasonable thought for restoring the lost land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land of polluted colonies, and the transformed and divided territory. In that sense, the concept of Border Crossing is historical.

In addition, this "Border Crossing" rejects any "building boundaries" that begins with dichotomous reasons. In other words, it calls for reason and practice to overcom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ideology and race, as well as global boundaries such as states and nation. As a result, a period is reflected throughout the concept of Border Crossing. Furthermore, it rejects all the reasons of sharing the subject and the other and confining the subject and the object in the structural frame in the space and time of 'here and now'. It also imagines a series of "free zones" that escape from it. At this level, the concept of Border Crossing, therefore, is also publically announced. As such, the concept of Border Crossing contains the past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who escaped from this boundary, presupposing the boundary, and simultaneously contains the present aspirations of humanity in 'here and now'. In other words, Border Crossing is a diachronic and public announced concept.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to present the world of the future that we dream of on the horizon of reality. It reveals a desire to achieve the realization of sequential routes, such as 'premise of boundary-crossing of boundary-sealing of boundary-breakout of boundary-borderless'. After all, the meaning of "borderless border" in "Border Crossing project" is to think of "freedom without boundary" above (or fringe) on the premise of "border here" in "here and now." In addition, it can be summed up as eager for "boundary crossing without boundaries" as a future vision.

Third, Art Politics! This is defined as 'behavioral premise', that is, 'practical art in the boundary'. As we have seen above that the equation of 'Onsaemiro = Border Crossing' is conceptually established, the equation of 'Border Crossing project = Art Politics' is sufficiently possible here. Also, if the concept of Onsaemiro and Border Crossing is to promote "thinking," the concept of Art Politics is to visualize "practice." In other words, they

are trying to practice "thinking for change or political aspiration for change" through art. Specifically, it is to carry out a series of artistic practices to fulfill the realistic goal of "removing barbed wire between the two Koreas and installing circular structures" while encompassing the ideal purpose of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and world peace." The art politics they aim at could be thought as a fundamentalist and naturalistic political art or activist art that seeks to regain the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rather than intending the combative practice of ideology. In other words, Art Politics can be summarized as practicing "behavioral art," which is guided by the grounds of fundamental and naturalist transformation of Onsaemiro and Border Crossing

III. The project of 'Art Politics–Border Crossing' as a practical art – The practice of 'Dameugi'

Was there an art politics doctrine for the 2017 project, the first year of 'Art Politics–Border Crossing' Project? The motto presented at the first year was 'solidarity, sharing, and accompaniment' because it pursued as fundamental and naturalistic art politics and practiced a form of loose activist art.

I will refer to these three 'non-programmed doctrines' as 'Dameugi' as like 'Onsemiro' in pure Korean. 'Dameugi' means 'be more, together'. This is very significant in this article in that it is a term that includes coexistence, symbiosis and communication as well as the above three concepts. That is because the 'Art Politics–Border Crossing' Project is a collection of various art events in various places under the name of Border Crossing Project.

"The Art Politics–Border Crossing Project" was held for three years in planning and solo exhibitions in the Indoor centered on the experimental space UZ, and the DMZ exploration of sub-Korean Peninsula, an open air program, and its installation and performance, and also "the DMZ International Art Politics–Project Border Crossing Onsaemiro" ran a borderless project consisting of a 'total of seven rounds'. As its name suggests, this project marks the first, second and seventh rounds, rather than the special divisions between group, individual and international exhibitions, so that all projects are gathered under the name of "Art Politics–Border Crossing Project."

"The Art Politics–Border Crossing Project" was expressed as 'Art Politics–Dameugi Border Crossing Project'. Beginning with six exhibitions of 2017 and the DMZ Gyeonggi-do area exploration, even in 2018 alone with a number of exhibitions and programs. Beginning '4th Border Crossing Project–Hand Drawing' Exhibition (March–April), 'Workshop' Exhibition(May), 'Border Crossing Project–69 New Media' Exhibition(June), 'Adaptive–Radiation' Exhibition(July), 'Seop-Kyung's Onsemiro' Exhibition(September), '5th Border Crossing Project–Onsaemiro' Exhibition(October), 'Meeting with Shinmangri'(October, Yeoncheon), "The Art Politics–Border Crossing Project" was prepared eight exhibitions including 'Wonyunghetong'(November, Daegu). And it also concluded a series of programs related to the DMZ exploration around Gangwon-do.

On the other hand, in 2019, 'Border Crossing 6th Exhibition', 'Onsaemiro–Shaking Eyes–JaeYeun Kim's Exhibition'(March), 'The Exhibition of Old History, SangGoSa–Above the Sky, Below the Sky, Above the Stars, Below the Stars '(April), The Exhibitions of 'Light Patterns–JiHyun Park'(May) and 'Onsaemiro–On the Boundary

Between House Universe–ChaeWon Hong'(June) were conductively held. In succession, the collaboration of SHUROOP and Nine Dragon Heads(NDH), ' DMZ International Art Politics–Border Crossing Project, Onsam–iro'(September–October) and 'Asura Fighting–SooJik Kim's Exhibition(Nov) were held. These all exhibitions was ended as the three–year projected programs.

The Art Politics–Border Crossing Project, which combines the above detailed exhibitions from the outset, is a realization of the spirit of 'Dameugi', which means "together together." It is a solo exhibition, a planning exhibition, a domestic exhibition and an international exhibition, a pluralist genre of painting, sculpture, installation, video, photography, and performance, and the 'Dameugi project', which combines art and non-art.

In addition to combining the processes of preparatory stages such as field trips and preliminary research to realize the final goal, the so–called 'DMZ barbed wire project,' it is also necessary to join and cooperate with other members of the group. This practices the spirit of 'Dameugi'. There are already dozens of series of activities to explore the DMZ spaces for the final achievement of the project. These activities accumulate various documentaries and artistic outputs. That is, an archive containing information on the history and social context related to the exploration space, photographs of the sites of the survey, interviews with local people, and performances and installations that are realized at the expedition's journey. The project progresses through the stages of reviewing and discussing these findings in the form of an exhibition.

Yes. Sharing, solidarity and accompaniment with team members, such as the spirit and practice of 'Dameugi', are necessary for field trips that take sequential steps of long breathing. Preliminary planning of the leading commander of the project, shared rol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open solidarity to encourage and accompany the participation of the project, a detailed record of the field to be explored, the practice of freely participating art, and the project's difficulties such as exhibitions and dwarfs commemorating the project after the discussion and exploration for improvement are all indispensable programs of the project.

IV. The project of 'Art Politics–Border Crossing' as a practical art – The Practice of 'Heutppulim' and politicization of art

The activist art of the Art Politics–Border Crossing Project embodies the spirit of 'Dameugi' and promotes networking of 'Heutppulim'. Let's take a look at it, what it is alongside with the concept of 'politicization of art'. First of all, as I mentioned in my last article on borderless projects in 2018, the term politicalization of art' originally came from Walter Benjamin. He devised this concept to counter Hitler's 'political aesthetics' of using art as an instigating tool for Nazism ideology.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Benjamin's 'the politicalization of art' is the realization of the art of 'non–Aura', not the Aura of art. Art of 'non–Aura'? It is all art that opposes "art for art" and "fine art that values the essence of art." In other words, the art of Aura opposes the instrumentalization of ideology like Nazism, and practice politics with the art of non–Aura. In other words, it is 'the politicalization of art'.

The same is also true of the arts in the Border Crossing Project. This project abandons the independent personal works of art of the members involved and practices politics through shared art. The aura formed by the world of works of individual artists is a disturbing factor as a group of 'art politics'. Benjamin saw this in

his thesis, "Art Work in the Age of Machine Cloning." In a time when multiple works of art are made possible through countless editions and reproductions, the works of art lose their auras. It changes from the ritual value of the work to the exhibition value. Benjamin argues that, in this change, the 'ritual futional' of art must be replaced by a 'political function'. In other words, his 'politicalization of art' is visualized as the 'political function' is revived in the place where the original 'ritual function' disappeared. This is Benjamin's 'Dialectical Shift (Dialektische Umschlag)'.

The Exhibit Art of Non–aura grows where the aura–filled ritual art, which served as a servant of the regime and ideology, disappeared. Just as Benjamin found the possibility of the public's political practice of transforming the real world in replicating art such as photographs and video images, the 'Border Crossing project' also recorded the process of the project in photographs and videos through several field trips to practice the possibilities.

Of course not only that is all. 'The art that Aura was stripped of' is based on Benjamin's politicization of art as a major strategy through the media 'montage of time and space.' The 'Art Politics' of the border crossing project, which does the same, also shares montage philosophy and strategy. I defined it as 'distributive or scattered activist art' in a previous article. Here I am correcting the word 'distributive or scattered activist art' with the word 'Heutppulim', a pure Korean word with the same meaning. Unilateral nomadic behavior, sporadic random performances, random discussions without special themes, unscheduled schedules to intervene in the middle of the project, hybrid programs that mix exhibitions and projects, openness without special centers and boundaries, such a pattern as unity may be a practical example of 'Heutppulim'.

This 'The activist art of Heutppulim' is very different from the 'aggregative activism' that is expressed by critical and social realism expressed in hanging paintings, woodcuts, and paintings that Korean people's art in the 1980s held. different. This means that setting a point of sharing like a macroscopic goal and an ideology is the same, but the process of reaching the goal is quite different between the two. In other words, setting sharing points such as macroscopic goals and ideologies is the same. In other words, unlike the activism of MinJung–art, which is a rigid practice that always sets the object to be subverted and revolutionized, there is nothing to subvert in the Boder Crossing project. However, setting goals to be accomplished and the free process leading up to them are even more important in the Boder Crossing project.

This characteristic of the activist art of 'Heutppulim' was evident in the exhibition (September–October) of 'DMZ International Art Politics–Border Crossing Project, Onsaemiro', which was a detailed program that closes the three–year 'Art Politics–Border Crossing' project. Overseas and Korean artists with different regional and ethnic identities were mixed and mixed with presentations, performances, indoor exhibitions and outdoor installations. In addition, the 'DMZ Camp Greaves Workshop', field trips and exhibitions were held simultaneously. Therefore, the international project can be said to have effectively practiced the spirit of 'Dameugi', which includes solidarity, sharing, and accompaniment on the one hand, and effective strategy of 'Heutppulim' on the other. It is a 'montage strategy' that realizes the politicization of art in Benjamin, and 'activist art of Heutppulim' that, as we argue, realizes the politicalization of art. It practices the art politics of nomadism and the activist art of Heutppulim that travels around the region. Finally, the result of the exhibition was displayed in a scattered

places in the Experimental Space UZ, Art Space-Bom, ShinPung Elementary School auditorium and outdoor spaces. This can be assessed as the ideological and practical manifestation of 'the activist art of Heutppulim.

V. Epilogue—after closing the journey

"The Art Politics-Border Crossing Project" ended after a three-year campaign. All the audience left. In addition, many of the participating artists in the project group, who met with a loose network, left the stage one by one with applause from the audience, proud of their role. This is director, main actor and staff. Even if you don't specify who you are, some of the organizers and participating artists who are the main characters of this project will worry. They will still be busy during the long idle periods of how to develop future projects. He will multiply his three-year project and reflect on his self-critical reflection, drawing on the next stage of future planning. There will be regret and controversy. The key issue is that it is impossible to carry the audience's expectations of their voluntary activist art as it was. The necessity for the expansion of art politics is raised through the next stage of the project, which deviates from the audience's expectations and predictions. It is not easy to estimate how it will develop. Perhaps it is the new direction that comes to mind when carefully checks out the beginning of the project.

Here's what the planner said at that time: "It makes us look again at the reality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ere the boundary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topic of 'Art Politics', we now want to recognize all boundaries again beyond the limited choices within them. We feel the need of free to experiment and study political methods to remove the boundaries and to practice them, and to communicate with various perspectives beyond art. It is also a new way of practicing art in a world where the world of art has become a place of blatant corruption and 'speculation'."

Yes. It will be necessary to "view and communicate in various ways beyond experiment, research, and art." In addition, as the project group declared art politics,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meaning of appropriation translated as 'a series of actions to bring something and make it its own'. And also it needs to reflect appropriation again as a method of prefixed 're', re-appropriation. This is because art politics is 'acquiring, maintaining and exercising a series of powers through the use of art activities'. No matter how political propaganda is at work in this project group, 'art politics' or 'politicization art' will have to be carefully studied and considered as a method of practical re-appropriation. This is because their art politics seeks to "do what they should do" while sharing the "ideal" realities. This is, of course, a requested assignment not only for this project group but for all cultural practitioners. Now, the future of the Art Politics-Border Crossing Project, which has yielded as a fruit of "Complete Phase One in Unfinished," is still bright. I look forward to reflecting on the remaining tasks and studying them carefully to prepare for future projects.

In the old Western Bible(Job 8: 7), the verse mentions encouragement: "Your beginnings are weak, but yours will be great." ●

2019 예술정치 – 무경계 프로젝트 2019 Art Politics – Project Border Crossing

CONTENTS

02 | 인사말

04 | 취지

08 | 서문

실험공간UZ 무경계 프로젝트 6차전

22 | 온새미로-흔들리는 눈동자

24 | 상고사(上古史)

48 | 빛무늬-即

50 | 집宇집宙-경계에서

52 | 중구난방-衆口難防

54 | 2019 초 | 유의 ㅂ ㅏ ㅇ__비.워.내.기

실험공간UZ 무경계 프로젝트 7차전

58 | DMZ 국제 예술정치 – 무경계 프로젝트 온새미로

288 | 『阿修羅판』ASURA Fighting

290 | UZ 극장전

292 | 예술정치 무경계 프로젝트 3년 총평

306 | 서울산책

03 | Greeting

06 | Purpose

13 | Foreword

Project Border Crossing_6th Exhibition

22 | Onsaemiro – Shaking Eyes

24 | The Ancient History

48 | Enowing

50 | On the Border – Home & Cosmos

54 | A Healing Room__Ca.tha.r.A Healing Room

Project Border Crossing_7th Exhibition

58 | 2019 DMZ International Art Politics–Project Border Crossing ONSAEMIRO

288 | ASURA Fighting

290 | UZ Theater

292 | Art Politics – Project Border Crossing 3 years Review

306 | Walking in Seoul

무경계 프로젝트 6차전 Project Border Crossing_6th Exhibition

온새미로-흔들리는 눈동자 – 김재연 / 03.02~03.31

상고사(上古史) / 04.06~04.28

하늘이 위에, 하늘이 밑에 / 별들이 위에, 별들이 밑에

빛무늬-卽 – 박지현 / 05.04~05.26

집우집宙-경계에서 – 홍채원 / 06.01~06.30

중구난방-衆口難防 / 07.06~07.28

2019 치유의 △ ⊖ ○ __ 비.월.내.기 – 최세경 / 08.24~09.08

Project Border Crossing_6th Exhibition

Onsaemiro – Shaking Eyes – Kim Jae Yeun / 03.02~03.31

The Ancient History / 04.06~0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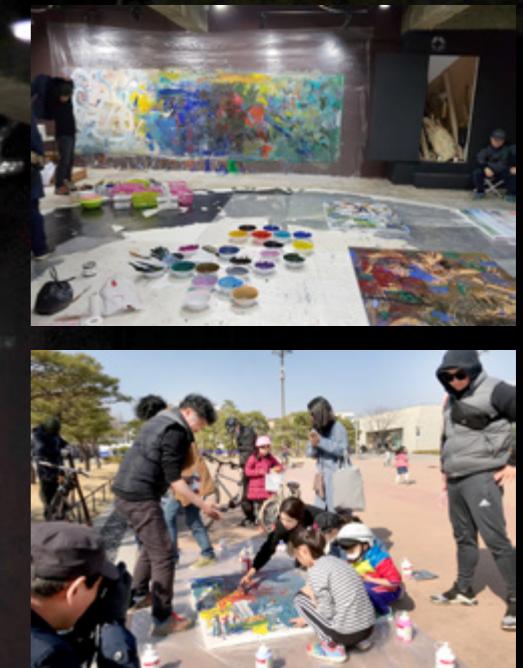
Enowing – Park Ji Hyun / 05.04~05.26

On the Border – Home & Cosmos – Hong Chae Won / 06.01~06.30

A Healing Room – Ca.itha.r.A Healing Room – Choi Se Kyung / 08.24~09.08

온새미로–흔들리는 눈동자 Onsaemiro – Shaking Eyes

김재연 Kim Jae Yeun
2019.03.02(Sat) – 03.31(Sun)



감각과 물성이 만들어 낸 미적 정신세계. 2019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 자체가 자연이 되고 싶고 그 결과물로서 작품은 (냉혹한 자연이라도)자연스럽게 보였으면 한다”.

The aesthetically spiritualized world created by sensual approach and property of matter 2019 "I want all the activities that take place in the field to be natural. This attitude leads my works to be regarded as natural themselves even if the result is harsh nature."

상고사 上古史 展

The Ancient History

하늘이 위에, 하늘이 밑에
별들이 위에, 별들이 밑에

2019.04.06(Sat) – 04.28(Sun)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흘러 다니는 모래 위 고래가 노래하듯, 가라앉은 바다의 표범이
여슬렁 거리듯, 생명과 물질이 만나는 어떤 곳에서도 고요함은 없다. 침묵하는 박물관의
잃어버린 세계는 역사 앞에 수수께끼이고, 이를 없는 지도이며, 무의식의 성스러움이다.
오늘도 순환하는 원의 손과 밟은 사라진 세계의 대지를 소풍한다.

Sky Above , Sky Below
Stars On The Top, Stars On The Bottom

There is nothing that does not change,
Like a whale singing in the flowing sand,
Like a leopard roaring around the sinking sea,
There is no silence anywhere where life and matter meet.
The lost world of a silent museum is a riddle before history, a map without names,
and a sacred unconsciousness
Circular hands and feet circulate today, picnicking the land of the lost world.

글 김수철, 영문번역 홍영숙.



강민정 김결수

김성배 김수직

김수철 김준호

남기성 손채수

심홍재 윤경희

이윤숙 차진환

최세경 최향자

한영숙 흥영숙

홍채원 황옥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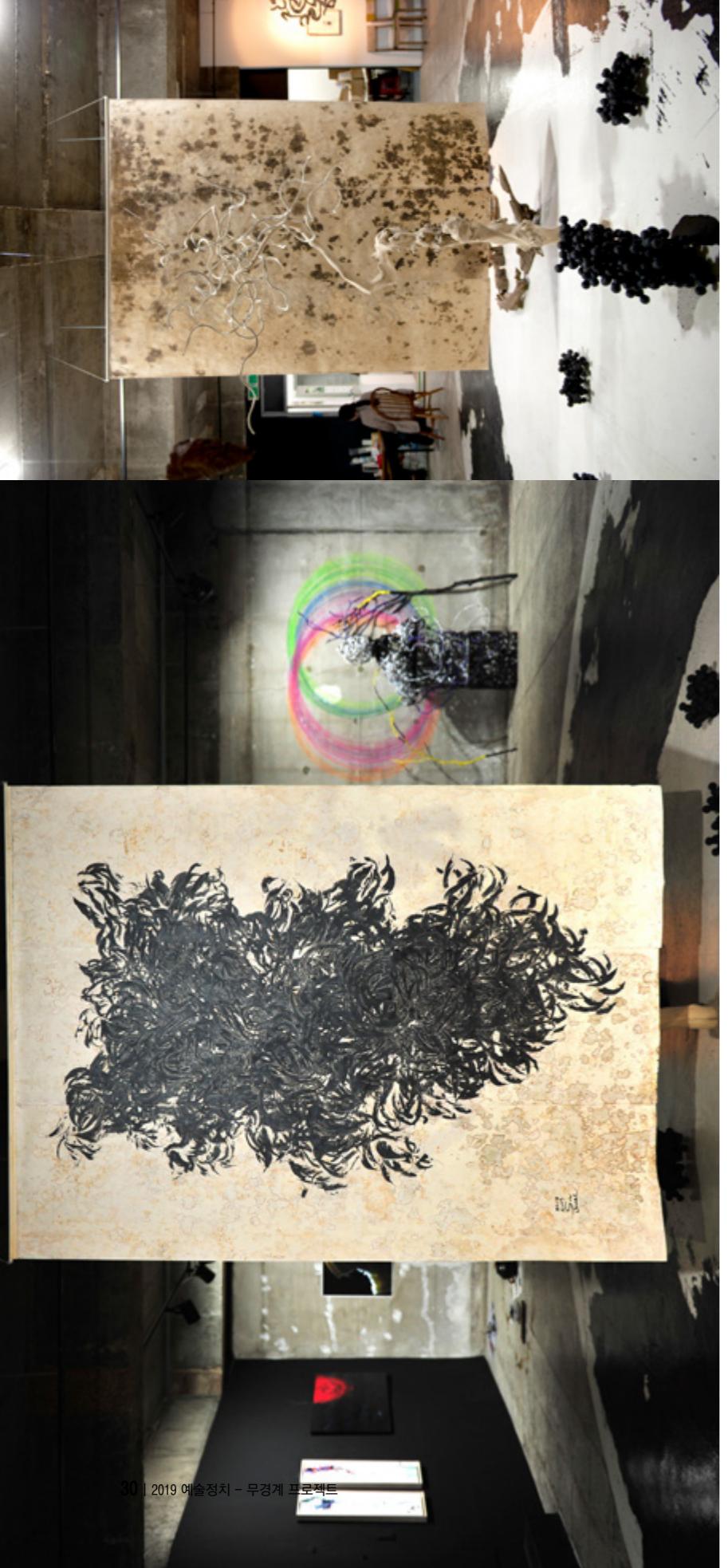


김성배 KIM SUNG BAE



김수직 KIM SU J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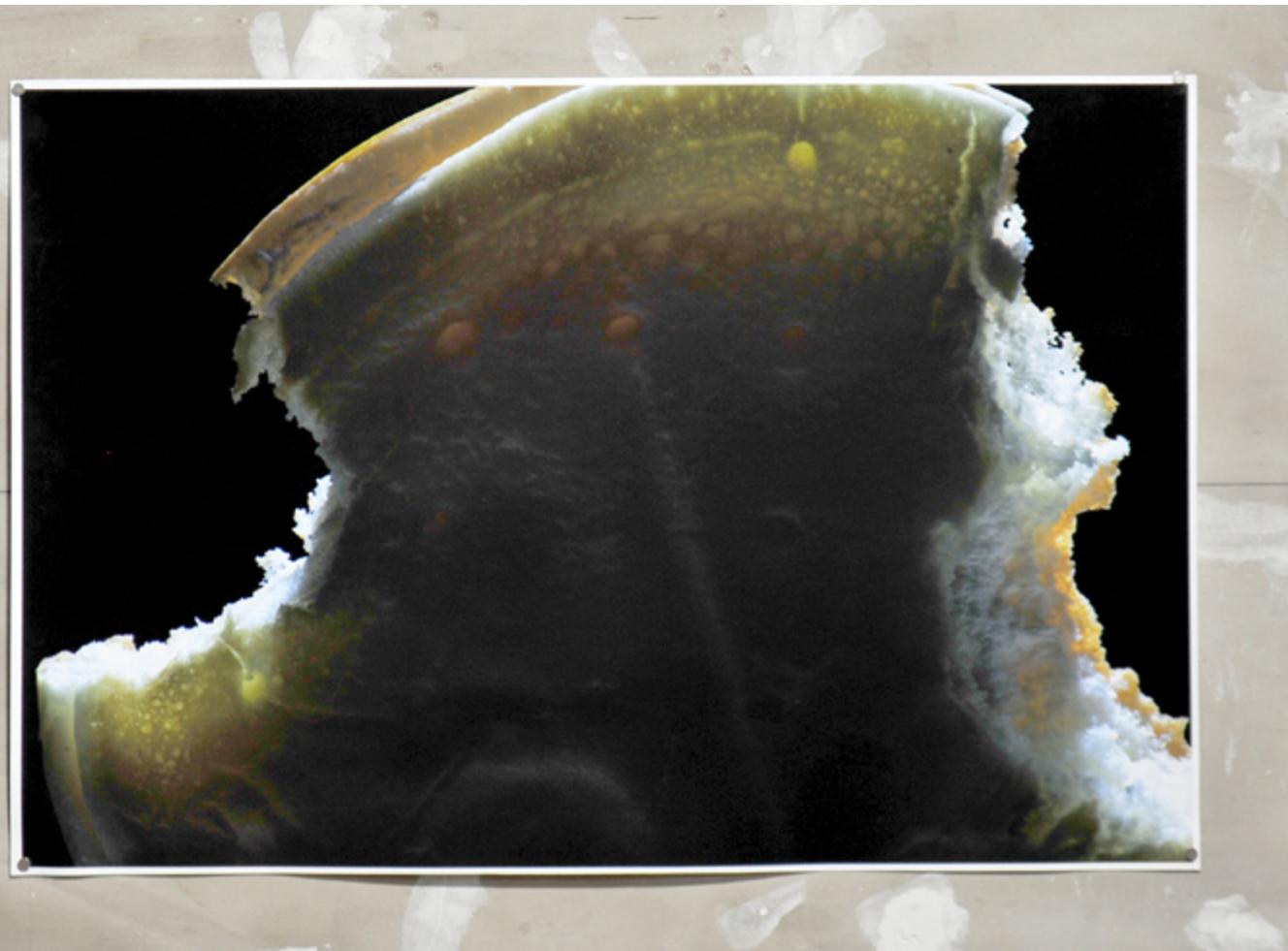


김수철 KIM SU CHEOL



김준호 KIM JUN 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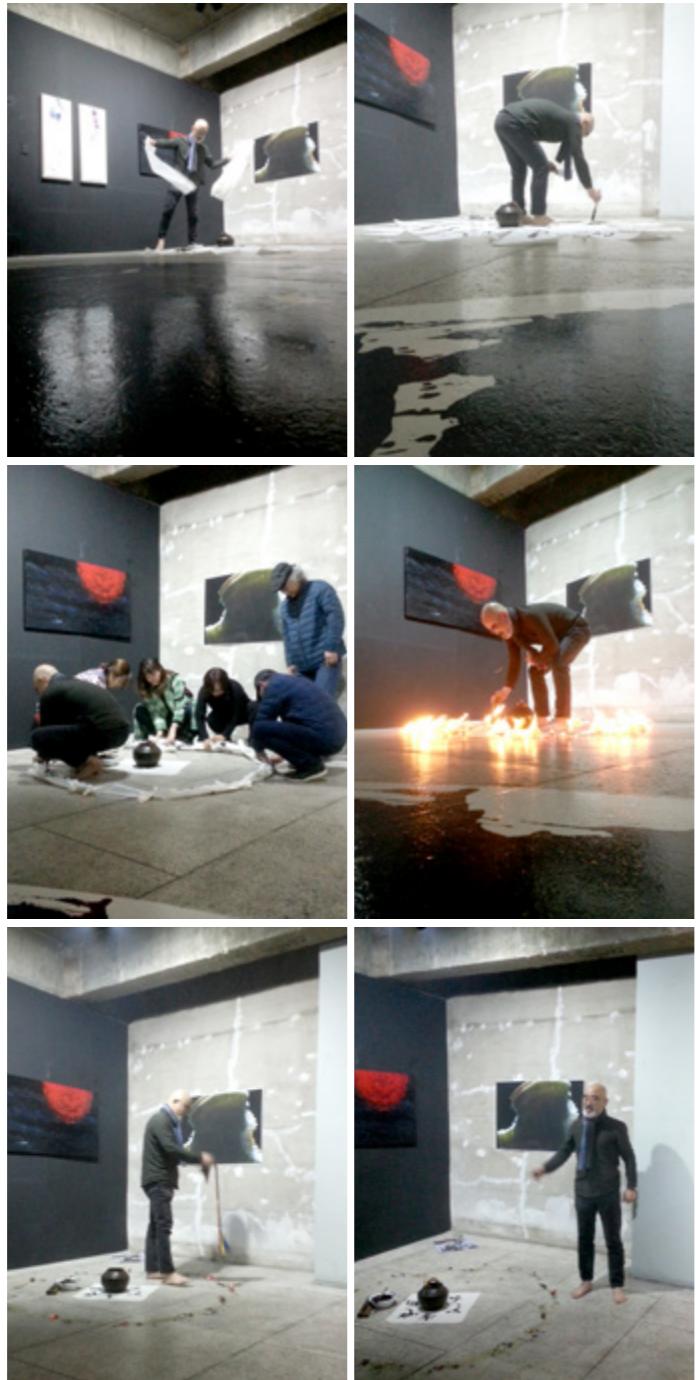
남기성 NAM GI SUNG



손채수 SHON CHAE SOO



심홍재 SHIM HONG JAE



윤경희 YOON KYUNG HEE



이윤숙 LEE YOUN SOOK



차진환 CHA JIN HWAN



최세경 CHOI SE KYUNG



최향자 CHOI HYANG J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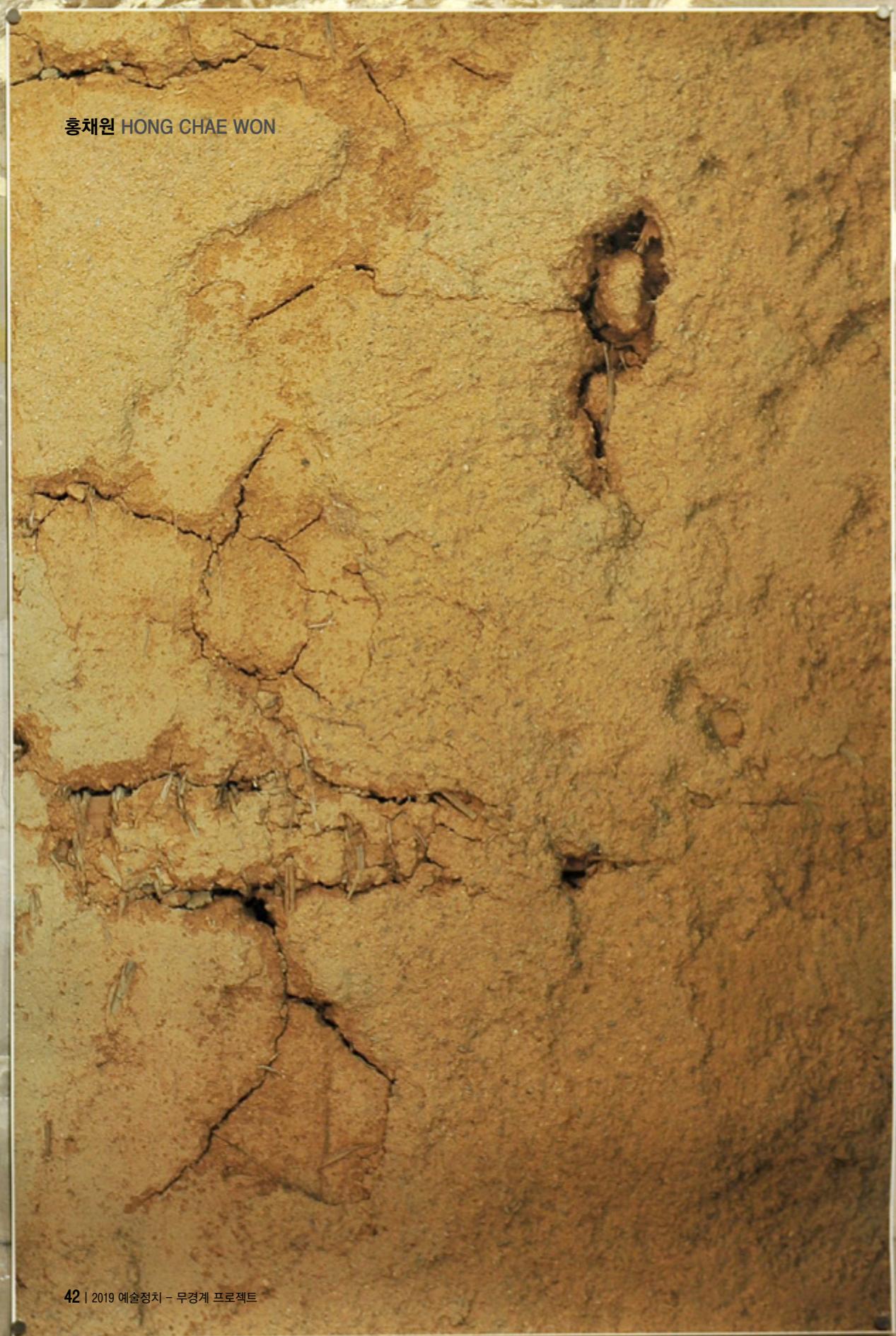


한영숙 HAN YOUNG SOOK



홍영숙 HONG YOUNG SOOK





상고사展 작가노트 및 캡션

김결수 KIM GYUL SOO

Labor&Effectiveness, 신문 두꺼비집 누전자단기, 32×47×7cm, 2019

삶의 현장에서 버려진 잔해를 통해 노동 - 효과를 발견하는 것이다. 노동효과를 발견하기 위해 전제된 오브제의 조건은 인간에 의해 오랜 세월 사용되고 현대디자인과 기능의 발달로 인해 터부시되고 버려지는 내용물들이 작업 대상이 된다. 삶의 뒤 안에서 발견된 낡은 오브제는 노동효과에 대한 흔적 찾기인 동시에 긴 시간 반복되었을 노동 가치에 대한 질문이다. 노동효과가 화려한 도시의 외관이라면, 그 가치에 대한 질문은 화려한 외관에 가려진 노동의 그림자 일 것이다.

It is to find labor-effectiveness through objects that are discarded in the field of life. The condition of the object presupposed to discover the labor effect is used by humans for a long time, and the contents that are bursted and discarded due to the development of modern design and function become the object of work. The old objects found in the back of life are not only traces of labor effects, but also questions of labor values that will be repeated for a long time. If the labor effect is the appearance of a splendid city, the question of its value would be the shadow of the work hidden in the splendid appearance.

김성배 KIM SUNG BAE

‘삼족오-온새미로’, 그림&설치 혼합재료, 260×194×60cm, 2019

‘SamjokO(Three Legs Bird)-OnsaemirO’, Painting&Installation by mixed media

김수직 SUJIC KIM

『CHAOS 混沌 상고사 격동』 Video 1분11초 20190406

上古史의 역사적 의의는 매우 훈란스럽다.

격동, 평온의 관점을 통해 혼돈의 상고사를 표현함.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上古史 is very confusing.

Expressing the upper case of Chaos through a turbulent, even-tempered perspective.

김수철 KIM SU CHEOL

하늘이 위에 하늘이 밑에, 별들이 위에 별들이 밑에. 가변설치. 낡은벽지, 흑연, 나무, 혼합재료, 2019.

Sky Above, Sky Below. Stars on the top, stars on the bottom. Variable installation. Old wallpaper, graphite, wood, mixed materials, 2019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흘러 다니는 모래 위 고래가 노래하듯,

가라앉은 바다 위 표범이 어슬렁거리듯,

생명과 물질이 만나는 어떤 곳에서도 고요함은 없다.

침묵하는 박물관의 잃어버린 세계는 역사 앞에 수수께끼이고,

이름 없는 지도이며, 무의식의 성스러움이다.

오늘도 순환하는 원의 손과 발은 사라진 세계의 대지를 소풍한다.

There is nothing that does not change,

Like a whale singing in the flowing sand,

Like a leopard roaming around the sinking sea,

There is no silence anywhere where life and matter meet.

The lost world of a silent museum is a riddle before history, a map without names, and a sacred unconsciousness

Circular hands and feet circulate today, picnicking the land of the lost world.

김준호 KIM JUN HO

〈화분 고인돌〉, 종이에 잉크 펜, 36×26cm, 2019 / 〈flowerpot dolmen〉, ink pen on paper, 36×26cm, 2019

남기성 NAM GI SUNG

이빨자국Series – 크림빵. 2019 / Tooth Marks Series–Cream bread. 2019

70만년전 상원군 흑우리 검은모루동굴에서 주먹도끼를 손에 움켜쥐고 사냥감을 기다렸던 구석기인을 상상해 본다.

굶주림이 일상처럼 길어지던 어느 추운 겨울날, 가장으로 가슴 한구석이 시렸을 것이다. 그때부터 굶주림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기억되었을 것이다.

그 굶주림에 대한 원초적인 불안함은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를 거쳐 내게로 이어져 왔다.

지금도 어느 겨울날 이상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면 가슴한구석이 저려온다.

초등학교시절의 크림빵은 모든 걱정을 잊게 해주는 달콤함과 즐거움 그 자체였다. 50년이 지나 그 시절을 생각하며 크림빵을 먹어본다.

Imagine a Paleolithic man holding a fist axe in his hand and waiting for a hunt in the Black Arrow Cave of the Sangwongun Heukuri, 700,000 years ago.

On a cold winter day when hunger was growing longer than usual, it would have been heartbreaking. From then on, hunger would have been remembered for anxiety and nervousness.

The primal uneasiness of the hunger has led to me through my father's father.

Even now, when a strange wind passes through one winter day, my heart is broken.

The cream bread in elementary school was sweet and joyful, forcing us to forget all our worries. Fifty years later, I try to eat cream bread thinking about those days

손채수 SHON CHA SOO

서천 꽃밭을 날고있는 농사와 약초의 신, 신농(神農), 2019년 作 150×270cm

The god of grain and herbs, Shin-Nong

한겨레는 9천년 동안 농사와 약초의 신으로 신농을 밭들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신농이 뚜렷이 그려져 있다. 서천 꽃밭은 바리데기 무가에 나오는 약초 꽃밭이다.

나는 서천 꽃밭을 날고 있는 신농을 내 식으로 형상화하여 그를 기리고자 하였다.

The Korean people served ShinNong (the god of grain and herbs) for 9,000 years. The Goguryeo mural painting clearly depicts Shin-Nong. Seocheon Flower garden is a herb flower garden that is located at the Barydegi Mudeae. I tried to honor ShinNong with my own style.

윤경희 YOON KYUNG HEE

ComforTable, 53×75cm Oil on Canvass, 2018

빛이 사라진 대상, 흐트려진 기하학적 가구와 배경은 일상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화면에서의 강제결합방식에 도달하게 만들었다. 미적형식의 원리의 측면이라는 점에서 전체적 구성 속에 발현되는 구성의 형태들이 개별적 요소의 특성을 넘어서서 표출하려는 의도와의 좋은 통합을 이루어내고 있다.

The objects that have disappeared, the blurred geometric furniture and the background have reached the forced combination on the screen through the use of everyday images.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aesthetic form, the forms of composition expressed in the overall composition are well integrated with the intention to express beyond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elements.

이윤숙 LEE YOUN SOOK

상고사,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9

최세경 CHOI SE KYUNG

인간의 삶은 시대를 막론하고 유사한 점이 있다. 먹고 사는 것에 급급했던 시절이나 의식주의 원초적 본능이외의 정신적 해갈을 원하는 지금의 복잡한 시절에도 유사한 지점이 많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다. 인간은 군집을 이루며 살아간다.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 초록의 대지와 로드(길)로서 삶의 흔적을 표현하고 인간의 형태를 군상으로 레이어 한다. 군상의 모습으로 발현되는 인물들의 뒤엉킨 상태는 '관계(relationship)'를 보여주는 상징 언어이다. 반복은 상징화의 첫 번째 움직임이다. 세상 밖에서 펼쳐지는 현상과 관계들에서 작동되는 측면들이 인물의 뒤엉킨 모습으로 발현 되어 있다. 여기서의 군상표현은 좀 더 꾸밈이나 정교함을 배제하고 드리핑의 느낌으로 빠르게 드로잉 하였다. 뒤엉켜 있는 인물군상의 상징성은 단순화된 라인과 흰색으로 구성되어지며, 삶을 이야기 한다.

There is commonality on human lives through all times. Even between a period of safe full filling on basic needs (food, clothing and shelter) and also a period of full filling psychological needs has lots of commonality on human lives. A human cannot live alone. Human beings are social animals that need to be gathered. Let's think in human centered world. In the artwork 'Life', it has expressed life tracing with the green earth and roads and layered figure group painting of human forms. Revealed as figure grouped figures are a symbolic language to present tangled relationship. Repetition is the first step of symbolizing. Things being presented out in the world phenomenon and between relations are revealed as tangled figures (figure group). Figure group painting took quick dripping drawing method as eliminating decorative detailed expressions. Symbol of tangled group figures are composed with simple white lines that talks about a life.

최향자 CHOI HYANG JA

캔버스위에서 물감들이 서로 섞이며 자연 발생되는 이미지를 연출한 것은 세상은 논리만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는 신비로운 힘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의도 하지 않았지만

그리될 수밖에 없음이랄까요

자연 발생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오방색을 사용하여 마무리를 지은 작품을 통해 작가는

모든 일의 결과는 물론 하늘의 뜻에 맡기지만,

고전을 빌자면 만물이 음양의 작용으로 오행(목화수금토)이 생기고 펼쳐지듯

작가 또한 그리 살아가고자 원을 세우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주어진 현실에서 행복한 오늘을 만들어내는 것 내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I intended to express that the world operates by the principle of mysterious forces that can't be explained logically through depicting naturally entangled images of pigments. I never intended to create them, yet they were destined to be so.

By adding Obangsaek(Traditional Five Primary Color) on top of naturally generated images, I tried to express my way of living just as the world is nothing but interaction of five elements(Wood, Fire, Water, Metal and Earth) within the frame work of Yin-Yang. It is me who can create the happiness as of now within the given reality.

한영숙 HAN YOUNG SOOK

PAST TIME, MIXED MEDIA, VARIABLE INSTALLATION, 2019

홍영숙 HONG YOUNG SOOK

From Long Times Ago.., / app. 150×100cm, Tempera & Mixed Medium on Cotten Clothed Panel, 2019

오랜 시간을 축적해온 우리 문화의 이미지를 찾아 형상과 색체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I tried to express the image of our culture that has been accumulated for a long time with shapes and colors.

홍채원 HONG CHAE WON

흙의 기억(Cycle of earth)-Inkjet print-2019

흙은 모든 것의 영원한 생명적 근원으로

모든 것은 흙으로 태어나 그곳을 돌아간다.

Earth

Earth is the eternity root of life of all things, all things come from earth and return to earth.

빛무늬-卽
Enowing

박지현 Park Ji Hyun
2019.05.04(Sat) – 05.26(Sun)

서로가 주체로서 서로가 一體로서 관계하고 있는 '卽'. 그 의미의 實相은 정작 이 '卽'이라는 오묘하고도 현묘한 사이에서 거대한 無始無終의 관계를 이루며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글과 말로는 담을 수 없는 무한한 관계를 열어주고 보여주는 '發現場'으로서 말이다. 발현은 관계를 통해 의미를 드러내 주고 보여줌과 동시에 그 관계의 사이로, 즉 의미의 본질 속으로 사라지기(들어가기) 때문이다. 현상을 날고 빛 속으로 사라지듯이.

'卽' in which one is involved as a principal and one as an integral part. Maybe the reality of the meaning is that it happens in a huge relationship between '卽' which is profound and mysterious. As 'a launching point', it opens an infinite relationship that cannot be contained in words. This is because the manifestation reveals and shows the meaning through a relationship, and disappears in between the relationships into the essence of meaning, at the same time. Like it creates a phenomenon and disappears into the light.

집 宇 집 宙 – 경계에서
On the Border – Home & Cosmos

홍채원 Hong Chae Won
2019.06.01(Sat) – 06.30(Sun)



찬란히 빛나던 한때,
그 속에 사라지는 사물 깊숙이 퇴적되어온 시간들의
긴 그림자는 곧 겹의 의미이며, 진실로 아름다운 것은 소유 할 수 없다

"일상 가까이 일상 깊게
우주 가까이 우주 깊게"

It looks like a gorgeous one has a long shadow of time.
Things are disappearing,
but multi-dimensionally folded meanings accumulate.
They indicate that can not really possess beautiful things.

"Closer & deeper into Everyday life.
Closer & deeper into Cosmos"

슈룹/파사 협업 프로젝트

SHUROOP & PASA Collaboration Project

‘중구난방-衆口難防’

2019.07.06(Sat) – 07.28(Sun)

설치일정

07월 03일 : 이동선 이미경 이병호

07월 04일 : 김희곤

07월 10일 : 김경수 오철민 류엘리

07월 13일 : 김수직

07월 14일 : 강민정 한영숙

07월 27일 : 이지승 지박 흥채원

7월 한달동안 UZ에서 슈룹과 파사 두 그룹에서 각 6명씩 작가들이 협업하여 순차적으로 설치전시하며 지박 음악가는 협연을 한다.

주제는 미래의 예술을 생각한다는 취지에서 "뇌(brain)"로 하며 각자의 의도대로 자유롭게 설치하면서 전체를 완성해 간다는 취지에서 소제목을 "중구난방"으로 한다.



2019 8 월 24 일 ~ 9 월 8 일

A Healing Room_Ca.thar.A Healing Room

2019.08.24(Sat) ~ 09.08(Sun)



자기자신 안으로 걸어 들어가듯 내적공간으로 몰입하여 들어간다. 나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안으로의 몰입은 나를 더 생각하게 하고 또, 나를 잊게 한다. 조용하고 익숙한 그곳은 좀더 안정적이며 심층적이다. 진정한 몰입은 하늘을 날아가는 자유로운 느낌이다.

Immerse in a deep inner mind as if walking into the inside of oneself. Be immersed in one's mind as thinking about oneself deeply makes one to think more about self and allow one to forget about self. It is a calm and familiar stage, which feels more stable and in-depth. When true immersing happens, we can feel the freedom of playing in the sky.

이 방은 잠시 머물다 나가버리는 공간이 아니다. 이 공간에서 일정한 시간을 머물며 최대한 느끼고, 생각하고, 해소하며, 치유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는 것이다. 치유의 방은 어둠의 공간과 색채로 된 빛의 공간으로 형성되어 있다. 어둑한 공간에서 집중하고 내면으로 들어가다 보면 정신이 맑아지고, 편안한 몰입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공간에는 수많은 원들의 흔적들을 만들며 작품 제작에 몰두하던 작가의 열정과 시간이 머물러 있다. 작가의 행위와 사유가 녹아 든 공간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경험하길 바란다. 잔잔하지만 울림이 있는 공간안에 있다 보면 스스로 내면의 움직임을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The Healing Room is not suitable for quick stopping by experience. The room is to provide good amount of time to feel, think, relieve and heal as much as one want to stay in the room. The room is composed with two spaces: dark space and colorful light space. When one concentrate in the dark space, one can experience mind getting cleared and feel comfort as being immerse in inner mind. In the colorful light space, the artist's immersion on passion and time of effort on creating tons of tracing circle marks and works are remained in the room. In the space of behavior and mind of the artist immersed in the room, the artist wishes one to be able to get a chance to experience being one the room. Being in gentle echoing space, it will allow one to experience sensing movements on one's inner mind.



무경계 프로젝트 7차전

Project Border Crossing_7th Exhibition

DMZ 국제 예술정치 – 무경계 프로젝트 온새미로 / 09.21~10.06

『阿修羅판』 ASURA Fighting – 김수직 / 11.02~11.30

UZ극장전 – 이지승, 김수철, 백성준 / 12.07~12.28

2019 DMZ International Art Politics–Project Border Crossing ONSAEMIRO / 09.21~10.06

『阿修羅판』 ASURA Fighting – Kim Su Jic / 11.02~11.30

UZ극장전 – Lee Ji Song, Kim Su Cheol, Baek Sseong Jun / 12.07~12.28

2019 DMZ 국제 예술정치-무경계 프로젝트 온새미로

2019 DMZ International Art Politics-Project Border Crossing ONSAEMIRO

감독 | Director

김성배 Kim Sung Bae(ShurooP), 박병욱 Park Byoung Uk (Nine Dragon Heads)

운영위원장 | Head of Operation

이지송 Lee Ji Song, 이윤숙 Lee Youn Sook

대외협력 | International Relation

이정태 Lee Jung Tae

큐레이터 | Curator

김수철 Kim Su Cheol, Magda Guruli 마그다 구를리

코디네이터 | Coordinator

홍채원 Hong Chae Won, 최세경 Choi Se Kyung

Ali Bramwell 알리 브램웰, Gabriel Adams 가브리엘 아담스, Goo So Young 구소영

참여작가 / Participating LIST

강민정 Kang Min Jung | 김결수 Kim Gyul Soo | 김성배 Kim Sung Bae | 김수직 Kim Su Jic | 김수철 Kim Su Cheol | 김이선 Kim Yi Sun
김준호 Kim Jun Ho | 김희곤 Kim Hee Gon | 남기성 Nam Gi Sung | 도병훈 Do Byung Hoon | 박지현 Park Ji Hyun | 손채수 Shon Chae Soo
신희섭 Shin Hee Seop | 심홍재 Shim Hong Jae | 염유진 Youn Yoo Jin | 온 주 On Zoo | 이강미 Lee Kang Mi | 이건용 Lee Gun Yong
이수연 Lee Soo Yeon | 이윤숙 Lee Youn Sook | 이지송 Lee Ji Song | 이정태 Lee Jung Tae | 임승오 Lim Seung O | 지 박 Ji Park
차기율 Cha Ki Youl | 최세경 Choi Se Kyung | 최향자 Choi Hyang Ja | 한영숙 Han Young Sook | 허미영 Huh Mi Young
홍영숙 Hong Young Sook | 홍채원 Hong Chae Won

Alois Schild (AT) 알로이스 쉴드 | Ali Bramwell (NZ) 알리 브램웰 | Christophe Doucet (FR) 크리스토프 듀查看更多

Daniela de Maddalena (CH) 다니엘라 디 막달레나 | Denizhan Ozer (TK) 데니잔 오저르

Enrique Munoz Garcia (CH) 엔리케 무노즈 가르시아 | Gabriel Adams (USA) 가브리엘 아담스

Gordana Andjelic (HR) 고르다나 안젤리치 | Harold de Bree (NL) 하를드 드 브레

Hannes Egger (IIT) 하네스 에거 | Ibrahim Spahic (B&H) 이브라힘 스파이치 | Iliko Zautashvili (GE) 일리코 자우타쉬빌리

Jacob Borden (USA) 야곱 보던 | Jayne Dyer (AU) 제인 다이어 | Jessy Rahman (SR) 제시 라흐만

Josephine Turalba (PH) 조세핀 투랄바 | Kitazawa Kazunori (JP) 키타자와 카즈노리 | Magda Guruli (GE) 마그다 구를리

Martin R. Wohlwend (LI) 마틴 홀웬드 | Moon Sang Wook (KR) 문상욱 | Nandin Erdene Budzagd (MO) 난딘 에르딘 부드자그드

Oona Hyland (IR) 우나 하이랜드 | Paul Donker Duyvis (NL) 폴 던커 더비스 | Park Byoung Uk (KR) 박병욱

Pieterje van Splunter (NL) 피터제 반 스푸른터 | Susanne Muller & Fred Luedi (CH) 수잔 뮬러&프레드 루이드

Yoko Kajio & Jason Hawkes (AU) 요코 카지오&제이슨 | Duo A&U (KRI) 듀오 A&U

컨퍼런스 패널 / Conference Panel

김종길 Kim Jong-gil | 도병훈 Do Byung Hoon | 함돈균 Ham Don Kyun

Ibrahim Spahic (B&H) 이브라힘 스파이치 | Magda Guruli (GE) 마그다 구를리

WORKSHOP

SURVEY

EXHIBITION

CONFERENCE

PERFORMANCE

INSTALLATION

PRESENTATION

2019 DMZ 국제 예술정치 - 무경계 프로젝트 온새미로

2019 DMZ International Art Politics - Project Border Crossing ONSAEMIRO

2019. 9.21 - 10.06

09.29 (SUN 2~6PM)
Opening Conference & Performance

Organization



Nine
Dragon
Heads

“국제예술정치 – 무경계 프로젝트 ” 나인드레곤헤즈

국제 환경 예술 심포지엄 “Nine Dragon Heads”의 디렉터로서, “국제예술정치 무경계 프로젝트–온새미로”에 참여하시는 모든 참가자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국제예술정치 무경계 프로젝트 –온새미로”는 한국의 많은 아픔을 지닌 장소인 DMZ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 프로젝트입니다. DMZ는 하나의 장소만이 아닌 우리의 마음 속 가장 깊이 각인된 현상으로, 그리고 한국인들의 역사적인 기억 속 의미 심장한 장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치적, 도덕적, 지리적 경계 회복을 위한 섬세한 방법모색에 관한 주제입니다.

Nine Dragon Heads의 예술 활동은 특정 성향과 환경적, 정치적 분쟁, 세계의 주요 문화, 역사적, 지정학적 경로일 수 있는 특색이 있는 장소에서의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Nine Dragon Heads는 주요 사회 정치적 도전인 정치 시스템의 붕괴, 전쟁, 국토분단, 환경재난과 연관된 국가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장소에서의 진행되어 온 그동안의 모든 NDH의 작업의 주된 목표는 인간과 환경,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회, 사람과 정권 사이에 있어 균형을 이루는 잠재적인 요소들을 찾는 방법으로서 예술을 사용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국제예술정치 무경계 –온새미로”는 나눔과 그리고 협업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하여, 2017년부터 무경계 프로젝트를 진행한 슈룹그룹 작가들의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기여와 역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3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경계 프로젝트” 명으로 다양한 예술 행사들이 개최되었고 연구되어 실험 예술 형태로 이루어 졌습니다.

이는 물리적 그리고 정치적 경계의 재 개념화와 DMZ의 양측에 사는 사람들 모두에게 장기적 분단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화 하는 예술의 잠재적 능력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2019년 “국제예술정치 무경계 프로젝트” 개념은 ‘온전한’ 혹은 ‘가르거나 허가지 않고’라는 “온새미로”的 아이디어로 인해 더 풍부 해졌습니다.

다양한 관점에도 불구하고 “온새미로”的 개념은 이 땅과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에서의 철조망을 없애기 위한 현재와 미래의 시도에 강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에, Nine Dragon Heads 다국적작가들은 이 중대한 프로세스에 참여하게 된 것을 그리고 “온새미로”를 창조하기 위한 여정 “국제예술정치 무경계 프로젝트”에 협업을 하게 된 것에 큰 기쁨과 행복입니다.

Nine Dragon Heads for “Art Politics – Border Crossing”

It is my great pleasure, as the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rt Symposium “Nine Dragon Heads”, to greet all the participants of the project “Art Politics – Border Crossing – Onsaemiro”.

The project “Art Politics – Border Crossing – Onsaemiro” is especially significant as it takes place at Korea’s most painful site that is DMZ. DMZ is not only a place but also a phenomenon with the deepest imprint in our souls an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historical memory of Korean People. This is the subject that needs our constant care and searching for sensitive ways to restore the country in its political, moral and geographical limits.

Nine Dragon Heads’ artistic exploration has a particular feature and working history in locations with special characteristics that may be environmentally, or politically disturbed, on the world’s important cultural, historical and geopolitical routes. Nine Dragon Heads has worked in countries with major socio-political challenges connected to the collapse of political systems, wars, territorial divisions, and environmental disasters. All the times working at various sites around the world NDH maintained its main goal to use art as a way to search for potential conditions of balance; between a human and an environment, a person and nature, a person and society, a person and political power.

An important priority of the project “Art Politics – Border Crossing – Onsaemiro” is its sharing and collaborative nature. In this regards, I would like to thank SHUROOP Art Association and the Korean artists working with the association for their irreplaceable contribution and the role in the project’s development since it began in 2017. Over three years, multiple art events dedicated to the idea of “Art Politics – Border Crossing” took place and researched modes of experimental art-practice. It aimed at re-conceptualization of the physical and political boundaries and the potential of art to neutralize the negative influence of long-term division on peoples’ lives on both sides of the DMZ.

In 2019 the concept of “Art Politics – Border Crossing” is enriched by the idea of “Onsaemiro” that translates as whole or unbroken. Despite diverse perspectives the “Onsaemiro” concept has strong effect on current and future attempts to get rid of the iron fences on the land as well as in minds and hearts of people. Having this in mind, the artists of Nine Dragon Heads are extremely happy to take part in this crucial process and make their input within the “Art Politics – Border Crossing” project on its way to create a chance for “Onsaemiro.”

2019.9.9

나인드레곤헤즈

박병욱

2019.9.9

Director of Nine Dragon Heads

PARK, BYOUNG –UK

무경계 분단되지 않은 한국을 위한

마그다 구룰리 | 나인드래곤헤즈 큐레이터

과거를 지배하는 자,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 과거를 지배한다
조지 오웰

국제 예술 프로젝트 “예술정치 – 무경계/ 온새미로”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있는 비무장지대_DMZ에서 진행됩니다. DMZ는 1953년 7월 27일 북한, 중국, UN 사령부의 동의에 의해 한국을 둘로 나누는 너비 4km, 길이 250km의 완충 지역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민족이지만 다른 이념과 포부를 가진 남북한의, 상당한 우호적 관계 확립 중개를 가능하게 하는 중대한 외교적 돌파구에 관한 예술적 투영입니다.

예술 혹은 예술의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은 가장 예측 불가능했던 방법들과 결정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편견이 없는 실험적인 공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술의 행위는 전 우주에서 공존 가능한 대안 모형을 만들려는 경향이 있는 세계의 각 스튜디오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마르셀 뒤샹의 “네 인생을 살아라”라는 표현은 오직 하나만을 가리킵니다. 무조건적인 자유. 어쩌면 이런 이유로 인해 현대사회의 예술가는 직업이라기 보다는 예술가로 자리잡고 있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던 이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21세기 초기에 있는 우리의 관점에서 분석하자면, 우리는 현재와 미래에 대해 희망적인 누구나 선택의 자유를 받아드리거나, 명백한 조건의 범위에 관여할 수 있다는 그 프로세스가 바로 지금 실행되고 있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술 프로젝트 DMZ는 예외적인 사회-정치적 뿐만이 아닌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독특한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DMZ는 세계지도 상 유명한 국가 국경선만이 아닌 물리적, 자유와 억압된 세상의 거의 뚜렷한 경계선, 자유 이념, 전체주의의 권한 실행 방법, 움직임과 정체 사이입니다.

국경은 정치적 균원의 사회적 산물이다

국경을 건너는 힘은 연습(행위)에서 온다, 두 나라의 정치적인 경계에 있어서는
프레데릭 에리슨

국경을 건너는 연습에는 정치적인 차원의 힘 이외에는, 문화, 전통, 이념이 있습니다.

한편, 정치적이든 문화적이든 우리의 식견, 생각, 기대로 인한 국경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예술의 행위는 DMZ에서 어떤 힘을 만들 것인가?

그곳에 예술가들은 어떤 흥분과, 지식과, 경험을 가져오고 또한 어떤 것을 얻고 올 것인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예술은 어떻게 실존의 해체나 이념의 국경들을 하나의 나라로 만든 것에 기여할 것인가?

우리는 준비가 되었는가 – 소비 지상주의로 가득한 세상에서 스스로 나올, 지나친 합리화 혹은 테러리즘으로부터 –

DMZ의 반대편에서 남겨둔 다양한 사회-정치의 문제들을 대면하기 위해.

이것이 “예술정치-무경계” 프로젝트가 제기하는 질문과 답들이며 찾아야 할 것들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제환경예술 심포지움(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rt Symposium)으로서 Nine Dragon Heads/ NDH와 예술단체 슈룹(수원 기반)의 ‘중단되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온전함’ 이런 뜻의 온새미로 개념의 틀을 통해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술정치-무경계” 프로젝트는 2019년 4월15일 서울에서 워크숍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16일과 17일에는 프로젝트 주요 장소의 사전 조사로써, NDH의 예술가들이 DMZ와 JSA(남한과 북한이 얼굴을 마주보는 경계선인 곳)를 방문하였고, 4월18일 수원으로 간 예술가들은 수원시립미술관과 “예술정치_무경계” 프로젝트의 협력 기관인 ‘실험공간 UZ_우주’와 ‘예술공간 봄’을 방문하였습니다. 프로젝트의 프레젠테이션, 토론, 디렉터와 큐레이터 인터뷰는 4월20일과 21일의 워크숍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예술정치-무경계/ 온새미로” 프로젝트의 2부는 2019년 9월22일에서 10월6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동안, NDH의 한국 작가들이 합류한 NDH와 슈룹은 DMZ와 JSA에서의 합동작업, 캠프그리브스에서의 미팅, 수원에 있는 ‘실험공간 우주’와 ‘봄’에서의 전시 및 공개행사 기록, DMZ에서의 퍼포먼스와 개인 및 단체 작업 창작, 수원 화성박물관과 수원시립미술관에서의 컨퍼런스와 프레젠테이션, 한국의 문화 및 자연 조사를 통한 프로그램이 확장 진행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창조에, 이념, 군사 및 다른 복잡한 요소들이 함께 공존하는 인위적인 장소에서 인간은 매우 창의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경계선, 비행금지 지역, 안전지역, 중립지역 등 지구상에는 다양한 부분이 현존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는 영토나 이념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국가들이, 무력 혹은 같은 나라안에 존재하는 약 16개의 비무장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에서 볼 수 있듯, 이 지역들은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언젠가는 사라지는 방법으로 라도.

온새미로를 위해 얼마나 오래 고군분투해야 할 지라도 – 중단되지 않는, 끊기지 않는 온전함, 비폭력적인 형태로서의 존재는 인류의 고귀한 목표일 수 있게 합니다. 워크숍, 레지던시, 전시, 미팅, 네트워크 형성 등을 진행하는 형태의 예술은 다른 사회와 문화의 그룹에, 정부가 반길 만한 방법을 찾는 것에서부터 개인의 생산적이고 열린 관계를 형성하는 하나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DMZ와 JSA에서 “예술정치-무경계” 프로젝트를 통해 통일을 기약하는 보석같은 아이디어는, 한국인의 정치적 활동 후면에서 주요한 동기부여의 힘이 되고 DMZ에서 세계 예술가들의 교류의 장을 만들게 합니다. 이것은 예술이 역사적 정의 복구에 관해 다양하고 중대한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개념의 기여입니다.

Border Crossing For Undivided Korea

Magda Guruli
Nine Dragon Heads
Curator

Who controls the past, controls the future.

Who controls the present, controls the past.

George Orwell

“Art Politics – Border Crossing – Onsaemiro” is an International artists’ project taking place at the Demilitarized Zone – DMZ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DMZ – 4km wide, 250km long buffer zone that divides Korea into two almost even parts was created on July 27, 1953, after the agreement between North Korea, China, and the UN Command. The project is an artistic reflection on the major diplomatic breakthrough that facilitated the establishment of considerably warmer re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with the same ethnicity however different ideology and ambitions.

Art or that which constitutes this phenomenon is a prejudice-free, experimental space that makes possible the most unexpected approaches and decisions. Art practices taking place in a global creative studio tend to produce alternative models of coexistence in the universe. However, the expression “live your life”, as used by Marcel Duchamp, only implies one thing: unconditional freedom. It is perhaps for this reason that being an artist in the modern world is more a position than a profession. Whether or not that is true, by analyzing the present from our point of view at the end of the second decade of the 21st century, we find that the processes taking place right now in the world by which anybody can get hopeful concerning the present or the future involves the acceptance of freedom of choice and tolerance as a clear-cut condition.

As a location for an art project DMZ is an unquestionably unique site, with not only an exceptional socio-political but also a deeply symbolic significance. DMZ is not only a distinguished military frontier on the world map but also a different ideology and ambitions.

Art or that which constitutes this phenomenon is a prejudice-free, experimental space that makes possible the most unexpected approaches and decisions. Art practices taking place in a global creative studio tend to produce alternative models of coexistence in the universe. However, the expression “live your life”, as used by Marcel Duchamp, only implies one thing: unconditional freedom. It is perhaps for this reason that being an artist in the modern world is more a position than a profession. Whether or not that is true, by analyzing the present from our point of view at the end of the second decade of the 21st century, we find that the processes taking



place right now in the world by which anybody can get hopeful concerning the present or the future involves the acceptance of freedom of choice and tolerance as a clear-cut condition.

As a location for an art project DMZ is an unquestionably unique site, with not only an exceptional socio-political but also a deeply symbolic significance. DMZ is not only a distinguished military frontier on the world map but also a physical, almost palpable border between free and repressed worlds, liberal ideologies and the totalitarian way of executing power, between movement and stagnation.

A border is a social construct that is political in origin.

Across a border power is exercised, as in the political border between two nations.

Frederick Erickson

Aside from political dimension the power that is exercised across borders is of culture, tradition, ideology. On the other hand, either political or cultural the borders are everywhere through which we are taking our visions, thoughts, and expectations.

What is the power that art is going to exercise at the DMZ?

What are the excitements, knowledge, and experience that artists can bring in or take from there?

How can art even in the longest period of time contribute to the deconstruction of actual or ideological borders put within one nation?

Are we ready—coming ourselves from the world full of consumerism, extreme rationalization or terrorism—to face the diversities of socio-political problems remaining on the other side of the DMZ?

These are the questions the answers to which the project “Art Politics–Border Crossing” is going to search for. The project is a joint creative and practical work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rt Symposium–Nine Dragon Heads/NDH and SHUROOP art group (based in the city of Suwon) through the conceptual framework of Onsaemiro that in Korean stands for an unbroken, undivided whole.

The project “Art Politics–Border Crossing” started with a workshop in the city of Seoul on April 15th, 2019. On April 16th and 17th the group of NDH artists visited the DMZ & JSA (the only part of the DMZ where the forces of North and South Korea stand face to face) for the primary research of the project’s main location. Upon the arrived in Suwon on April 18th the artists visited the Suwon Museum of Art, a partner institution of the “Art Politics–Border Crossing” project, as well as experimental art spaces of the city such as UZ and BOM. The presentations, discussions, and interviews with a director and a curator of the project ended.

The workshop on April 20–21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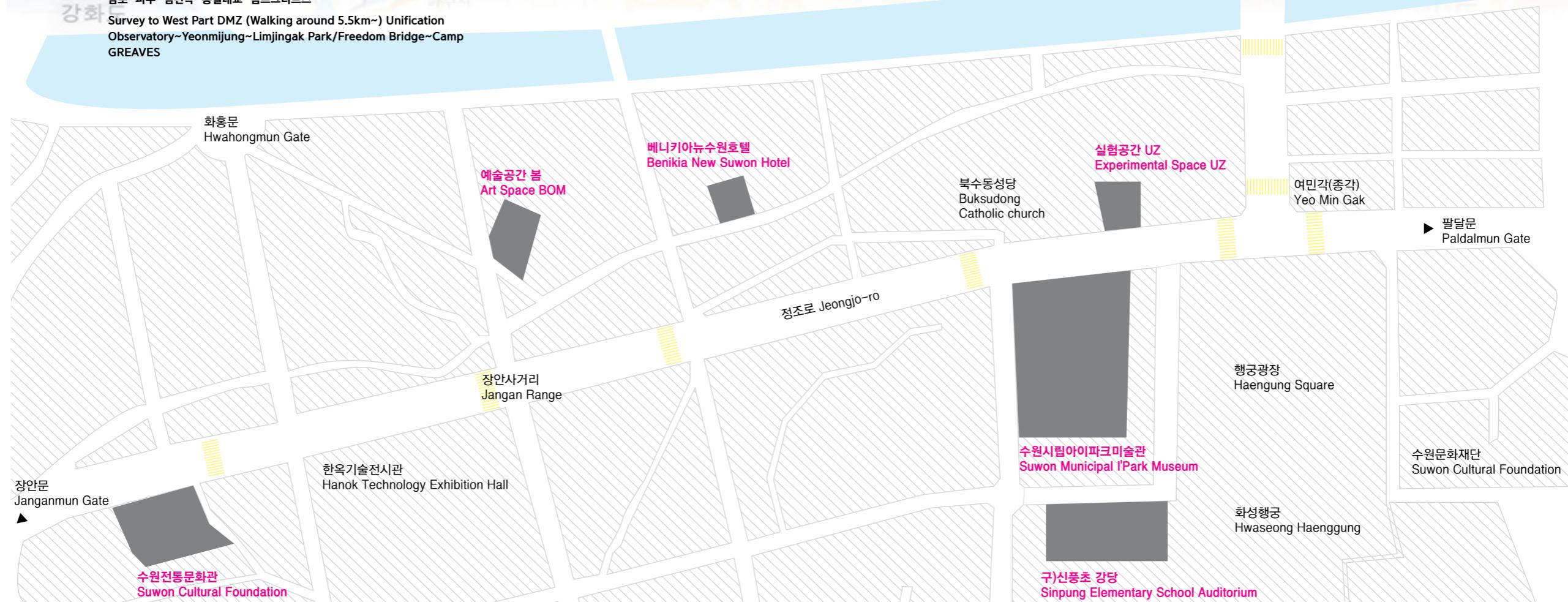
The second part of the “Art Politics–Border Crossing – Onsaemiro” project takes place on September 22–October 6, 2019. This time the international as well as Korean artists’ groups of the NDH together with the SHUROOP will implement the expanded program of the project that comprises working in the DMZ&JSA,

meetings in CAMP Greaves, exhibition in the Suwon experimental art spaces UZ and BOM showcasing documentation, performances and individual and joint works created in the DMZ, a conference and presentation in Suwon Hwasung Museum & Suwon Museum of Art, nature and culture survey across Korea.

During history, humans have become very inventive in the creation of non–natural, artificial locations where peaceful co-existence is endangered by ideological, military or other complications. We know about the presence of demarcation lines, no–fly zones, safe areas, neutral grounds, etc. at various corners of this planet. Currently, there are around 16 demilitarized zones in the world based on territorial or ideological incompatibilities among countries, military powers or even the same nations. However, as history shows, such locations tend to change, simplify or even disappear down the road.

No matter how long it may take the striving for Onsaemiro—an unbroken, undivided whole, in a mode of nonviolent existence can be a noble aim of mankind. Art, in its turn, with its forms of operation such as workshops, residencies, exhibitions, meetings, networking, etc., can act as a successful model for different social and cultural groups or even governments to find the ways for welcoming, open and productive relations with each other.

The long–treasured idea of unification embraced by the “Art Politics–Border Crossing” project at the DMZ & JSA is a principal motivational force behind the political activism of the Korean and international artists meeting each other at the DMZ. It is an extremely important conceptual contribution that art can make in the complex and crucial process of the restoration of historical justice.



**2019 DMZ 국제
예술정치 – 무경계 프로젝트
온새미로**

진행일정

SHUROOP - NINE DRAGON HEADS WORKSHOP

04.19(금) 1차. 실험공간 UZ
04.20(일) 2차. 수원화성박물관 1층 세미나실
09.21(토) 리셉션 & 오리엔테이션 갤러리 '팔레드 서울'

OUTDOOR

09.22(일) 강화 교동도 도보5.5km~연미정~김포~파주~임진각~통일대교~캠프그리브스
09.23(월) DMZ 캠프그리브스 워크샵(프레젠테이션, 퍼포먼스, 야외설치)
09.24(화) DMZ 캠프그리브스~파주~연천 유엔(UN)군 화장장~철원 백마고지~노동당사~화천 평화의댐
09.25(수) 양구 편치볼~을지전망대~제4땅굴~금강산콘도
09.26(목) 고성 금강산 통일전망대~최북단마을 명파리~동해안 화진포~수원
09.27~28(금,토) 전시 디스플레이 실험공간 UZ, 예술공간 봄, 신풍초등학교 강당 / 야외

INDOOR

09.29(일) 2019 DMZ국제 예술정치 – 무경계 프로젝트 온새미로전 개막식(오후 2~6시)

- 컨퍼런스(수원화성박물관 영상실)
 - 진행 : 이정태
 - 발제자 : 이브라힘 스파이치, 마그다 구를리, 김종길, 도병훈, 함돈균
- 개막 퍼포먼스
 - 이건용 & 김준호(수원화성박물관 영상실)
 - 심홍재, Ali Bramwell, Jessy Rahman & Susanne Muller, Duo A&U
- 전시 : 실험공간 UZ, 예술공간 봄, 신풍초등학교 강당 사료실

10.01(화) 프레젠테이션 & 퍼포먼스

- 프레젠테이션 : 수원전통문화관(오전 9~12시)
- 퍼포먼스 : 수원화성 일대 및 수원시립미술관 1층 전시홀(오후 5시)

10.02(수) 프레젠테이션 & 퍼포먼스

- 프레젠테이션 : 수원시립미술관 2층 세미나실(오전 10~12시)
- 퍼포먼스 : 수원화성 일대 야외(오후)

10.03(목) 예술공간 봄 전시종료

10.06(일) 실험공간 UZ, 신풍초등학교 강당 사료실 전시종료

**2019 DMZ International
Art Politics- Project Border Crossing
ONSAEMIRO**

GENERAL SCHEDULES

SHUROOP - NINE DRAGON HEADS WORKSHOP

04.19(FRI) 1st. Experimental Space UZ
04.20(SUN) 2st. SUWONHWASEONG MUSEUM 1F Seminar Room
09.21(SAT) Reception & Orientation Palais de Seoul

OUTDOOR

09.22(SUN) Survey to West Part DMZ (Walking around 5.5km~)
Yeonmijung~Limjingak Park/Freedom Bridge~Camp GREAVES
09.23(MON) Camp GREAVES Free Research, Presentation, Performance
09.24(TUE) Camp GREAVES~Cheorwon~Battle of White Horse Labor Party Office,, etc~
09.25(WED) Punchbowl~Eulji Observatory~Underground Tunnel etc~ Geumgangsan Condo
09.26(THU) Unification Observatory~Myungpari Village (the north east coast /
Northern most DMZ)~Hwajinpo Harbor~Suwon
09.27~28(FRI, SAT) Set UP
● Experimental Space UZ, Art Space BOM, Sinpung Elementary School Auditorium

INDOOR

09.29(SUN) Opening 2019 DMZ International Art Politics- Project Border Crossing
“ONSAEMIRO” 14:00 ~ 18:00

- CONFERENCE(Suwon Hwaseong Museum A/V Hall)
 - Moderator : Lee Jung Tae (Korea)
 - Key Note Speaker : Ibrahim Spahic (Bosnia), Magda Guruli (Georgia), Kim Jong Gil (Korea), Do Byoung Hoon (Korea), Ham Don Geun (Korea)

● OPENING PERFORMANCE

- Lee Gun Yong & Kim Jun Ho (Korea)
- Shim Hong Jae, Ali Bramwell, Jessy Rahman & Susanne Muller, Duo A&U

● Exhibition : Experimental Space UZ, Art Space BOM, Sinpung Elementary School Auditorium

10.01(TUE) PRESENTATION & PERFORMANCE

- PRESENTATION : 09:00~12:00 Suwon Cultural Foundation
- PERFORMANCE : 15:00~ Suwon Museum of Art, 1F Exhibition Hall, Suwon Hwaseong Fortress

10.02(WED) PRESENTATION & PERFORMANCE

- PRESENTATION : 10:00~12:00 Suwon Museum of Art 2F Seminar Room
- PERFORMANCE : 14:00~ Suwon Hwaseong Fortress

10.03(SAT) Closing & Take Down Art Space BOM

10.06(SUN) Closing & Take Down Experimental Space UZ, Sinpung Elementary School Auditorium



Art Politics – Project_Border Crossings

운새미로 – ONSAEMIRO

ShurooP Nine Dragon Heads
WORKSHOP

PRESENTATION

1차. 2019. 04. 19(Fri) PM 2~5 실험공간 UZ

Art Politics – Project_Border Crossings

온새미로 – ONSAEMIRO

ShurooP | Nine Dragon Heads
WORKSHOP

PRESENTATION

2차. 2019. 04. 20(Sat) PM 2~5 수원화성박물관 1층 세미나실



DMZ SURVEY 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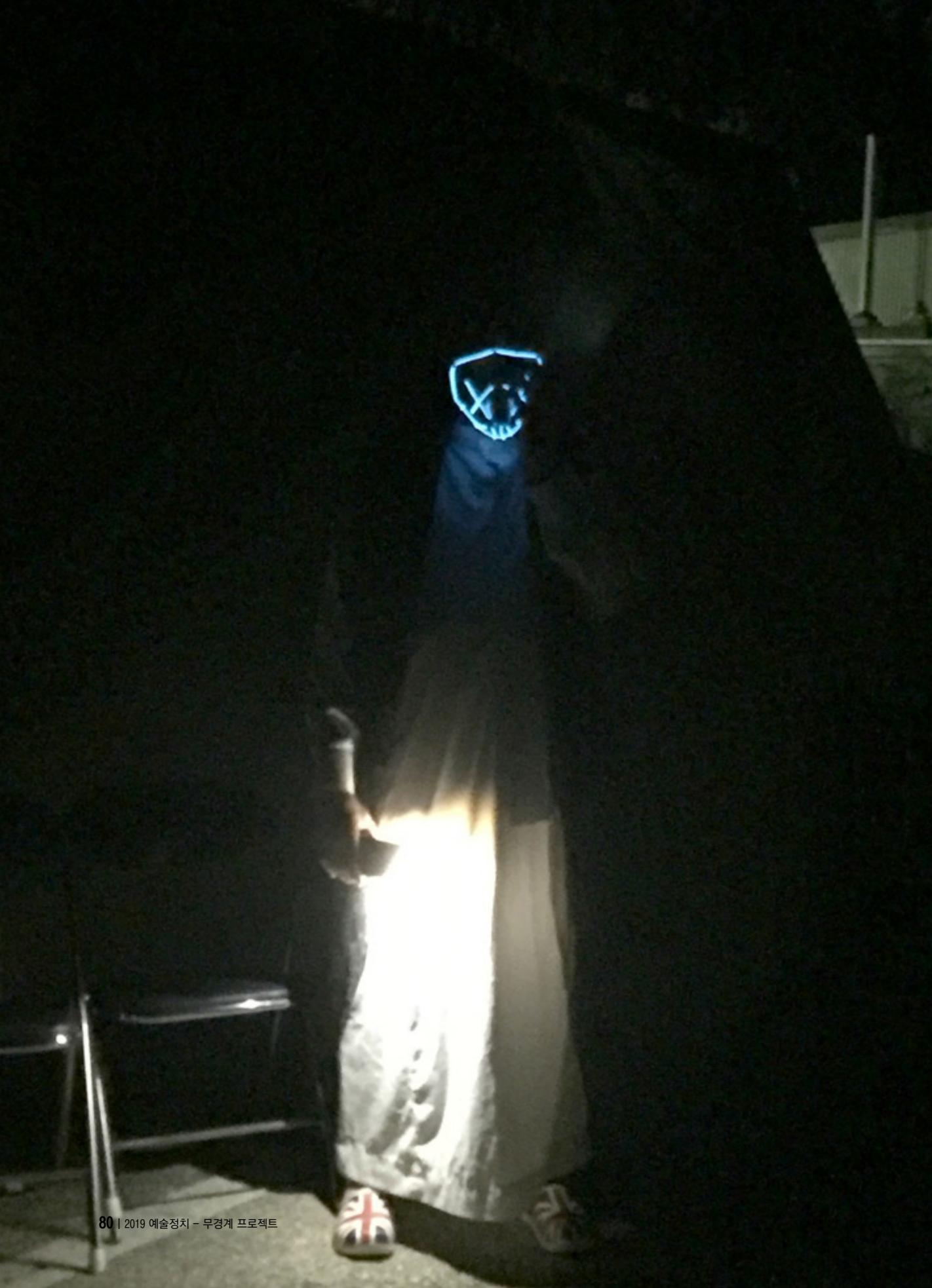
09.22(일) 강화 교동도 도보5.5km~연미정~김포~파주~임진각~통일
09.23(월) DMZ 캠프그리브스 워크샵(프레젠테이션, 퍼포먼스, 야외설치)
09.24(화) DMZ 캠프그리브스~파주~철원 백마고지~노동당사~화천 평화의댐
09.25(수) 양구 편치볼~을지전망대~제4땅굴~금강산콘도
09.26(목) 고성 금강산 통일전망대~최북단마을 명파리~동해안 화진포~수원



09.22(SUN) Survey to West Part DMZ (Walking around 5.5km~)
Yeonmijung~Limjingak Park/Freedom Bridge~Camp GREAVES
09.23(MON) Camp GREAVES Free Research, Presentation, Performance
09.24(TUE) Camp GREAVES~Cheorwon~Battle of White Horse Labor Party Office,, etc~
09.25(WED) Punchbowl~Eulji Observatory~Underground Tunnel etc~ Geumgangsan Condo
09.26(THU) Unification Observatory~Myungpari Village (the north east coast /
Northern most DMZ)~Hwajinpo Harbor~Suwon









DMZ

금강산 육로관광을 하던 때가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 되었다.

고성 통일전망대에 올라 시원하게 펼쳐진 아름다운 해안선과 16km거리의 금강산을 보았다.

남한의 최북단에 새하얀 통일미륵불상과 성모마리아상이 가까이 세워져 함께 북쪽을 바라보고있는 것도 이곳이기 때문에 더 간절하고 또한 가능한 것이다.

오히려 바로 지척에 보이는 해안에 작은섬 송도를 분기점으로 북한과 남한이 나뉘어져있는 사실이 더 비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어떤 중대한 사건이 있어야 길고 긴 철조망이 걷힐 것인가..

DMZ

It's already been more than a decade since I was on an overland tour to Mount Geumg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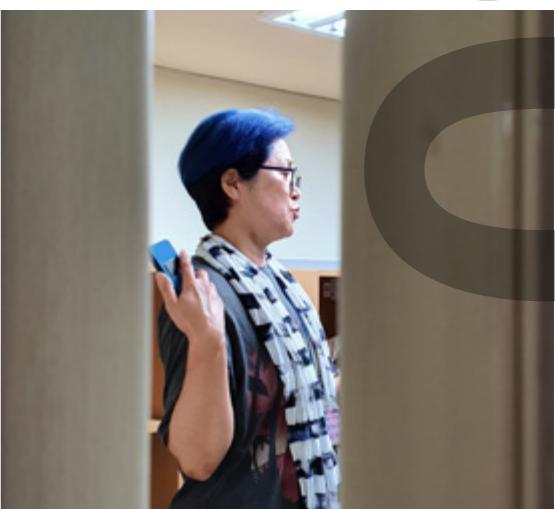
I climbed the Goseong Unification Observatory and saw the beautiful coastline and Mount Geumgang, which is 16 kilometers away.

It is also more desirable and possible because this is the place where the Statue of Unification Maitreya and the Statue of St. Mary are erected close to the northernmost part of the South and face north together.

Rather, the fact that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re separated by the junction of Songdo, a small island, on the very coast of the country has come to a more unrealistic.

What kind of momentous event would lift the long, long barbed wire?

온주 ONZOO





무경계 프로젝트를 위해 DMZ 평화의 길을 걷는 것은 나에게 침묵의 시간, 반성의 시간, 되새김의 시간, 관계의 시간, 화해의 시간이었던 것 같다.

For the 'No borders' project I walked the DMZ Peace Road. I realize that during this walk it became a time of silence, a time of recollecting and repenting, a time to rethink, a time to look back at the relationships I have with everyone and a time of forgiveness.

지구상의 많은 분쟁지역 가운데 한반도의 DMZ는 우리뿐 만 아니라 전세계에서도 관심의 대상이고 뉴스의 큰 이슈가 되기도 한다.

Out of all the many conflict areas in the world, our DMZ that is dividing our Korean peninsula has been not just a concern for us Koreans but a subject of interest and a news issue all around the world.

크게는 통일에 대한 염원과 작게는 내 안의 나와 화해하고 벽을 무너뜨리는 작업의 연속이었다.

The bigger purpose of this project for me was my deep desire for unification but on a more personal level it was also a time for self-forgiveness and breaking down some walls that I had built within me.

염유진 Youm Yoo Jin

강화 고인돌 유적지를 시작으로 9월 22일부터 4박5일의 DMZ 탐방을 했다. 나는 운좋게도 세계 여러나라에서 온 작가들이 탄 버스에 타게 되었다. 나는 아일랜드에서 온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우나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우나와 나는 여행 내내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친구가 되었다.

임진각, 캠프 그리브스, 철원의 노동당사, 연천의 유엔군 화장터, 제4호 땅굴, 고성 금강산 통일전망대를 둘러보는 일찬 답사였다. 특히 연천의 유엔군 화장터를 둘러볼 때 슬픔이 몰려오며 가슴이 많이 아팠다. 유엔군으로 참전하여 이역만리 타국에서 목숨이 스러져간 수많은 영혼들에게 아홉 번 큰절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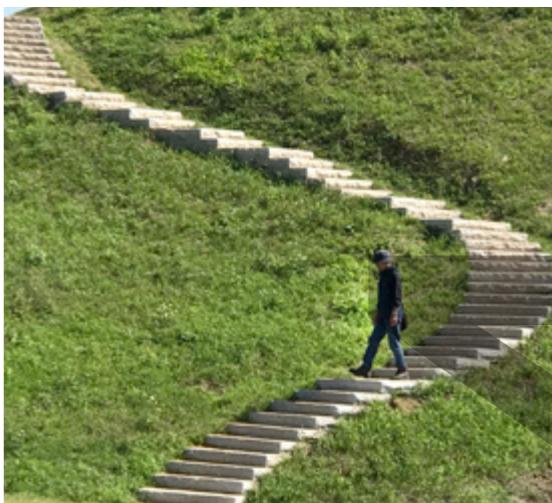
탐방 중간 중간에 이어지는 작가들의 즉흥 퍼포먼스는 답사의 즐거움과 의미를 더해 주었다. 금강산 콘도 바닷가에서 모든 작가들이 둥글게 서서 '온새미로'를 외치며 평화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던 광경이 지금도 선하게 내 머리 속에 떠오른다.

Starting with the Gang-Hwha Dolmen Sites, I visited the DMZ for 4 nights and 5 days. I was lucky to get on the bus for the artists from many countries. I sat next to Oona with a beautiful smile from Ireland. Oona and I became friends

It was a great tour of Lim-Jin-Gak Park, Camp Greaves, Labor Party in Cheor-Won, U.N.crematorium in Yeon-Cheon, Underground Fourth Tunnel and Go-Seong Unification Observatory. Especially, when I looked around the U.N.crematorium in Yeon-Cheon, I felt a lot of sorrow with a sore heart. 'Thank you for what you did. Please rest in peace,' I said, I made a big bow nine times.

In the middle of the tour, artists' impromptu performances added joy and meaning to the journey. I still remember the scene where all the artists stood in a circle at the beach of Go-Seong and played a performance to pray for peace, shouting "On-Sae-Mi-Ro"

손재수 Shon Chae Soo



남과 북은 원래 하나였다.
한민족의 분단은 슬픈 일이다.
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

배워서 익힌 내용이다. 이는 마치 사고로 부러진 팔을 잘 접골하고 깁스로 이어주어 치료가 자연스럽듯이, 남북이 '원래' 하나였기에 '다시' 하나로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남북의 통일은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 하였다. 하지만 나는 태생부터 그랬던 것처럼 부러져 있는 팔이 더 친숙하고 당연하게 보일 정도로 우리의 분단이 익숙했다. 나는 '하나였던 우리들'을 본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DMZ 답사를 통해 나는 부러진 뼈의 틈을 보았다. 아주 오랜 시간을 진통제로만 버텨온 부러진 팔에는 그대로 새살이 돌아나고 있었다. 이제와 뼈가 다시 붙을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곳에는 뾰얗고 생기 있는 살이 차오르고 있었다. DMZ 답사를 가기 전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우리의 분단은 휴전의 긴장이 무색할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이 자리 잡고 있었다. 너무 아름다워 더 아프게 다가왔던 역사의 아픔에도, 그곳은 세상 모든 것이 용서될 것같이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강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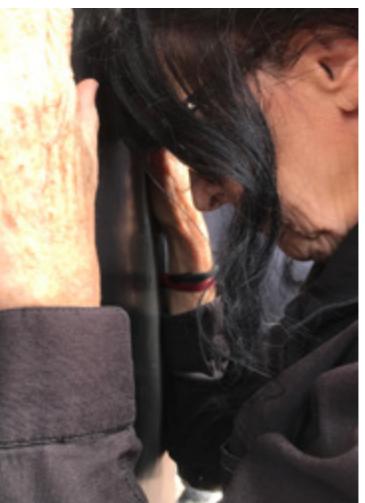


South and North Korea was one. Sorrow of being divided. Unification must be achieved.

It is what I learned before. If one's arm get broke, one set bones and casts it. Once it was one arm, so it needs to go back in original form. It is very natural step to take. One Korea was one, it is natural things to be one again. One says that achieving 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will create a peace. But I am more used to seeing our peninsula in two like being more comfortable seeing my arm in broken as if I was born in broken. I never seen "us in one."

From exploring DMZ through ONSAEMIRO project, I saw a gap in the broken bones. New skin is growing on the gap of broken bones which lingered its living on painkiller for a long time. It was growing all over the broken bones that I was curious the bones can possibly get glued in back again. Before exploring DMZ, it was a history. When saw it in real, gorgeous nature was covering all the military tension in ceasefire line. Because it was too beautiful, sorrow came in more painful. The unbelievable nature may seem taking sorrow of South and North to shine in its own ways.

Kang Min Jung



강원도 양구 을지전망대_펀치볼

Gangwon-Do Yanggu Ulgi Observatory_Punch Bowl





고성 금강산 통일전망대~최불단마을 영파리~동해안 화진포~수원 | Unification Observatory~Myungpari Village (the north east coast / Northern most DMZ)~Hwajinpo Harbor~Suwon



해금강을 바라보다. 〈통일전망대〉 / Look at the Haegeumgang 〈Unification Observatory〉

개막 컨퍼런스 OPENING CONFERENCE

수원화성박물관 영상실 Suwon Hwaseong Museum A/V Hall

인사말 : 김성배, 박병욱 / 진행 : 이정태 / 발제자 : 이브라힘 스파이치, 도병훈, 마그다 구를리, 김종길, 함돈균
Greeting : Kim Sung Bae, Park Byoung Uk / Moderator : Lee Jung Tae (Korea)
Key Note Speaker : Ibrahim Spahic (Bosnia), Do Byoung Hoon (Korea), Magda Guruli (Georgia), Kim Jong Gil (Korea), Ham Don Geun (Korea)

2019 DMZ International Art Politics-Project Border Crossing ONSAEMIRO
2019 DMZ 국제 예술정치-무경계 프로젝트 온새미로



평화 . 예술 . 자유

이브라힘 스파이치 | 세계평화센터 대표

금번 DMZ에서 진행되는 NDH 프로젝트에 나는 모든 세대에게 평화, 예술,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인권을 담은 자유를 함께하고자 한다.

이번 세번째 DMZ 방문에서는 “시인의 가족 쌀 의식”(Poet's Family Rice Ceremony)을 행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나는 원래의 민요와 내가 속했던 나라의 매혹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예술적인 상상력을 잃어버린, 서로가 진정으로 만날 수 없는 사라예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시민을 대신하여 참여하고자 한다.

만일 내가 새였다면

<https://lyricstranslate.com/en/da-sam-ptica-if-i-were-bird.html>

만일 내가 한 마리의 새였다면, 날개가 있었다면,
나는 온 보스니아의 곳곳을 날아 다녔을 텐데

나는 날았을 거야, 나는 절대 멈추지 않았을 거야
보스니아가 충분히 보일 때까지

보스니아 전역에 산들은 다 깎여버렸어
온 세상을 초록으로 장식했었지

활짝 피어라 보스니아 동틀 녁의 향기가 날 때까지
너와 나로부터 내 가슴을 채울 때까지

너는 너였던 그대로야
모두 초록인, 쾌활한 그리고 소중한

너의 노래가 항상 너를 아름답게 장식하길

안녕 보스니아, 항상 건강하길

우리의 삶이 수년간의 분단과 평화의 기념물로, 전쟁과 고통으로 특정 지어 질 때 내가 세(3)몫의 쌀을 모은 것으로 우리는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

첫번째로 평화에 굶주린 모든 이들에게.

두번째로 모든 예술과 아름다움의 마법사들에게.

세번째로 자유에 목마른 모든 이들에게.

내 시집 안에 있던 시들에게, 너의 멋진 나라들의 모든 문을 열어주던 사람들을 맞닥뜨리는 와중에 사라예보 거미들과 다른 벌레들은 영감을 주었다. The Family Rice Ceremony는 너와 같이, 생존한 존재를 뜻했고, 예술의 인생을 헌정하기 위한 매일의 의식이었으며, 영적으로 그리고 두 저격수 사이의 평화 속 자유를, 두개의 수류탄, 국경의 금이 간 벽은 우리는 평생 수용할 수 없을 거야. 우리는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말하고 있어. 마치 그런 적이 없던 것처럼. 우리는 특별한 방법으로 세상을 알고 있었어, 그 자체로써 그리고 그 주변의 것들.

내 공연은 파스타와, 세상과 다른 냄새와, 말 혹은 자기 나라의 노래기호에 따른 NDH 프로젝트에서 참여를 유발할 그들의 독창적인 재료인 상상력으로 민속 이야기와 시의 마법 같은 혼합으로 만들어졌어. DMZ 주변 환경의 다양한 쌀 줍기는 예술가들의 다양함의 연결.

의식이 끝날 때 모두들 말해야 하는 것:

평화, 예술, 자유를 위한 시간을

PEACE

Buddhists	ago	on one and on the other side
tree temples and king's castle	Miro escorts guests of the hat and shaman	of same rice family
under floral lantern light	is never to crime	
washing giving prayer big bell	FREEDOM	
buddha's scented birth	North and South	
one	to the north	
ART	and in the south	
The hat	fields are planted watershared of same river	
hanged by narrow door	view to the north and view to the south	
forgotten long time		

Peace . Art . Freedom

Ibrahim Spahic | President of IPC(International Peace Center)

The Peace, Art, Freedom with the human rights to all generations, especially the young generation is reflected in the project NDH for the DMZ. My third return to DMZ is based on the Poet's Family Rice Ceremony in which I want to participate as a citizen whose city of Sarajevo and Bosnia and Herzegovina is out of the reach of its citizens, especially outside the original folk song and artistic imagination of the magical beauty of the country from which I come.

Text of the song

If I Were a Bird

<https://lyricstranslate.com/en/da-sam-ptica-if-i-were-bird.html>

If I were a bird and had wings
I would fly across the entire Bosnia,

I would fly, I would never stop
until Bosnia would not see enough

The mountains shear over Bosnia,
decorated everywhere with green,

bloom Bosnia to the smell of sunrise
from you and me to fill my chest.

You're just like how you used to be,
all green, cheerful and dear,

may your song always adorn you,
hello Bosnia, always be healthy

When our lives are characterized by decades of division and remembrance of peace, war and suffering, we can share the emotions that I have gathered as three portions of rice. First for all who are hungry for peace. Second for all who are wizards of art and beauty. Third for all those who are thirst for freedom.

For poems from my poetry book, Sarajevo Spiders and other insects got inspiration during the encounter with people who opened all the doors of your wonderful country. The Family Rice Ceremony in my house, as well as yours, meant survival, existence, and daily ritual dedicated to the art of life, spirituality and freedom in the

peace that lasted between two sniper shootings and two grenades and a cracked wall at the border we never accepted. We are seeing, listening and talking like never before. We have known the world in itself and around in a special way.

My performance is made of the magical mix of letters of folk tales and poems made from pasta and their imitation with the original spices that will bring participants from the NDH Project from the world and with different smells and tastes to tell or sing the traditional song of their country. The link diversity between the artist is made of rice picked from the DMZ environment.

Everyone at the end of the ceremony should say :

Time is for Peace, Art, Freedom

PEACE

Buddhists	ago	on one and on the other side
tree temples and king's castle	Miro escorts guests of the hat and shaman is never to crime	of same rice family
under floral lantern light	FREEDOM	
washing giving prayer big bell	North and South	
buddha's scented birth	to the north	
one	and in the south	
ART	fields are planted watershared of same river	
The hat	view to the north and view to the south	
hanged by narrow door		
forgotten long time		

원효의 '무애행(無碍行)'과 '경계를 넘어선' 미술

도병훈 | 작가

“나를 이해한다는 것은 가장 긴 우회로를 돌아서 오는 것, 모든 인간을 위하여 의미 있는 것을 보존하는 거대한 기억을 통해서 돌아오는 것.” -폴 리쾨르

1.

19세기말 이후 현대예술은 고전적 문법에 의한 규범이 더 이상 유효할 수 없게 된 한계 상황으로부터 출현하였다. 이러한 전환(conversion)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를 분수령으로 해서 인간 정신의 지표이자 척도인 과학, 철학, 예술 영역에서 거의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났다.

이로부터 10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존재론은 입자물리학, 인식론은 뉴로 사이언스'라는 말이 상식처럼 통용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¹⁾ '인류'라는 종의 역사를 미시물리학 및 우리 몸속의 신경망, 그 중에서도 뇌의 생화학 시스템 차원에서 논할 수 있는 세상인 것이다.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신이란 몸속 신경전달물질이 반응하여 작용한 '느낌(感)'의 시스템은 인류 역사상 비록 최근에 밝혀진 일이지만 '현생인류'의 특성은 야생에서 형성되었다. 특히 선사시대에 동굴에서 시작된 예술적 표현은 인류 문명의 시원이기도 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지속됨으로써 그 방식도 확장되어왔다. 그러나 확장된 변화가 곧 낙관적 현실과 전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지각적 특성이 두드러진 현대미술의 경우 관점의 혁명적 변화 및 확장이 '밝음'이라면, 가치의 혼돈과 온갖 표피적 정보의 범람이 야기한 '어두움'이 있다. 이 때문에 현대미술은 비평적 담론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이를 통해 예술적 성취의 의미와 가치가 입증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미적, 혹은 예술적 가치에 대한 폭 넓은 탐색이나 성찰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감(感), 즉 느낌으로 천하의 모든 이치에 통한다(感而遂通天下之故)"²⁾라는 고전 텍스트 한 구절도 현재적 해석에 따라서는 느낌과 사유의 폭을 넓히거나 물리적 경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예술적 성취라든가 가치를 논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나 현재적 문해력에 달려 있는 문제이다.

2.

석가모니 사후 인도에서 성립한 초기 불교는 오늘날처럼 제도화된 불교라는 종교나, 수행을 중시하는 선불교가 출현하기 이전이었으므로 당시의 승려들은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과학자이면서도 철학자와 같은 존재들이었다. 이들 승려들의 주된 임무 및 과제는 인간의 감각기관과 세계와의 관계 탐구로 어떻게 하면 인간이란 존재의 본성과 이 세계에 대해 바르게 아는가를 치열하게 연구하는 불학(佛學)의 연구였다. 특히 시각적 지각 및 오감을 근간으로 사유의 극한에 이르는 치열한 논쟁은 약 8세기 초까지 인도 및 동아시아에서 극히 정세하면서도 치열한 논리로 전개되었다.

초기 인도불교³⁾에 의하면, 세계를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과정은 감각기관[根]과 인식대상[境]과 인식작용[識]의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이를 세분화하면 눈을 통해서 빛깔이나 형상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식별하는 작용은 안식(眼識), 귀로서 소리를 듣는 이식(耳識), 코로서 냄새를 맡는 비식(鼻識), 몸으로 무엇을 접촉하는 신식(身識), 마음으로 무엇을 생각하는 의식(意識)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 이를 6식(識)이라 한다.

이중 안식과 관련해서 고대 인도에서는 시지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 세계를 현색(顯色, varna-rūpa)과 형색(形色)으로 나누었다. 유식 불교(佛教)를 대표하는 사상가인 바수반두(Vasubandhu, 世親 400?~480?)의 《아비달마구사론, 阿毘達磨俱舍論Abhidharmakosa》에 따르면, 현색은 12가지, 형색은 8가지가 있다.

어떤 대상을 지각하거나 보고 인식할 때, 그것이 먼저 있고, 그것을 내가 본다면 주관과 객관이 구분된 이원론적 대상인식이다. 그런데 유식불교에 의하면, '식의 대상은 오직 식이 나타나는 것이다(識所然 唯識所現).' 이는 식 자체가 대상인 동시에 주관이라는 뜻이다. 이런 차원에서 유식은 개별적 존재의 감각기관 및 뇌로 인식하는 대상을 상분(相分)이라 하고, 이를 메타적으로 다시 인식하는 것을 견분(見分)이라 한다.

인도에서 수용된 동아시아의 초기 불교는 노장(老莊)의 언어와 개념을 차용하여 현학화(玄學化)로 '격의(格義)'되었다. 이러한 격의의 예로 반야(般若)의 대표적 논리인 '사구(四句)'의 전형적 논법이 있으니, 이른바 '유(有), 무(無), 역유역무(亦有亦無), 비유비무(非有非無)'의 논리 형식을 전제로 한다. 이 같은 불학 특유의 형식 논리는 4세기 중국에서 구마라습(鳩摩羅什, 344~413)의 중관반야학(中觀般若學)과 승조(僧肇, 384~414)의 반야(般若) 사상으로 나타났다.

승조는 '비유비무(非有非無)'의 논리로써 격의불교(格義佛教)의 대표적 학파인 본무(本無), 심무(心無), 즉색(即色)의 삼종(三宗)에 대한 비판으로 격의불교(格義佛教) 시대를 종결시키고 동아시아 불학(佛學)의 시대를 열었다. 이에 따른 현학(玄學, Neo-Taoism)의 쇠퇴는 남북조 시기의 사상적 흐름을 중국불교(Chinese Buddhism)로 전환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 후 현장(玄奘, 602~664)이 구사(俱舍) · 유식계통의 경전을 번역해냄으로써 동아시아 불학의 최전성기 토대를 구축했다.

이 현장보다 한 세대 아래의 인물이 삼국, 그 중에서도 신라에서 살았던 원효(元曉, 617 ~686)로 저술의 양에서나 질에서나 당대 동아시아를 대표한 불학의 대가, 즉 불교사상가였다. 신라는 삼국 중 불교 수용이 가장 늦었으나 7세기가 되면 학문적 수준에서는 중국과 대등한 단계에 이르거나 오히려 능가하는 양상에까지 이른 것이다. 특히 《판비량론(判別量論)》, 《대승기신론소 · 별기》,⁵⁾ 《금강삼매경론》, 《십문화쟁론》은 원효의 도달한 불학(佛學) 사상의 정수를 드러낸다. 먼저 원효가 671년에 저술한 《판비량론은 인도불교의 이론을 바탕으로 중국 현장의 유식비량을 '상위결정량(相違決定量, Antinomic Inference)'으로 비판한 메타논리학이다. 상위결정이란 각각 두 개의 논증이 상호 양립할 수 없는 결론

3) 고대 인도불교는 크게 다섯의 층으로 구축된다. 1. 삼세실유(三世實有)와 법체항유(法體恒有)를 근간으로 법자성(法自性)을 주장하는 설일체유부, 2. 법의 본성이 자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나멸에 있음을 간파한 경량부, 3. 법에 의해 구성되는 아(我)만이 무자성 · 공이 아니라 그 법마저도 무자성 · 공이 라고 주장하는 중관학파, 4. 유식무경(唯識無境)을 근간으로 일체법공(一切法空)을 논증하고자 하는 유식학파, 5. 설일체유부의 법유론과 경량부의 철나멸론, 중관학파의 일체법공사상, 유식학파의 유식 무경사상을 종합적으로 집대성하여 구축된 불교인식 논리학파이다.

4) 신경과학으로 기술하면 인간의식은 뇌간의 중앙부에 위치한 '뇌간망상체'에 의해 의식이 유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5) 원효는 《대승기신론소》의 서두에서 이 논서의 특징을 '입파무애(立破無碍)'와 '개합자재(開合自在)'로 언표하고 있다.

1) 양자역학에서는 "존재한다", "안다"는 말조차 명료한 의미를 잃는다. Atomic Theory and the Description of Nature, p.19. 오채환 · 김희봉 옮김, 《양자물리와 철학적 전통》(청음사, 2000)p.149에서 재인용

2) 《周易》(繫辭上傳), 第十章.

들로 귀결되거나 둘 모두 진실이라고 할 수 없을 때 칭하는 삼단논법의 오류 중 하나이다. 원효는 이 메타논리학적 논법을 변형하여 유식비량의 논리적 오류를 비판했는데, 그의 사후 중국과 일본, 그리고 근현대 한중일의 원효 연구자들이 비중 있게 다루어 온 주제이기도 하다. 특히 원효의 『판비량론』 제8절은 시각과 관련된 '1,2,3계,' 즉 인식 작용[識]의 3 가지 요소인 안근(根), 경(境), 안식(眼識)을 논한 현장의 유식비량을 비판한 메타논리이다.⁶⁾ 요컨대 원효는 정교하고 치밀한 논리로써 언어적 외피가 지니고 있는 분별의 세계를 떨치고자 이 책을 저술했다.

원효의 주요 주석서 중 한 텍스트인 『大乘起信論』(The Awakening of Faith in the Mahayana)의 한 대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공(空)은 …… 모습이 있지 않으며, 모습이 없지도 않다. 모습이 있지 않지도 않으며, 모습이 없지 않지도 않다. 모습이 있지 않지도 않으며, 모습이 없지 않지도 않으며, 모습이 동시에 있고 없고 하지도 않다. 한 모습도 아니며, 다른 모습도 아니다. 한 모습이 아닌 것도 아니며, 다른 모습이 아닌 것도 아니다. 또한 동시에 한 모습도 다른 모습도 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所言空者, …… 非有相 非無相 非非有相 非非無相、非非有無相、非有亦俱相 非一相、非異相、非非異相、非非一俱相]

이 『대승기신론』에 대해 원효는 당대 거의 모든 주요 텍스트를 섭렵한 치밀한 주석으로 해석하여, “펼침과 합함(開合)이 자재하며, 세움과 깨뜨림(立破)에 걸림이 없어 펼쳐도 번잡하지 않고 합하여도 응색하지 않으며, 세워도 얻음이 없고 깨뜨려도 잃음이 없다.”는 원융(圓融)의 논지를 펼쳤다.

그리고 원효가 이러한 논지를 전개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텍스트는 화엄(華嚴) 사상이다.⁷⁾ 이 사상은 중국 당나라의 지엄(智嚴), 신라의 의상(義湘, 625~702), 중국 당나라의 법장(法藏, 643~712)이 정점을 이룬 사상으로, 이들 중 법장은 원효 저서를 인용할 정도로 그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원효의 화엄사상은 상즉상입(相即相入, immediate payment)하는 무장애(無障礙)의 근거를 열 가지 원인(十種因)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1) 하나와 전체가 서로 거울과 그림자가 되어 제석천궁의 그물과 같기 때문이다.
- 2) 하나와 전체가 서로 인연으로 모여 동전의 수와 같기 때문이다.
- 3) 모든 것이 식(識)일 뿐이니 꿈의 경계와 같기 때문이다.
- 4) 모든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니 허깨비 같은 일이기 때문이다.
- 5) 동상(同相)과 이상(異相)이 전체에 통하기 때문이다.
- 6) 지극히 큰 것과 지극히 작은 것 모두가 하나의 양이기 때문이다.
- 7) 법성(法性)의 연기(緣起)는 자성(自性)을 여의기 때문이다.

6) '格義'는 바로 "경전 가운데 事數를 불교 이외의 책에서 비슷함을 配對하여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을 격의라고 이른다[以經中事數擬配外書, 爲生解之例, 謂之格義.]"라는 것이다.

7) 원효는 화엄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봉황이 푸른 구름 속을 날면서 산악(山岳)의 낮음을 내려다보고 하백(河伯)이 큰 바다에 이르러 시냇물이 좀 았던 것을 부끄러워함과 같이 이 경(經)의 보문(普門)에 들어가야 비로소 지금까지 배운 것이 좁은 것에 국집하였던 것을 알 것이다. 그렇지만 날개가 짧은 새는 산림에 의지해서 자라고 작은 물고기는 여울에 살면서도 본성에 안주하는 것이니 알고 쉬운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또한 그것을 버릴 수 없다."

8) 일심(一心)의 법체(法體)는 같지도 다르지도 않기 때문이다.

9) 걸림 없는 법계(法界)는 가장자리도 없고 가운데도 없기 때문이다.

10) 법계는 법과 같아서 막힘도 없고 덤힘도 없기 때문이다.⁸⁾

이 같은 통찰은 주관적 느낌이나 감정에 대한 집착과는 대척점에 있다. 그래서 “막음도 없고 가림도 없는(無障無碍)”이나, “법이 없으면서도 법 없음이 없고 문이 아니면서도 문 아님이 없다.” 또는 “지극히 큰 것은 밖의 경계가 없는 것을 말한다. 밖의 경계가 있다면 지극히 큰 것일 수 없기 때문이다.”⁹⁾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없는 것이 아니며, 무너지는 것이므로 있는 것이 아니다.(It does not exist because it is done; it does not exist because it is broken.)¹⁰⁾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테면 무한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무애가 아니라 오히려 감정과 생각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는 차원인바, 원효가 각별히 몰입한 화엄사상 용어인 '무애'(無碍, free from entrapped)와 '무애행(無碍行)'의 진정한 의미도 이런 맥락에서 공감할 수 있다.

3.

풀 세잔의 도전으로 열린 서구 근대회화의 전환적 관점 변화는 20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파울 클레의 말을 빌리면, 미술은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Making visible the invisible)”이 일이 되었고, 마르셀 뒤샹에 이르러선 “예술적이지 않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어 비디오아트 창시자로 꼽히는 백남준은 전자(Electronic)시대로 접어든 미래예술을 컴퓨터와 정보를 합친 개념인 '인포 아트(Info Art, 정보예술을 뜻하는 인포메이션의 줄임말)'로 명명했다. 이러한 그의 예측은 예술적 행위나 가치에 있어 인간 자체의 특성보다 기술의 발견과 확산의 힘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한 측면도 있어 보이지만, 감각기관에 의한 '입력과 출력,' 나아가 상방소통의 삶을 가능하게 한 기초과학, 거슬러 올라가면 양자역학자인 닐스 보어가 말하는 '주관-객관 구획의 유동성'¹¹⁾이라든가, 입자물리학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는 측면은 있다. 특히 입자물리학의 차원에서 보면 발전기와 모터, 인터넷까지 가능하게 된 힘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전자기력'이며, 컵이나 돌 같은 물질이 왜 단단한가는 원자핵의 양성자와 중성자를 단단히 결속시켜주는 '강력' 덕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시물리학이 물질의 근본을 탐색하는 영역이라면 뉴로(neuro) 사이언스는 선사시대 동굴벽화라든가 쇼베 동굴의 손자국 벽화에서부터 현대의 다양한 미술에 이르기까지의 그 다양한 특성에 대한 인류학적 통찰의 힘을 갖게 한다. 이제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뇌 속 신경전달물질은 어느 부위가 활성화 되는가 까지도 알 수 있으며, 선사시대 인간이나 현대인이나 그 신경회로 속 시스템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20세기 이후 동아시아 미술은 전통회화보다는 서구미술의 압도적 영향권에 있었다. 그러나 점차 서구와는 다른 문맥에서, 전통사상이나 예술을 광맥으로 삼아 서구근현대미술과는 대응적 차원에서 새로운 예술을 탐색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추구 모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1960년대의 일본에서는 모노하가 출현했다.

이런 문맥에서 20세기 동아시아현대미술로 볼 수 있는 일본 모노하, 그 중에서도 스가 기시오(菅木志雄, Kishio Suga)

8) 표원(表圓), 『화엄경문의요결문답』(華嚴經文義要決問答), 권4, (『한국불교전서』), 2, p.366 중

9) 표원(表圓), 전계서 권2 (한국불교전서)2, p.367상

10) 원효가 화엄의 육상(六相)중 성상(成相)과 고상(壞相)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다.

11) 오채환 · 김희봉, 같은 책, p.162.

의 사유/시작은 단절됨이 지속되어 일본 문화 예술 정신의 기층이기도 한 불교 화엄 사상과 상통하는 지점을 찾을 수 있다.¹²⁾ 이 작가에게 '모노'란 '개(個)'와 '집(集)'의 대립적 사고를 상대화하고자 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그의 '개(個)'는 자연 전체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규정할 수 없는 세계이지만, 바로 이 때문에 '일즉다 다즉일(一即多 多即一)' 같은 화엄세계를 연상케 한다. 원효의 말로 요약하면, 모든 법을 통상(전체적으로 보는 모습)으로 보는 진여문(眞如門)이나, 미진(微塵, 진흙)이라는 통상이 진여문이라면 별상(別相)은 기와장(生滅文; 개별적 모노)이다. 그렇듯 하나의 돌, 하나의 나뭇가지도 하나의 바위산 속 자연 전체를 포함하며 자연의 한 조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의 모노가 세계 전체로 인식된다면, 당연히 모노와 관련된 것, 즉 세계 자체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창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조형에서 지나치게 인공적인 '만드는 것'을 거부하고 단지 '존재하는' 상태를 '극한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로 바꿔놓은 것이 '만드는' 것을 능가하는 단서가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원효의 '무애' 정신이나 '원용'적 세계관으로 그 미학적 특색이나 예술적 성취를 논할 수 있는 한국 출신, 한국 현대미술작가로 광인식의 물성을 다룬 작품군 및 수묵채화 작업 시리즈라든가, 이건용의 '달팽이걸음(1979)' 퍼포먼스, 김성배의 '하하(下下) 소나무(1986)' 및 바늘(2002) 작품, 김순기의 반구성과 구성이 공존하는 지도 작품 및 일필 시리즈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건용과 김성배 작가가 보여주는 작품들은 파격적이고 무장(無障)·무애행적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차이점은 이건용이 주로 일회적인 행위예술 위주였다면, 김성배 작가의 경우 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설치작품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해온 김순기 작가의 경우, 동아시아 노장 및 불교사상을 연원으로 삼은 "여기도 저기도 이고, 여기도 저기도 아닌" 과 같은 지도를 모티브로 한 작품군, 혼돈의 상황이 '일필(一筆)'로 추구된다. 작가에 의하면 〈일필〉시리즈는 "모든 만물의 시작이고 근본이고 무한히 열린 태도를 의미하는 '혼돈'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나, 이는 불교를 포함한 동아시아적 사상에 그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신경과학에 의하면 남다른 인간의 비상한 몰입과 과잉 활동은 전두연합령의 자가 수용체 결락과 맞물린 A10신경 속 도파민과 관련이 있으며, 근본적으로 비지(非知)적인 감각과 맞닿아 있다. 이처럼 오늘날은 각종 첨단기기의 발달로 뇌 속의 미세한 문자 변화까지 해독함으로써 의식 및 예술적 성취, 행위의 특성까지도 규명할 수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지적 체계를 넘어선 원효 사상 또한 현대물리학이나 신경과학 같은 최신 학문의 관점으로도 읽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원효의 사상은 '7세기'라는 불교 역사상 가장 치열한 다양한 백가쟁명을 녹여서 새롭게 정련한 용광로에 비유할 수 있다. 원효의 사상은 화엄사상 및 불교 인식논리학이란 당대 가장 치열하고도 정교한 사유를 거친 극한의 사유로 어떠한 '틀'이든 상대화하고 나아가 무화시켜버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원효의 불학 사상은 특정 종파의 교리로 한정지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대승기신론소·별기》, 《금강삼매경론》에서 볼 수 있는 그 크나큰 해석의 틀은 19세기말 20세기 초 수학이 도달한 메타논리학 및 극한의 사유(집합론에서 불완전성 정리에 이르기까지)와 같은 인식과 사유에 대한 메타논리학과도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그의 삶은 불기(不羈), 즉 굴레를 벗어던진 자유인으로서 동적 활력이 넘친다. 이러한 그의 삶이야말로 원용무애한 '무경계'의 차원이 아닌가?

12) 묘에(明惠, 1173~1232)는 《광명진언토사권신기》에서 "원효는 화엄종의 조사이며, 그 행덕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라고 하였다. 탄에이(潭睿, 1271~1347)

는 중국에서 돌아와 원효의 화엄사상을 5년간 공부했다.

모든 텍스트 읽기는 삶의 능력, 즉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탐구이다.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은 삶에 대한 성찰 및 행위를 통해 삶을 바꿀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현대미술의 양상은 일시적인 트렌드 및 서구미술 문맥이 지배적이지만 의미 있는 고전적 텍스트 다시 읽기 및 현대 과학에 대한 관심은 다른 문맥의 미술은 어떻게 가능한가, 아니 나아가서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물음과 함께 '무경계'의 예술적 성취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갖게 함으로써 그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광인식, Work83-S, 1983



그림 2, 스가 시기오, 무한 조건, 1971



그림 3, 이건용, 달팽이 걸음, 1979



그림 4, 김성배, 하하 소나무, 1986



그림 5, Passage 1987, collage sur toile, 351.5 x 434cm, 1987

Wonhyo's 'Mu-ae-hang(無碍行 : the unfettered activities)' and beyond boundary art

Do Byung Hoon | Worker

1.

After the end of the 19th century, modern art emerged from the marginal situation in which classical truth became no longer valid. This transition took place almost simultaneously in the areas of mathematics, science, philosophy and art, which are indicators and measures of the human spirit, using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as watersheds.

More than 100 years later, we are living in an era where ontology is particle physics and epistemology is Neuroscience. This is an era in which we can understand the world through microphysics, where protons are made up of hydrogen atoms, and know our nervous systems, especially serotonin, dopamine, oxytocin, and ourselves. The existence of such a biological system, 'sapiens', emerged from prehistoric wilds. Cave paintings during this period are the origin of artistic achievement and human civilization to this day.

But change does not soon lead to optimistic realities and prospects, so there has been a repetition of patterns similar to the flooding of all superficial information, and the "darkness" caused by commercial capitalism recently. As these aspects limit the possibilities of our lives, we need a wide search and reflection on our lives and the world, and the essence of aesthetic and artistic values, away from the existing framework.

2.

Early Buddhism in East Asia, accepted in India, was 'differentiated' by borrowing the language and concepts of Taoist thought.[格義 ; refers to the Book of the Lao Tzu(老子) and the Zhuangzi(莊子), designed to facilitate understanding]" An example of this is the typical logic of the sand dune, which is a representative logic of the *prajnā*(般若) period, which is assumed to be the form of the so-called it exists, it does not exist, it does exist and it does not exist. It can be likened to not being and not being. For example, finite; infinite; finite or infinite. It can be likened to neither finite nor infinite. This particular type of logic in Buddhist studies was found to be the *prajnā* thoughts mid-*prajnā* of the Guomara Jiva(鳩摩羅什, 344-413) and Sengzhao(僧肇, 384-414) in China in the 4th century.

As the logic of "non-existent, non-existent(非有非無)" Sengzhao ended the era of "prajnā Buddhism" and opened an era of "East Asian Buddhism" with criticism of the three major scholars. The consequent decline of the prefectural studies played a decisive role in transforming the ideological flow of the period of the North and South into Chinese Buddhism. The Xuanzang(玄奘, 602-664) by translating Abhidharma kosabhasya(俱舍論) the Consciousness-only Buddhism,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forefront of East Asian Buddhism.

A person one generation below this site was Wonhyo(元曉, 617 ~ 686), who lived in the Three Kingdoms and Silla, among others, a master of Buddhist studies that represented East Asia in both the quantity and quality of his writings. Silla was the slowest among the three kingdoms to accept Buddhism, but by the 7th century, it had reached or surpassed China on an academic level. In particular, in the early days of the Daeseunggisillon(大

乘起信論 : Awakening of faith in the only Mahayana), Wonhyo refers to the characteristics of this paper as 'Ipapa-Mo Ae(立破無碍)' and "Won-jung-Mu-ae(圓融無碍 ; infinite openness beyond boundary)," in his Daeseunggisillon-so and Byeolgi(大乘起信論疏 · 別記), Geumgang Samaegyeong-non(金剛三昧經論) and Simmunhwajaeng-non(十門和諍論 ; Theatise on the Harmonization of Disputes among the Ten School) are the text that became the apex of Buddhist thought at the time.

Panbiryang-non(判批量論) written in 671 by Wonhyo's, is a text of criticism of Buddhist logic of the time. The book sparked controversy especially when Wonhyo criticized Xuanzang's "antionomic inference-only" as his "antionomic inference." Wonhyo's "antionomic inference" is one of the errors in syllogism called when each of the two arguments results in incompatible conclusions or when neither can be said to be true. Wonhyo's with this logic, the "1,2,3 systems" related to vision, or the three elements of cognitive action, Xuanzang's "antionomics inference-only" at the scene that discussed the three elements of Ahn-Geun(眼根; visual organs), Gyeong(境, the object of recognition) and visual consciousness(眼識). As a result, the debate has sparked debate in China and Japan, and discussions are taking place internationally. In addition, Wonhyo wrote this book to break through the world of discernment, which is held by the shell of language, with elaborate and elaborate logic.

Wonhyo's "Daeseunggisillon-so and Byeolgi" is a commentary on Daeseunggisillon(The Awakening of Faith in the Mahayana), bringing to light the Buddhist world view accepted at the time in East Asia. : Introducing the part of the original book Daeseunggisillon is as follows. : [Suchness is empty] because from the beginning it has never been related to any defiled states of existence, it is free from all marks of individual of things, and it has nothing to do with thoughts conceived by a deluded mind,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 essential nature of Suchness is neither with marks nor without marks; neither not with marks nor not without marks ; nor is it both with and without marks simultaneously; it is neither with a single mark nor with different marks ; nor is it both with a single and with different marks simultaneously.[所言空者 從本已來一切不相應故 謂離一切法差別之相 以無虛妄心念故 當知真如自性 非有相 非無相 非非有相, 非非無相, 非有亦俱相, 非一相, 非非一俱相]

온새미로의 미학적 수행을 위하여 - 아시아 미학의 뿌리구조와 우물신화의 상상력, 혹은 어떤 원형

김종길 | 미술평론가

일려두기 : 이 원고는 이미지 비평의 상상계를 넓게 확장하기 위한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논증을 위한 레퍼런스나 실증적 자료 제시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그렇다고 허무맹랑한 것으로만 채워진 글은 아니다. 오랫동안 동서양을 횡단하며 공부하기를 통해 길러진 나의 촉수가 '가로지르기'로 타전되어서 불꽃을 일으킨 미디어적 파장일 뿐이다. 그러므로 기승전결의 구조보다는 기나 승이, 때로는 전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2001년과 04년 몽골과 중국 운남성을 다녀온 뒤 처음 이 기획을 구상했고 수시로 초고 수준의 원고를 집필하고 보완했다. 2016년 9월 B-ART에 연재를 시작했으나 잡지가 폐간되면서 중지했고, 그 후로는 날개 안상수, 조각가 이영섭 등 여러 예술가의 작품론에 녹였고, 다시 이번 <무경계 프로젝트>의 온새미로 미학을 위해 전체 구조와 그 일부를 밝힌다.

첫 번째 - 아시아 미학의 뿌리구조와 우물신화의 상상력, 혹은 어떤 원형

- 열쇳말 : 신화학, 구조주의, 삼국유사, 우물신화, 아시아, 원형, 생의-생생지리-생생화학, 생철학, 기철학, 하나둘 셋넷다섯, 얼마나

두 번째 - 유라시아의 대칭적 사유로 뛰뚫어 보는 근현대 한국미술의 쟁구조

- 열쇳말 : 대칭성 인류학, 예술인류학, 층이론(하르트만), 뇌들보, 예술한국학, 유라시아, 근대성, (사건의) 알고리즘, 아나키즘적 공동체(근대), 공통체

세 번째 - 강렬한 빛의 변태적 창조 이미지, 그리고 상징의 편재 ; 사슴, 용, 부처, 은하, 미륵

- 열쇳말 : 용오름(회오리), 용화수(보리수), 반야용선, (없는) 이미지의 (있는) 이미지, 차이의 몽타주(다발 기억의 재현학-회억된 실제), 사건의 몽타주(편집된 시간), 초월 혹은 초재적 현상

네 번째 - 19~20세기 초 조선철학의 인문적 특이점(特異點, singularity)과 미학적 사유

- 열쇳말 : 증산 강일순, 수운 최제우, 소태산 박중빈, 만해 한용운, 김교신, 최한기, 다석 류영모, 경허 선사와 만공

다섯 번째 - 식민, 해방, 미군정기, 분단, 반공, 독재, 자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평행주체

- 열쇳말 : 한반도, 열강, 제국주의, 탈식민주의, 사회구성체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개념풀이로 몸풀기를 해보자.

술수(術數)

예술(藝術)을 'art'로 쉽게 번역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예술과 미술은 일본이 메이지유신 때 그 'art'를 번역해서 만든 말이니 더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나 예술이나 미술이라는 말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당시 일본의 번역자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통용 문자였던 한자에 매우 해박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동아시아 전체의 민중들이 사용할 수 언어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 숙고했다. 한자는 말보다 '의미'라는 '뜻'이 깊은 문자였기 때문에 더더욱. 본래 예술은 기

예와 학술에서 '예'와 '술'을 따 붙여서 만든 말이다. 각각의 개념이 함의하는 뜻도 다양해서 'art'로만 읽혀서는 그 오래된 뜻의 깊이를 파악하기 힘들다.

2015년 정기현 예술감독이 경기도 안산의 대부분에서 기획한 <황금산프로젝트> 서평에서 나는 "예술의 봄은 '예(藝)'가 본래 뜻하는 '심다, 기예, 궁극'의 생태적[심다], 창조적[기예], 철학적[궁극] 환(幻)의 술수(術數)를 어떻게 선감도(넓게는 대부분에서)에서 실현할 것인가의 미학적 화두로 가득하다."고 말한 바 있다.

예술이란 '예'의 생태성 · 창조성 · 철학성이 '술수'로 드러나는 실체적 '환(幻)'이라고 할 수 있다. 술수와 환의 사유는 도교의 방술[方術:방사(方士)가 행하는 신선의 술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옛 중국에서는 선인(仙人), 방사, 술사를 모두 진인(眞人)이라고 생각했다.

20세기 서구 모더니즘의 유입으로 동아시아의 예술은 '예'만 강조하고 '술(수)'은 괴이하게 생각하거나 미신 따위로 몰아버리는, 그러니까 유물론으로서 '작품'이라는 '예'의 물성에 사로잡힌 꼴이 되었다. 초현실과 비현실의 샤먼 미학은 완전히 저급하고 저속한 것 따위의 문화로 치부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술(수)'이 없이 어떻게 예술 작품의 판타지가 가능하고 영적 교감이 가능할 것인가? 술수는 21세기에 다시 호명해야 하는 '창조술'의 다른 이름이요, 공자(孔子)가 그토록 싫어했으나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들머리에서 강조한 '괴력난신[怪力亂神: 괴이(怪異)와 용력(勇力)과 패란(悖亂)과 귀신에 관한 일이라는 뜻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존재나 현상을 이르는 말]'의 다른 이름이다. 자, 그러니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art'를 내려놓고 술수를 소환해야 한다!

덧붙이는 말 : 방사(方士)

중국 고대에서 '방술'이라고 하는 기술, 기예를 구사한 사람들을 말한다. 술사 · 방술사 · 도사 등으로도 불렸다. 방사의 기원은 전국시대의 제나라나 연나라 등 동방의 연해지역에서 구해지며, 오로지 귀신과 통하는 기술을 다루어서 '무(巫)'와 유사한데, 그 기술은 제나라 학자인 추연의 사상에 의해서 윤색되었다. 진의 시황제는 방사의 권유에 따라서 동해에 존재한다고 믿어진 삼신산에 '불사의 기약'을 구하게 하였다고 하며 한대에도 방사의 활동은 성행하였는데 한의 무제시대, 그 수는 수만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종교학대사전』, 1998. 8. 20. 한국사전연구사

말로 몸 트기

이 기획은 '말로 몸 트기'하는 강연(講演, Lecture)이 되었으면 한다. 강연의 본래적 개념은 "청중들 앞에서 말로 떠드는 '이야기'"를 가리킨다. 그런데 나는 한 발 더 나아가 '떠드는 이야기'를 쌍방향으로 돌려놓고 싶다. 강연자는 말하고 듣자는 읽는 그런 단선적 구도가 아니라 강연자의 말이 듣자의 몸으로 들어가 메아리가 되고 휘몰이가 되고 용오름이 되어서 그야말로 닫힌 몸의 얼을 깨우는 '몸 트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 것이다. 말은 말 그자체로 카오스요 코스모스요, 카오스모제(chaosmose)다. 잠든 몸을 깨우듯 마음을 깨우고 얼을 깨우는 순간이 이 글들에서 촉발될 수 있다면 더 바랄게 없다. 이 글은 창작하는 모든 예술가들과 이미지 비평가들과, 상상의 뿌리를 찾는 자들의 것이다.

너나, 우리, (홀로주체가 아닌) 서로주체

말에는 시제가 있고 뜻이 있고 그 뜻의 뿌리가 있기 마련이다. 말의 근원에서 우리 미학은 다시 출발해야 한다. 때때로 나는 말의 근원 속으로 파고들 것이다.

어제, 오늘, 아제(내일)에서 어제는 과거, 오늘은 현재, 아제는 미래 시제를 갖는다. '↑'와 '↓'에 시제가 있다는 사실. 어제처럼 '너'는 과거요, 아제처럼 '나'는 미래의 의미가 깃들어 있다. 어제가 아제의 과거이듯이 '너'는 '나'의 과거다. 아제

가 어제의 미래이듯이 ‘나’는 ‘너’의 미래다. 우리말에서 ‘너나’는 구분되어서 말할 수 없는 연속 시제의 시간성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너의 눈, 나의 눈에 서로가 어려 있는 모습을 ‘눈부처’라고 한다. 내 눈 속의 네가 나의 부처인 것처럼, 네 눈 속의 내가 너의 부처이니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의 부처인 셈이다. 이렇듯 너와 나, 나와 너라는 우리는 ‘서로주체’의 상징성을 갖는다. 철학자 김상봉 선생은 이것을 ‘서로주체성’이라고 했다. 선생이 주목하는 것은 ‘만남’이다.

“그에게 주체란 너와 나의 만남이요, 공동체란 참된 만남의 결과다. 감상봉 철학의 주춧돌은 존재나 실체가 아니라 만남이다. 만남이라는 활동이 모든 것의 열쇠다. 김상봉은 근대 서양철학이 모든 것의 바탕에 놓은 ‘주체’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만남’을 대안으로 내놓는다. 이것이 서로 주체성에 기초한 김상봉 철학의 핵심이다.” _ 전대호, “주체란 너와 나의 만남, 공동체는 참된 만남의 결과”, 한겨레, 2015.8.13.

변신술(變身術)

다섯 개의 주제들은 다섯 변신술이라고 바꿔 불러도 무방하다. 이때 변신술은 ‘변신-술’의 개념으로 읽어야 한다.

변신(變身)은 “몸의 모양이나 태도를 바꾸는 것”을 뜻한다. 변신에서 핵심은 ‘몸’이다. ‘술’을 단어 그 자체로만 해석하면 ‘꾀’다. 계략이요, 길이며, 통로이고, 규칙이 곧 술이다. 그러므로 다섯 개의 주제들은 몸을 바꾸는 꾀에 대한 술책이 그 밑바탕에 깔려있다.

나는 지난 해 경기문화재단에서 ‘예술로 가로지르기’를 기획한 바 있다. 그 기획의 요체도 변신술이었다. 경기도 양평의 팔당호 두물머리권의 현장과 맞닿아서, 샘을 이루는 상상의 우물지에서 어떤 변신술이 터질 것인가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그 변신술에서 가장 상징적인 기획 중의 하나는 강원도의 뗏사공이셨던 홍원도 어르신을 모시는 일이었다. 1970년대 초반까지 강원도에서 남한강의 물길을 타고 뗏목을 이동시켰던 어르신의 몸에는 물의 감각과 통나무의 감각이 통시적으로 기억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들뢰즈 식으로 말하면 그의 몸은 ‘몸각-기계’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어르신과 함께 이야기할 대상으로 기계비평가인 이영준 계원예대 교수를 섭외했었다.

또 하나는 첫째 날 공연했던 한국 변검술의 창시자인 김동영 선생의 ‘변검’이었다. 열 두 개의 가면을 순식간에 바꿔가면서 춤추고 연기하는 그의 몸은 변신에 깃들어 있는 ‘기화(氣化: ~되기)’의 술수를 경이롭게 펼쳐냈다.

우리는 어떻게 술수의 경이를 창조할 수 있을까? 그 해답 중의 하나는 ‘나’를 ‘~되기’의 상태로 돌린 뒤, 술책을 깔고 변신/변태 하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다.

용(龍)-기(氣)-천(天)-담(談) ; 기화(氣化)-운행(運行)-신기(神氣)-통(通)

각 단어마다 풀어서 한 페이지는 족히 될 것이나, 그것들을 구분해서 상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으로 묶어서 설명하기로 한다.

이무기가 용이 되는 것을 ‘기화’라고 하고 또 ‘운화(運化)’라고도 할 수 있다. 사실 이 말의 뿌리는 혜강 최한기(崔漢綺, 1803~1879) 선생의 기학(氣學) 사상에서 온 것이다. 선생은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기(氣)로 보았다. 우주에 가득 찬 바로 그 기가 끊임없이 활동문화, 즉 운동하고 변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선생은 기를 ‘천지지기’, ‘운화지기’라고도 불렀다.

그리고 또 그 기는 모든 존재의 형체와 질료를 이루고 있는 것이어서 ‘형질지기’라고도 한다. 정리하면 “기학의 핵심은 만물의 근원적 존재이자 인간과 만물 속에 들어 있는 생명이 기운인 운화기(運化氣)의 활동문화(活動運化)다. 활동문화란 살아 있는 기가 항상 움직이고 두루 돌아 크게 변화하는 것이다.” 선생이 지은 『신기통』을 구해서 읽으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어쨌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의 세부 주제들을 저렇듯 하나의 과정적 ‘기화작용’으로서 그러니까 활동문화의 열쇳말로 적어 놓은 것은 나와 독자들이 만나는 시간들에서 몸맘열이 크게 움직이고 변화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저 말들이 갖는 뜻과 상징이 어렵고 난해할 지라도 언제가 그 깊이를 헤아린다면 모두에게 감흥이 있을 것이다.

몸맘열, 사람-생각, 암, 깨달음

민세 안재홍(安在鴻, 1891~1965) 선생께서는 우리말로 부르는 숫자 말에서 말 뿐리의 철학을 이야기한바 있다.

하나(一:한울) · 둘(二:땅) · 셋(三:씨) · 넷(四:나 · 나라) · 다섯(五:다사리) · 여섯(六:연속) · 일곱(七:성취) · 여덟(八:열고 닫음) · 아홉(九:아우름 · 회통) · 열(十:개전) · 백(百:온통) · 천(千:참) · 만(萬:조화) · 억(億:선)이 그것이다. 일이삼사오가 아니라 하나둘셋넷다섯에서 유불선의 철학을 보셨던 것이다.

다섯 유영모(柳永模, 1890~1981) 선생은 이기적인 ‘나’를 ‘제나’라 하셨고, 육체적인 ‘나’를 ‘몸나’라고 했으며, 참된 나를 ‘얼나’라고 하셨다. 노자의 『도덕경』 제1장을 해석한 것을 보자.

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

無名天地之始

有名萬物之母

故 常無慾以觀其妙

常有慾以觀其微

此兩者同 出而異名

同謂之玄 玄之又玄

衆妙之門

말할 수 있는 참(爾)은 늘(영원한) 참이 아니다.

이름할 수 있는 님은 늘(영원한) 님이 아니다.

없음의 님(무극)이라 하늘과 땅(우주)의 비롯이고

있음의 님(태극)이라 온갖 것의 어머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고픔(自我)이 없어져서 그 신비를 보고

언제나 하고픔이 있어서 그(별들의) 둑을 본다.

이 두 가지는 한 나옴(존재)인데 달리 이름이라 부름이라.

(無,有를) 삼가 이르면 검님(하느님)이다.

아득하고 또 까마득하여(遠大한) 뭇 오묘한 것이 나오는 문이다.

선생은 이렇게 풀이하고 덧붙여서 이런 말을 남기셨다.

짐승인 제나(自我)의 눈으로는 별들의 움직임 즉 천체의 운행을 살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를 느끼는 이는 얼나를 깬 사람이다.

이몸은 참 나가 아니다. 참나를 실은 수레라고나 할까.

얼의 나는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얼의 나는 예수의 얼나와 석가의 얼나가 한 생명이다.

사람은 살(生)+앎(覺)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살아서 깨닫는 것이 곧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다석 선생은 ‘오늘’을 ‘오!’(감탄사), ‘늘’(영원)의 삶으로 살았다.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빌어서 선생은 “몸과 맘과 얼이 조화되지 않는 동안 아무 것도 바르게 될 수 없다”고 했다.

동학에서는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는 주문을 외웠다. 주문에서 ‘시천주 조화정’이 매우 중요한데, 풀면 “내 안에 한 얼을 모시니 드디어 내 몸에 조화가 이뤄졌습니다.”이다. 조화를 이루고 그것을 잊지 않으면 만 가지 일을 깨우칠 수 있다는 게 주문의 요체다. 깨우친 자는 곧 부처다.

술수 부리는 예술가로의 변신은 역설적으로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있다는 것을 항상 깨닫는 것이며, 살아서 깨닫는 그 앎을 통해 몸맘얼이 조화를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 순간일지라도 몸의 변신/변태를 통한 조화의 이룸을 잊지 않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그래야만 몸에 깃든 신명이 몸 안에서 활하게 밝아 얼을 꾸준히 비출 수 있기 때문이다. 샤먼의 청동거울이 필요한 시간이다!

1. 우주 여자

옛날 옛적 마고 할머니 시절에 땅에는 젖이 넘쳤다네.

시기도, 싸움도 없었으니 죽음 역시 세상에 없었다네.

_ 최정원, 《마고할미》중에서

최초의 샤먼, 우주여자의 깃털

여기 한 여자가 있다. 1912년 아프리카에서 촬영된 흑백 사진 속의 여자는 얼굴까지 뒤집어 쓴 거대한 원피스(juju suit)를 입고 있다. 팔목과 발목이 드러나 있을 뿐이다. 주주의 옷으로 불리는 이 옷은 가슴 부분에서 아래로 크고 굽은 주름이 있는데 그 주름에는 여러 개의 가슴이, 정령들의 형상이, 다양한 무구(巫具)가 주령주령 달려있다. 그리고 머리에는 그녀의 얼굴보다 작은 가면이 얹어져 있고 그 가면에는 새의 깃털 두 개가 꽂혀있다.

juju

- 서아프리카 인들의 종교적 존경의 대상인데, ‘주주’라는 말은 1860년 프랑스인 할머니가 “장난감, 장난감”이라고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www.etymonline.com 참조)

1. (서아프리카 주술에서 쓰이는) 주물, 부적(액막이)
2. 주주(서아프리카 주술의 한 가지)
3. 주주 음악(기타와 북으로 연주하는 나이지리아 음악의 한 형태)

원시예술로서 음악무도는 무술(巫術)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한 예로 ‘巫’(무)와 ‘舞’(무)의 관계로부터 이 점을 잘 알 수 있다. ‘巫’(무)의 원래 형상은 ‘夾’(협) 혹은 ‘爽’(상)과 같다. 사람이 소의 꼬리 혹은 새의 깃털을 쥐고 있는 모습이다. ‘舞’의 처음 글자는 ‘巫’였다. 갑골문 중에 ‘舞’와 ‘巫’ 두 글자는 모두 ‘夾’ 도는 ‘爽’으로 쓰였고 이 때문에 ‘巫’와 ‘舞’는 원래

같은 글자임을 알 수 있다. 전북대 인문학연구소, 《창조신화의 세계》, 소명출판, 2002, 435쪽 각주 80에서 재인용

경주시 천마총에서도 새와 샤머니즘의 문양은 발견되고 있다. 내관은 삼각형·철형(凸形)·능형 등의 문양이 투각된 앎은 금판(金板)을 오려서 만든 세모꼴 모자에 역시 복잡한 투각문양(透刻文樣)과 많은 영락이 장식된 새 날개모양(鳥翼形)의 금판 관식을 앞에 꽂게 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새 날개 모양은 관모의 장식으로 꽂은 것은 삼국시대 사람들의 신양을 반영한 것으로 샤머니즘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늘과 땅을 잇고자 했던 새의 상징은 그대로 시베리아 통구스족 샤먼을 거쳐 우리에게도 전승되었다. 그들은 북을 치고 춤을 치며 굿을 한다. 위대한 하늘 신 멍케 텅그리를 위해 기도하고 그 신을 받아 말씀을 전했다. 신은 우주 하늘로부터 내려 오셨고 땅의 샤먼은 신목을 오르락내리락 하며 받았다. 그 내림과 받음의 형식이 우리 굿의 여러 형태들에 남아 있다. 그리고 우리는 최초의 우주여자였던 샤먼의 이름이 ‘마고(麻姑)’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다.

지리산프로젝트, 그리고 우주여자

〈지리산 프로젝트2016〉은 ‘우주여자’를 주제로 내세웠다. 우주여자라니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일까? 학술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은 ‘여자’라는 열쇠말에서 ‘페미니즘’을 들고 나왔으나, 사실 접두어로 붙어 있는 ‘우주’를 이야기할 때는 페미니즘이 아니라 샤머니즘이어야 옳다. 왜일까? 고대 샤먼은 곧 우주여자였기 때문에 그렇다. 게다가 지리산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 우주여자를 성모/천왕할매로 모셨던 여신의 고향이기도 하다. 그 여신의 이름은 마고(麻姑)다. 마고 또는 마고할미의 신화는 제주에도 달아서 오랫동안 전승되었었다. ‘지리산 성모상’, ‘지리산 천왕할매’로 알려진 마고의 이야기. 경상남도 민속자료 제14호인 ‘지리산 성모상’에 관한 기록이다.

“이 성모상은 삼고시대부터 천심사상의 반영인 토속여인으로서 천계와 인간계를 상통하는 지리산 수호신이다. 이에 관한 문헌으로는 동국여지승람과 이능화의 불교통사 등에 기록되어 있다. 사가의 동문선권 68에는 도선(827~899)이 지리산 주인 성모천왕께 부탁한 기록이 있고 필재 문집 권2에는 김종직이 이 천왕봉상에 있는 성모묘에 들어가 성모께 날씨의 쾌청을 빌고 또 성모상의 이마에 있는 상처에 대해 문의한 기행문 등은 성모상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원래는 천왕봉상에 있었으나 1970년대에 분실 되었던 것을 1987년에 찾아 천왕사에 모시고 있다.”

마고(麻姑), 유라시아의 동쪽에서 조현설, 《마고할미 신화 연구》, 민속원, 2013. 참조. 최정원, 《마고할미》, 영림카디널, 2010. 참조.

마고의 한자말 ‘麻姑’의 금문 해석은 이러하다. ‘麻’에는 사람을 다스리는 신단(神壇)의 의미가 있다. 흙으로 단을 쌓고 신을 모심으로써 사람을 다스리는 것. 그 믿음의 신앙은 예부터 집안으로 들어와 하나의 장소가 되었다. ‘姑’에는 ‘女’에 주목해야 한다. ‘계집 女’의 한자는 여자가 무릎을 꿇고 비는 꼴이다. 그 뒤에는 시루에 신대를 꽂아 놓았다. 지금도 굿을 시작할 때 한지를 접어서 만든 가지꽃을 붙인 신대를 시루에 꽂는다. 이런 의미로 보아 마고는 고대 샤먼이요 대제사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마고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마고 이야기는 신라 놀지왕 때 박제상이 저술한 사서 《징심록(澄心錄)》중 〈부도지(符都誌)〉에 나온다. 상고사의 비서(祕書)인 이 책에는 파미르고원으로 추정되는 마고성의 황궁씨로부터 시작한 1만 1천여 년 전의 한민족 상고사를 기록하고 있다.

〈부도지(符都誌)〉에 따르면, 마고성(麻姑城)은 마고가 사는 성으로 지상에서 가장 높은 성이며, 천부(天符)를 받들어 선

천을 계승하였다고 한다. 성의 가운데는 천부단(天符壇)이, 사방에는 각각 보단(堡壇)이 있다. 천부는 천리를 숫자로 표현하여 우주법칙을 설명한 것이며, 천부삼인(天符三印)이란 천지 본음(本音)을 본 뜻 것이다. 이 마고성에서 출발한 한민족은 마고·궁희·황궁·유인·환인·환웅·단군에 이르는 동안 천산·태백산과 청구를 거쳐 만주로 들어 왔으며, 이렇게 시작한 한국의 상고역사는 하늘과 함께 온 천도적(天道的) 의미를 지닌다. 부도(符都)란 하늘의 뜻에 부합하는 나라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부도지에 관한 기록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인용함.

마고할미에 관한 기록은 조선시대 장한철이 쓴 《표해록(漂海錄)》(1771)이다. 바다를 표류하던 일행이 제주 한라산이 보이자 기뻐 소리 내어 울면서 백록선자와 선마선파(詵麻仙婆)에 살려달라고 빌었다는 내용이다. 또 이 책에는 “아득한 옛날 선마고(詵麻姑)가 설어서 서해를 건너와서 한라산에서 놀았다는 전설이 있다”는 기록도 전한다. 선마선파의 ‘선파’와 선마고의 ‘고’는 ‘할미’를 뜻하는 것이니 그것이 곧 ‘선마할미’이다. 선마는 설문대와도 음이 상통하므로, 선마할미는 제주도의 설문대 할망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선마할미가 서해를 걸어서 건넜다고 하는 것은 ‘거인’ 형상을 말하는 것으로, 한국 마고할미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리라. 마고할미에 관한 이야기는 국립민속박물관이 펴낸 《한국민속문학사전》을 참조함.

아래 이야기는 ‘중학생이 되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우리신화3’으로 펴낸 최정원 선생의 《마고할미》의 첫 대목이다. 나는 이처럼 쉽고 깊이 마고할미 신화를 들려준 이를 알지 못한다. 무릇 이야기는 귀에 쉬워야 하고, 마음에 깊어야 하며, 영혼에 밝아야 한다. 신명이다. 밝아야 재밌고 재밌어야 뒤집어진다. 우주의 기운을 이야기하는 대통령은 귀가 어렵고 마음이 얕으면 영혼이 어둡다. 그러나 신명이 있을 리 만무하다. 아주 오래전, 부족을 이끌던 샤먼들은 말(言)로써 부족을 이끌었다. 그것은 ‘말씀’이어서 무서웠으나 쉽고 간결했다. 그 말씀에 깊이가 있고 밝아서 무두가 따를 만 했다. 하늘과 땅의 말씀을 잊지 못하는 자는 샤먼이 될 수 없다. 신령한 하늘과 땅을 잇는 자가 무당(巫-)이다.

“까마득한 옛날,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던 그 아득한 시대를 선천이라고 부른다. 그러던 어느 날, 여덟 가지 음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음과 소리의 떨림이 거듭될 때마다 그 힘으로 하늘에는 별무리가 하나둘 나타났고, 이 소리가 서로 뒤섞이면서 세상의 중심인 실달(實達)이 생겨났다. 실달의 위에는 기(氣)운이 뭉쳐서 뒤덮인 허달(虛達)이 있었고, 허달과 나란히 대성(大城)이 나타났다. 이 모든 기운을 받아 마고(麻姑)라는 신이 태어났다. 이 시대를 짐세라고 부른다. 짐세는 우주가 만들어져 하나하나 모습을 다듬어 나가던 시절이었다. 짐세가 끝나 갈 무렵 마고는 혼자서 궁희와 소희라는 두 딸을 낳아 세상을 채우고 있는 다섯 가지 음(五音)과 일곱 가지 음조(七調)를 맡게 했다. 그러자 대성 안의 땅에서 젖이 흘러넘치는 샘이 솟아났다. 이것을 지유(地乳)라고 한다. 지유가 넘쳐흐르자 두 딸 궁희와 소희는 거드랑이를 열어 각각 네 명의 천인·천녀를 낳았다. 두 여신은 천인들에게는 을(律)을, 천녀들에게는 려(呂)를 맡게 했다. 이렇게 울려가 부활하게 되어 소리가 어울림(響象)을 이루게 되자 성(聲)과 음(音)이 섞이게 되었다.”

몇 가지 개념을 정리한다.

삼신(三神) : 마고가 궁희와 소희를 낳았다고도 하고, 마고와 궁희, 소희가 세 자매라고도 전한다. 이들 세 여자로부터 삼신의 형상이 탄생한다. 방장(方丈)에서 삼신제를 지냈다 한다. 그들은 시집을 가면서 오곡 종자와 삼신의 신표인 첨부삼인을 가지고 갔다. 제주에서는 자청비 신화가 전한다.

영동할미 : 2월의 추위를 뜻한다. 삼신에서 유래한다. 제주 말에 ‘바리’라는 게 있는데 바리는 ‘발’이다. 발을 한자말로

‘發’을 쓰는데 이 발이 ‘神’을 신고 다니므로 하늘님을 신고 다니는 발족(發足)이 되었다. 거인족의 이야기와 연결된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관자(管子)》에 따르면 ‘發’은 동이라고 하였다.

솟대 : 방장(方丈)이 있는 곳을 소도(蘇塗), 즉 솟대를 세우는 곳이라 전한다. 굿을 시작할 때 시루에 꽂는 신대는 이 방장의 솟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주(星主) 제사 : 옛 적에는 발이 큰 사람을 대인(大人)이라 했다. 주역에서 대인은 달(月)이다. 달은 거인 여자(巨女)와 땅을 의미한다. 여자와 땅이 모두 지모신(地母神)이니, 영주에서 지모신은 곧 삼신이다. 마고삼신을 받아들인 영주에서 마고를 위한 추모제를 지낸다.

가이아, 유라시아의 서쪽에서

지구별은 가이아(Gaia)다. 가이아는 태초의 어머니요, 대지의 여신이다. 이 땅의 만물들이 모두 어머니 가이아로부터 와서 다시 그에게로 돌아간다. 지구별의 모든 신들 또한 가이아의 자식들이다. 가이아는 신들의 어머니인 것이다.

해시오도스는 『신통기(神統記)』에서 최초에 카오스가 있었다고 말한다. 그것은 무한한 공간이었고 바로 거기서 가슴이 넓은 땅 가이아와 영혼의 사랑인 에로스가 불현 듯 출현했다. 가이아는 훌로 거대한 대지를 움직여 산맥을 만들고 바다와 하늘을 낳았다. 그러므로 지구별이 곧 우주여자이기도 하다.

1978년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은(James E. Lovelock, 1919~)은 《가이아: 지구상의 생명을 보는 새로운 관점》에서 지구와 지구에 사는 생물, 대기권, 대양, 토양까지를 포함하는 하나의 범지구적 실체를 가이아라고 말하면서 가이아 이론을 제시했다. 그것은 지구를 생물과 무생물이 상호 작용하는 생명체로 보면서 지구가 생물에 의해 조절되는 유기체임을 강조한 것이다. 제임스 러브록 지음, 이한음 옮김, 《가이아의 복수: 가이아 이론의 창시자가 경고하는 인류 최악의 위기와 그 처방전》, 세종서적, 2008. 막심 샤탕 지음, 이원복 옮김, 《가이아 이론》, 소담출판사, 2009. 참조.

2. 사슴-뿔

시베리아 통구스샤먼은 고축(告祝)굿을 할 때 머리에 거대한 사슴뿔을 단 관(冠)을 쓴다. 왜 사슴뿔을 관에다 장식했을까. 아무리강에서도 사슴을 그린 도상이 여기저기에 있는 것은 사슴과 샤머니즘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말해 준다.

박용숙, “현대구상양식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한 도상학 강좌” 중에서

말뿌리의 알고리즘이 미학이다!

아시아 미학의 뿌리구조는 하나의 거대한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이 말과 저 말의 뜻이 서로 통하고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20세기 이후 말의 뿌리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확장되었는지를 잊었다. 아니 잊어버렸다는 것이 더 적확할 것이다. 우리말로서의 한글과 동아시아 문명권의 문자 체계를 이뤘던 한자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야 사실 아시아 미학의 알고리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문자가 생성되기 전의 말과 이미지에서 시작된 상징의 알고리즘은 문자가 생성된 뒤에 더 견고해지기 시작했다. 그 시기는 대략 5천 여 년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알고리즘의 구조를 구현하기는커녕 그런 구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말과 문자와 이미지들의 상징체계는 한 부족의 문화뿐만 아니라 그 문화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며 흘렀던 문명체계와 구분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한반도와 한반도를 둘러싼 한자 문명권과 그 문명권으로 유입되었던 고대 인류의 ‘문화 통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인류의 이동경로를 밝혀 낸 최근의 유전자 지도는 인류가 얼마나 다양한 경로로 이동해 왔고 갔는

지를 보여준다. 한반도만 하더라도 북방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의 경로와 다 이어진다. 학자마다 견해가 달라서 북방아시아 루트를 가장 강력한 이동경로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억지춘향에 가깝다. 한반도에 정착해 살고 있는 우리의 옛 선조들과 우리는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를 경유해 올라온 선조들의 얼굴 형상이 가장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혀지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미학의 뿌리구조는 사실 유라시아 전체에 걸쳐 있는 상징체계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상징체계의 뿌리는 북방과 중앙과 남쪽의 문명과 문화를 깊게 이해해야만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오늘 이야기할 ‘사슴-뿔’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북방에서는 지금도 샤먼이 쓴 사슴뿔 관에서 그 직접적인 흔적과 상징을 찾아볼 수 있다. 남방에서는 석가모니 부처의 녹야원(綠野苑:사슴동산)에서 그 의미를 추적할 수 있다. 갠지스 강 종류의 베나레스시에서 북동쪽으로 약 7km 지점에 사르나트가 있고 거기에 사슴동산이 있다. 봇다는 깨닫고 난 뒤 그곳에서 처음 설법을 터트렸다. 그런데 깨달음을 이룬 우루벨라 마을의 봇다가야에서 그곳까지는 약 200km나 떨어져 있다. 왜 봇다는 그곳까지 가서 설법을 했을까? 그곳의 다른 이름은 선인론처(仙人論處), 선인주처(仙人住處), 선인원(仙人園)인데 혹 그런 연유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사슴이 상징하는 대샤먼의 이미지와 연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대샤먼은 하늘과 땅을 잇는 신관으로 진리의 설법을 여는 자이기도 하니까 말이다. 그런 맥락에서 대샤먼은 진인(眞人)이요, 선인(仙人)의 의미도 동시에 갖는다. 중국에서는 대샤먼의 상징을 우리가 흔히 마법사라고도 부르는 ‘방사[術士]’로 전유했다. 방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첫 번째 연재 이야기에서 찾아보기 바란다.

사슴뿔의 뿌리구조와 미학적 상징

아시아 미학의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중의 하는 ‘사슴-뿔’이다. 사슴과 사슴뿔의 이미지는 현대 영화나 미술에서도 종종 찾아 볼 수 있다. 2013년 9월에 개봉한 한재림 감독의 영화 〈관상〉에서 수양대군 역의 이정재는 그 등장 장면 하나로 화제가 되었다. 영화가 시작하고 1시간 정도가 흐른 뒤에 등장하는 그 장면은 부하들과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순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야기의 핵심은 이정재가 아니라 ‘축록’(逐鹿)에 있을 것이다. 부하 하나가 사냥으로 잡은 동물을 어깨에 메고 뒤를 따르고 있는데 그것의 상징은 수양대군이 제위[권좌]를 찬탈하는 것일 터.

법(法)의 옛 글자는 법(灋)이다. 삼수변에 ‘해태[獬豸]’를 뜻하는 ‘치=태’(鷩)가 들어갔다. 해태 ‘치’ 또는 해태 ‘태’로 말하는 ‘鷩’은 상상의 동물이긴 하나 그 의미는 시비와 선악을 판단하여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옛 글자는 변하여 법(法)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법의 다른 뜻으로는 ‘방법’, ‘불교의 진리[佛法:眞理]’, ‘모형’, ‘꼴’, ‘본받다’가 있다. 해태의 ‘鷩’은 사슴 ‘鹿’(사슴 둑)을 닮았다!

‘鹿’은 “사슴, 제위[혹은 권자]의 비유, 목적물, 곳집, 산기슭, 거칠다”를 뜻한다. 옛 문헌에 이런 말들이 있다. 取天下, 若逐野鹿[취천하, 악죽야록] : 천하를 취하는 것은, 들판의 사슴을 쫓는 것과 같다. 秦失其鹿, 天下共逐之[진실기록, 천하공죽지] : 진(秦)나라가 사슴을 잃게 되자, 온 천하가 다 같이 그것을 쫓았다.

사마천 『사기(史記)』의 『회음후전(淮陰侯傳)』에 “秦失其鹿天下共逐之 注 集解曰 張晏曰以 鹿喻帝位也.”라는 구절이 나온다. 그 이야기의 전말은 이렇다. 한(漢)나라의 고조가 반란을 일으킨 진희를 토벌하려 간 사이에 회음후(淮陰侯) 한신(韓信)이 한의 수도에서 군사를 일으키려다가 발각되어 죽음을 당했다. 진희를 평정하고 돌아온 고조가 이 사실을 알고 황후 여후(呂后)에게 한신이 마지막에 한 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여후는 “그는 괴통의 계략을 듣지 않은 것이 분하다고 말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괴통은 제(齊)나라의 언변가로 고조가 항우(項羽)와 천하를 다투 때, 제왕(齊王)이던 한신에게 독립할 것을 권한 사람이다. 고조가 당장 괴통을 잡아들여 심문하자 그는 순순히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고조는 크게 노하여 “괴통을 삶아 죽여라.”하고 엄명을 내렸다. 그러자 괴통은 “나는 조금도 죽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秦)의 기강이 무너지자 천하는 어지러워 각지에서 영웅호걸들이 할거(割據)하고 있었습니다. 곧, 진(秦)나라가 그 사슴을 잃었

으로 천하는 모두 사슴을 잡으려 했습니다(秦失其鹿天下其逐之). 그 가운데서 폐하는 훌륭히 그 사슴을 잡으신 것입니다. 저 무도한 도적의 개가 요(堯)임금을 보고 짖었다 해서 임금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는 주인 외에는 누구에게나 짖는 법이므로 당시 나는 오직 한신만을 알았기에 그의 편을 들어 폐하를 보고 짖은 것뿐입니다. 천하를 한 번 노렸다고 해서 다 삶아 죽이시려는 것입니까. 안 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하며 자신을 변호했다. 이 말에 고조는 괴통을 용서해 주었다.

왜 사슴은 ‘제왕’ 즉 황제를 뜻하는 말이 되었을까? 사슴 사냥을 뜻하는 ‘축록’에 그 상징의 아주 먼 원형이 깃들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순록을 따라 이동했던 고대 동북아시아 부족들과 그 부족의 위대한 사슴뿔 샤먼의 권위가 후대에 그렇게 이어져서 상징화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순록치기가 본 조선 고구려 몽골』(혜안, 2007)과 『순록유목제국론』(백산자료원, 2008)을 집필한 주채혁 전 강원대 교수는 시베리아 생태환경으로 보아 시원적인 유목은 순록유목이고 ‘조선’이나 ‘고려’ 또는 ‘구르간’이라는 이름은 순록유목과 직결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순록유목제국론』에는 경향신문 창간 60주년 기념 코리안 루트 탐사 보고 기획물이 부록으로 실려 있다. 그 내용 중 이런 부분이 있다. “조선과 고려가 순록, 맥(고구려)이 너구리, 부여가 부이르(숫수달), 몽골이 엘蹦기–너구리, 발해가 늑대 또는 이리, 단(檀)과 타타르가 수달, 솔롱고스가 ‘무지개’가 아닌 족제비과에 속하는 솔롱고(黃鼠狼)와 관계가 있다.”

사슴에 대한 인류학적인 자료에는 사슴뿔이 번개모양과 같다는 것과 몸에 얼룩점이 있다는 사실이 강조된다. 그래서 사슴은 천문도와 관련이 있는 동물이라고도 말한다. ‘샤머니즘’이란 명저를 남겼던 우노 하르바(Uno Harva)는 사슴을 시베리아 샤먼들이 대웅좌(大雄座)로 부른다는 사실을 밝혔다. 우노 하르바, 『샤머니즘-北極星과 小熊座』, 昭和46年, pp.175-178. 박용숙의 “현대구상양식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한 도상학 강좌1”, 월간 서울아트코리아 웹진, 2009년 7월호에서 재인용.

패트로누스와 ‘사슴-뿔’, 그리고 대마법사

해리포터의 패트로누스(Patronus)는 수사슴이다. 영화 〈해리포터-죽음의 성물 1편〉의 후반부에 그야말로 판타스틱하게 등장한다. 어두운 숲과 호수와 나무들 사이에서 흰 불꽃 연기로 형상화 된 수사슴. 해리포터는 처음엔 그것이 아버지의 패트로누스인 줄 알았으나 영화가 끝날 무렵 제 자신의 패트로누스인 것을 알게 된다. 패트로누스는 동물의 형상을 가진 마법사의 수호자다. 디멘터(Dementors)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마법이기도 한데, 디멘터와 맞닥뜨렸을 때 행복했던 기억과 상상을 그리면서 “익스펜토 패트로눔!”이라 외치면 된다. 위키백과에 공개된 ‘해리포터의 마법 생물 목록’에 디멘터는 가장 더러운 생물체 중 하나로 소개되어 있다. 원래 아즈카반의 간수였으나 나중에 죽음을 먹는 자들의 편으로 돌아섰고, 그래서 이들은 마이너스적 감정(절망, 슬픔 등)의 집약체이므로 물리적인 공격에 절대적인 내성을 지니기에 행복한 감정의 결정체인 패트로누스만이 이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마법사에게 수호자로서의 패트로누스가 있다는 것은 토픽의 샤먼적 적용이라 할 것이다.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없이 많은 부족들은 동물 토템을 신화화 한 경우가 많다. 영화에서 마법사들은 각기 다른 패트로누스를 가진다. 그들이 모두 독립된 마법사의 혈통을 가지기 때문일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패트로누스가 디멘터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마법이라는 사실이다. 마치 샤먼이 고축을 할 때 머리에 썼던 사슴뿔 관처럼 말이다. 수사슴을 패트로누스를 가진 해리포터는 영화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사로 성장하는데 동아시아에서도 사슴뿔 샤먼은 가장 위대한 샤먼 중 하나이다.

시시가미, ‘사슴-용’ : 세계를 치유하는 신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모노노케 히메〉(1997)에는 사슴신이 등장한다. 후반부의 줄거리를 인용한다. “목을 잃

은 시시가미의 몸에서는 생명을 빨아들이는 무서운 힘이 퍼져 나오고 죽음의 힘에 달은 모든 생명이 죽어가기 시작한다. 숲과 모든 생명이 죽어 가는 가운데 부상당한 예보시를 구하려는 아시타카를 산은 원망한다. 다 같은 인간임을 강조하며 산에게 도움을 청하는 아시타카. 산과 아시타카는 예보시 일행을 숲에서 탈출시키고 시시가미의 목을 돌려주기 위해 다시 숲으로 향한다. 목을 찾기 위해 지코보 일당을 쫓는 시시가미는 닥치는 대로 모든 생명을 빼앗으며 타타라바와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고, 지코보로부터 겨우 시시가미의 목을 되찾은 아시타카와 산은 시시가미에게 목을 되돌려 준다. 목을 돌려받은 시시가미는 쓰러지면서 생명의 힘으로 자신이 파괴한 숲을 부활시키고, 시시가미의 희생으로 숲은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다. 죽음의 저주가 풀린 아시타카는 산에게 인간들과 함께 살 것을 권한다. 끝내 인간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산은 숲을 택하고, 아시타카는 타타라바에서 살며 산을 만나러 갈 것을 약속한다. 출처 : NAVER영화.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9303>. 2017.2.7. 현재시점.

위의 줄거리에 등장하는 시시가미는 본래 사슴신이다. 시시가미는 영화 속에서 살필 수 있듯이 낮에는 인간형 얼굴과 나뭇가지 또는 산호처럼 뻗어난 반짝이는 뿔, 3갈래 발굽을 가진 대형 사슴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걸을 때마다 그 자리에 화초가 피어올랐다 시들며, 물 위를 가볍게 걸어 다닐 수도 있다. 밤이 되면 연못가에서 거대하고 반투명한 사슴형 수인[다이다라봇치: 일본을 창조했다는 거인]의 모습으로 변해서 돌아다니고, 아침이 되기 전에 다시 사슴신의 모습으로 변한다. 시시가미가 변신한 다이다라봇치의 모습에서는 사슴과 용의 상관관계도 드러나는데 그 부분은 다음호에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다. 치유의 신으로서의 사슴신은 일본의 토속적인 신화가 아니다. 그것은 동아시아 전체에 걸쳐있는 신화다. 한라산의 백록담(白鹿潭)은 '흰 사슴 연못'이라는 뜻이다. 사슴신의 신화는 한반도의 오래된 지명에도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그 의미와 상징은 프리다 칼로의 〈상처 입은 사슴〉(1946)에서도 엿볼 수 있다. 마흔 일곱에 요절한 칼로의 이 작품은 고통의 순간을 표현한 자화상일 터인데, 치유할 수 없는 절망의 표현이 화실에 맞은 둠과 황량한 숲이라면, 그녀의 얼굴과 힘찬 사슴뿔에서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에너지가 느껴진다. 아마도 그것은 삶과 현실의 참혹한 고통의 순간들을 예술로 승화시킨 정신의 표상일 것이다.

다시, 술수로 돌아가서

'미술'이라는 말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일본이 번역한 근대 번역어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미'와 '술'은 각각의 개념으로서 동아시아의 아주 오래된 개념이다. 이때 '술'은 재주나 기술 따위가 아니라 피, 계략, 길, 통로, 수단, 방법 등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는 말이다. 미술이 아니라 술수를 부린다고 했을 때의 '술'을 떠올려 보라!

술은 이것에서 저것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현실에서 초현실로 전경에서 후경으로 뒤바뀌는 미술적 통로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술이라는 통로는 우물에 비유된다. 우물은 땅 밑으로만 있지 않고 첨성대처럼 하늘 우물도 존재 한다. 우물은 삼국유사에 왕이 용으로 변신하는 통로로 등장한다. 이때 우물은 메타모퍼시스라는 변태적 공간이면서 인간과 용이 합일적 상태에 이르는 특이점이다. 블랙홀과 화이트홀 사이의 특이점!

석가모니 붓다는 사슴동산에서 첫 설법을 터트렸다. 사슴동산의 말씀은 진리여서 무지한 중생을 부처로 변용시키는 힘을 가졌다. 그 말씀의 힘은 시간에 속하지 않아서 법륜이라는 수레로 표현되는데 그 둑근 수레가 또한 우물이다. 이 현실에서 저 현실로 초월하기 위해 사람들은 오체투지를 한다. 오체투지는 진리를 보려는 자들의 간절한 비극이지만 그 끝에서 그들이 보는 세계는 진리의 만다라 곧 말씀의 '우물/우주'다.

고대 동아시아의 사먼들은 사슴뿔을 쓰고 하늘과 대지를 연결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고 왕이었으며 사먼이었다. 황제들이 사슴사냥을 '천하(天下)'에 비유했던 것은 그 세 개의 힘을 주고자 했던 고대의 비화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시시가미, 즉 사슴신은 한라산의 백록담 즉 흰 사슴 뜻의 성스러운 신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현실의 사슴이 사냥 당해서 죽

을 때 사슴은 모든 생명의 생령을 빼앗는 죽임의 신으로 돌변하지만, 그 힘으로 이 우주를 일순간에 치유하는 사슴용으로 변신한다. 죽임과 살림의 전환에서 사슴과 사슴용의 변용-전환-반전이 터지는 것이다. 동아시아인들의 사유에는 이 용의 변태적 사유에서 '창조성'이라는 미적 세계와 황홀이 깃들어 있다.

석도는 화론의 일획장에서 한 번 그음이 법이라고 했다. 본래의 통나무는 있는 그대로의 나무인데 이 통나무가 한 번 흘어질 때 비로소 '畫=美'라는 법(法)이 선다고 했던 것이다. 나무가 흘어지는 것은 원형질의 질료가 미학으로 변태되는 순간이다. 그것이 바로 술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번역어 보통명사가 되어 버린 '미술'이라는 말을 우리는 다른 의미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새로운 미술이 터지고, 새로운 인식이 터져서 '전시=보여주는 것'가 아닌 '제의=하늘과 땅을 올리는 것'로서 담론을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술(수)이 21세기 아시아 미학의 중심 의제로 떠오를 때 미(美)는 버려두어야 할까? 아니다. '美'의 뿌리에 사슴뿔 사먼이 있다면? '美'의 구조는 큰 뿔을 쓴 대샤먼의 의미에서 비롯된다. 크고(大) 살찐 양(羊)이라는 뜻으로도 해석하지만, 큰(大) 순록의 뿔(羊)을 쓴 샤먼으로 해석하기도 하는 것이다. '아름답다'는 '아름'[알음(知:알다)]+'답다'의 구조다. 알음은 깨달아 아는 것을 뜻하고, '-답다'는 '나 다음'에서 찾아진다. 깨달아 아는 주체로서의 '나'. 그가 곧 진인이지 않은가. 그가 곧 선인이지 않은가. 그러니 '미'(美)는 오래전의 사먼에서 비롯된 말일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미술'이라는 '사먼의 술수'라고 풀어 말해야 하지 않을까?



For the aesthetical practice of Onsaemiro

– The root structure of Asian aesthetics and the mythical imagination of well, or any circular form

Kim Jong-Gil | Art critic

Tactics (術數)

It is often thought to translate Ye-Sul(藝術) easily into 'art'. In fact, Ye-Sul and Mi-Sul are even more so because Japanese translated "art" during the Meiji Restoration. But the word Ye-Sul and Mi-Sul is not so simple. The Japanese translator at that time was very acquainted with Chinese character, which was the general character of East Asian countries, and contemplated how to change the language to be used by people throughout East Asia. The meanings and concepts of words in Chinese characters are more meaningful than words themselves, so translation is more complicated. Originally, art(Ye-Sul) was made by adding 'Ye' and 'Sul' in handicrafts and scholarship. The meaning of each concept is also varied, so it is difficult to grasp the depth of the old meaning by reading only 'art'.

In 2015, in the project review of 〈Hwang-Geum-San Project〉 organized by Jeong Ki-hyun, art director in Daebu-do, Ansan, Gyeonggi-do, once I mentioned.: "Just as 'Yeui(藝)' original meaning represents sows, handicrafts, and ultimate facts, the body of art is embedded in the first word 'Yeui', which is a strategy of ecology[sowing], creativity[handicrafts], and philosophical[ultimate] vision. It is full of aesthetic issues of how to actualize this in the sense of Sun-Gam_Do (and broadly in Dae-Bu-Do)."

Art can be mentioned as a true vision drawn by the strategy of ecology[sowing], creativity[handicrafts], and philosophical[ultimate] of 'Yeui'. The reasoning for the tactics and the visions is not very different from the Taoist hermit with miraculous power. In ancient Chinese Zen, a hermit(仙人), a man of practicing tactics, and a man of martial arts all considered a true man(眞人).

The influx of Western modernism in the 20th century forced East Asian art to emphasize only 'Yeui', and to drive 'Sul(tactics)' into weird or superstition. It means that materialism became obsessed with the physical properties of 'Yeui' called 'works'. Accompanied with this situation, the shaman aesthetic of surreal and unreal has been regarded as a culture of something completely low and vulgar.

But how can a fantasy of artworks be possible and a spiritual communion be possible without the use of 'Sul(tactics)'? The technique of tactics is another name for 'creation' that must be called again in the 21st century. Confucius(孔子) hated so much, but it is another name for the "powerful god(怪力亂神: A word about mysterious beings or phenomena that is difficult to explain rationally, meaning things about strangeness, power, revolt, and ghosts) that the monk called Il-Yeon emphasized in the heads of Sam-Guk-Yu-Sa. So, from now on, we have to put down the art and summon the tactics!

Additional Words: Bang-Sa(方士)

In ancient China, people using the techniques and practical arts known as "Bang-Sul" are called Bang-Sa. They also called as a magic man, a tactics man, a taoist, and the like. The origin of Bang-Sa is found in the

eastern coastal areas such as Qi and Yan of the National Era, and is similar to 'Mu(巫)' in dealing only with ghost technology. But the technique was polished by the thought of Chu-Yeun, a scholar of Qi dynasty of China. Qin's Shi Hwang was asked to ask for a "immortal pledge" to Samshin Mountain, which was believed to exist in the East Sea at the recommendation of the Bang-Sa. In addition, the activity of Bang-Sa was successful even in the Han Dynasty, and it was said that the number reached tens of thousands. _『Religious Academic Dictionary』, August 20, 1998 Korean Dictionary Research

Opening Body by Saying

The original concept of a lecture refers to "a 'story', spoken in front of an audience". But I want to take it one step further and turn back 'the spoken story' as interactive one. The words of lecturer enter the body of reader and become an echo, a whirl, and a dragon rise, rather than the linear composition that the speaker speaks and the reader reads. That's what I want to be a 'body opener' that wakes up the closed spirit of body. Saying is itself chaos, cosmos, and chaomose. If the moments of waking up the heart and waking up the spirit as if waking up sleeping body can be triggered in these writings, there is nothing more hopeful. This article is written for the all artists and image critics who create, and those who seek the roots of imagination.

You, us, (not alone) each other

Saying has a tense, a meaning, and a root of the meaning. At the source of saying our aesthetics must begin again. Sometimes I will dig into the source of saying.

Eo-Je(yesterday), On-Eul(today), and A-Je(tomorrow), each indicates yesterday has past, today is present, tomorrow has future tense. It is the fact that there is a tense in '↑(E)' and '↑(A)'. Like Eo-Je(yesterday), 'Ne(you)' is the past, and like A-Je(tomorrow), 'Na(I)' are possessing the concept of future. Just as Eo-Je(yesterday) is the past of A-Je(tomorrow), 'Ne(you)' is the past of 'Na(I)'. Just as A-Je(tomorrow) is the future of Eo-Je(yesterday), 'Na(I)' is the future of 'Ne(you)'. In Korean, 'Ne & Na(You & I)' could be considered as a distinctive timeless temporal tense. That is why we use the word 'U-Ri(us)'.

The reflected scene of Your eyes and my eyes each other are called "Eye buddha". Just as you are my Buddha in my eyes, I am your Buddha in your eyes, and we are one Buddha to each other. Like this, us is you and I as well as me and you, and it has a symbolistic indicator of 'with each other'. The philosopher, Sang-Bong Kim called this " With Each Other subjective identity." Here, the philosopher pays attention to 'encounter'.

" For him, the subject is the encounter between you and me, and the community is the result of a true meeting. The cornerstone philosophy of Sang-Bong Kim is not an existence or an entity but an encounter. Encounter is the key to everything. Sang-Bong Kim suggests the 'encounter' as an alternative, pointing out the limitations of the 'subject' that modern Western philosophy has based on everything. This is the core philosophy of Sang-bong Kim based on subjectivity." _ Dae-Ho Jeon, "The subject is you and my encounter, the community is the result of a true encounter.", Han-Kyo-Reh, 2015.8.13.

Dragon(龍)-Aura(氣)-Sky(天)-Talk(談); Kihwa(氣化)-Operation(運行)-Auspicious Ki(神氣)- Passing(通)

There will be one page for each word. However, they will be described in bundles because they are not imagined separately.

A monster serpent is turning into a dragon which condition can be called 'vaporizing' and 'Un-Hwa(運化, transformation)'. In fact, the roots of these words come from the thought of the Teaching of Ki(氣學) by Hyegang, Han-Gi Choi (崔漢綺, 1803–1879). He saws Ki(氣, Chi, aura) as a filling component of the universe. It is said that the very universe is done by the constant movements of aura which is full in the space, moving and changing. So he called this as 'Cheonjijigi' and 'Unhwajigi'.

The Aura is also called 'former' because it forms the shape and quality of all beings. To sum up, "The core of the science is the activity movement of the Unhwaki(運化氣), which is the fundamental being of all things and the energy of life in human beings and all things. Active movement of aura is a living aura that always moves and turns around bigger." If you get and read *『Shin-Ki-Tang』*, written by him, it will be perfect.

Mom Mam Eol, Human-Thinking, Knowing, Enlightenment

Min-Se, Jae-Hong Ahn (1891 ~ 1965) once talked about the root of philosophy in the counting words we call. Hana(一:sky) · Dul(二:earth) · Ses(三:seed) · Nes(四:I and a nation) · Daseos(五:dasali) · Yeoseos(六:continuity) · Ilgob(七:achievement) · Yeodeolb(八:Open and close) · Ahob(九:embrace · penetration) · Yeol(十:Opening) · Baeg(百:all) · Cheon(千:true) · Man(萬:harmony) · Eog(億:virtue) are saying that. Not one, two, three, four and five, but Hana, Dul, Ses, Nes, Daseos, you saw the philosophy of Confucianism, the Buddhism and Taoism.

Daseok, Young-Mo Yoo(柳永 模, 1890 ~ 1981) called the selfish 'I' as 'JenNa', the physical 'I' as 'MomNa', and the true me as 'EolNa'. Let's look at the interpretation of Lao-tzu's first chapter of *『Tao Te Ching』*.

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
無名天地之始
有名萬物之母

故 常無慾以觀其妙
常有慾以觀其微
此兩者同 出而異名
同謂之玄 玄之又玄
衆妙之門

Truth that can be spoken is not always true.

The person who can be called as a name is not always (eternal) person. *Nim* (endlessness) of none, origin of heaven and earth (universe)

Nim (the entity of the cosmos) of existence is the mother of all things. Therefore, I see the mystery because my self is always gone

I see self always circling the universe.

These two are one (being), otherwise called by differently named.

It would be come to the God when refraining from existence and nonexistence. It is a door that has many mysterious and mysterious things.

He explains like this and said in addition,

=====

The eye of the beast's JeNa(self) can see the movement of the stars, the movement of the heavenly bodies. But the one who awakened EarNa(real self) could be felt the mystery of God.

This body is not real self, but it is a cart with real self.

The EarNa(real self) of self should be aware although that is not visible.

This EarNa(real self) of self is the one life in this EarNa(real self) of self of Jesus and Buddha.

국경이라는 경계와 작가적 행위라는 무경계

함돈균 | 문학평론가

*

그리스 고전비극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었고 현재까지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세계문학의 효시에 해당한다. 소포클레스의 비극 '오이디푸스 3부작' 중에 가장 먼저 쓰인 작품은 <안티고네>이며, 가장 늦게 쓰인 작품은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이다. 젊을 때의 소포클레스와 노년의 소포클레스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을 공히 관통하는 작가적 문제의식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에서 딸의 부축을 받아 세상을 떠돌던 눈 먼 노인 오이디푸스에게 테바이와 아테나이 사이의 국경을 지키는 콜로노스의 파수병은 묻는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는가'. 파수병의 이 질문은 <안티고네>에서 국가의 반역자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을 방지했던 테바이 왕 크레온이 집행한 엄격한 법의 성격과 다르지 않다. 파수병의 질문과 크레온의 법은 똑같이 묻는다. 너는 어떤 국가에 속한 사람인가. 너는 경계의 이편과 저편 중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은 왜 애도 받지 못했는가. 단지 왕의 독재적 명령 때문에? 아니다. 오이디푸스를 향한 파수병의 질문이 개인의 것이 아니듯이, 동족 간의 전쟁을 일으킨 반역자 우두머리 폴리네이케스의 시체에 애도 금지를 명령한 크레온의 판단기준 역시 개인의 것이 아니다. 파수병과 왕은 그들이 속한 정치공동체의 일원으로 법의 집행자이며 공동체의 대리인일 뿐이다. 정치공동체는 공동체에 속한 존재와 속하지 않은 존재를 구별하고 따져 묻는다. 왕이나 파수병이나 정치공동체의 '국익'을 대변하고 그 관점에서 사고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쿠스 윤리학>에서 '우정'에 대해 고찰할 때에도, 독일의 현대법학자 칼슈미트가 정치의 본질을 규정할 때에도 그들은 이 질문을 벗어나지 않았다. '국경'에 대한 이 오래된 질문은 정치공동체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주체에 관한 가장 현실적인 정체성을 규정하며, 그 안에서 인간의 권리와 의무,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을 규정한다. 인간의 정체성과 도덕과 정의의 관념을 가르는 핵심에 국경이 있다. 그러므로 국경은 공간적 개념에 그치지 않고, 말과 생각과 사물의 질서를 가르고 배치하고 지시하는 인식론적 경계이자 구조다.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 조금 더 살펴보자. 반역자의 시체를 놓고 벌어지는 크레온과 안티고네의 저 유명한 언쟁은 '국경'은 무엇이냐는 물음, 즉 국경을 통해 드러나는 인간정체성과 도덕에 대한 인식론적 경계를 묻는 논쟁이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국경을 놓고 부딪친다. 방지되어 들개에게 뜯어 먹혀도 괜찮은 '고깃덩어리'와 제사지내주어 마땅한 '시체'의 차이는 무엇인가. 주검을 애도 대상으로 보느냐 방지 대상으로 보느냐 하는 판단의 문제는, 시체를 '인간'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판단 여부에 달려 있다. 주검이 누워있는 자리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인간이 될 수 없는 불가능성을 질문하는 한계구역이자 불연속면이다. 거기에서 '인간'의 개념은 사라지거나 선명해진다. 이 경계는 드러난 지표면 보다 깊고 은밀하며, 개인적인 동시에 집단적인 관념의 지층을 깊숙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 불연속지층, 경계에서 두 가지 인식론이 극단적으로 대립한다. 크레온은 인간의 법, 살아있는 자들의 법, 남자의 법, 글로 쓰인 법을 주장한다. 안티고네는 신의 법, 죽은 자들의 법, 여자의 법, 쓰이지 않은 법, 가장 오래되었고 미래에도 있을 영원하고 보편적인 법을 주장한다. 크레온의 법은 산 자들이 영위하는 정치공동체의 공리주의적 원리에 기초해 있으므로 시민들에게 강력한 설득력을 지닌다. 이에 비해 안티고네의 법은 왕과 시민들이 보기에 합리적인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그녀가 주장하는 법은 자기 국가에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와 상관이 없다. 즉 그녀의 법은 현실의 정치적 국경선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경계를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티고네의 법은 '무경계'에 속한다. 안티고네가 자신의 법이 죽

은 자들의 세계에 속한다고 얘기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다. 법정에 회부된 그녀가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발언은 그 법의 핵심 원리를 지시하고 있다.

"우리는 다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

'예술'이라고 지칭하는 모호한 행위가 있다. 그 말이 지닌 모호함과 교양주의적 뉴앙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에, 나는 이를 무언가를 '짓는' '작가적 행위'로 표현하고자 한다. 작가적 행위로서의 '짓다'는, 무엇을 짓는 행위인가. 여기에서 주의 해야 할 것은 내가 '작가의 행위'로서 '예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적' 행위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진정한 '예술'이 건립되는 '짓다'는, 그것의 가장 고유한 태도로서 '작가적인' 태도를 유지할 때만이 존재하는 일시적 실존 양상이라는 말이다. 여기에서 관건은 이 '짓다'가 생활세계의 일반적 사고영역에서 집을 짓고, 밥을 짓고, 옷을 짓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가 행위 하는 사고 영역이 얼마나 인식론적 상투성 '너머'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의 상상력은 바로 그 '너머'로 가지 못한다. '너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경계'를 넘어가야 한다. 작가적 행위로서 '짓다'는 생활인의 '짓다'를 넘어서야 하며, 그것은 생활인의 사고와 작가적 사고를 구분 짓는 '경계'에 대한 집중을 뜻한다. '경계'에서 짓는 행위가 작가적 행위다.

아주 포괄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모든 삶은 '정치적'이다. 도덕과 정치와 예술에 관한 종합적 안목을 지녔던 오래된 현자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정치는 말하는 행위이고, 모여 사는 행위이며, 예술은 그 안에서 발생하는 탁월한 방식의 성찰적 태도 중 하나다. 가장 모범적이고 성찰적인 태도로 '시-문학-예술'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가, 즉 작가적 행위로서의 예술적 표현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소포클레스에게서, 이 문제는 정치공동체의 국경을 질문하는 일과 다르지 않았다. 이 질문은 인간과 인간 아닌 것, 시민과 비시민, 국민과 난민, 정의와 부정의, 권리와 권리 없음, 특수성과 보편성의 관념을 정면으로 묻는다. 이 영역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기준으로 놓고 사고하는 시민적 영토의 한계영역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낯설다. 한 사회 체계 내에서 훈련 받은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수 없는 '신의 법' '죽은 자들의 법'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 자리에서는 '의미·방향(sense)'이 모호해진다. 의미가 모호해지므로 그것을 '진보'라는 이름으로 규정지을 수도 없다. 방향이 분명치 않은데 어떻게 '앞으로 나아간다(진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 영역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방향(sense)이 분명치 않고 그 형상이 모호하게 보인다는 것뿐이다. 이것이 그 많은 탁월한 작가적 행위의 표현들이 넌센스(non sens)로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작가적 행위는 이 넌센스의 영역에 있다. 이 영역은 필연적으로 작가적 행위 자체를 현실의 '개입'으로 이끈다. '넌센스'를 발생시키는 일 자체가 '센스'의 영역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시민 다수가 공유하고 있으며, 믿어 의심치 않는 낡은 질문에 대답하는 자가 아니라, 낡은 질문을 의심하는 다른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센스의 공동체에 넌센스라는 '경계'를 환기시킨다. 그의 행위는 국경의 경계를 질문하고, 그것이 과연 분할될 수 있는 것인지 물으며, 사고의 불연속성을 제기함으로써 '센스'의 한계를 탐문한다. 이 물음은 아테나이 국경을 지키고 있던 파수병의 물음과는 방향이 반대다. 국경을 확정하려는 법의 파수병과는 달리, 작가적 행위는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하게끔 흘어뜨려 놓는다. '무경계'를 지향한다. 작가적 행위는 마치 그것이 애도 받을 자격을 지닌 '인간'인지 아니면 개에게 뜯어 먹혀도 괜찮은 '고깃덩어리'인지를 질문하는 안티고네의 시체처럼 수수께끼가 되어 국경선의 '불가능성'을 향해 쓰러져 있다. 작가적 행위는 크레온의 쓰인 국법처럼 명백하지 않으므로 모호하며, 대체로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저들의 주장은 국법에 위배된다.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가, 하면서.

*

DMZ라는 영역(zone)이 있다. 한 정치공동체의 끔찍한 상처이자 세계체제 내 강력한 알력들 간의 타협적 산물이다. 상처의 경계이자 힘의 경계다. 물리적 현실 속에서 그것은 '국경'을 뜻한다. 이쪽과 저쪽을 가르며, 파수병이 중무장으로 서로를 겨누고 있는 지대다. 그 경계를 통해 아군과 적군, 국민과 반역자들이 나뉜다. '비무장(demilitarized)'이란 단어는 그런 점에서 '넌센스'다. 그러나 이러한 넌센스는 우리의 이야기 맥락에서 작가적 행위를 구성하는 거주 영역이 된다. 세계체제와 한 정치공동체의 극한대립의 산물인 이 영역이 말과 생각과 사물의 질서를 매우 완강하게 규정하는 한계선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가장 명확하고 날카롭게 구분되는 의미(sense)의 영역이야말로, 그 개념과 기준의 실재 여부를 질문하고 흘어뜨릴 수 있는 첨예한 넌센스(non sense)의 장이다.

단단한 '경계'는 늘 새로운 '무경계'를 출현시킬 수 있는 전위의 영역이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낯선 질문에 의해서만 촉진될 수 있다. 안티고네의 말을 다시 인용하자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에너지, 신의 법을 통해서만 촉진될 수 있는 생명 원리에 기초해 있다. 이 무경계의 발생과 촉진이 생명의 원리를 따른다는 점에서 '진화'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기지의 관념이나 전승된 지혜를 통해 선언될 수 있는 '진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 영역에서 주체는 선협적 지식이나 자기중심적 예단이 아니라, 인식론적 무지와 자기한계를 인정하고 미지의 시간에 개방되어 자기를 내맡김으로써만이 작가적 행위를 출현시킬 수 있다. 한 시대에 속한 존재로서, 또 특정 국경선 안에서 시민적 정체성을 부과 받은 한 개인이 말과 생각의 억압을 이겨내고, 보다 보편적인 생명의 원리와 질서를 인지하고 그것을 탁월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려면 이 개방성과 용기가 필요하다.

완강한 국경에서 무경계를 출현시키고, 무경계로 이동하는 작가적 태도의 한 예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한 편의 시를 통해 암시적으로 이 글을 마무리한다. 나무는 "미치면서 간다". 즉 나무는 '자기'를 잃고서야 공중의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나무는 상호침투를 통해 아직 보지 못했던 "미친 숲"을 형성한다. 거기가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작가적 영토로서의 '무경계' '무장해제'된 DMZ다.

고문 받는 몸뚱이로 나무는 간다 뒤틀리고 솟구치며 나무들은 간다 결박에서 결박으로, 독방에서 독방으로, 민달팽이만큼 간다 솔방을 만큼 간다 가야 한다 얼음을 헤치고 바람의 포승을 끊고, 터지는 제자리 걸음으로, 가야 한다 세상이 녹아 없어지는데

나무는 미친다 미치면서 간다 육박하고 뒤엉키고 침투하고 뒤섞이는 공중의 決勝線에서, 나무는 문득, 질주를 멈추고 아득히 정신을 잃는다 미친 나무는 푸르다 다 미친 숲은 푸르다 나무는 나무에게로 가버렸다 나무들은 나무들에게로 가버렸다 모두 서로에게로, 깊이깊이 사라져버렸다

- 이영광 「나무는 간다」 부분

The boundary called border and the borderless act of artists

Ham Don Kyun | Literary Critic

*

The Greek tragedy is one of the oldest and most influential world literatures in human history and considered as the beginning worldwide literature. The earliest tragedy of Sophocles in The Oedipus Trilogy is *Antigone*, and the latest is *Oedipus of Colonus*. There is a gap between Sophocles in youth and Sophocles in old age. Nevertheless, it cannot be said that there is not existed artist consciousness to penetrate both works. The guard of Colonus who guards the border between Teva and Athenei asks Oedipus, a blind old man who was wandering around under his daughter's support in *Oedipus of Colonus*. 'Where are you from?' The guard's question is no different from the strict law enforced by Tebi king Creon, who left the body of the national rebel Polyneikes in *Antigone*. The question of guard and law of Creon both are asking the same one. What country are you belong to? Which boundary side are you belong in the side of here and there?

Why did the dead body of Polyneices not be lamented? Is it just because of the dictatorship of the king? No. Just as the guard's question of Oedipus is not personal, Creon's criterion for ordering mourning to the body of the traitorous leader Polyneikes, who caused the war between her own, is not personal either. Guardsmen and kings are members of their political communities and are law enforcement and representatives of the community. Political communities distinguish and question between beings that belong to a community and those who do not. The kings, watchmen, and political communities are representing the 'national interests', and thinking from that point of view. Even when Aristotle considered 'friendship' in Nicomachean Ethics, they did not escape this question and neither German modern law scholar Karl Schmidt defined the nature of politics. This old question about 'border' defines the most realistic identity of the human-subject, which inevitably lives in the political community, and define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human beings and the idea of right and wrong. Borders are at the core of human identity and the notions of morality and justice. Borders, therefore, are not just spatial concepts, but epistemological boundaries and structures that divide, place, and direct the order of words, thoughts, and things.

Now that we have a story, let's take a look little more. The famous argument between Creon and Antigone over the rebel body is the question of what the "border" is, the epistemological boundary of human identity and morality that emerges across the border. In short, they bump into the border.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 lump of meat' and 'a corpse' that should be sacrificed? The issue of judging carcasses as mourning or neglect depends on whether the carcass is viewed as a 'human' or not. The place where the carcass lies is a marginal area and a discontinuity that asks the possibility of being 'human' and the impossibility of being human. There the concept of 'human' is disappearing or becoming clear. This boundary is deeper and more stealthy than the revealed surface and deeply encompasses the strata of individual and collective ideas.

The two epistemologies are very opposite at this discontinuity, the boundary. Creon insists on the law of man, the law of the living, the law of men, and the written law. Antigone insists on the law of God, the law of the dead, the law of women, the unused law, the oldest and most universal law in the future. The law of Creon is based on the utilitarian principles of the living political community and has a strong persuasion for its citizens.

In contrast, the law of Antigone does not have reasonable persuasive power for kings and citizens. The law she claims is irrelevant whether it is beneficial to her country or not. In other words, her law is not based on the political borderline of reality. Antigone's law is 'borderless' in a point that it has no boundaries. It is this that Antigone says that his law belongs to the world of the dead. The following remarks, asserted by her in court, dictate the core principles of the law.

"We were born not to quarrel but to love."

*

There is an ambiguous act called 'art.' As I don't really like the ambiguity and the liberal nuances of the word I am going to express it as 'authoritarian acts' that 'make' something. What do you do as authoritarian acts? The important thing to note here is that I'm not talking about 'art' as 'authoritarian acts,' but rather an act of 'artist-like'. In other words, the process of 'making art' in which true 'art' is built is a temporary existence that exists only when it maintains the 'artist-like' attitude as its most unique attitude. The key here depends on whether this 'make' can go beyond building a house, cooking, and building clothes in the general sphere of thought in the world of living. It is important how far 'beyond' the epistemological cliché that he or she is acting. But again, in reality, our imagination does not go right 'beyond' that. In order to enter 'beyond', it is necessary to cross 'border'. As authoritarian acts, 'making' should go beyond the 'making' of ordinary lives, and it means the concentration of 'boundary' that separates people's thinking from artist's thinking. The act making something in 'boundary' is an authoritarian act.

In a very comprehensive sense, all human life is 'political'. According to the old sage Aristotle, who had a comprehensive view of morals, politics, and art, politics is an act of speaking, of living together, and art is one of the superior ways of reflection in which it arises. For Sophocles, who shows how 'poetry, literature, and art' can be established in the most exemplary and reflective manner, that is, what artistic expression as an artist's act is, the question is no different than asking the borders of political communities. This question asks face-to-face the notion of human beings and non-humans, citizens and non-citizens, citizens and refugees, justice and injustice, rights and no rights, particularity and universality. This area is also unfamiliar to citizens because it is the limit area of civil territory that they think based on their community. 'Sense' is ambiguous here in that it is the domain of 'law of god' and 'laws of the dead' that cannot have sufficient persuasion to trained citizens in a social system. The meaning is ambiguous and cannot be defined as 'progress'. The direction is not clear, but how can we say 'progress (go forward)'? All that can be said in this area is that the direction(sense) is not clear and the shape is ambiguous. This is why many of these prominent expressions of the behavior of artist appear as non sens.

Artistic acts are in this nonsense realm. This area inevitably leads the act of artist to the 'intervention' of reality. It is because the work of generating 'nonsense' is a question about the area of 'sense'. The artist is not shared by a large number of citizens and does not answer old, unbelievable questions, but reminds 'boundary' to the community of sense by raising other questions of nonsense that doubt old questions. His actions explore the limitations of 'sense' by asking the boundaries of the border, asking if they can be divided, and raising discontinuities in thought. This question is in the opposite direction from the question of guarder on the Athene

border. Unlike the guards of the law who wants to establish borders, authoritarian acts distract them from establishing borders. This aims for 'borderless'. The authoritarian acts are enigmatic and falls into the border of 'impossible' like the body of Antigone, asking whether it is a 'human' who deserves mourning or 'a chunk of meat' that can be eaten by a dog. The authoritarian acts are vague because they are not as obvious as the written national law of Creon, and they usually provoke a strong backlash. Their arguments are against national law, while not threatening the security of the state and citizens.

*

There is a zone called the DMZ. It is a terrible wound of a political community and a compromise between strong forces in the world system. It is the boundary of wounds and the boundary of power. It means 'border' in physical reality. Dividing this side and that side, the guards are aiming each other with heavy weapons. The border divides allies and enemies, people and traitors. The word 'demilitarized' is 'nonsense' in that sense. However, such nonsense becomes a living area that constitutes authoritarian acts in the context of our story. This area is a limiting line that very rigidly defines the order of words, thoughts and things, while it products the extreme confrontation between the world system and a political community. The realm of meaning, where everything is most clearly and sharply divided, is a field of sharp non-sensations that can question and disperse the existence of the concepts and standards.

Hard 'border' is always results the area of potential for 'borderless' to emerge. It can be promoted only by stranger questions, not by answers to existing questions. To quote Antigone again, it is based on the energy of love, the principle of life that can only be promoted through divine law. We can say 'evolution' in that this borderless outbreak and promotion follows the principle of life, but not 'progress' that can be declared through known ideas or transmitted wisdom. In this realm, the subject can express the authoritarian act only by acknowledging epistemological ignorance and self-limitation, and opening it up in unknown time, not a priori knowledge or self-centered prediction. Those who belong to age and have enforced their identity within certain boundaries need openness and courage to overcome the oppression of words and thoughts and to recognize more universal principles and order of life, a great way.

This article implicitly concludes with poems that appear from stubborn boundaries to borderless boundaries, and show examples of the artist's attitude toward borderless boundaries. The tree is "going crazy". In other words, trees can reach the finish line in the air only after they lose their 'self,' where the trees form a "crazy forest" that they have not yet seen through mutual penetration. That is the DMZ with 'no borders' and 'disarmament' as a authoritarian territory that we have to reach.

The tree is going as a tortured body. Twisting and towering trees are going. Like slug, it is going from strap to strap, from solitary to solitary. It is going as if the pinecone could go. Have to go. It has to go as if passing the ice, breaking the rope of the wind, bursting into place. The world is melting but the trees go crazy. Going crazy. In the midst of the air, almost entangled, entangled, infiltrated, and mixed, the tree suddenly stops running and loses its mind. Crazy trees are green. All the crazy forest is green. The tree went to the tree. The trees went to the trees and all disappeared deeply into each other.

– Young-Gwang Lee "Tree is going."

개막 퍼포먼스 OPENING PERFORMANCE

이건용 & 김준호 (수원화성박물관 영상실)

Lee Gun Yong & Kim Jun Ho (Korea-Suwon Hwaseong Museum A/V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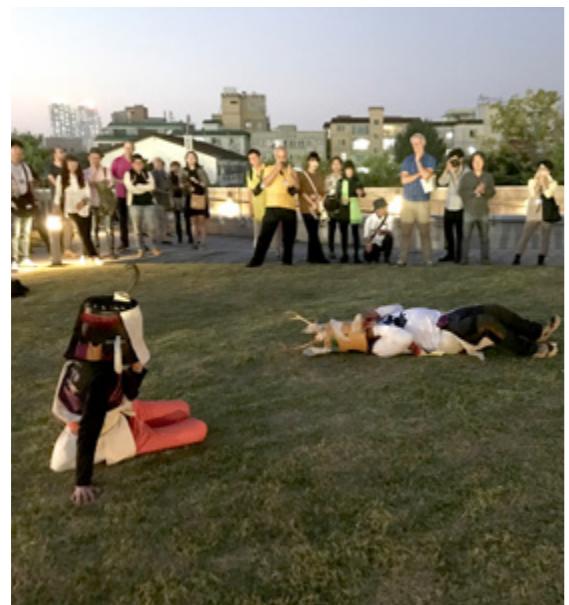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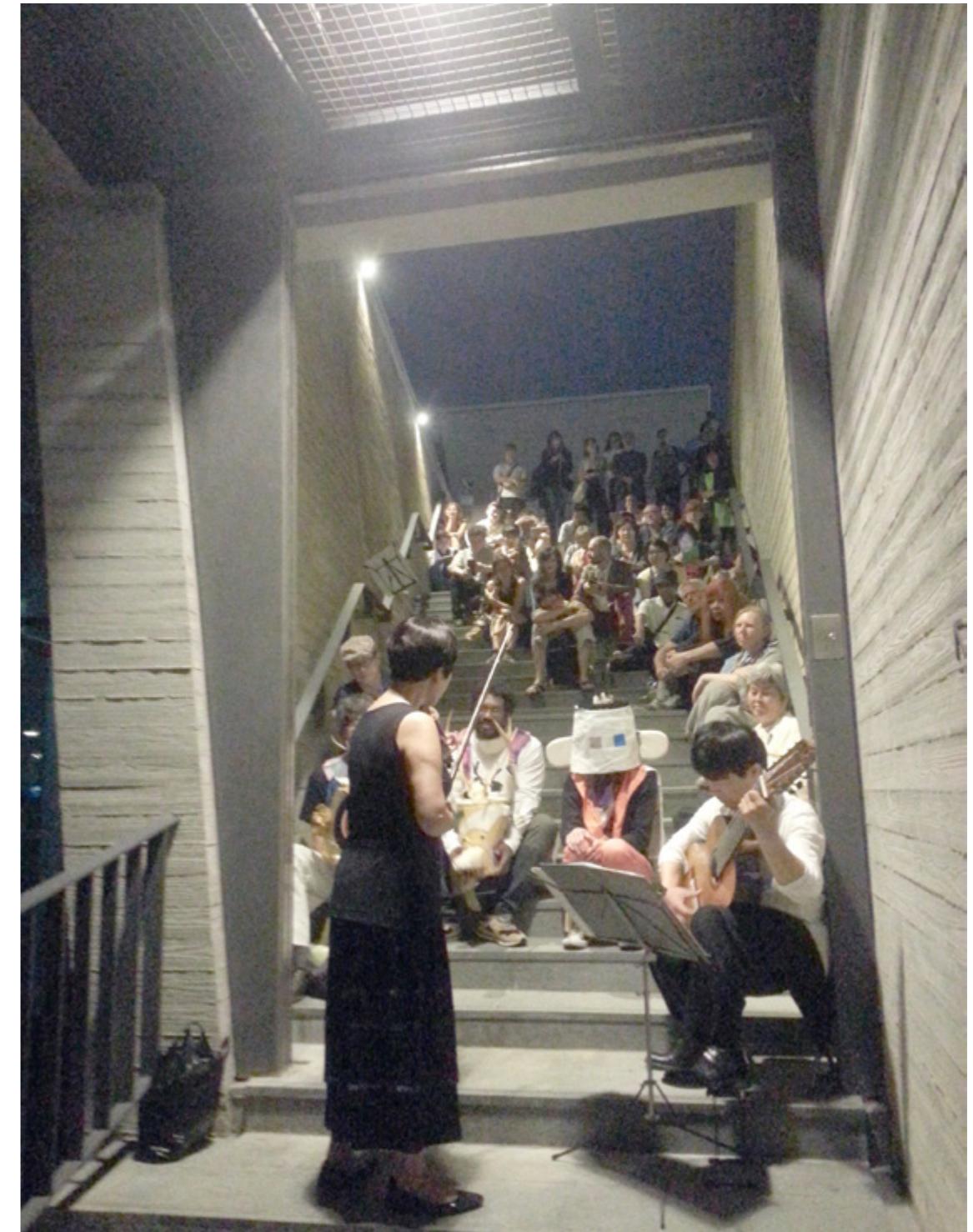
심홍재 Shim Hong Jae (행궁동벽화골목 공터마당 / Haenggung-dong Mural Alley Vacant)



Jessy Rahman & Susanne Muller / 수원시립미술관 하늘정원 – Suwon Museum of Art Sky Garden



Duo A&U / 수원시립미술관 하늘정원 계단 – Suwon Museum of Art Sky Garden Stairs





김수직 KIM SU JIC

SUSANNE MULLER & FRED LUEDI (CH) 수잔 물러&프레드 루이드

염유진 YOUN YOO JIN

이수연 LEE SOO YEON

홍채원 HONG CHAE WON

이강미 LEE KANG MI

김희곤 KIM HEE GON

김이선 KIM YI SUN

JESSY RAHMAN (SR) 제시 라흐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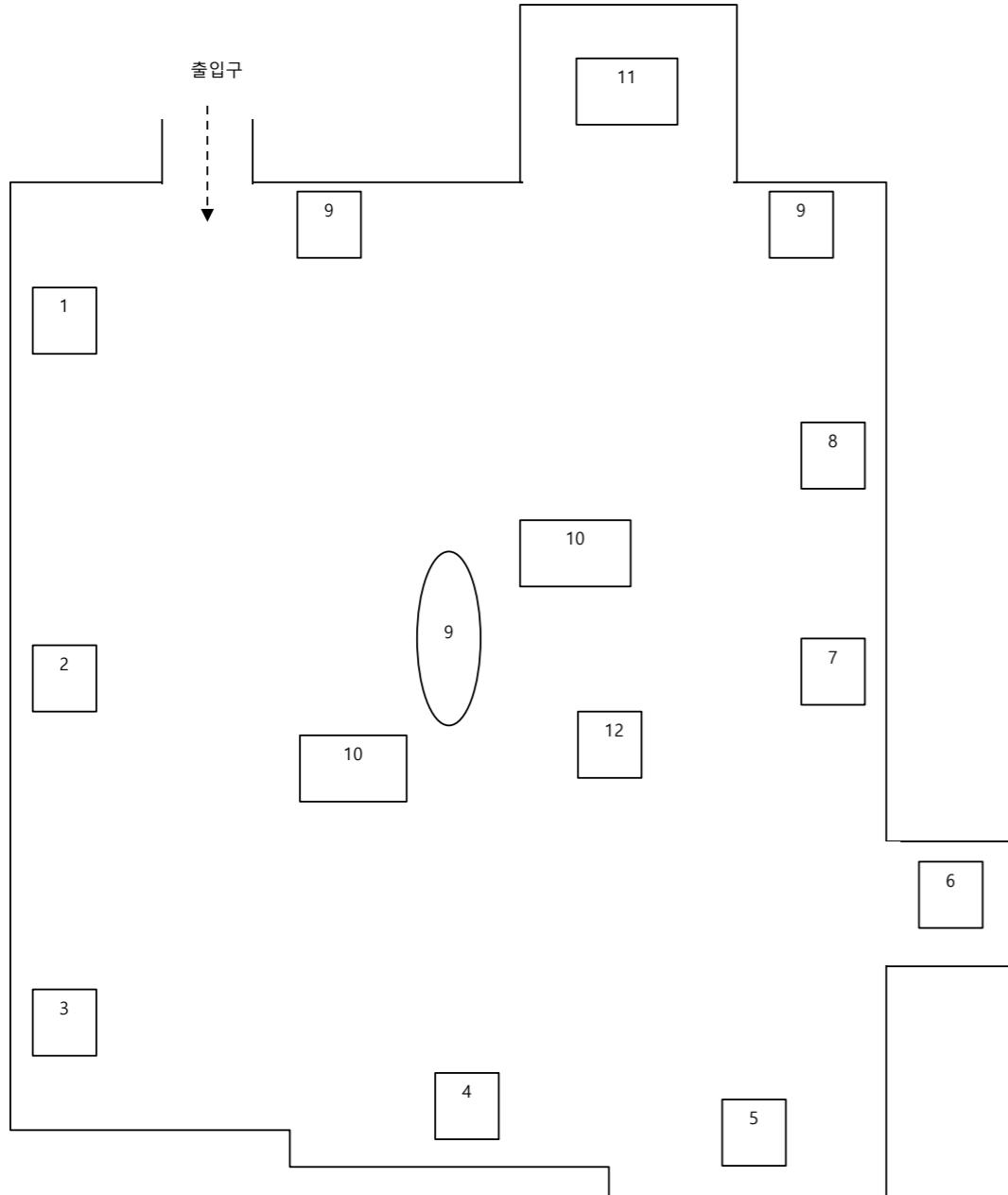
PAUL DONKER DUYVIS (NL) 폴 던커 더비스

허미영 HUH MI YOUNG

김성배 KIM SUNG BAE

실험공간 | EXPERIMENTAL SPACE UZ

온세미로 - 김성배 / 행원_다털개
ONSAEMIRO - Kim Sung Bae / Performance Come together



(1) 『가식(假飾)-1』 video 00:02:45 20190928, 『가식(假飾)-2』 video 00:02:45 20190928 – 김수직
심중에 감춰진 진실의 본 모습과 위선적인 마음의 대립을 표현, 한반도 분단의 현실과 본래 하나였던 한반도의 역사적 의의를 함축적으로 시각화 함

(2) 모든것은 정치적이다. – 수잔 뮐러 & 프레드 루이드 [CH]

(3) To Be Borderless – 염유진 / 32 드로잉 × 108 사진 내 안의 경계와 내 밖의 경계로 부터 자유로워 지다.

(4) 운명과 분노 – 이수연 / 운명과분노, 210×150cm, 판넬위 콘테 색연필 목판, 2019

(5) 무제 – 홍채원 / 설치 & 사진 / 혼합재료 / 2019 DMZ를 걸으며…

(6) DMZ 식탁 – 이강미 / 혼합재료, 가변 설치, 2019 / 1953년 휴전 이후, 모든 생태계는 세월 만큼이나 정체되어 있는 걸까?

(7) 임진강은 흐르지 않는다 – 김희곤 / 한국인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전쟁의 아픔을 표현하였다.

(8) 모자와 비무장지대의 낙엽 – 김이선 / 가변설치, 2019 / 아침에 떨어진 잎을 저녁에 줍다

(9) 단계 / Steps – 제시 라흐만 [SR] /

(10) Artis Natura Magistra – 폴 던커 더비스 {NL} / 자연은 모든 예술의 거장이다.

(11) 이산가족 – 허미영 / 사진, 2019 / 한국전쟁에 의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살아야 하는 이산가족

(12) 온새미로 –김성배 / 행위_다함께, 2019

(1) 『Pretence (假飾)-1』 video 00:02:45 20190928, 『Pretence (假飾)-2』 video 00:02:45 20190928 – Kim Su Jic
Expressing the true nature on hidden truth in heart and hypocritical confrontation of mind.
Implicit visualization on reality of Korean Peninsula division and the historical significance.

(2) All is political – Susanne Muller and Fred Ludi

(3) To Be Borderless – Youm Yoo Jin / To Be Borderless, 32 Drawing×108 Photographs To be free with borders inside and out

(4) Fates and Furies – Lee Soo Yeon / Fates and Furies, 210×150cm, conte color pencil charcoal on pannel, 2019

(5) Untitled – Hong Chae Won / Installation & Photo/Mixed Media / 2019 Walking in the DMZ…

(6) DMZ Dining Table – Lee Kang Mi / Mixed Media Variable Installations, 2019 / Has the whole ecosystem there been frozen for the whole period since the ceasefire in 1953?

(7) The Imjingang River is Not Flowing Anymore – Kim Hee Gon / It expressed the pain of war that penetrated the past and present future of Koreans.

(8) Hat and fallen leaves in DMZ – Kim Yi Sun / I picked up fallen leaves in the evening that fall off the in the morning. Steps

(9) Steps – Jessy Rahman

(10) Artis Natura Magistra – Paul Donker Dduyvis / Nature is the Master of All Arts

(11) Separated Family – MiYoung Hur / Epson inkjet print, 2019 / Separated family who have to live in South and North due to Korean War

(12) ONSAEMIRO – Kim Sung Bae / Performance Come together, 2019



심중에 감춰진 진실의 본 모습과 위선적인 마음의 대립을 표현.
한반도 분단의 현실과 본래 하나였던 한반도의 역사적 의의를 힘축적으로 시각화함.



Expressing the true nature of the truth hidden in the
heart and the hypocritical confrontation of the mind.
Implicit visualization of the reality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peninsula,
which was originally one.

『가식(假飾,pretense)-1』 video 00:02:45 20190928 <https://youtu.be/kvZz1Y8wG74>
『가식(假飾,pretense)-2』 video 00:02:48 20190928 <https://youtu.be/TQXxv1O5sys>
『가식(假飾,pretense)-3』 video 00:02:55 20190928 <https://youtu.be/56lcSkl0jMI>



SUSANNE MULLER & FRED LUEDI (CH) 수잔 물러 & 프레드 루이드



DMZ border crossing onsaemiro 2019 © video installation experimental space UZ suwon susanne muller fred luedi

DMZ art politics project border crossing onsaemiro 2019

© all is political | performance susanne muller



152 | 2019 예술정치 – 무경계 프로젝트



2019 Art Politics–Project Border Crossing |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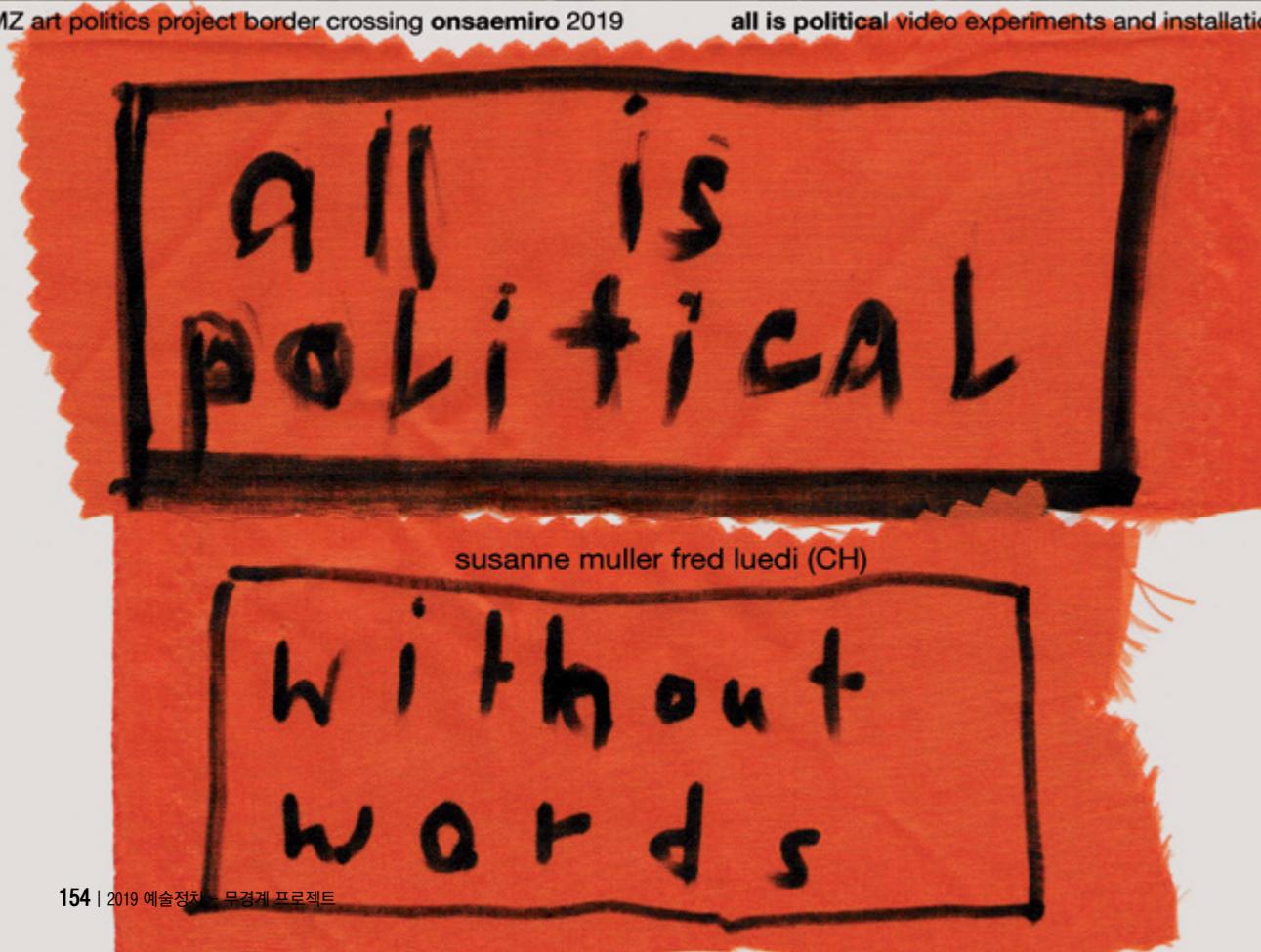


DMZ art politics project border crossing onsaemiro 2019

all is political video experiments and installations



DMZ experiments from west to east onsaemiro 2019 © west nach ost by nine dragon heads international artists



B 37.7710 L 126.5122

B 38.2126 L 127.8477

B 38.2900 L 128.1454



무경계

대존재의 경계를 나는 모른다.
내 어미로 부터 들은 적이 없다.
내가 모른다고 그 경계가 없지는 않다.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많은 종류의 경계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며 군
하지 기기도 하고 희미해져 기기도 한다.
내가 만들기도 하지만 그 속으로 들어 기기도 하고 그 선상에 있기도 하
고...

경계를 허문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니다.

어렵게 허문 것이 쉽게 되돌아 오기도 하고 스스로 쉽게 망각속으로 사
라져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위에서 이 쪽과 저 쪽을 혼란
스러워 하기도 한다.
여기 내가 만나고 알게 된 사람들 사이에서 난 얼마나 많은 선을 그고
하물며 살이 왔는가? 왜?

경계 없이 이 세상을 바라보기란 참 어렵다.
끊임없이 하물기 위한 노력은 계율리 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 다시 제자
리로 돌아 와 있을 때는 참으로 당혹스럽다.

난 길을 걸을 때 행복하다.

오로지 반복된 걸음 속에서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게 되고 그때야말로
자유를 느낀다.
Camino de SANTIAGO 와 DMZ가 그려졌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도
지역과 지역 간의 경계도
사물과 사물 간의 경계도
내가 걸을 때 만큼은 사리지는 것 같다.
평상시에도 그 미음을 그 생각을 유지하고 싶다. 내 삶이 다 할 때까
지.....

To be borderl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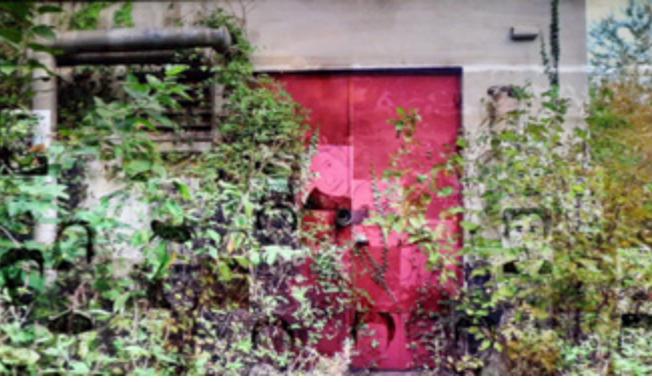
I do not know of the borders I have within me.
No one, not even my mother knows them.
These borders exist whether I acknowledge them or not.
From the moment we are born, all sorts of borders constantly are
being created, being destroyed and sometimes being hardened,
being softened.
Even though I am the one that builds these borders within me, I

It is quite difficult to look at the world without any borders.
Even though I tirelessly try to rid myself of these borders, when I

find myself back at the start at times, it gets frustrating.?

I am happy when I walk.

It is only when I walk and walk that I can focus on myself and that
is when I at last, feel free.
Camino de SANTIAGO and DMZ are like so.
The borders between people,
The borders between places,
The borders between all things seem to fall away when I walk.
I wish to continuously hold on to this state of mind till the end of
my d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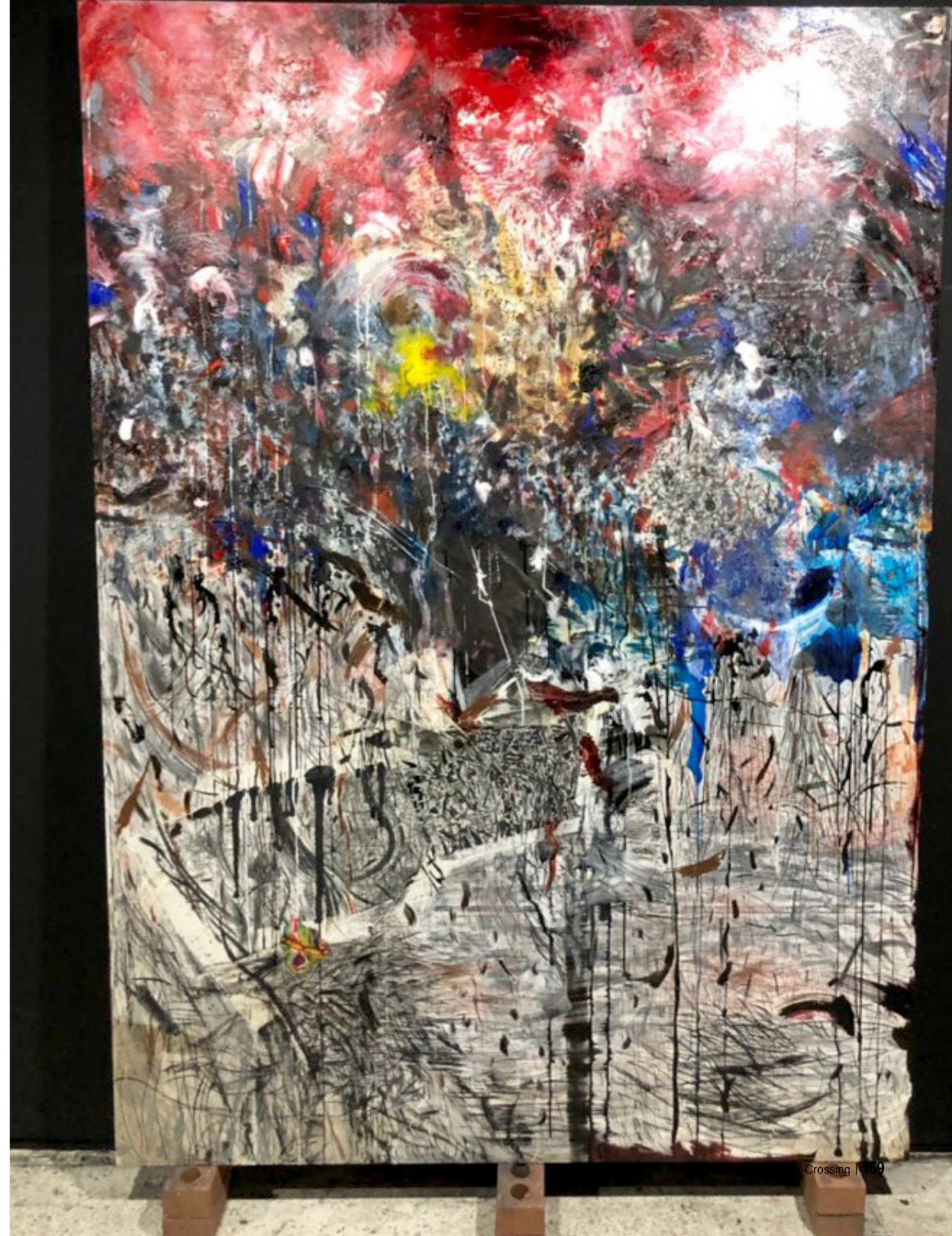
운명과 분노
Fates and Furies

개개인의 삶 자체는 신화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인간이 겪는 다양한 사건들과 그에 따른 심리적 신체적 증상들은 항상 나에게 흥미가리를 제공해 준다. 본인은 10년 전 초기작을 시작으로 주변인물의 성격, 성향적 특징을 작품에 반영해오고 있는데, 이번 시리즈는 신학 속 운명과 분노의 세 여신 운명의 세 자매를 '모에라이'라고 부르며 이들 중 클로토는 운명의 실을 뽑고 라케시스는 운명의 실을 감거나 짜고 아트로포스는 운명의 실을 가위로 절라 삶을 거두는 역할을 한다. 분노의 여신들은 '에리니에스'라고 부르며 알렉토, 티시포네, 메가이라가 있으며 정의와 복수를 담당한다.

어영감을 받아 시작하게 되었다. 운명의 세여신¹⁾의 역할인 실을 뽑아 탄생의 시작을 알리고, 감거나 짜며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고 가위를 잘라 삶을 가두는 일련의 행위들은 태어남과 죽음까지의 과정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들 세여신의 역할은 본인 작품에 무궁무진한 소스를 준다.) 분노의 여신들은 정의와 복수를 관장하며, 생과 사, 화와 복을 담당하는 만큼 이 신들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자에게는 끌려코스터 같은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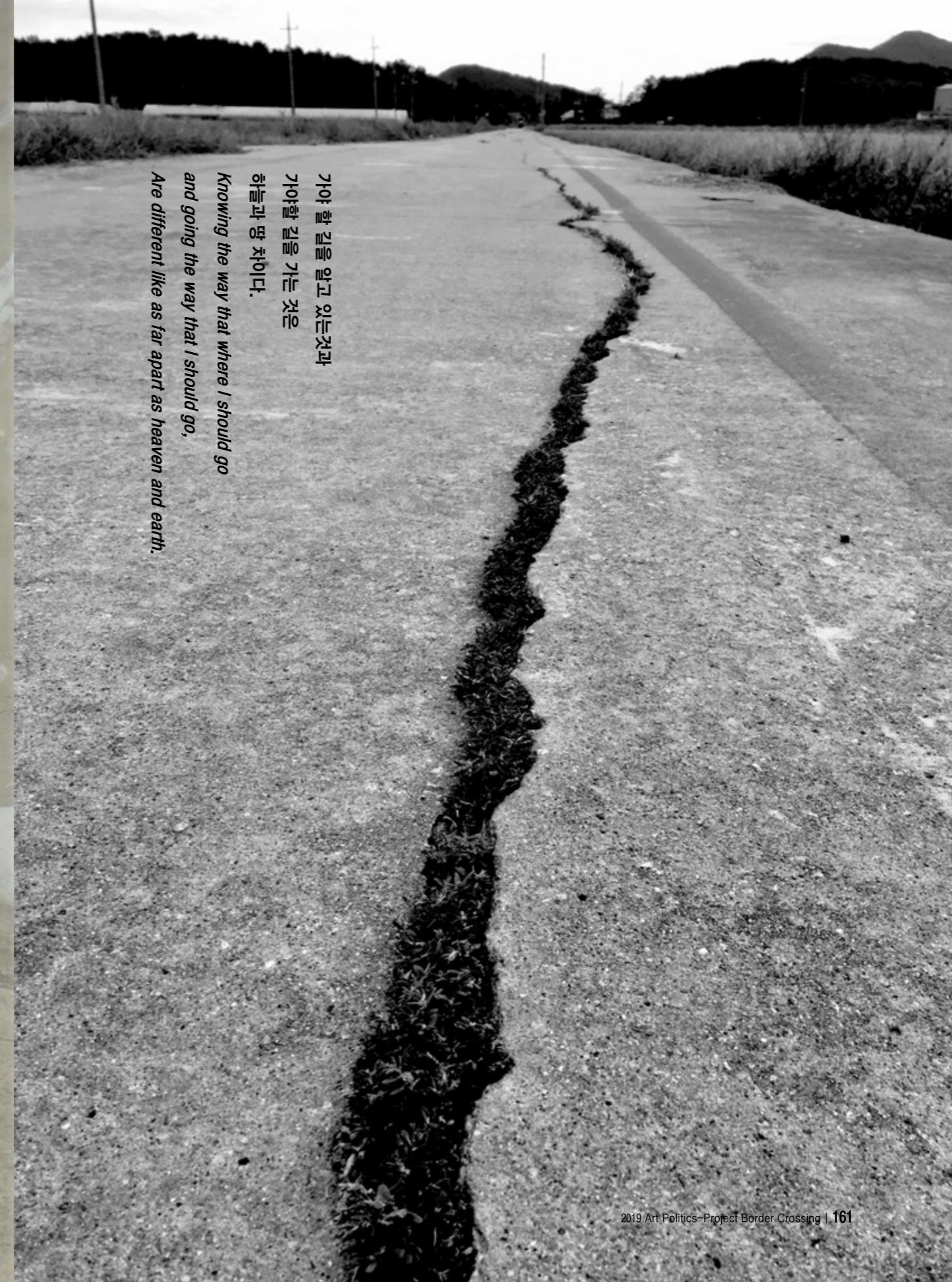
우리의 격동하는 삶 자체는 창작을 그 자체라고 생각하며, 개개인의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이번 시리즈에 나타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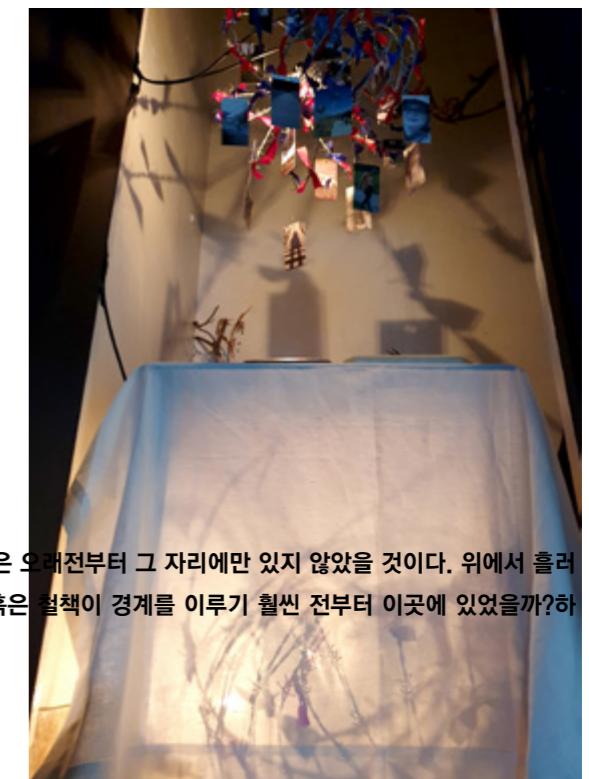
My works deals with the process of healing from post-traumatic symptom, the healing through artistic creation. The appearance of a young child, which is mainly seen in works, symbolizes the artist and the reason why distorted childhood images appear is that it is a series of expression methods for finding the self. In addition, there was an attempt to find out what effects one's childhood events have on his/her adulthood as well as there was an in-depth explanation of the frequently used material for the works, namely the event that has made the child's image appear; and an investigation into psychological influence of artistic creation process on humans was conducted.



1) 운명의 세 자매를 '모에라이'라고 부르며 이들 중 클로토는 운명의 실을 뽑고 라케시스는 운명의 실을 감거나 짜고 아트로포스는 운명의 실을 가위로 잘라 삶을 거두는 역할을 한다. 분노의 여신들은 '에리니에스'라고 부르며 알렉토, 티시포네, 메가이라가 있으며 정의와 복수를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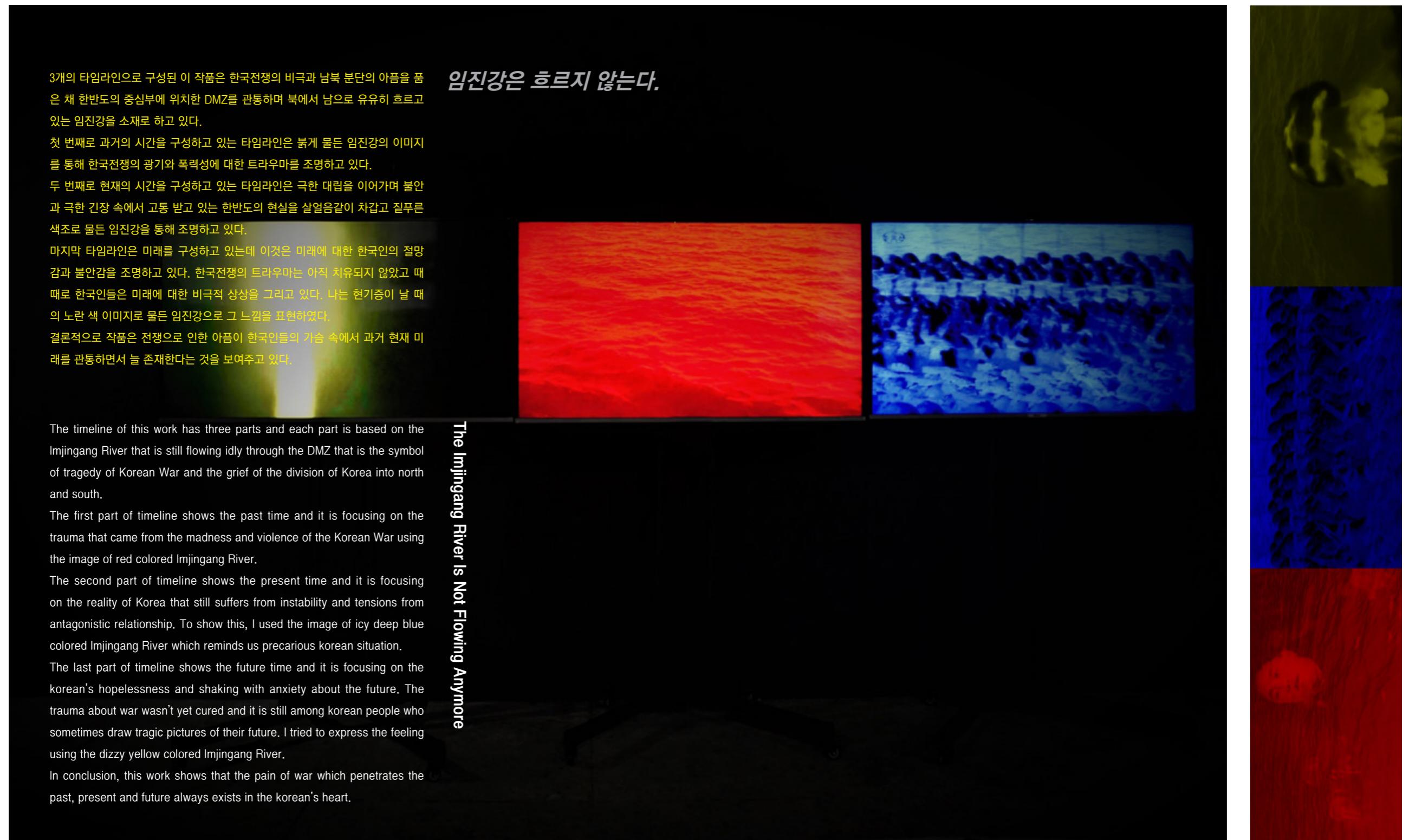
홍채원 HONG CHAE WON





걸으며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었던 자연들은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만 있지 않았을 것이다. 위에서 흘러내려오고, 바람 따라 움직이며,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의 흙은 철책이 경계를 이루기 훨씬 전부터 이곳에 있었을까?하는 의문을 해 본다.

강화 교동 철책 아래 흙 한 줌,
평화 전망대 나무 아래 마른 잎사귀,
골격만 남은 황량한 노동당사 옆에 열린 붉은 열매,
북한이 지척인 을지 전망대에서 발에 채이던 돌멩이,
유엔군 화장터에 수줍게 피어있던 이름 모를 들꽃.
이러한 모든 자연들은 70여 년이 다 되도록 꿈쩍 않고 한자리에 버티고 있는 DMZ
철책과 같지는 않으리라...





김이선 KIM YISUN

아침에 떨어진 잎을 저녁에 줍다

I pick up fallen leaves in the evening that fell off in the morning

모자에 나뭇잎, 행동설치, 2019

leaves on a hat, moving installation, 2019

세상의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다. 경계라는 것도 또 무경계라는 것도 모두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끝없이 이어져 있는 경계의 터널로부터 나는 깃털처럼 가볍게 벗어나려 한다. 그리고 온새미가 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존재하고 싶다.

All the time I am in the center of everything around me. Even border or no border is originated from me. I intend to escape, as lightly as feather, from the tunnel of borders that are connected endlessly and wish to exist without a sense of beingness, thus becoming the undivided (Onsaemi).

My road, Sep.~Oct. 2019 2,707km 부산Busan-합천Hapcheon165km-광주Gwangju170km-해남Haenam130km-부산Busan328km-2019 DMZ 국제 예술정치 무경계 프로젝트 온새미로DMZ International Art Politics Project Border Crossing 'ONSAEMIRO'-서울Seoul410km-강화도Ganghwado67km-파주Paju76km-연천Yeoncheon37km-철원Cheorwon38km-화천Hwacheon75km-양구Yanggu71km-고성Goseong103km-수원Suwon273km-부산Busan384km-제주Jeju380km



JESSY RAHMAN (SR) 제시 라흐만

'steps'

balancing act on skates over river onsaemiro, mother of all demarcation lines.

these acts, standing on marionet fish made of leather, are all realized in experimental space uz. they are in fact reenactments of the recent meeting between the korean leaders in the dmz on 2018-04-27

about skates

skates are cartilagenous fish belonging to the family rajidae in the superorder batoidea of rays.

'animal alarm'

performance act with susanne muller and youngcook jun, getting animals living in the dmz, prepared on the upcoming disclosure.

three horn-masked figures are walking peacefully over the roof terras of the Suwon I Park museum. suddenly one of them is noticing danger and starts to alarm the others, in ones own native language. soon after, all of them are falling down on the ground, transforming into moveless animals for a while. the alarming act is repeated for some time, everytime in another langu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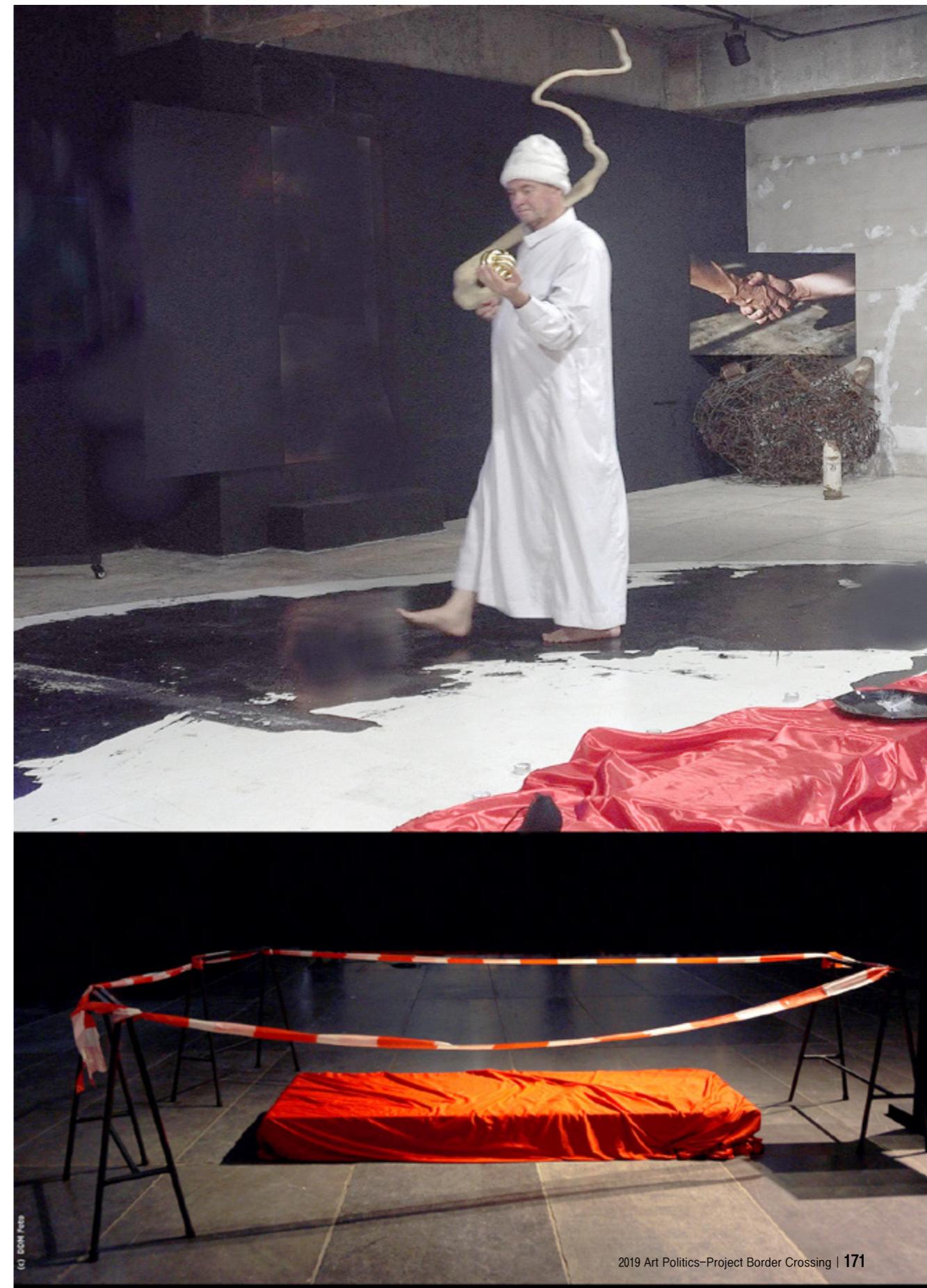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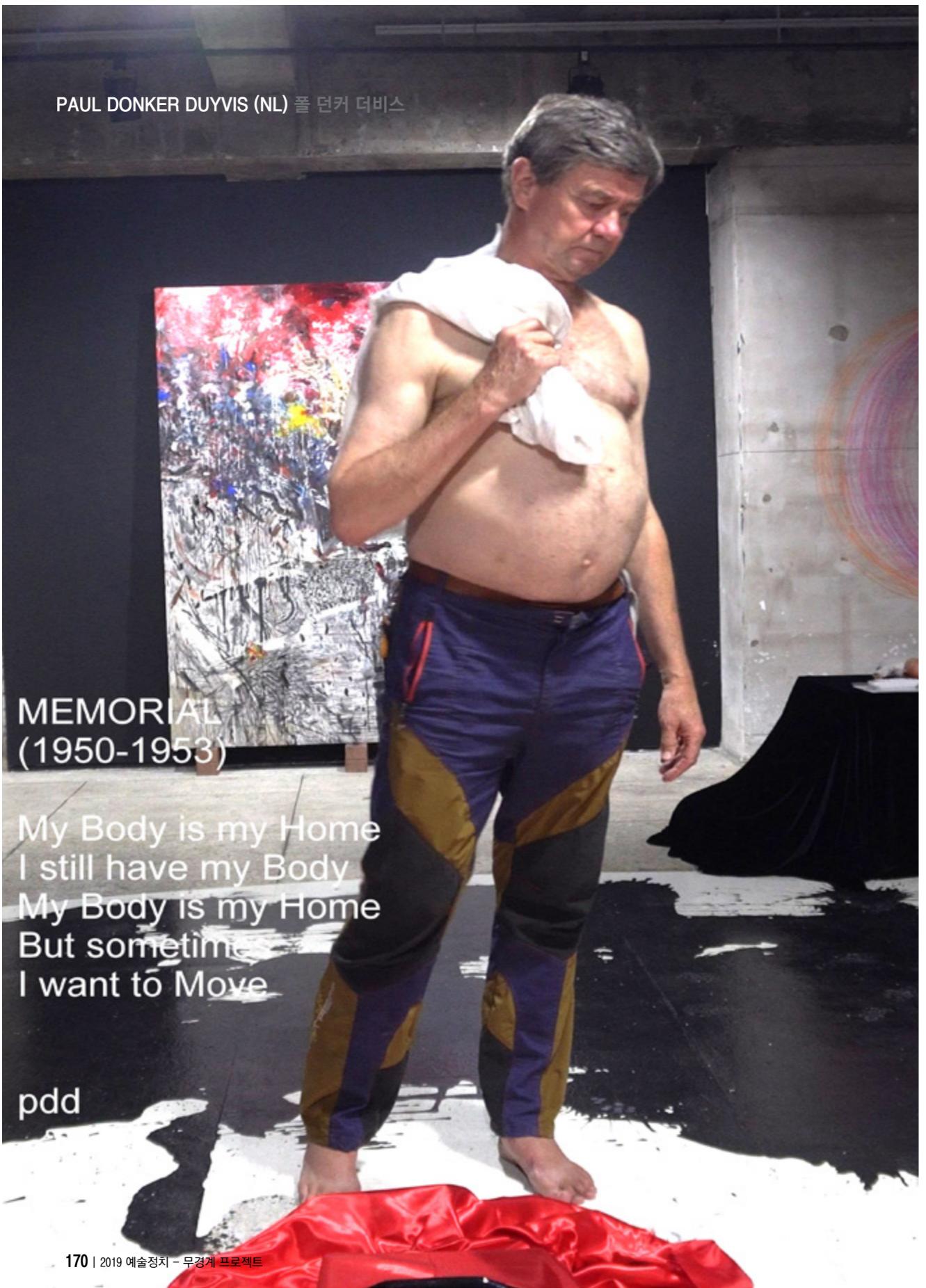
schweizerdeutsch: achtung, jäger kommt! attention, hunter is coming!

hangul: 사슴 숨어, saseum sum-eo! , hide deer, hide!

sranang tongo: don don dia! get down deer, down!



PAUL DONKER DUYVIS (NL) 폴 던커 더비스



허미영 HUH MI YOUNG



젊은 사람들은 다 방공호에 들어가 숨어있고
저희 말 잘 안들으면 막 죽이고 죽으로 찍어 죽이고 그랬는데 뭐.
밤에는 나와서 집에 와서 저녁밥먹고 낮에는거기 들어가 숨어있고
어떤 사람들은 벼심으면 줄이 있잖아요.
벼 여물어 갈땐 그 틈으로 가서 낮에 숨어있고 그랬어요.
총을 미고 두 사람이 들어오더니 남편 어디로 갖는지 대래.
그래서 나는 염병을 알아서 귀기하나도 인들려서 무슨소린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총을 들고 집을 뻥뻥 둘며 뒤풀안에, 장독간에 보구서
안대면 쏜다쓴다 하면서.
썰다 먹었다고하면 밤에 강을건너가서 쌀 가져와야하는데,
바닷가에 가보니까 주욱 사람들이 서서지고이고 들어가는데 막총을 쏘는거야.
서라인서면 쏜다쓴다 그따발총으로 막 뚜루루 뚜루루 뚜루구 쏘는데
총알이 새파랗게 지나가는대도 안 맞을 사람은 안 맞더라고요.
큰길로 나오면서 그냥 사람 죽는거 밟고 나왔으니까 워
우리는 급하게 나와서 더 그런거야.
군인들 나오기 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군인들 다 퇴한 뒤로 나오니까
양쪽에서 폭격하는대로 나오니까 나오다 다 죽고 그랬지.
잠도 못자고 걸어나온거예요.
하루종일 가도 2-30리 가기 힘들었대요.
아버지가들아가서서 헤어진게 아니고 남생이별을한거야생이별.
너희 먼저 나가라 피난을 나가라. 나는 금하면 나가마.
그때 못 나온 이유도 작은 아버지가 보위부에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작은엄마, 작은아버지, 우리 아버지, 할머니 다 못나오신거야 그냥.
그러니까 헤어지고 말은거야.
헤어질때가 우리 어머니가 거의 40대 됐을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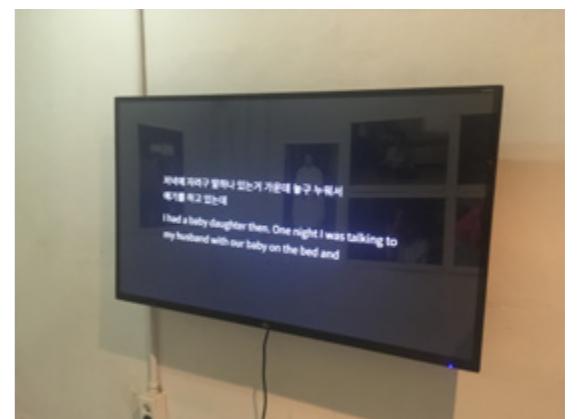
생과부된거야 생과부.
저녁에 자려구 떨하나 있는거 가운데 놓구 누워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민군 녀석 둘이 별컥 문을 열어.
깜짝놀랐어.
남편한테 "동무이리나와" 하고 데리고 나갔어.
그땐 내가 철부지라 따라 나가 볼 생각을 못했어. 그게 한이야.
얘기하고 들여보낼줄 알았지 끌고가 죽여버릴줄 알았어.
그래서 그 이튿날 들어오려니 하고 기다리니 아무 소식이 없어.
얼마나 가니께 달이 밝단한데 나하고 같이 가는 아줌마 애가 울어.
던지래.
그 아줌만 던졌어 애를. 물에다가. 팔.
번득번득 길인줄 알았는데 물을 딴던거야.
퍽어프려져서 쌀자루를 일으키니께 아들이 코에 물이들어가니까 혁혁해.
뒤에 오는사람이 빨리 던지라고 또.
그래서 내가 애 머리를 들면서 "이거 던지면 나도 죽고말지".
뒤뜰에 수제구멍의 빨래뜰이 밀구멍으로 구멍을 파고 밥을 먹었어요 우리 친정엄마가.
승이 잡답하고 땀이나고 끈적끈적하고 반공구멍에 오래 못있겠더라구.
"아유나반공구멍에못있겠어"그러면
"저기밀밭에가서앉아봐라. 그럼 공기도 쏘이고 해도 바라보고"
어머니 헌옷을 주워서 늙은이 옷을 입고 수건을 쓰고 밀밭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그놈들이 오줌싸러 밀밭에 들어오는거 아냐
그래서 얼마나 무서워요 그냥배때기를 깔고 밀밭고랑에 다팍삭어프려져서 풀을 덥고
있는데
그 놈들이 와서 밀밭에다 오줌 깔기고 나가는 거야
"엄마 나 여기있다가 저놈들한테 맞아죽을거 같아" 그러니까

우리 남동생이 영미도 피난 나가있대.
동생이 들어왔더라고 밤에
"누나델고가"
"그래 나가. 여기 뜻있어 그사람들 만나면 누나는 종살이야"
"남한으로 피난 갔다 왔다고 죽여." 그래.
그놈들 세명이 허름하게 짠 가마니떼기에 총을 감춰갖고 우릴 쫓아오는거야 우리를.
"누나 저 새끼들 총 가졌어. 물로 들어가 물로 건너가서 영미도 건너오는데
그 새끼들이 막 물위로 따당따당 총을 둘르는거여.
그래도 안맞아.
얼마나 수영을 쳐서 남동생 이끌고 서영미도를 들어가니까
글쎄 웃은 디벗어지고 우와기하고 삼각팬스만 하나 남은거야.
뻘개벗은거야.
영미도를 들어가니 피난민들이 "저 아가씨는 왜 펜스 바람에 들어왔어" 그리는거야.
어떤 아줌마가 광복치마를 흐릇한거 하나 때가 주로주로 묻은걸 주며 이거 입어 그래.
그 사람 어디서 만나면 내가 치마 열개 사주겠어.
그리니까 내가 이산가족 신청을 했죠.
조카들이 둘 있고 형님은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
그때 형님 나이가 17살 묵고 내가 11살 묵고 그랬어.
17살 묵어갖고 돈 벌어갖고 나 옷도 사주고 그랬어.
목공소 가서 일을했어.
8월 추석에 옆으로 하얀 줄있고 그 펜티하고 난닝구하고 사 입힌 추억이 나.
우리동네가 돌모루라고 한 300호 됐어.
안동네, 박천을, 아랫거리, 시늘, 척신동 5개 부락으로 나눠져 있어.
동네는 한동년대 부락이 이름이 다 틀려.
소원이 워낙하면 본남편이 너무 잘해줬어.
본남편 생각뿐야.
어떨땐 몸이 아프면 더 생각나.
어디가서 있다는거, 방공 구데기라도 있다는거, 한번 만 더 봤으며 내가 한이 없어.

We were extremely shocked.
They shouted "you comrades, come out".
I should have come with them.
That I regret all my life.
I thought my husband would return home after interrogation.
How should could I imagine that they would kill him.
I expected him to come back home next day, yet nothing happened.
One night with a full moon I was with a group of fleeing people and a baby carried
by a woman began to cry.
They said " throw that baby away"
She threw him into the water.
We thought the light were reflected from the road, yet it was water on which we
stamped.
I was carrying my baby son and I fell into water hole on the ground and water
got into my baby's nose and he couldn't breath well.
People behind me started yelling "thow him away qui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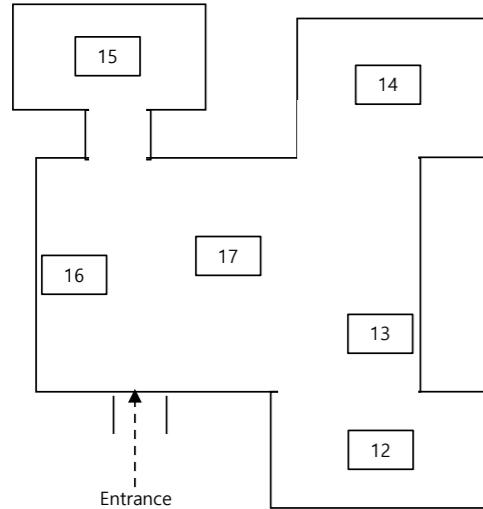
I didn't since I knew that I could not live without my baby.
My mother built a shelter next to the sewerage behind the house and fed rice me
hiding there.
I couldn't breathe well and couldn't stand the humidity that made me sweating.
Solsaidtomyother" I can't stay here any longer"
and she said "why don't you take a break in that wheat field getting some fresh air
and some sunlight"
So I put on my mother's cloth and towel around my head and hid myself in the
wheat field.
Soldiers came to the field in which I was hiding and began to urinate.
That made me so scared and I just lay on my stomach and covered with grasses.
Then they finished and went away.
Isaid "It is more likely for me to be killed by them if I hang around there more".
She said "Your younger brother is already escaped to Yongmi-do"
My brother came home one night.
Isaid "whydon'tyoukakewithyou"
and he said "of course, you would be killed if they discover you have already
escaped once. You shouldn't stay here any longer".
Three soldiers were chasing after us hiding guns in the straw bags.
My brother said "they have guns. Jump into the water".
He quickly grabbed my hair dragging me into the water and we were crossing the
sea to Youngmi-do.
They started shooting at us.
Somehow we were not hit lucky.
When we arrived at Youngmi-do, I realized that all my clothes were gone except my
underwear.
People in Youngmi-do were saying why you were half-naked.
One lady gave me a worn-out and dirty cotton skirt.
I could buy tens of skirts if you would meet her someday.
Sol applied to the reunion of separated family.
I heard there are two nephews and my elder brother passed away.
He was 17 years old and I was 1 year then.
He was earning money at that time and used to buy me clothes.
He worked in carpentry shop.
I clearly remember he bought me underwears with white stripes on Chuseok
holidays.
My village was called 'Dolmoru' and there were about 300 houses.
It was composed of five smaller hamlets - Andongne, Bakcheonmul, Aratgeori,
Shinuel, Chakshindong.
It is one village, yet each hamlet has its own name.
My first husband treated me very well and I still miss him very much even now.
When I am sick, I tend to think him even more.
Wherever he is.
Even if he is still in that bomb shelter, I wish I could see h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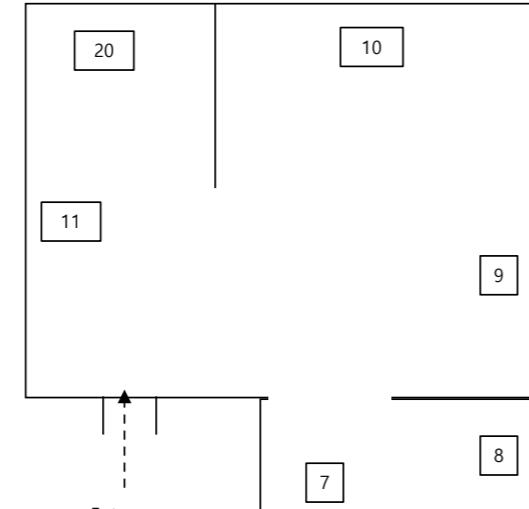


JOSEPHINE TURALBA (PH) 조세핀 투랄바
IIKO ZAUTASHVILI (GE) 일리코 자우타쉬빌리
ENRIQUE MUÑOZ GARCIA (CH) 엔리케 무노즈 가르시아
손채수 SHON CHAE SOO
CHRISTOPHE DOUCET (FR) 크리스토프 듀쉐
이윤숙 LEE YOUN SOOK
박지현 PARK JI HYUN
차기율 CHA KI YOUL
신희섭 SHIN HEE SEOP
YOKO KAIJO & JASON HAWKES (AU) 요코 카지오&제인슨
JACOB BORDEN (USA) 야곱 보던
OONA HYLAND (IR) 우나 하이랜드
NANDIN ERDENE BUDZAGD (MO) 난딘 에르딘 부드자그드
DENIZHAN OZER (TK) 데니잔 오저르
GORDANA ANDJELIC (HR) 고르다나 안젤리치
홍영숙 HONG YOUNG SOOK
임승오 LIM SEUNG O
ALI BRAMWELL (NZ) 알리 브람웰
MOON SANG WOOK (KR) 문상욱
PARK BYOUNG UK (KR) 박병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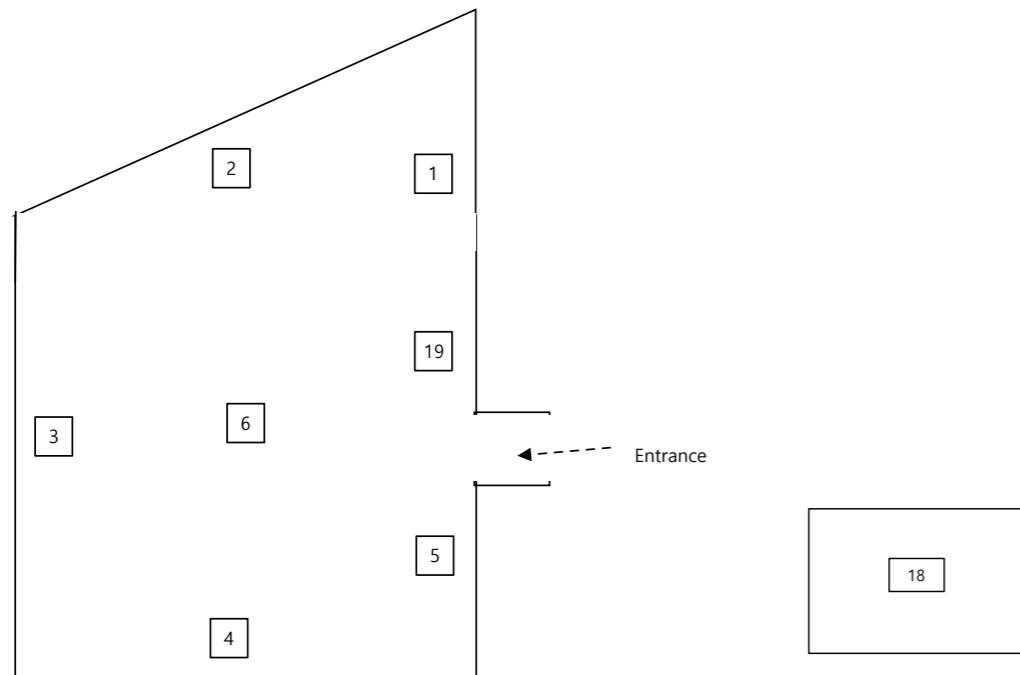
예술 공간 봄
ART SPACE BOM



1F (1전시실)



B1 (2전시실)



1F (3전시실)

원도우 갤러리

- (1) DMZ 랜드- 조세핀 투랄바 [PH] / Dmnm-zee-랜드에서 전쟁의 한 가운데서 자본주의의 모순/심술을 탐험한다.
- (2) 분열 – 일리코 자우타쉬빌리 [GE]
- (3) 중립국가 – 엘리케 무노즈 가르시아 [CH] / 한국의 남북 관계에 대한 중립적인 관찰과 복잡한 관계에 관한 작업입니다.
- (4) DMZ 동물나라 – 손채수 / 두 나라로 나뉘어져 대치하고 있는 DMZ의 현실을 그곳 야생 동물 이야기로 풀어냈다.
- (5) 마스크(들) – 크리스토프 듀쉐 / 이 마스크들은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같은 나무에서 잘려 나왔음을 상징 합니다.
- (6) 2019 무경계-온새미로 – 이윤숙 /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9 / 전 세계에서 채집한 다양한 자연물을 통해 장소, 지역, 국가의 경계를 넘어 온 인류가 하나되는 온새미로의 원형을 찾아 보고자 한다.
- (7) 온새미로 / 온사이로 – 박지현 / 판넬과 비닐, 84x240cm, 2019 / 온새미로를 가르고 쪼개서 그 사이를 표현한 것이다. 그것은 서로 같지 않지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 (8) Memory / DMZ 2019 – 차기율 / Medium or Materials Supprt
- (9) 너는왜나를보고있는가? – 신희섭 / 71x136cm / 장지에먹, 채색 / 2019, 너는왜나를보고있는가? / 136x71cm / 천에 채색 / 2019
blue landscape002/46x67cm/ 인화지 위에 채색/2019, blue landscape003/34x49cm/ 인화지 위에 채색/2019
blue landscape004/34x49cm/ 인화지 위에 채색/2019 – 신희섭 / 겉다보면 만나는 채집된 풍경의 재배치
- (10) 선명한 소통 – 오교 카지오 & 제이슨 / 끊임없는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명확한 소통이 필요하다.
- (11) 무단침입 – 야곱 보던 / 군사 경계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찍은 사진작업 시리즈
- (12) 자비의 특성/질 – 우나 하이랜드 / 끼치의 특성, 콜로디온을 바른 젖은 접시의 사진, 매달려진 자기 오브제를 응용한 설치
- (13) 범접할 수 없는 – 난딘 에르딘 부드자그드 [MO]
- (14) 나는 소통이 필요해요 – 데니잔 오저르 [TK] / 하나의 나라, 두개의 국가
- (15) 고통에서 희망까지 – 고르다나 안젤리치 [HR]
- (16) From Moment to Eternity – 홍영숙 / Oil on Canvas, 2019 / 한민족의 상징 '삼태극'을 기본 이해로, 온새미로 : 원래의 쪼개지지 안은, 쪼개질 수 없는 온전함을 지향하는 이념과 철학의 추상 이미지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 (17) Relic an excavation – collection – 임승오 / Medium or Materials Support, 가변설치, 2019
- (18) 꽃 배치하기 – 알리 브람웰 [NZ] / 행위예술을 잔해
- (19) 그날을 기다리다 – 문상욱
- (20) 박병욱

- (1) DMZ Land – Josephine Turalba / Dmnm-zee-land explores perversity / absurdity of capitalism in the midst of tensions of war
- (2) Division – illico Zautashvili
- (3) Neutral Nations – Enrique Munoz Garcia / This work is about mutual observation and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 (4) DMZ Animal Nation – Shon Chae Soo / I am saying the reality of the DMZ that is divided into two countries and confront each other through wild animals that have lived there.
- (5) Masque(s) – Christophe Doucet / This mask symbolizing North and South Korea is cut from the same tree.
- (6) 2019 Borderless ONSAEMIRO – Lee Youn Sook / Mixed Media, 2019 / Through various natural objects collected from all over the world, I want to find a prototype of a human being who has crossed the boundaries of places, regions and countries.
- (7) ONSAEMIRO/ ONSAIRO – Park Ji Hyun / Panel and plastic, 84x240cm, 2019 / This work is showing the relationship of the space formed by dividing 'ONSAEMIRO' that representing how one is actually not different from the other while it is not same.
- (8) Memory / DMZ 2019 – Cha Ki Youl / Medium or Materials Supprt
- (9) Why are you looking at me?/71x136cm/ eat in paper, Color/2019, Why are you looking at me?/136x71 cm/colour/2019
blue landscape002/46x67cm/ Colour on film paper/2019, blue landscape003/34x49cm/ Colour on film paper/2019
blue landscape004/34x49cm/ Colour on film paper/2019 – Shin Hee Seop / The rearrangement of the collected landscape as one walks.
- (10) Clear Communications – Yoko Kaiio and Jason Hawkes / To opt out of constant surveillance requires clear communication.
- (11) Trespassingssss – Jacob Borden / A series of photos taken at intervals along the border of the Demilitarized Zone.
- (12) The Quality of Mercy – Oona Hyland / An installation featuring the Magpie. Wet plate collodion photography and suspended porcelain objects.
- (13) Untouchable – Nandin Erdene Budzagd
- (14) I Need Communication – Denizhan öZer / One nation, two countries
- (15) From Paint to Hope – Gordana Andjelic-Galic
- (16) From Moment to Eternity – Hong Young Sook / With the basic understanding of the Korean symbol, Samtaegeuk, I would like to capture the ideological and philosophical abstract image of 'Onsaemiro' that aims for the original, undivided and indivisible wholeness.
- (17) Relic an excavation – collection – Lim Seung O / Medium or Materials Support, 2019
- (18) Flower Arranging – Ali Bramwell / Performance remainder
- (19) Wait for a Day – Moon Sang Wook
- (20) Park Byoung Uk (KR)

DMZLAND (dmmm-zee-land)

Josephine Turalba

Lifesize Parachute (4-meter radius) 115 x 150 cm silk panel & 10 toy paratroopers (40x30cm each)
2019 - Art Space NOON, Suwon, South Korea



Diagram of the parachute instal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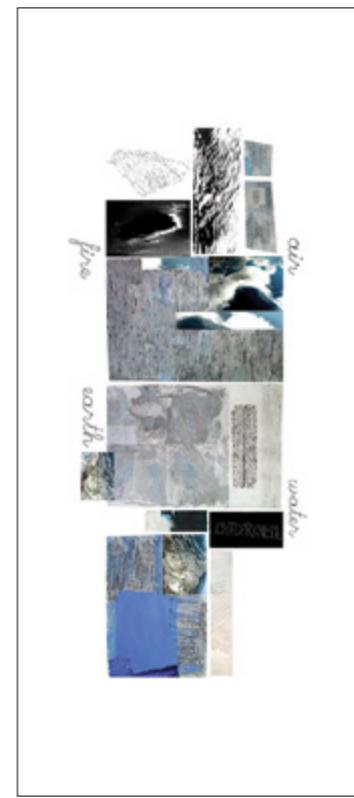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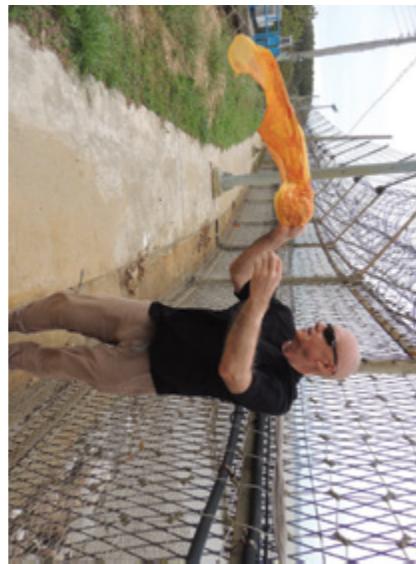


Interior view of the parachute installation

My DMZland project explores perversity in the midst of tensions of war. Not short of seeing a multitude of military camps that sparked fear and sadness during the research trip to the Demilitarized Zone (DMZ)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 was struck more by the presence of tourists who took unceasing selfie photo ops with the lively-colored DMZ sign, tourist buses that lined the military checkpoints, and most especially the amusement park intended to attract and entertain visitors with all sorts of rides, souvenir booths, food stands selling festival food like cotton candy, ice cream, fried dough, candy, or caramel apples, burgers, hot dogs, pizza, and fries. South Korea created points along the DMZ periphery to be accessed by tourists. Similar to the Disneyland train that takes tourists from downtown Hongkong to the theme park, there is a colorfully decorated train that takes people from Seoul to the Imjingak pavilion, Paju DMZ. An uncanny carnival atmosphere pervaded amidst the gravity of imminent war - almost making light of the underlying tension given that I could hear the military machine gun shooting drills in the background.

In DMZ, 2019, actions with obj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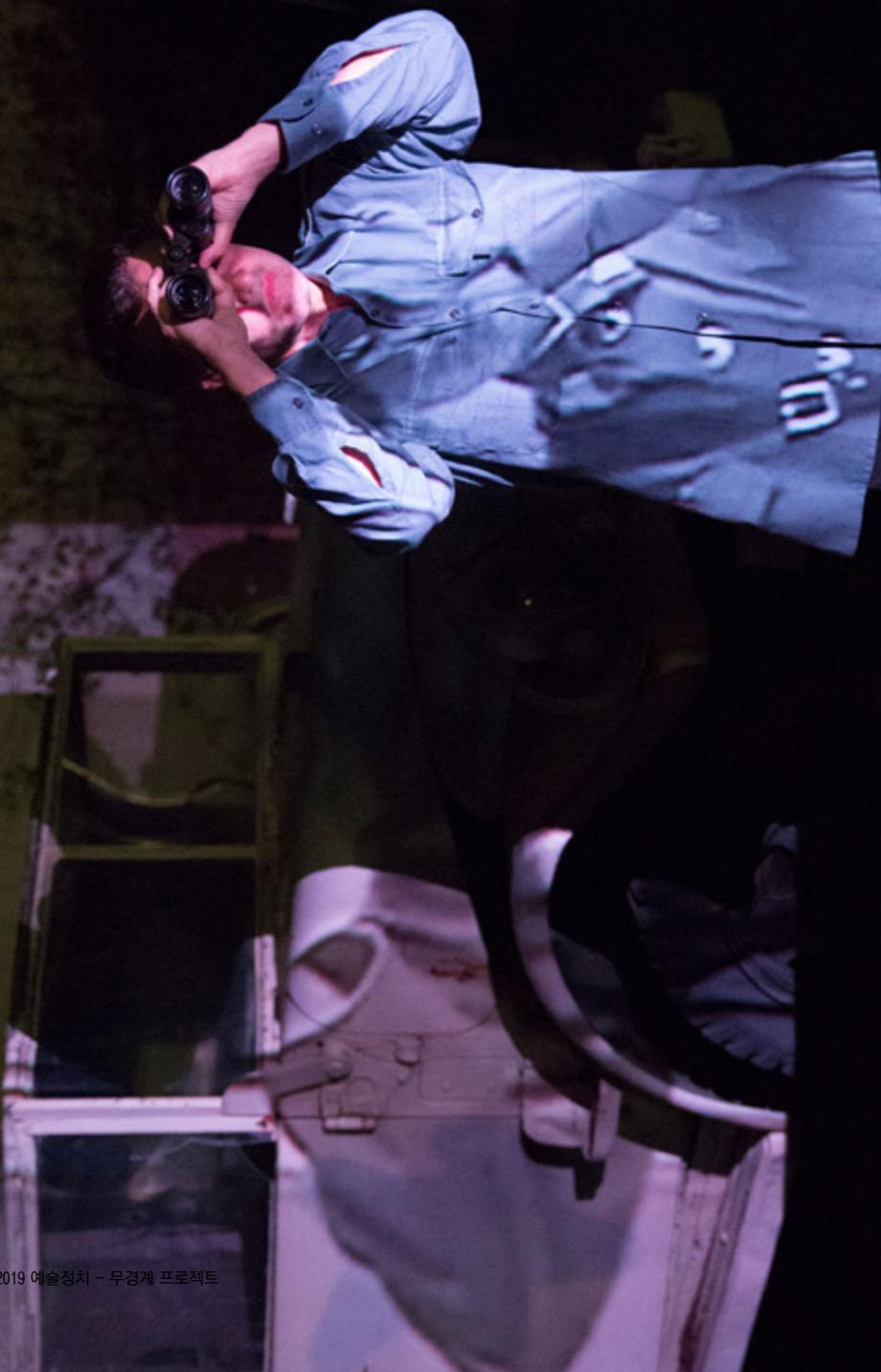
Iliko Zautashvili



DIVISIONS, 2019, study on multimedia installation, digital prints, various sizes



2019 Art Politics–Project Border Crossing | 181



Neutral Nations
Performance by Enrique Muñoz Garcia
Video projection by Park Byoung Uk
Photo by Jake Borden

Camp Greaves
Former US military base
DMZ (Demilitarized Zone)
South Korea
22 September 2019

Nine Dragon Heads
International Environment Art Symposium
Art Politic-Border Crossing
Curated by Magda Guruli



Neutral Nations
Enrique Muñoz Garcia

"Neutral Nations" is a multimedia installation by the artist Enrique Muñoz Garcia based on a collection of found video footage: the presidents and military leaders of various countries look through binoculars into the DMZ between the two Koreas.

A binocular symbolizes espionage, control, and military use in general. In this video the two Koreas engage in mutual observation, a process that marks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that originates from the 1950s.

This Swiss military shirt belongs to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in the DMZ. The term "Neutral Nations" was defined as those nations whose combat forces did not participate in the hostilities in Korea. Switzerland is an active part of this supervisory commission.

The work Neutral Nations was created for the project "Art Politics - Border crossing - Onsaemiro" organized by Shuroop Group from the city of Suwon and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rt symposium Nine Dragon Heads. The research destination of the project is the DMZ (The Demilitarized Zone), a 4 km wide, 250 km long buffer zone that divides Korea into two almost even parts. It was created on July 27, 1953, after the agreement between North Korea, China, and the UN Command.

Magda Guruli, Curator

Neutral Nations
Enrique Muñoz Garcia

"Neutral Nations" 는 기존에 존재하던 비디오 장면을 모아 만들어낸 멀티미디어 설치물이다. 비디오는 여러 국가의 대통령과 군 지도자들이 생안경을 통해 남북한의 DMZ 를 들여다 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생안경은 일반적으로 스파이, 통제, 그리고 군사적인 사용을 상정한다. 이 영상에서 남북한은 1950년대부터 시작된 양국의 통찰한 관계를 보여주는 과정의 상호관찰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스위스 군 서츠는 DMZ 내 「중립국 감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Neutral Nations (중립국)"이라는 용어는 한국에서 전대적인 행위에 기밀하지 않는 나라들로 정해졌다. 스위스는 이 감독위원회에서 활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작품은 수원시의 Shuroop 그룹과 국제환경미술 실험자인 '나인드래곤 헤드'가 주관하는 '예술정치·온세미로' 프로젝트를 위해 창조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연구 목적지는 한국을 거의 균등한 두 부분으로 나누는 폭 4km, 길이 250km 의 원총 지대인 DMZ이다. 1935년 7월 27일 북·중·유엔군사령부 간 합의 이후 만들어졌다.

Magda Guruli, Curator

손채수 SHON CHAE SOO



DMZ 동물나라 (DMZ Animal Nation)

군사분계선을 가운데 두고 남북으로 2Km씩 물러선 폭 4km의 DMZ은 종무장한 남북의 군인들이 서로를 경계하는 긴장의 공간입니다. 이 DMZ에도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곳에 참다운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그 때에는 이곳이 야생동물들이 살기 좋은 생명의 보금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왼쪽 동물들과 오른쪽 동물들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것은 DMZ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연출한 것이고 동시에 뜬 해와 달은 한반도의 두 나라를 빛낸 것입니다. 작가는 이 작품 속에서 야생동물을 통하여 공존을 추구하고자하는 노력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The demilitarized zone (DMZ) is a border barrier that divides Korean Peninsula in a half and it is about 4km wide and 2km away from Military Demarcation Line. This DMZ is a place of tension with heavily armed North and South Korean soldiers and various Wild Animals live in this DMZ.

I created this work by praying for peace and hoping that this place could be a better and safer place for Wild Animals to live in.

Animals facing one another at left and right side show the metaphorical description of DMZ situation, and the moon and sun rising together means two nations in Korean Peninsula.

Artist tried to show the effort of searching for coexistence through Wild Animals in the work.



DMZ 야생동물 넋 달랠 퍼포먼스

DMZ은 한국 전쟁 때 수많은 전투가 있었던 곳입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DMZ에는 현재도 많은 지뢰가 묻혀있습니다. 일 년에 한 두번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남과 북에서 들마다 불을 지릅니다. 이때마다 야생동물들은 불길을 피해 몸을 숨겨야 합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일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영문을 모른 채 죽거나 다친 야생동물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퍼포먼스를 하였습니다.

The Soul Healing Performance of DMZ Wild Animals

There were many battles during the Korean War. Even after the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there was a war going on that was not seen until now. There are still many landmines buried in the DMZ. In order to gain visibility, The South and North Korean Army set fire to the fields in the DMZ once or twice every year. Each time, Animals must hide themselves from the fire.

I did Art Performance to mourn the souls of Wild Animals that were killed or injured without knowing.



CHRISTOPHE DOUCET (FR) 크리스토프 듀쉐



이윤숙 LEE YOUN SOOK



나는 무경계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3년간 DMZ 구간 뿐 아니라 제주, 러시아, 쿠바,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등 곳곳을 여행하며 무경계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사진, 영상 기록과 함께 소품, 자연물들을 채집했다. 2019년 국제 무경계 프로젝트 '온새미로'전에서는 이렇게 3년간 모은 수집품을 둘근 원의 형상으로 설치했다. 이구아수 폭포물, 카리브해 모래와 바닷물, 남아메리카 원주민의 나무조각, 파타고니아 깔라파테 고사목, 아따카마 사막 모래와 나스카라인이 새겨진 돌, 우유니 소금사막의 소금덩어리, 러시아 수즈달 광장에서 주은 돌덩이, 제주 해안가의 어망 쓰레기, 태평양 · 대서양의 조개껍질, DMZ 각 구간 구간 식물, 열매, 곤충의 고치집 흔적, 철조망에 매달려 있던 녹슨 방울, 끊겨진 철조망까지 모든 소품들이 섞여 하나의 원을 구성했다. 이것은 해바라기 꽃 형상으로 무경계 온새미로를 상징하는 이번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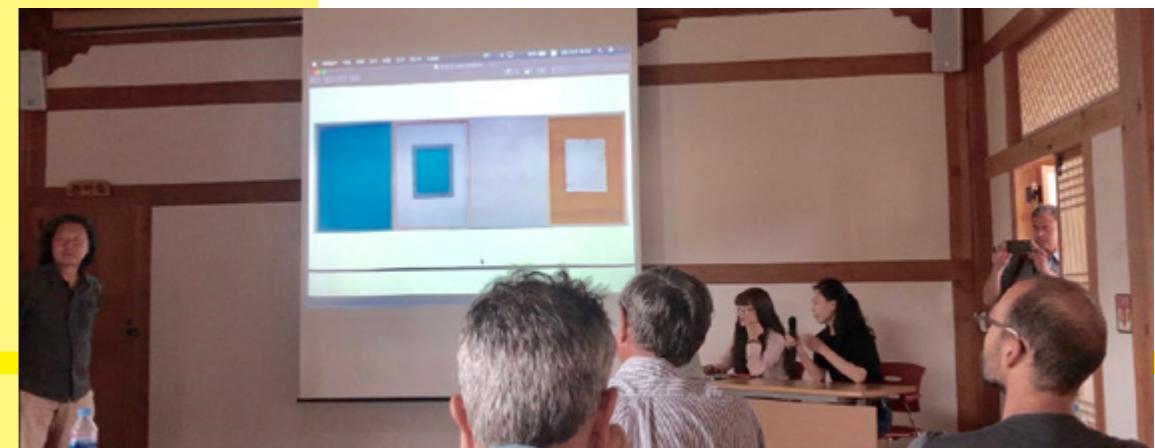
During the three years of the border crossing project, I traveled not only in the DMZ section but also in Jeju, Russia, Cuba, Peru, Bolivia, Chile, and Argentina, and performed performances to announce the project. And I gathered small things and natural objects with photographs and video records. In the 2019 DMZ international Art Politics – Project Border Crossing 'Onsaemiro 2019', The objects collected for three years were installed in the shape of a round circle in the exhibition hall. Iguazu Falls, Caribbean sand and seawater, wood carvings of Native South Americans, Patagonia calafate dead trees, stones of Atacama desert sand and a stone emblazoned with nascarine, salty blocks of Uyuni salt desert, stone blocks from Suzdal Square in Russia, Fishing Net Garbage on Jeju Coast, Pacific · Atlantic Shells, plants and fruits from each DMZ section, traces of cocoons of insects, rusty bell hanging on barbed wire, and broken barbed wire were all mixed together to form a circle. This is the final result of this project, which symbolizes the border Crossing Onsaemiro in the shape of a sunflower.





온새미로 / 온사이로

'온새미로'란 가르거나 쪼개지 아니한 있는 그 대로의 상태를 이르는 순우리말이다. 역설적으로 '온새미로'를 가르고 쪼개어, 서로 같지 않지만 서로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동시성이 '온사이로'다. 음각과 양각이 한 각으로부터 나오듯, 앞과 뒤 혹은 안과 밖, 가득 차 있음과 비어 있음은 상대적으로 대립하거나 분리되는 것이 아닌 관계에 있다. 가르거나 쪼개져 있고 없고의 상태보다는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의 본질을 마주하고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온새미로'일 것이다. 이렇게 서로가 함께 하고 있는 그대로의 현상태가 '온새미로'이며 그 사이 속에서의 온전함은 '온사이로'를 이룬다.



Onsaemiro / Onsairo

'Onsaemiro' is a pure Korean word meaning a state of being intact and uncut. Paradoxically, the synchronicity of dividing and pecking 'Onsaemiro' that shows that they are not identical but not different from each other is 'Onsairo'. Just as intaglio and embossing come from one angle, front and back or inside and outside, full and empty are in a relationship that is not relatively confrontational or separate. Instead of cutting or splitting, it would be a genuine 'Onsaemiro' to look at the very nature of what it is. The current state of being with each other is 'Onsaemiro' and integrity in between is 'Onsairo'.



印記 719-2541 20190922

Memory of the Wind – Ganghwa Gyo-dong20190922

The wind is blowing.
Now it is the season of strong winds blowing from the northwest to the Korean peninsula. Boundary drops of the iron fence that cut off the waist of the peninsula dance in the wind.
Ganghwa Gyo-dong
The painful history of the people who started from the west marks the period in Goseong, Gangwon-do, across the Korean peninsula.
I look at the north sky and the sea today from the rail fence at the west end of the bridge.
The Yeseong River spread out in front and the plain of Yeonbaek are as close as possible.
Floating floats from the north arrive at Gyo-dong's shores, and strong waves and winds smack the barbed wire nets.
What memories does the iron fence, which has existed as a product of mankind for a long time, retain?
I will remember my father's sighs, standing on the ridge of fathers and mothers, sons and daughters, grandchildren, and looking north.
You will remember the shining feathers of the migratory birds that flew across the fence in the north wind blowing from the north.
You will remember the floating that traveled the sea and experienced the vanity of the border.
Why should we find in the memory of the wind that has passed through the history of barbarism?
Now towards the other side of the wind, towards this side of the wind.
Like the powerful wings of birds that awaken the vanity of man-made boundaries.
May the curtain of violence be lifted and the wind of memory to embrace.
One spring day with radiant flowers
We hope the fishermen's catches will be heard on the shore of Gyo-dong where the tent is lifted.



2017년부터 3년간 DMZ를 걸으며 느꼈던 분단의 한반도, 우리 자신의 현재성에서 서정성과 내면의 울림을 Blue landscape 시리즈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 인화지 위에 drawing의 즉흥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2017~2019 프로젝트 DMZ답사를 통해 얻은 결과물을 재조합하여 새로운 풍경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재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에서 만나는 풍경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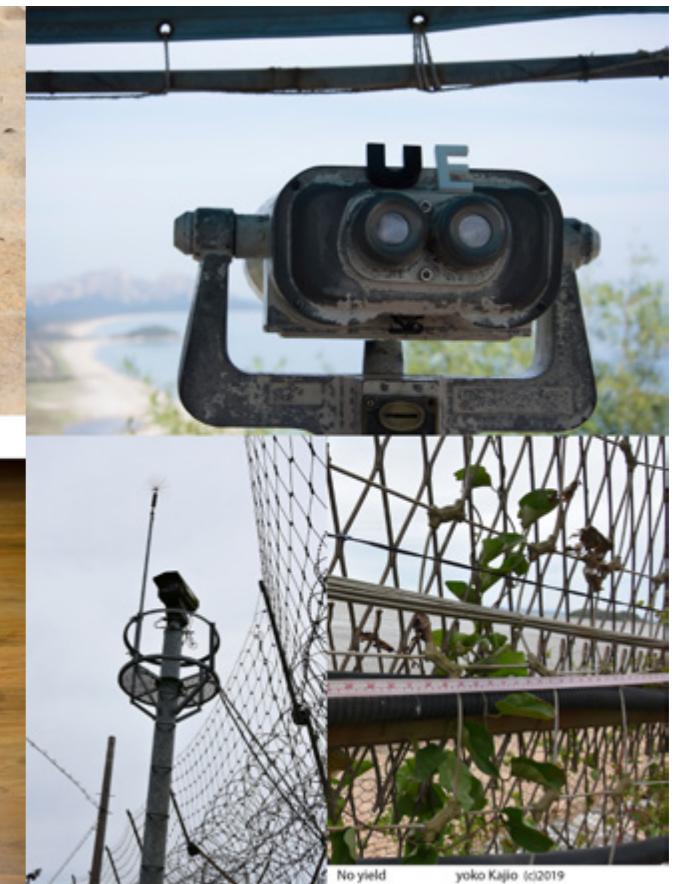
For three years from 2017, I wanted to express the lyricism and inner echo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we felt while walking through the DMZ, as a Blue Landscape series. To highlight the improvisation of drawing on the prints after taking a picture, we wanted to reassemble the results and images from the 2017–2019 Project DMZ survey to represent a new landscape. It could be who we are, or it could be a landscape we meet on a new road that we haven't been to.

Clear Communications

To opt out of constant surveillance requires clear commun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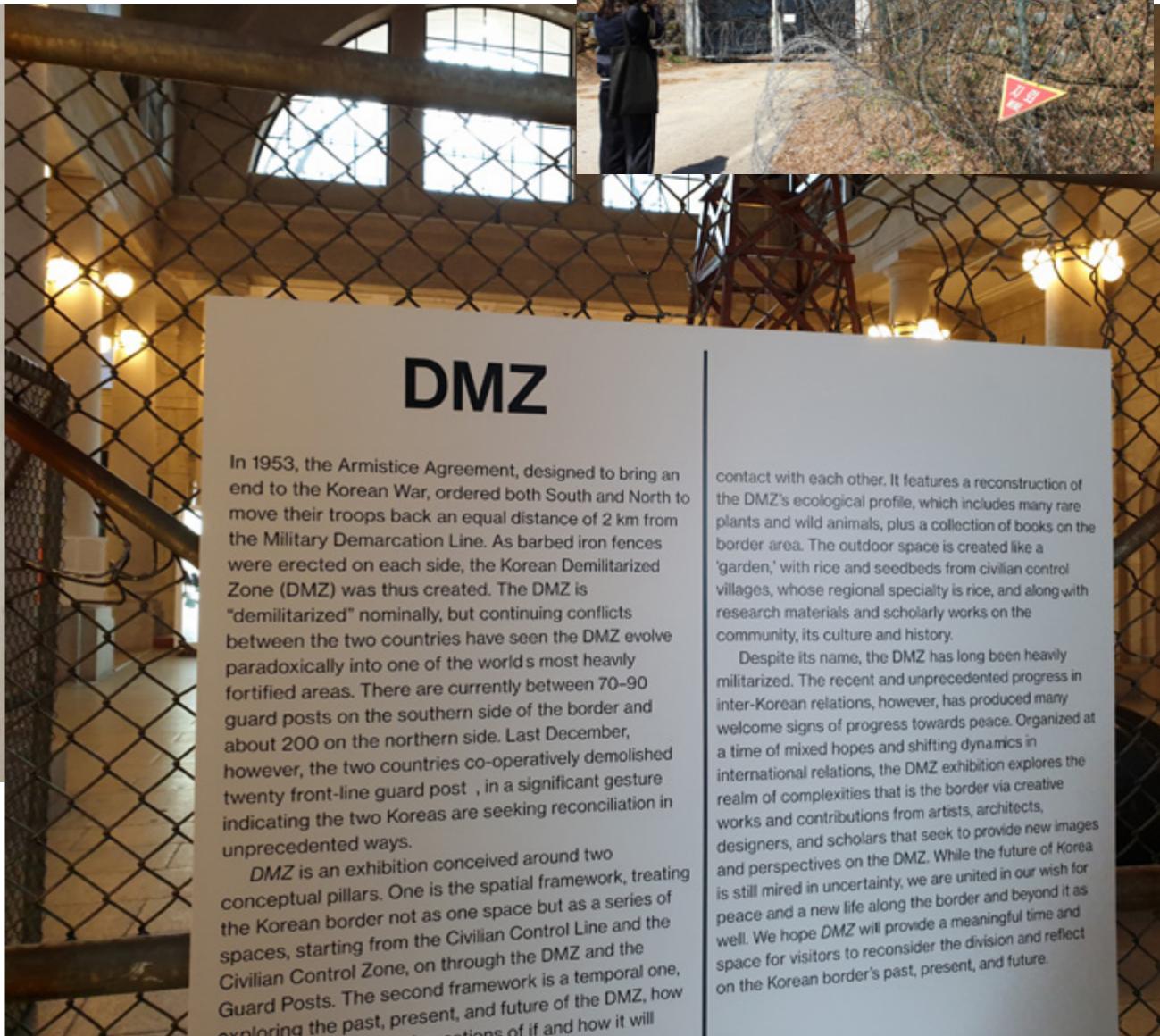
Onsaemiro wishes 1 & more (c)2019



yoko Kajio (c)2019

right and left images **Clear Communications**
yoko Kajio and Jason Hawkes (c)2019
(yokokajio.com)

JACOB BORDEN (USA) 야곱 보던



In 1953, the Armistice Agreement, designed to bring an end to the Korean War, ordered both South and North to move their troops back an equal distance of 2 km from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s barbed iron fences were erected on each side,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DMZ) was thus created. The DMZ is "demilitarized" nominally, but continuing confli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seen the DMZ evolve paradoxically into one of the world's most heavily fortified areas. There are currently between 70-90 guard posts on the southern side of the border and about 200 on the northern side. Last December, however, the two countries co-operatively demolished twenty front-line guard posts, in a significant gesture indicating the two Koreas are seeking reconciliation in unprecedented ways.

DMZ is an exhibition conceived around two conceptual pillars. One is the spatial framework, treating the Korean border not as one space but as a series of spaces, starting from the Civilian Control Line and the Civilian Control Zone, on through the DMZ and the Guard Posts. The second framework is a temporal one, exploring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DMZ, how it will change, and the implications of if and how it will

contact with each other. It features a reconstruction of the DMZ's ecological profile, which includes many rare plants and wild animals, plus a collection of books on the border area. The outdoor space is created like a 'garden,' with rice and seedbeds from civilian control villages, whose regional specialty is rice, and along with research materials and scholarly works on the community, its culture and history.

Despite its name, the DMZ has long been heavily militarized. The recent and unprecedented progress in inter-Korean relations, however, has produced many welcome signs of progress towards peace. Organized at a time of mixed hopes and shifting dynamic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DMZ exhibition explores the realm of complexities that is the border via creative works and contributions from artists, architects, designers, and scholars that seek to provide new images and perspectives on the DMZ. While the future of Korea is still mired in uncertainty, we are united in our wish for peace and a new life along the border and beyond it as well. We hope DMZ will provide a meaningful time and space for visitors to reconsider the division and reflect on the Korean border's past, present, and future.

OONA HYLAND

Onsaemiro and the Quality of Mercy

My current work uses print and sculpture to create assemblages where prints are projected into the exhibition space, casting shadows, and light is conveyed through the transparency of porcelain.

Some of these objects resemble the turf that is cut from the bog (land) and used as a fuel in Ireland. Meanwhile, the clay used in this work represents the earth, its original source. Land is at the center of disputes over territory: a root cause of both the Korean and the Irish conflicts.

MAGPIE RELICS

Depending on culture or folklore, the magpie is seen as a good or a bad omen, so its image represents duality and opposites. For example, in Ireland, a single magpie is considered a bad omen or a premonition of sorrow. (The magpie is not native to Ireland - it is an immigrant, having been first recorded as arriving in Wexford in 1676, when up to a dozen flew across the Irish sea from Britain). Magpies are considered thieving and deceitful. Their dark plumage evokes the barbaric practice of tarring and feathering historically used publicly to shame a perceived traitor. In Northern Ireland, it was used as a punishment as recently as 2007 and I remembered seeing a newspaper photograph of Martha Doherty in 1971 suffering this ordeal. Her crime was falling in love with a British soldier.



Martha Doherty
*Tarred and
Feathered*, Derry
November, 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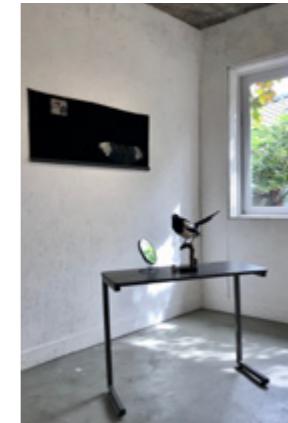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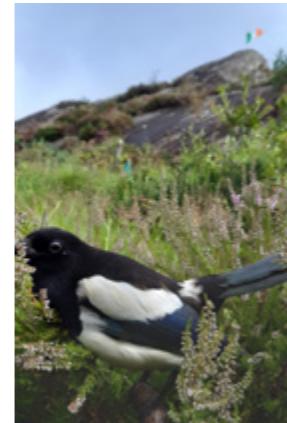
By contrast, in Korean folklore the magpie represents the people of Korea, who consider it a symbol of good fortune. Kkachi horangi (까치호랑이) is a prominent genre of minhwa that depicts magpies and tigers. In kkachi horangi paintings, the tiger, which is intentionally given a ridiculous appearance (hence its nickname "idiot tiger" (바보호랑이)), represents authority and the aristocratic yangban, while the dignified magpie represents the common man. Hence, kkachi horangi paintings of magpies and tigers were a satire of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Joseon's feudal society.

I have used a mirror in the installation, reflecting the image of the magpie back on itself. This mirror image is, of course, reversed not identical and symbolizes both the imperfection of self reflection and the symmetry of suffering on both sides of the border: "The cracked looking glass of the servant," as James Joyce wrote. The mirror gives us multiple images of the magpie yet includes the viewer: refractions, distortions and multiplications, in memory of the many people who have died in these ongoing conflicts.

The wet plate collodion print of the magpie and mirror uses an early photographic technique invented in the 19th century. The image is developed on clear glass and can only be seen when viewed on the black velvet background. Collodion was first used medically as a dressing for soldiers' wounds in the First World War.

Of course, birds do not recognize borders and are free to fly above th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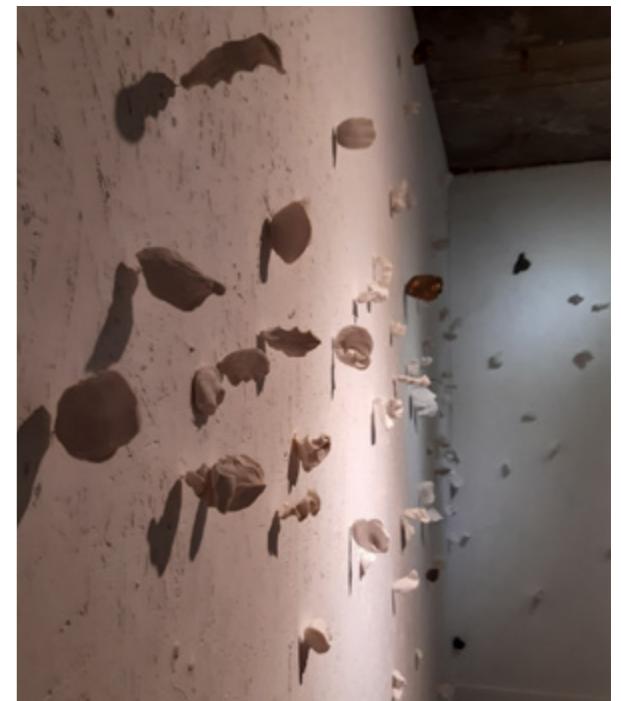
I called this work *The Quality of Mercy* because as I was making it, Portia's soliloquy from Shakespeare's play *The Merchant of Venice* kept springing to mind: "The quality of mercy is not strained; it droppeth as the gentle rain from Heaven upon the place beneath." Her words to Shylock juxtapose the situation (in court) of tension and conflict with the idea of blessing: "It is twice blest, it blesseth him that gives and him that takes."



I was struck by this idea of giving and of receiving mercy, and wanted to evoke a feeling of hope, arising from forgiveness, which is the hardest thing to give. While some pieces are arranged irregularly 'raining' down the walls, others are glazed in manganese dioxide, which is toxic, and is used here to render the pieces formed by hands into metallic, inhuman-looking fragments reminiscent of shrapnel.

The porcelain and clay pieces are formed by squeezing the clay between hands (my own and those of my son, Enda, who is a pianist); the fine surface records even the tiniest detail of skin prints. The porcelain is fired at a very high temperature until it is vitrified, making it impermeable even without a glaze. The sound when struck is like a note resonating; some of the suspended pieces in the installation struck together while moving in the air and this sound chimed in the space. The term for the change in porcelain when it is fired at this intense heat is fortification, which seems apposite for art based on the DMZ.

I think of these shapes as three-dimensional prints of tension; they make tangible something that is invisible, and reflect the fear and pressures experienced by people living in conflict zones.



Above: Installation of porcelain tension print objects fired with the assistance of Geoffrey Healy Pottery Kilmacanogue

Left: *Tiger and Magpie*, 19th century. Ink and color on paper, 158.8 x 56.8 cm, courtesy of Brooklyn Museum

Far left: Suspended tension print object, manganese oxide glaze made at Kinsale Pottery.

Overleaf:

Left: Magpie at Shrine, Glengarriff, Co Cork

Right: Installation view of Alternative Art Space Noon, Suwon Korea. Magpie, mirror, cast raku egg fragment, manganese glazed cast egg fragment, wet plate collodian and magpie wings on black velvet.





Untouchable

In a busy town along the Demilitarized Zone I bought a magazine from one of the local news stands. It was full for sexy Korean models, anime, cartoons, and it had reviews of military vehicles.

Through a series of interventions I turned this magazine for soldiers into my own notebook. I made drawings and paintings directly on the pages that related to the images and impressions I had while traveling along the northern border. I drew many fences and some natural themes directly over the images.

I want the viewer to consider this new imagery and content, and to change their perspective on their usual objects of desire.



DENIZHAN OZER (TK) 데니잔 오저르



ONSAEMIRO

In my works, the human element and human problems, both individual and social, always occupy the front ranks. In particular, I try to tell the real – life stories of those people who are marginalized, oppressed, and in flight, and those who leave behind their homes and countries and who are affected by war, terrorism, faulty policies, and all kinds of difficulties but despite everything try to be happy.

I accept as requisite time frame an event that will re-discover life afresh and that will be experienced and, therefore, the past, by being documented, will be remembered and a lesson will be learned and transmitted to the future. That is why in my works I try to present the relation between art and life by documentation. In this connection, the events that happen in daily life, what I witness first-hand, read, watch, experience have an influence on the conception of the structure of my works. The records that I have been collected for a long time have begun to occupy a place in my works and the works I have made have turned into political works that constrain life, compel the taking of risks, and send meaningful messages.

In my completed works the space occupies a prominent position as an significant idea. In the installations I prepare with modern methods appropriate to the space, the objects

I use are usually not ready-made and are based on documentations, re-worked, altered, and re-created. These pieces contribute a great deal to the expression.

Demilitarized Zone and Joint Security Area (DMZ&JSA) 155 mile from West to East borderline that divides the North and South Korea. This area was established 1953 with Armistice Agreement. Since this date there are two countries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project I would like to show this reality with my Art Work. So I work sensitive area, and ask important question



GORDANA ANDJELIC GAL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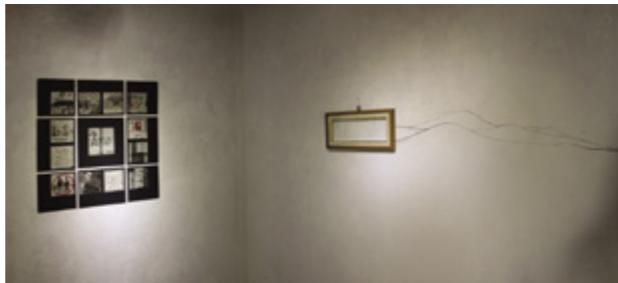
Sarajevo,
Bosnia & Herzegovina/ Croatia

Runaway Landscape

Drawings and performance with
writhing intervention on the floor,
Art space Gallery BOM, Suwon,
South Korea,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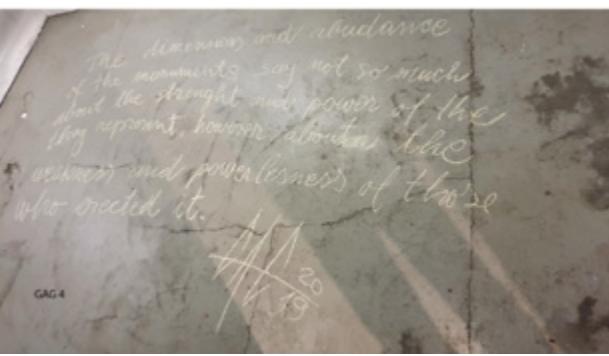


RUNAWAY LAND SCAPE



> The plaintive, longing glances of numerous South Korean visitors who have been coming to the DMZ in organized and tightly controlled groups, sent prayers with their "lyres", dance and song, like Orpheus, enchanting potential observers from the north side of the barbed wall, with hope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countries and the release of captured and runaway lands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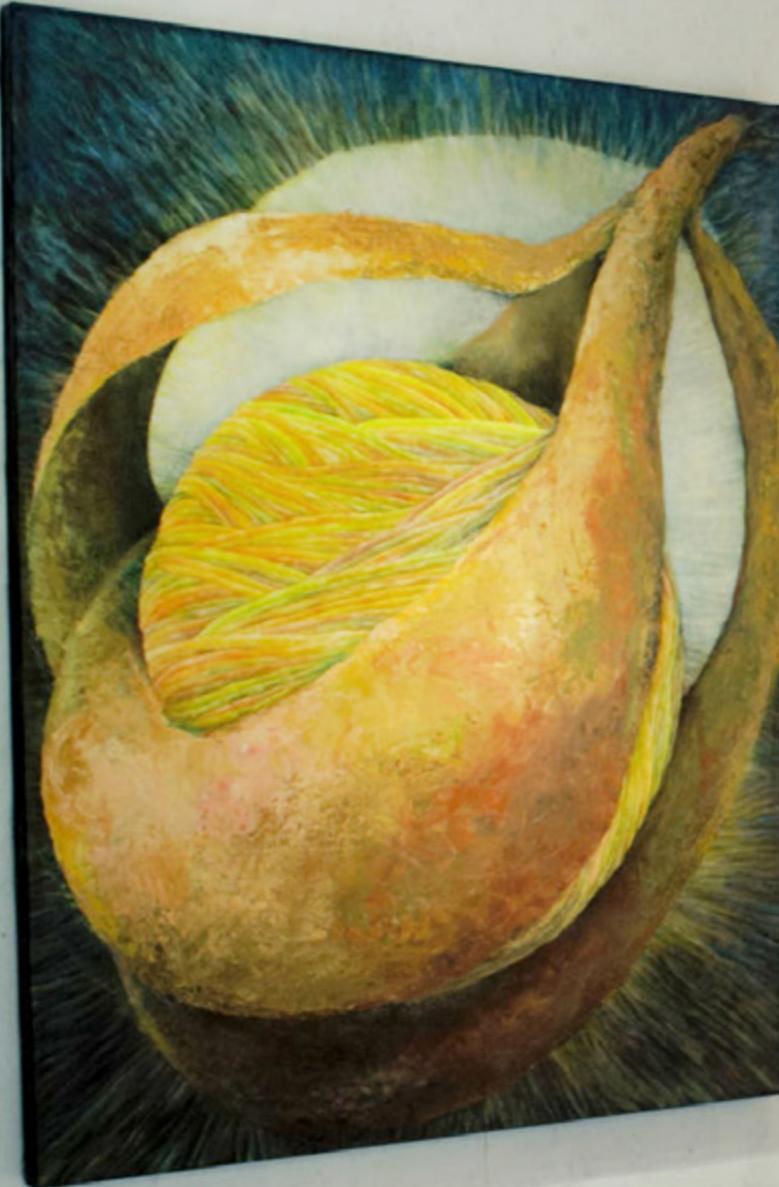
The time will tell if they will be able not to look back.



A multi-day journey and hike along the 250 km-long Demilitarized Zone (DMZ) that divides (or connects?) North and South Korea, with visiting lookouts and observation posts equipped with telescopes targeted at the landscape interrupted by a multi-meter wall, especially its part on the other side of the barbed wire, reminded me of the myth of Orpheus and Eurydice:

After his youth and adventures with the Argonauts, Orpheus decided to settle down with the most beautiful of all nymphs, Eurydice, who, shortly after escaping from the lusty Aristeas, was bitten by the snake and died.

The inconsolable Orpheus decided on an incredible undertaking - a descent into the world of the dead. At the entrance to Hades, he enchanted with his lyre the three-headed Cerberus and Hades, the rulers of the underworld who moved by his song decided to let Eurydice out into the Sunlight under one condition. When they go back to the upper world, Orpheus must not turn back to Eurydice, who was to follow in his footsteps. Impatient in his love, Orpheus failed to endure, broke the set condition, looked back and lost Eurydice forever. >



한민족의 상징 '삼태극'을 기본 이해로, 온세미로: 원래의 쪼개지지 않은, 쪼개질 수 없는 운전함을 지향하는 이념과 철학적인 시각 이미지를 담아내고자 합니다.
방법의 측면에서, 나는 강렬한 시각적 표현을 추구하기 위해 '대담함 & 거칠음' 및 '섬세함 & 평온함' 같은 반대 표현을 사용하여 강렬한 시각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모양이나 형태로는 존재할 수 없는 추상적 인내부 풍경으로 취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With the basic understanding of the Korean symbol, Samtaegeuk, I would like to capture the ideological and philosophical visual image of 'Onsammiro' that aims for the original, undivided and indivisible wholeness. In terms of methods, I struggled with using opposite expressions like 'Boldness & Roughness' and 'Delicacy & Quietness' to pursue a powerful visual expression. This intensity is intended to be treated as an abstract interior landscape that cannot exist in shape or form.



인류가 최초로 무엇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를 만들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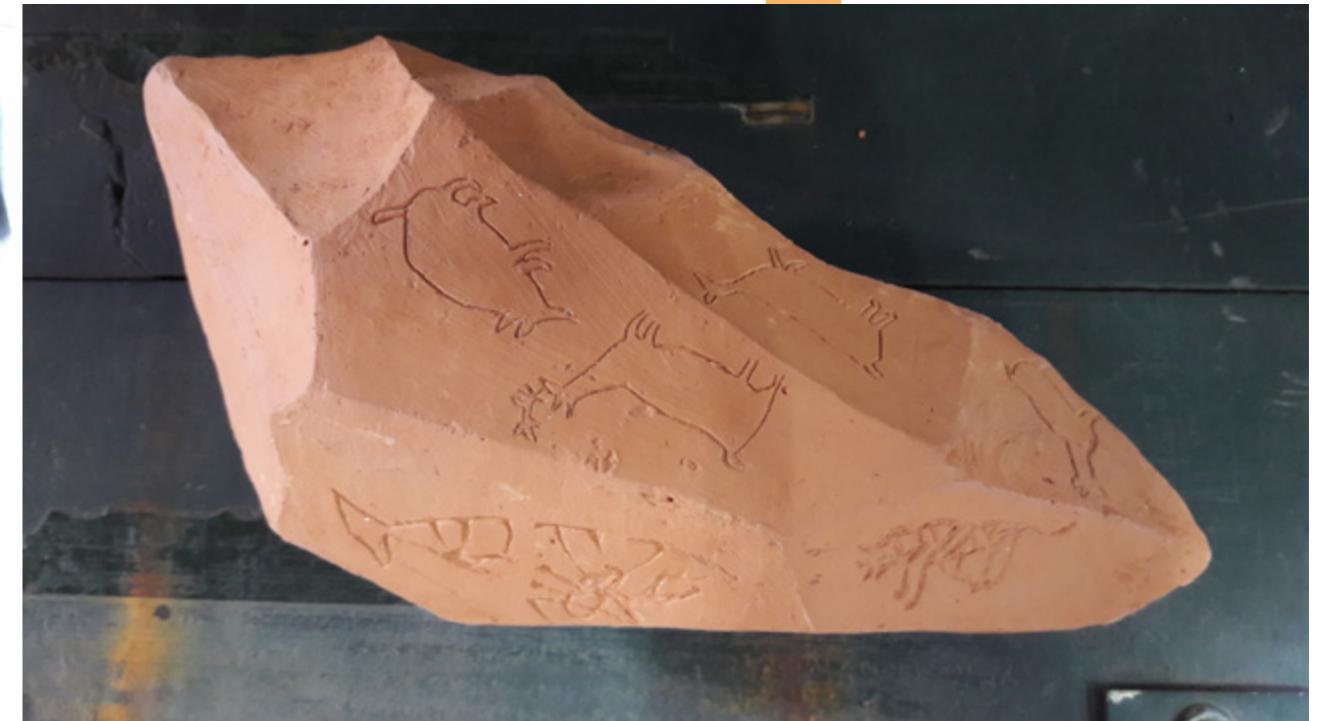
수렵과 채집으로 생활했던 구석기인들은 주변의 돌로 도구를 만들어 씀으로써 거친 자연 속에서 살아남아 인간사회를 만들어갔다. 도구의 쓰임새에 따라 한 방향으로 돌을 떼어내 쓰던 방법이 점차 양쪽으로 돌을 떼어내 쓰게 되면서 인류의 도구의 발전이 시작 되었다.

수십 수만 년 전부터 한반도에서 살아온 구석기인들 또한 양날도끼 아슐리안(Acheulean) 석기를 사용했음을 전곡리 유적지에서 알 수 있다. 그 당시의 맥가이버 칼과 같은 만능 돌도끼가 지금 우리 손안에서 떠나지 않는 핸드폰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란 생각을 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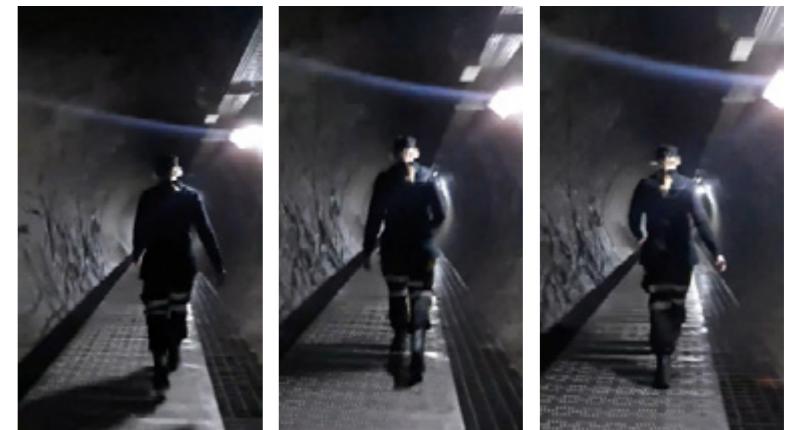
타제석기가 마제석기로 청동기로 철기시대로, 전기와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전자 칩이 개발되고, 리모컨이 생기고, 진공청소기가 등장하고, 살인 무기가 만들어지고 이제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며, 인공지능 AI시대가 왔다. 20만 년 전 한반도 최초의 고인류인 네안데르탈인이 쓰던 만능 돌도끼가 시대의 변화와 과학의 발전을 통해 지금의 한민족은 수많은 역사를 거치며 이 한반도를 지켜왔다.

우리 인류가 위대한 진화의 행진을 하였다는 것은 매우 명확하다. 과거는 오늘날의 우리를 만들어 내었다. 미래도 우리를 진화의 여정으로 인도할 것이다.

한반도의 전기구석기시대의 주먹도끼와 D.M.Z지대에서 출토된 한민족의 아픔을 간직한 포탄을 같이 전시함으로써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시간의 발굴과 초월된 시간의 측적을 보여주고자 한다.



ALI BRAMWELL (NZ) 알리 브람웰



Images on right: walking in tunnel, video stills.
videography by Kim, Yi Sun



images on this and following pages: performance documentation, October 2019.
title: Flower Arranging (attachment drawing)
photography by Denizhan Ozer

MOON SANG WOOK (KR) 문상욱

Abstract Scenes

The lotus flowers that were in full blossom on the Iron fence has made symmetrical figure on the surface of gentle waves in the DMZ



PARK BYOUNG UK (KR) 박병욱



The project "Art Politics – Border Crossing – Onsaemiro" is especially honorable for each international member of the NDH as it takes place at Korea's most painful site that is DMZ, the part of the land that has divided our country for already 66 years. 66 years can be a lifetime of a person or the period for several generations to come and go. Still, DMZ is not only a place but also a phenomenon with the deepest imprint in our souls an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historical memory of Korean People. This is the subject that needs our constant care and searching for the ways to restore the country in its righteous political, moral and geographical limits.

Working in locations with special characteristics that may be environmentally, or politically disturbed, on the world's important cultural, historical and geopolitical routes is the very essence and a particular feature of the Nine Dragon Heads' ideology. has worked in with major sociopolitical challenges connected to the collapse of political systems, wars, territorial divisions, and environmental disasters.

All the times working at various sites around the world NDH maintained its main goal that is by means of the art searching for potential conditions of the balance between a human and an environment, a person and nature, a person and society, a person and political power.





Since 1896

신풍초등학교 강당 사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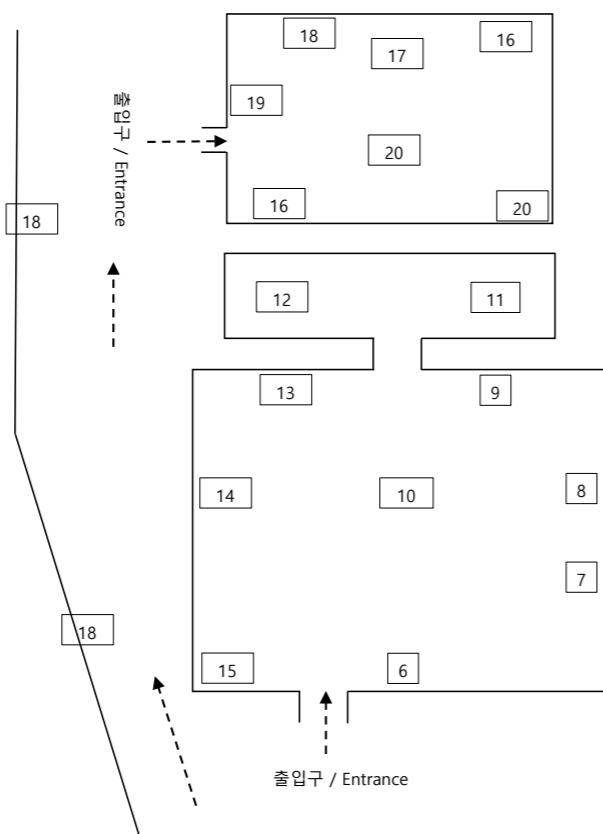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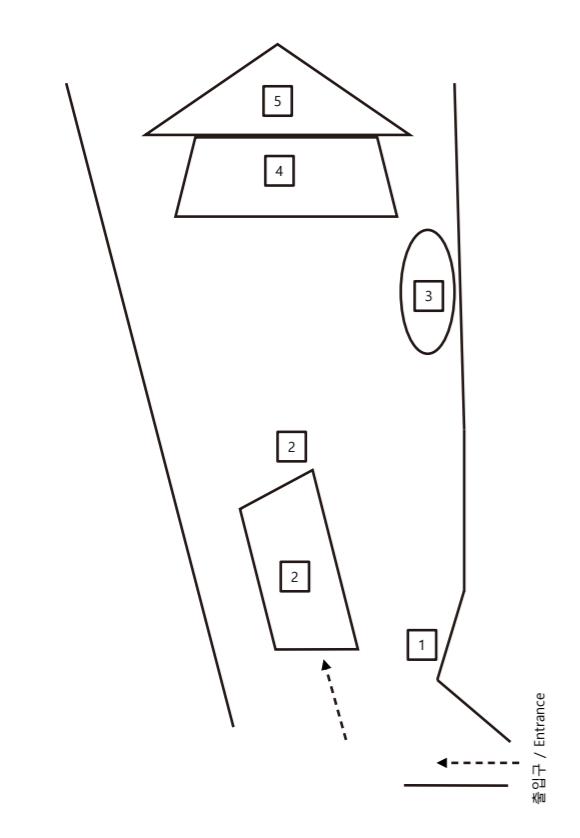
SINPUNG ELEMENTARY SCHOOL AUDITORIUM

신풍초등학교

1896년 개교한 123년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초등학교 강당의 사료 박물관이다.

Founded in 1896, Sin-Pung elementary School is a fodder museum within its auditorium, which is keeping 123 years of history and traditions.





- (1) 노동&효과 Labor & Effectiveness – 김결수 / 싸인볼, 노끈, LED, 가변설치, 2019
- (2) 자유의 그린하우스 – 알로이스 쉴드 [AT] / 미완성 형판의 그린하우스 짓기, 성장의 상징, 깨닫음, 우리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
- (3) 01821783.8 (내가 딸고 있는 땅) – 강민정 / 혼합매체, 2019 / 누군가의 기다림, 슬픔과 기원으로 다져진 땅
- (4) Circle – 최세경 / 보자기, 펜, 함께 퍼포먼스, 2019 / 경계에 서서 무경계를 외치다
- (5) 진북 (眞北) – 가브리엘 아담스 [USA] / 나침반을 가지고 민통선 고송에서 방위를 확인하다.
- (6) 한반도거인 炭器 – 김수철 / 변형크기, 철 구조물 위 연탄재, 2019.
- (7) 흐르는 장(場) – 표면을 넘어서 – 도병훈 / 72.5×60.6 cm, 캔버스와 종이에 혼합매체, 2019
- (8) 먼지 SeriesCamp 그리브스, 파주 – 남기성 / 2019 / 캠프 그리브스에 부유하는 먼지를 촬영
- (9) 폭발물로 낚시하기 – 제인 다이어 [AU] / 신풍 초등학교, 이웃간의 복잡한 문제들의 상, 정체성, 소속성에 관련된 사물들을 자료로 사용하여 문자화 하여 습니다.
- (10) 또 하나의 길 – 기타자와 카즈노리 [JP] / 내가 모든 것을 잃었던 그곳에서 프로젝트를 통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돌려 받곤 합니다.
- (11) 자유를 위한 하나의 소원 – 다니엘라 디 막달레나 [CH] / 천개의 종이 학은 한국인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이 이루어 지기를 염원하며.
- (12)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 형성된 국가 풍경 – 하롤드 드 브레 [NL] / 어둡고 불길한, 긁히고 훌려내린 물감, 회로판에 GPS 코드화된 풍경
- (13) 온새미로 – 최향자 / 평면회화, 2019 / 만들어 하나로 돌아가듯, 지금 여기에 충실하고, 훌연히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 (14) DMZ의 색상들 – 피터체 반 스푸터너 [NL]
- (15) 초원 – 마틴 훌웬드 [LI] / 초원의 무한함, 연옥의 순회는 Ed Adkin의 Good Wine(최상의 와인이다), 잔인한 슬픔의 순회
- (16) 섬세하지 않은 그림 1~9, 화분 조명 – 김준호 / 종이에 과슈, 2019 / 어떤 그림은 섬세하지 않다.
- (17) 이지송 & 김수철 & 지박 협업 – 이지송 & 김수철 & 지박 / 영상, 2019
- (18A) 3가지의 질문 – 하네스 에거 [IT] / 오디오는 관객들이 3개 답을 무대위에서 동작으로써 답하도록 초대 합니다.
- (18B) 가상의 벽 – 하네스 에거 [IT] / 이 벽은 눈에는 보이지 않게 잘려져 있는 3.25m 높이의 벽입니다. 섬세하신 분들은 이 벽을 느끼실 수 있고 통과 할 수 있는 틈을 발견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 (19) 경계너머 – 한영숙 / 가변설치, 혼합재료, 2019 / 삶의 반짝이던 모든 순간, 그 경계 너머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
- (20) Rest in the Cocoon – 은주 / 설치, 한지 & 송진풀, 2019 / 나 자신이 인간형 고치를 짓는다면 어떤 형태일가 상상해 본다. 인간의 길이 미궁에 빠질 때 우리는 다시 자연을 본받고 돌아보게 되는 것인가…

- (1) Labor & Effectiveness – GyulSoo Kim / Sign ball, tie, LED, Variable installation, 2019
- (2) Greenhouse of Freedom – Alois Schilds / An unfinished template for constructing a greenhouse, symbolizing growth, illumination, and the obstacles we must overcome.
- (3) 01821783.8 (The Land that I am Standing on) – Kang Min Jung / Mixed Media, 2019 A land that composed with one's bide time, sorrow and will.
- (4) Circile – Choi Se Kyung / Bojagi, pen, a performance together, 2019 Standing on the border and shout out Border Crossing
- (5) True North – Gabriel Adams / Taking a compass bearing in Gosong, at the Civilian Control Line
- (6) Korean giant – Kim Su Cheol / burnt stoneware, modified size, Briquet Ashes on steel structure, 2019.
- (7) A Flowing Field, Beyond the Surface – Do Byung Hoon / 72.5 × 60.6 cm, Mixed Media on Canvas and Paper, 2019
- (8) Dust Series Camp Greaves, Paju – Nam Gi Sung / 2019 / Shooting the Floating Dust on Camp Greaves
- (9) Finishing with Explosives – Jayne Dyer / Text with objects sourced from the Simpung Elementary School, reflect on the complex issues of nationhood, identity and belonging. (Translation by Lee Jung Tae)
- (10) One of the Way – Kazunori Kitazawa / In the place where I lost everything, I get back the important things again in the project.
- (11) One Wish for Free – Daniela de Maddalena / 1000 White cranes are a gift to the Korean people. May their greatest collective wish be fulfilled.
- (12) The View on the Nation Created by the Will of the People – Harold de Bree / A dark and sinister, scratched and painted dripped, GPS coded landscape on circuit board.
- (13) Onsaemiro – Choi Hyang Ja / Painting, 2019 / As everything goes back to one, I am here to stay true. I return to where I came from.
- (14) Colors of the DMZ – Petertje van Splunter
- (15) Cheorwon – Martin Wohlwend / Cheorwon's endless, purgatorial circuit is an allusion to Ed Adkin's Good Wine, a vicious circle of sadness
- (16) None Delicate Panting #1~#9 – Kim Jun Ho / Gwasyu on paper, 2019 / Some painting is not delicate.
- (17) Collaboration of Lee Ji Song, Kim Su Cheol and Park Ji / Lee Ji Song, Kim Su Cheol, Park Ji
- (18A) 3 Questions – Hannes Egger / An audio work that invites visitors to perform three answers on the stage.
- (18B) Invisible Wal – Hannes Egger / The wall is cut by an invisible, 3.25m high, wall. Sensitive people can feel it and find the gap to pass through.
- (19) Beyond that Boundary – Han Young Sook / Various Installation, Mixed Media, 2019 / The shining moment of life Beyond that boundary. I don't know what exists.
- (20) Rest in the Cocoon – ONZOO / If I build a humanoid cocoon, imagine what form it is. When the human path falls into a labyrinth, we lookback upon nature.

노동&효과

오브제로 제시되는 현대미술가의 모형은 오랜 시간 공고히 쌓은 텁들을 모방하거나 전복하면서 갤러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 도전과 응전을 하고 있다. 삶의 모든 영역이 미술의 재료와 장소가 되면서 미술의 한계는 끊임없이 변화해 간다. 어쩌면 이러한 미술 영역의 확장 혹은 과정이라는 순환의 틈새에서 '노동-효과'라는 오브제를 통해 염연히 존재하는 백색공간의 과도기적 정치가 주는 거리감을 그의 삶 언저리에서 발견한 물체를 통해 상호관계 지음으로써 갤러리의 안과 밖을 연결하는 고리를 던져놓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가족 생계를 위한 건축현장 노동자의 노동과 질퍽한 삶의 애환을 담고 있는 얘기, 인간의 쓰임새로 인해 만들어지고 버려지는 폐자재에 대한 얘기, 물질문명에 의한 풍요로움 속에 정신적 빈곤으로 고달픈 삶에 대한 내용 등은 인간사 모든 일들은 짐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회로에박의 정철로 만들어진다.

Labor & Effectiveness

The adventures of contemporary artists are presented by objets. They have challenged and fought by imitating or overturning towers that have been built firmly for a long time through diverse experiment within the boundary called art galleries. As all areas of life become materials and places of art, the limits of art are constantly changing. I think perhaps the artist throw the ring connecting the inside and the outside of the gallery by interconnecting the sense of distance given by the transitional instrument of the white space, which clearly exists through the objet called "labor-effectiveness" through the objects that the artist found around his life in the gap of circulation of the expansion or the excess of the art area.

The story containing the labor of a construction worker working for the living of his or her family and the deep joys and sorrows of life; the story about wastes, which are made for the use of people and then thrown away; lives suffering from the spiritual poverty in the abundance owing to the material civilization – Everything in the human history is made by joy, anger, sorrow, and pleasure within the boundary called a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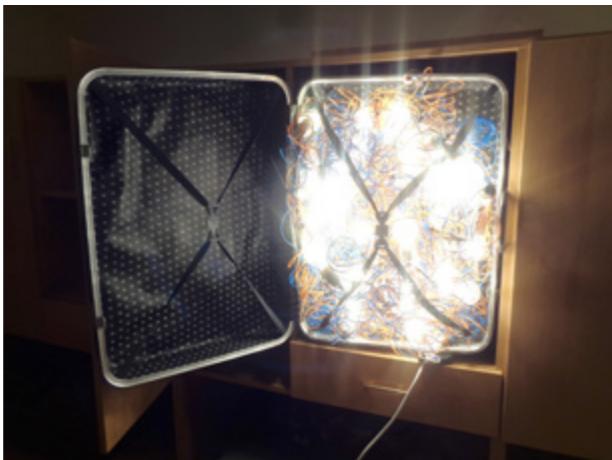


ALOIS SCHILD (AT) 알로이스 쉴드



GREENHOUSE OF FREEDOM

In this meaningful place, Schild's "Greenhouse of Freedom" aims to allow the seemingly unthinkable to happen, creating a space for the unprejudiced encounter between people. The 10 x 4 x 4 meter installation consists of fifty points of light that represent the outline of a fictional building. The resulting transparency and permeability of the art object reinforces the artist's concern not to create a building of isolation and mistrust but a place of encounter and openness. Visitors and passers-by are invited to stay inside the installation in order to gain insights and enlightenment on the subject of "encounter".



강민정 KANG MIN JUNG



우리는 누군가의 기다림, 슬픔, 기원 위에 서 있다.

얼마나 많은 세월과,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소망과, 얼마나 많은 이들의 노고가 들었던가.

DMZ에 철조망이 없다면 오랜 전쟁의 흔적보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러 왔다는 착각에 들 것이다.

작품 '01821783.8'은 오래전 탈놀이는 서민의 희로애락을 대변하고 해소해 주는 역할을 했듯이, 변형되고 조각난 탈들이 캔버스가 되어 지나온 세월의 아픔, 소망, 기다림 위에 굳은 땅이 되었음을 표현하였다. 가슴에 묻고 앞으로 나아가는 세월들, 무명실은 앞으로의 지혜로운 평화와 조화의 날들을 기원의 서낭당이 되어준다. 이는 현재의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의 역사와 현재의 우리 모습을 반영한 것이다.

MinJung Kang, 01821783.8 (The Land that I am Standing on),
Mixed Media,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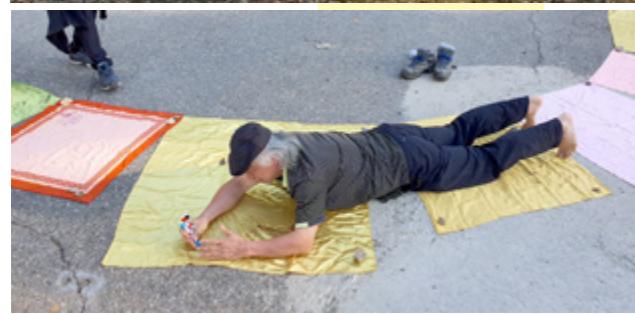
How many years been passed, tears been dropped, hopes been wished, works been tried:

A land, that we are standing on, is composed with one's bide time, sorrow and will. Without barbed-wire fence in DMZ, it is hard to imagine or trace sorrow of the war. It is hard to believe that all those years are buried under our feet in a beautiful landscaped form.

As traditional mask reflects life as presenting unspoken happiness, anger, love and joy. Work '01821783.8' is formed with colored and reformed masks that is all linked with lines to present all the time we carried in history which create the land. Lines of thread are hanging from the wall to ground to make all the connects are symbolized SeoNangDang(서낭당). It is to present people to mind to taking steps on the future with hopes and wishes of wisely united peaceful days. Seating flat figure are positions of one's present time. It is a scenery of how we are standing on this land.

What was there (history-masked land),
what is here (present-flat figure),

최세경 CHOI SE KYUNG



• 그치오 를 위한 무사에 대한

와이어 이자리도 음묘 이외 끝나우 음글씨방 외연자스방비 나자이아스방, 끄이 이글씨방 음맑 4수무 음상비 10
그리어명을 향비 10음토유자, 그리아남비 10설사 끄이모 수출오 틀씨방무 토발 10이음토유자 아남, 끄이모
유 우체 도 yapıl 청묘비 10 그림영화방 끄이자보' 틀우 음풀비 10. 그리하요풀 10그로 향비부 음자금비를비방
그리어드방 끄이한한한비는 음토유자 외연자서다 치드를혹 코 10비비 음자, 끄이한
그리아즈 끄크비 토으흡조 운토비서 아하우, 도하흡호, 도이글이복, 도하비중, 도으모 틀묘비 음장비 10
름이. 그리꽃 봄나워비 도이행별 벙불 이행비. 그리으풀이별 치즈방자 음틈을혹 외연자 음흡조 운토비서 봄성음
그리아즈 끄민한 틀묘비 둘으연자 둘행자이아드비자도이 10이구나한 뒤행스방자 끄를한다 10이글이복 둘행비

Short, Border Crossing, Out on the Border

in the world, in countries where borders are existing. After years of non-violent power, borders are located deep in our life. Being naturally free is the best of life than no short 'border crossing'. Short 'border crossing', is a longing for freedom. In order to take down borders, constantly hard efforts are needed. In the show 'Circle', Bolaji is chosen as main master because living Bolaji can be able to maximize visualization, being free. Bolaji can only leave by small wind because it is this small example that makes people collect, believe, accept, harmonize, distinguish, and then live happily. The 'Circle' took master's collection, belief, acceptance, harmonization, distinguishing, and then testifying process. Newly established work takes well the movements of the nature. When wind blows, it fluctuates. When rains, it gets wet. Accepting as it is and harmonizing as being one is the true sense of appreciating down borders.

GABRIEL ADAMS (USA) 가브리엘 아담스



True North_Gabriel Adams_North Korea_Goseong.jpg
TRUE NORTH_Goseong
Taking a compass bearing
From the Goseong Unification Observatory
There are the 12 thousand peaks of the
Geumgangsan mountains
4 kilometers the Demilitarized Zone
And the sandy beach of Songdo

True South_Gabriel Adams_Jeju Island_Gangjeong Village.jpg

True South_Gangjeong Village
Taking a compass bearing
From a volcanic river bed in Gangjeong Village, Jeju Island
There is the Jeju Civilian–Military Complex Port
Black stones all around
And a soft coral bed under the sea (national monument #442)

DMZ 2019 예술정치 – 온새미로

“국경의 감동”
가브리엘 아담스

해안; 갯벌; 이어지는 언덕; 숲; 농촌; 작은 마을; 강; 철책선; 군용 수송대; 군대; 군 막사; 검문소; 전망대; 해안.

이것은 사실상 38도선의 북쪽과 남쪽을 가로 지르는 구불구불한 경계의 기본 구성을 요약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눈으로 북한의 가장자리를 만질 수 있으며, 물결이 넘실대는 풍경, 고개 너머 열린 하늘을 볼 수 있으며, 심지어 백로의 멋진 비행을 목격 할 수도 있습니다. 귀 기울이면 당신은 공간의 울리는 소리, 나무와 갈대 잔디를 통해 울리는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운 좋게, 당신은 남북 양쪽에 살았던 어르신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으로서 이것은 서에서 동쪽, 북으로의 도달 할 수 있는 여정의 한계입니다.

수년에 걸쳐 여러 번 한국을 방문한 저에게 국경 지대 자체는 항상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인천 갯벌을 따라 서울로 가는 도중에 접한, DMZ 관광을 안내하는 게스트 하우스의 브로슈어에는 “태양의 후예들(2016)”과 같은 다양한 한국의 드라마와 국제적 분쟁 지역의 사건 및 세계 지도자들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비무장 지대의 남침 땅굴, 관측 지점 및 평화 공원과 같은 주요 지점들이 브로슈어에 소개된 관광 인프라로 개발되었습니다. DMZ는 어떤 모양이나 형태의 테마파크가 아닙니다. 국경의 모든 곳에는 무장되어 있으나, 땅을 경작하고 비교적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산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키치적 소비 상품들을 대화와 평화를 기반으로 하는 공원에 추가하려는 시도가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의 문제를 떠나 재고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대한 바이킹 배 안에서 강철로 된 추처럼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장면은 어떻게 보일까요?

“전체성 또는 완전성”을 의미하는 온새미로 프로젝트는 국경의 문제와 현재의 시간에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합심한 한국인들과 해외의 60여명의 현대 예술가들이 국경을 따라 함께 여행하기로 결심 한 것은 참으로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그들은 서쪽에서 동쪽으로의 거리, 풍경과 그곳의 사람들, 가는 길의 장소, 그리고 이 분단을 따라 건축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성된 구조물들을 통과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가들의 생생한 체험과 작품들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된 수많은 행사, 전시회, 공개 포럼 및 간행물도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심포지엄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현재의 상황에서 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무언가가 있겠지만, 예술가들의 참여와 작품은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변모하는 사회적인 영역에 기여할 것이며, 전해지는 속담처럼 전설적인 이야기로 남겨질 것입니다. 아마도 현재의 상황에서 무언가 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예술가의 참여와 작품을 통해 개별적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식에 새로운 관심과 인식을 가져올 수 있고, 미래를 위한 과정을 재설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인식으로 국경을 계속 보듬으며, 절대로 다시 잠들지 마십시오.

DMZ 2019 Art Politics – Onsaemiro.

Touching The Border
by Gabriel Adams

Seaside; Tidal mudflats; Rolling hills; Forest; Agricultural villages; Small towns; Rivers; Barbed wire fence-lines; Military convoys; Troops; Army barracks; Checkpoints; Observation stations; Seaside.

This virtually sums up the elemental space of the meandering border that runs north and south of the 38th parallel. You can touch the edge of North Korea with your eyes, you can see the undulating landscape, the open sky overhead, and maybe even witness a revered heron in flight. Listen and you will hear the enveloping sound of space, the wind coursing through the trees and reeded grasses. You may even be fortunate to meet an elder who has lived on both sides of the border, with many stories to tell. But as a civilian, this will be the limit of what you'll be able reach in a northern most journey from west to east.

Having visited South Korea many times over the years, the borderland itself has always remained a mystery to me. With any connection limited to seeing the hutlike guard-posts positioned along Incheon's tidal mudflats en-route to Seoul, the stacks of brochures at guest houses that advertise the DMZ-Day-Trip-Experience tours, a variety of Korean television dramas such as “Descendants of the Sun (2016)”, the territorial incidents in international (and disputed) waters, and of course when world leaders meet at Panmunjom.

Ironically, when one does go on tour through the Demilitarized Zone, many of the main points of interest such as the infiltration tunnels, observation points, and peace parks, have developed a touristic infrastructure connected to them. Not to the extent that the DMZ is a theme park in any shape or form. The border is armed in every sense, and there are many hardworking people who cultivate the land and live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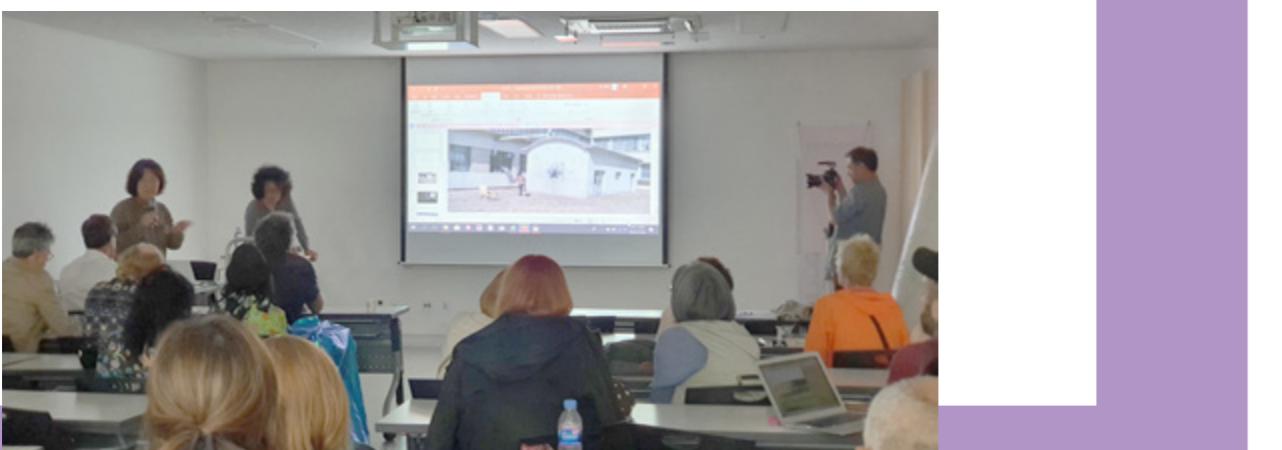
relatively normal daily life. But, there are numerous elements of kitsch consumerism that serve a tourist industry, along with plans to further develop interactive peace and harmony based information parks. This is not a question of being good or bad, rather it's a point worthy of consideration. For example, how might this future look when viewed aboard a gynomous viking ship made of plastic, that swings from a steel pendulum?

The project Onsaemiro, meaning “wholeness / completeness” was of critical importance to the state of border affairs and our current time. It's truly an unusual moment when a 60 contemporary artists, both Korean and international, decide to travel together, physically, with their bodies, hearts, and minds, along a militarized border. In this space, they have traversed the distance from west to east, the landscape and its people, the sites on the way, and the structures (architecturally and ideologically) that make up the length of this divide. It's also uncommon that there would then be a number of events, exhibitions, public forums, and publications set up to communicate the artists' experience and artwork to the public.

From such a symposium we can never know what the outcomes will be. Perhaps something in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will change, or maybe not, but through the artists participation and works they will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contribute to the social sphere, they will absolutely punch-a-hole in the proverbial dialogue. This will bring a renewed attention and awareness among all those who come into contact with the artists, and this archetype of consciousness is what can reset the course for our future.

At all costs, keep touching the border and do not go back to sleep.

김수철 KIM SU CHE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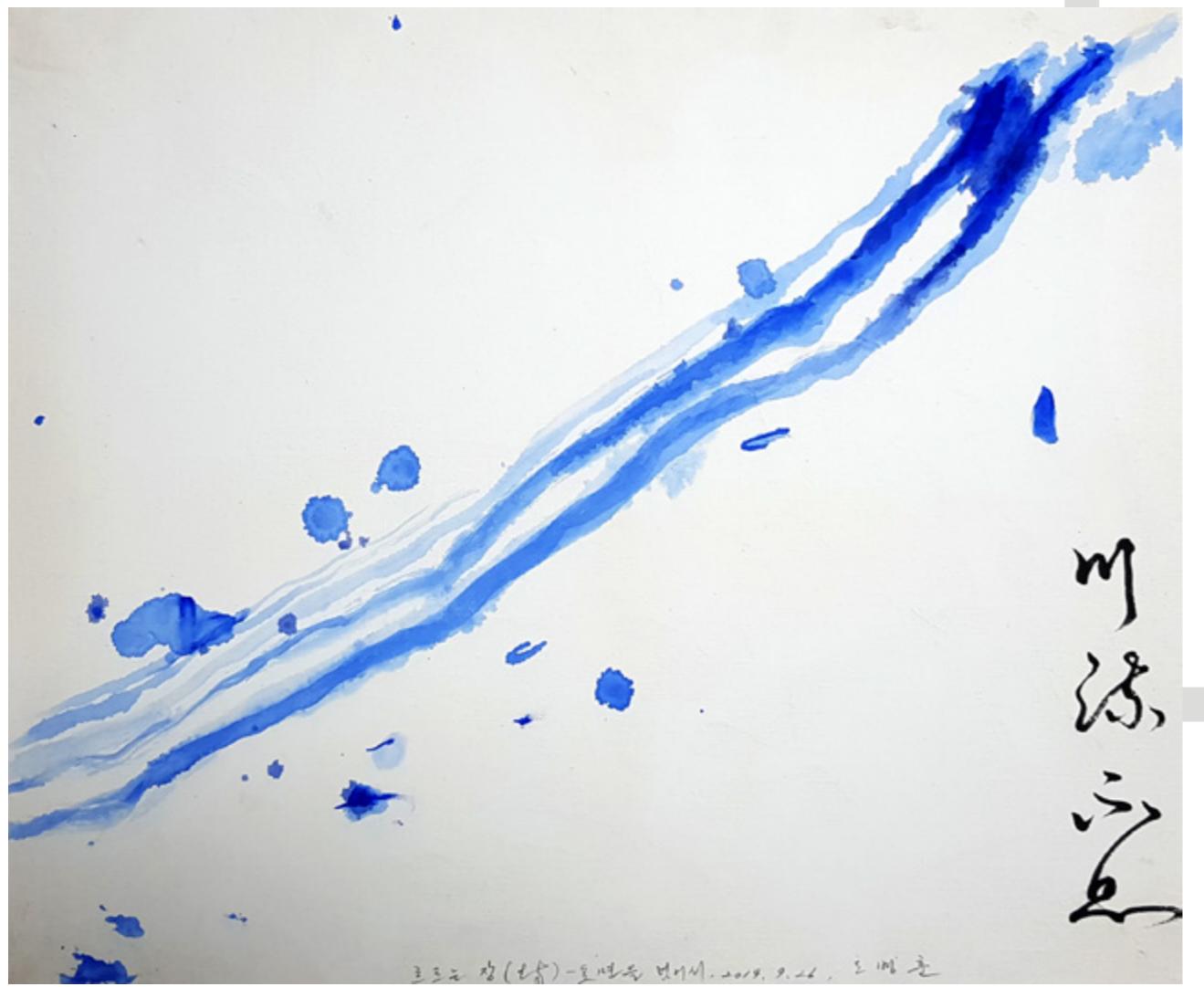
부모님이 께통증기를 통해 미를어 듣다

Are you ready to start your own business? If so, you need to know the first step is to find a niche market. This will help you to identify your target audience and tailor your products or services to their needs. Once you have identified your niche, you can then begin to develop a business plan and start your journey towards success.

At the executive level, we must start by addressing the root causes of corruption. This involves a commitment to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the rule of law. It requires a clear and consistent message from the top that corruption will not be tolerated. It also requires a focus on building a culture of integrity and ethical behavior throughout the organization.



도병훈 DO BYUNG HOON



현대물리학에 의하면 우주, 떨림, 어둠, 빛, 존재 정지한 모든 것들은 멎고 있다. 원자 주위를 도는 전자도, 뇌의 전기신호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운동도 모두 진동이며, 딱딱한 책상이나 건물도 각자의 진동으로 멎고 있으며, 따라서 소리는 공기의 진동이고, 빛은 전기장 자기장이 진동하는 형태이다.

그림을 그리거나 무엇인가 만드는 일도 이러한 현상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지만, 자연 현상과 달리 예술적 행위는 상상력과 실천의 방식에 따른 다층적 변수가 포함되는 특성이 있다. 자연의 무수한 변수를 활용하되 자연 현상을 넘어선 독특한 표현에 이르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전의 공간은 좀 더 유연하게 느끼고 생각하며 세상을 체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나의 그림 또한 진동하는 세계와의 관계를 일깨우는 감수성과 경험의 폭이 심화되고 넓어지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더욱 섬세하면서도 더욱 대범하게!

According to modern physics, the universe, tremors, darkness, light, everything that has stopped being is shaking. The electron around the atom, the electric signal of the brain, and the motion of the earth around the sun are all vibrations, the hard desk and buildings are shaking with their own vibrations, so the sound is the vibration of air, and the light is the form of electric field magnetic field vibrations.

Painting or making something can be seen as an extension of this phenomenon, but unlike natural phenomena, artistic behavior has characteristics that include multilayered variables based on the way of imagination and practice. They say they want to utilize the myriad variables of nature, but reach a unique expression beyond natural phenomena. This space of challenge is also a process of feeling and thinking more flexibly and experiencing the world.

I hope my paintings will also become a space for deepening and expanding sensitivities and experiences that awaken relationships with the vibrating world. It's more delicate and it's more generous!

남기성 NAM GI SUNG

먼지Series – DMZ Camp Greaves, 파주,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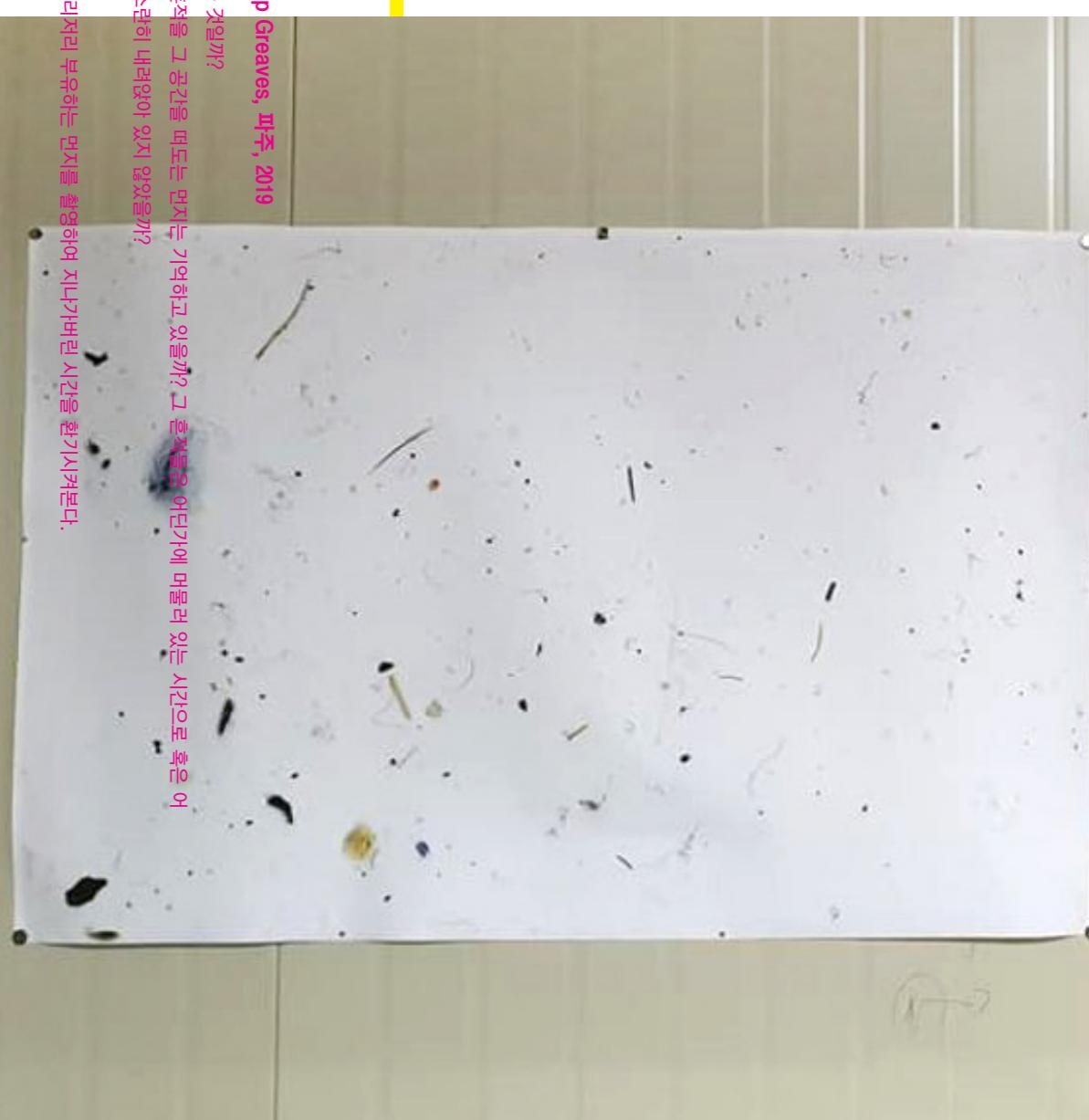
시간은 지나가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

흩어지고 사라져버린 생의 흔적을 그 공간을 떠도는 먼지는 기억하고 있을까? 그 흔적들은 어디가에 머물러 있는 시간으로 혹은 아

느 구석에 오래된 먼지로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지 않았을까?

DMZ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Camp Greaves의 공간을 이리저리 부유하는 먼지를 활용하여 지나가버린 시간을 환기시켜본다.



Dust Series- DMZ Camp Greaves, Paju,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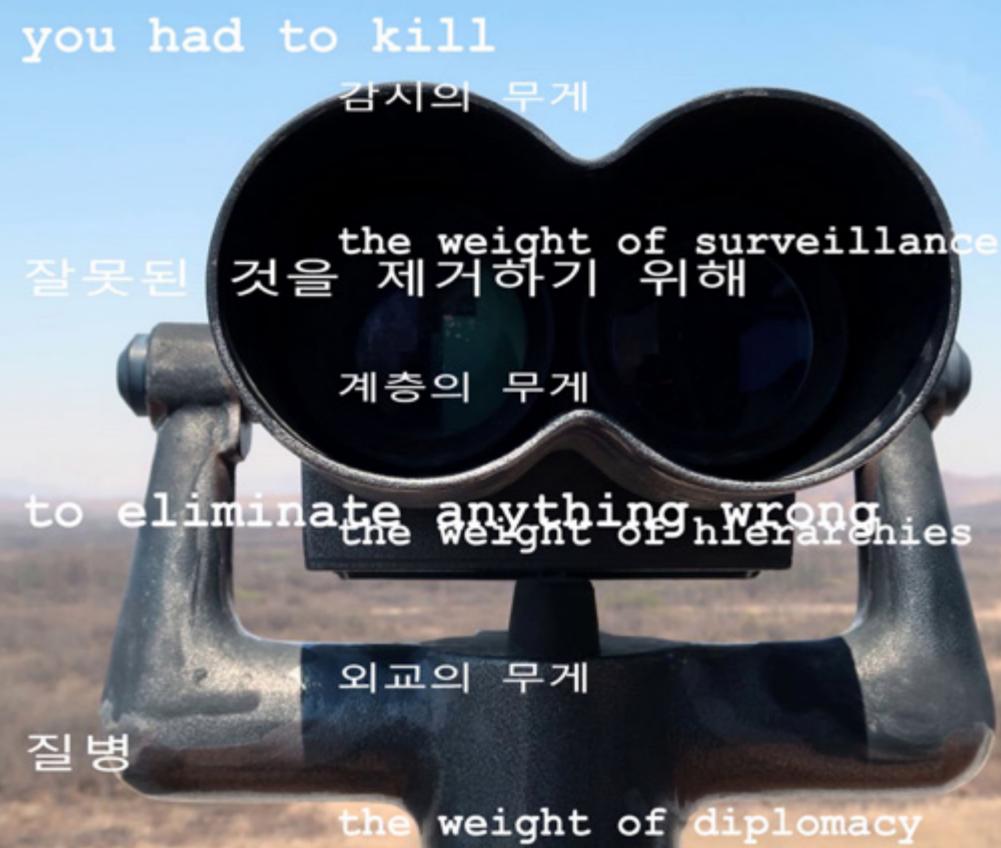
Where does time go when it passes?

Do you remember the dust floating through the space? Couldn't the traces have been left standing somewhere or sitting in a corner with old dust?

What does the DMZ mean?

Take a picture of the dust floating around in the space of Camp Greaves and ventilate the time





Jayne Dyer
Fishing with Explosives 2019
Video, 10'
Quotes Gilles Clément
French landscape designer | ecologist
Korean translation Jungtae Lee



The weight of precedent,
consensus, opinion,
compliance,
economies,
citizenship, coalitions,
statistics, autocracy,
expediency, nationhood,
orthodoxy, circumspection,
my fatherland,
evidence, labour,
absolutism, patriotism,
humanity, systems,
democracy, free markets,
protocols, sovereignty,
consumption, order,
surveillance,
hierarchies, diplomacy,
territory, alliances,
culture, law, policy,
mandates, control,
entitlement, legislation,
resources,
negotiation, consequences,
statutes, commerce, crisis,
excuse, solutions,
allegiance,
family, bureaucracy, exchange,
percentages, change, hardwiring,
scarcity, strategies,
my motherland, indicators,
evasion,
loyalty, expansion, boundaries,
opportunism, histories, survival,
borders, belonging,
escape, honour, duty,
my ignorance,
noise.





반복되는 갈등의 세계에서 '단일성을 향한 길'이리라는 생각이 장벽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린 곳에서, 저는 이 프로젝트로 인해 중요한 것들을 다시 얻었습니다.

DANIELA DE MADDALENA (CH) 다니엘라 디 막달레나

one wish for free

The political situation on the border with North Korea is affecting us! But the hope is unbroken that peace will come and North and South will be united again. The desire to cross the border without obstacles and danger is unbroken.

The border, which is reinforced with high fences and strictly guarded, cannot be crossed today. The only creatures that have found an untouched refuge in the forbidden zone, the 4 km wide strip, are animals and plants. And only a few of them are able to ignore the borders: only insects and birds have this privilege!

Not only have cranes been a symbol of long life for a long time, they are also a symbol of reunification, as they can cross the border without regulations. They connect North and South Korea!

Swiss artist Daniela de Maddalena (*1958) took the strong symbolism of the crane as an opportunity to fold 999 cranes together with other people. She invited people from her circle of acquaintances to help her express the collective desire of the Korean people and possibly contribute to its fulfilment. She showed these folded birds and a life-size graphite drawing of a crane at the end of her journey in the auditorium of Suwon's Elementary School. As a performance she folded the 1000th crane and handed it over to a young Korean woman as a gift to the Korean people, so that a long cherished collective wish could be fulfilled.



자유를 위한 하나의 소망

북한과 국경을 진정적 상황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그러나 아직 북한과 남한이 다시 하나로 통일되어 평화가 찾아올 희망은 있다. 아무런 장애물이나 위험없이 넘나들 수 있는 국경에 대한 갈망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높은 철망과 삼엄한 경비로 무장된 오늘날의 국경은 우리가 넘나들 수 없게 되어있다. 4킬로미터 너비의 땅 같은 금지된 구역에서 찾을 수 있는 순수 피난민형태의 유일한 생명체는 동물들과 식물들만 있었다. 그리고 그중 오직 곤충들과 새들 만이 경계선을 무시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니고 있었다!

학은 장수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아무런 제재 없이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재통일의 상징이었다. 학은 북한과 남한을 연결해줬다!

스위스 예술가 다니엘라 디 막달레나(Daniela de Maddalena)는 여러 사람들과 총 999개의 학을 접는 기회를 통해 학의 강한 상징성을 습득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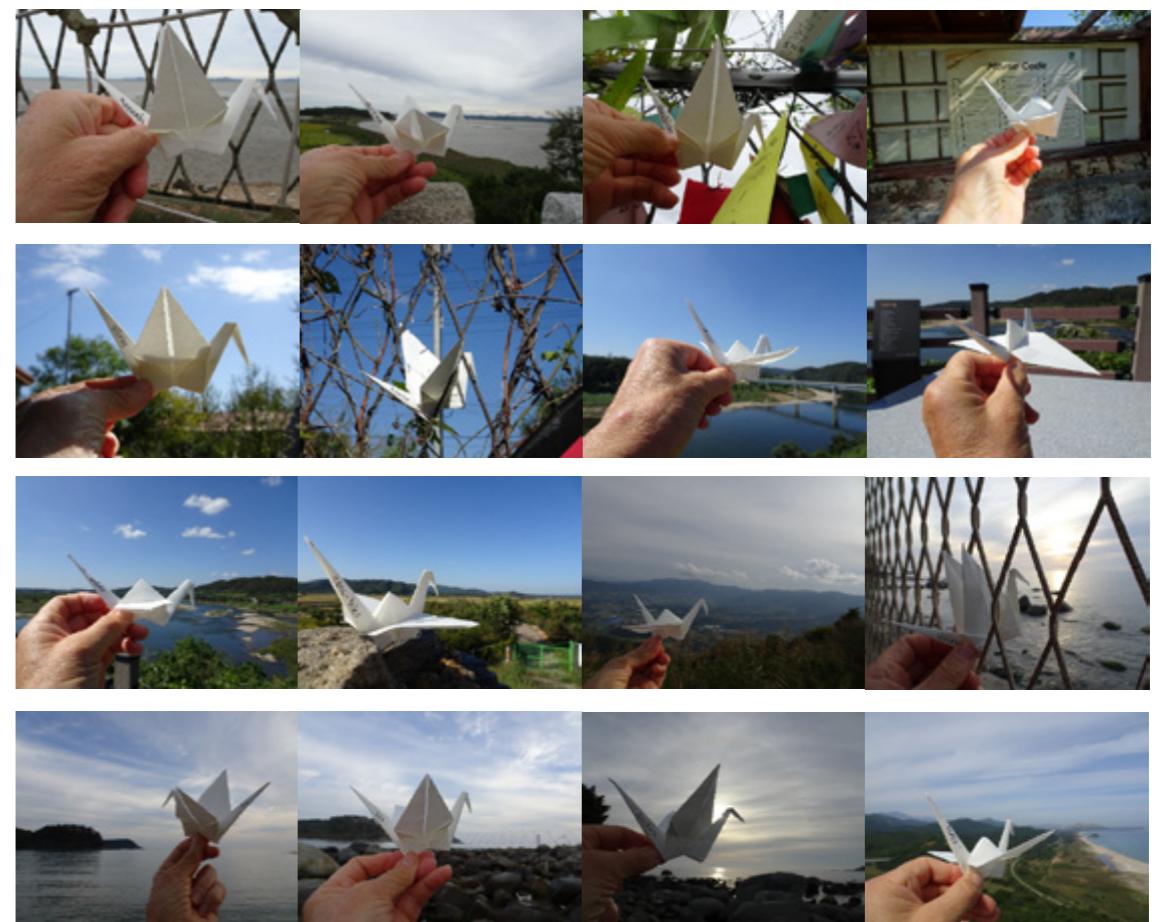
한국인들의 염원과 그 실현 기여를 위한 그녀만의 표현을 위해 주변 지인들을 초대해 도움을 받았다.

다니엘라는 이 종이학들과 흑연으로 그린 실제 크기의 학 드로잉을 수원에 있는 (구)신풍초등학교 강당에서 그 여정을 끝을 선보였다.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그녀는 1,000번째 종이학을 접어 한국 사람들을 대표로서 한 한국의 젊은 속녀에게 선물하였다. 이로서 소중히 모인 소망들이 실현되었다.

Throughout her journey along the DMZ

the artist folded origami cranes at places of remembrance in order to "fly" them towards North Korea. These cranes also carried one of the names of the Swiss helpers, who worked for hours to make the long-cherished wish of the Koreans come true.

DMZ를 따라 진행된 여정 동안 작가는 그 소망들이 북한을 향해 "날아"갈 수 있게 종이학을 접어 추모의 공간들에 남겨 두었다. 남겨진 학들에게는 한국인의 기나긴 염원이 실현을 위해 장시간 학 접기를 도와주었던 스위스 지인들의 이름도 담겨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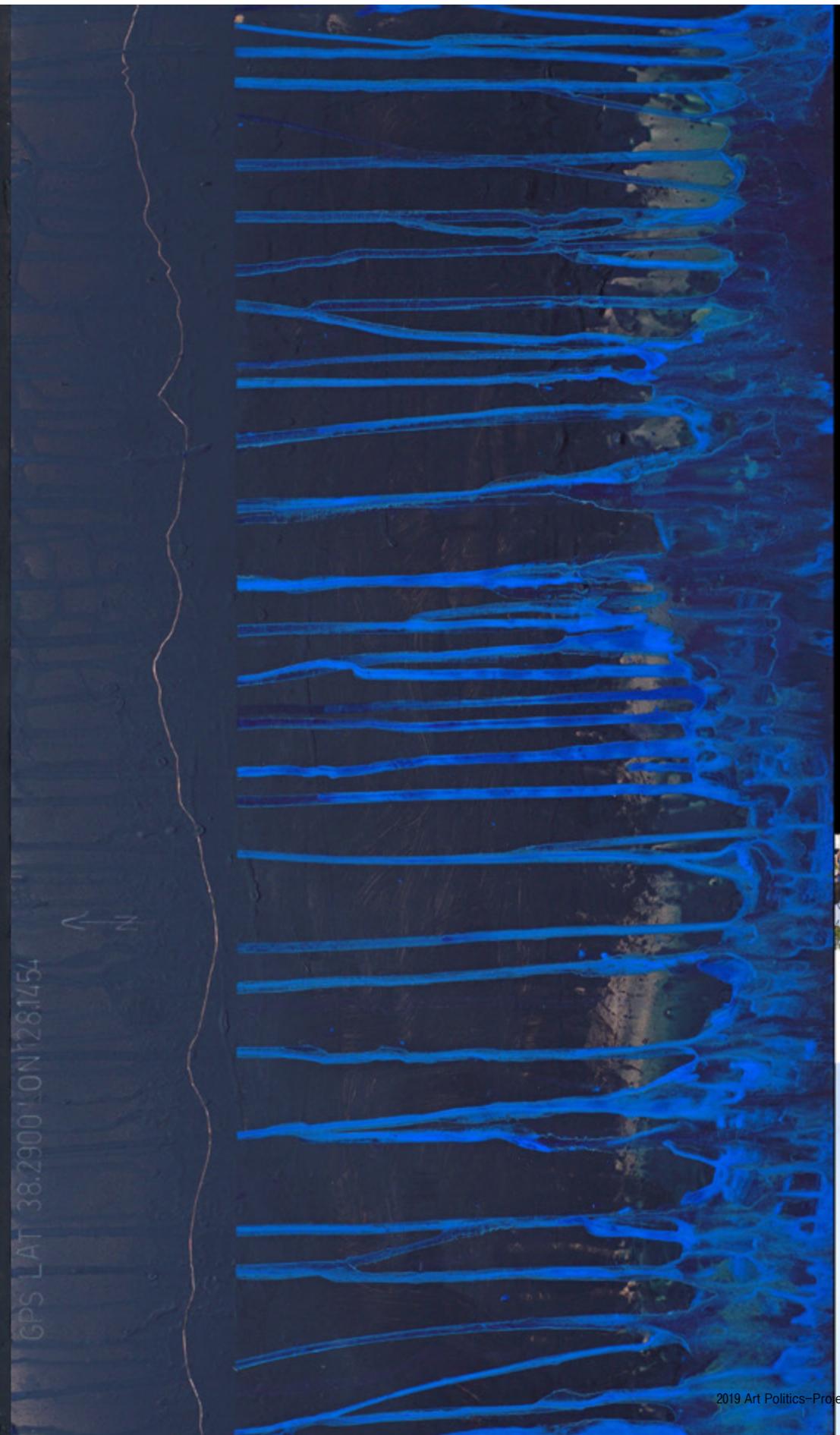




North Korean horizon silhouettes, scratches on site, including the designated GPS code, on prepared paint dripped electronics circuit board. Made during the DMZ survey.
Title of the works no.1/9
"View on The Nation made by the will of the people"

계 프로젝트

HAROLD DE BREE (HL) 하롤드 브레



Dutch artist Harold de Bree is known for making large scale installation and sculpture that replicates military hardware and public monuments. Playing on historical institutional tropes, de Bree poses complex questions about power, culture and nationalism. In this case a more poetic side is shown of the artist.



내가 어떻게 존재 하는가 생각해보았습니다.

숨 한번 들이쉬며

아,

저 숲이 없으면…

저 태양이, 저 물이, 저 흙이 없으면…

밥 한 숟가락 먹으며

아

농사짓는 농부가 없으면…

나 아닌 모든 것의 도움으로 내가 존재하는 구나

모두가 잘 되어야 나도 잘 되겠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작품 삶(Human life)에서

참 나를 알면 뭐가 달라지나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참 나를 알고 나면 지금 여기에 깨어있게 됩니다.

마음이 출렁이면 출렁이는 줄을 알게 됩니다.

주어진 상황마다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지 더 분명하게 생각하며

나 아닌 모두가 나임을 알기에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행을 합니다.

Exhibition of Onsaemiro

I thought about how I exist.

I inhale

Ah….

What if there isn't that forest…

What if there aren't that sun, that water, that soil…

I eat a spoonful of r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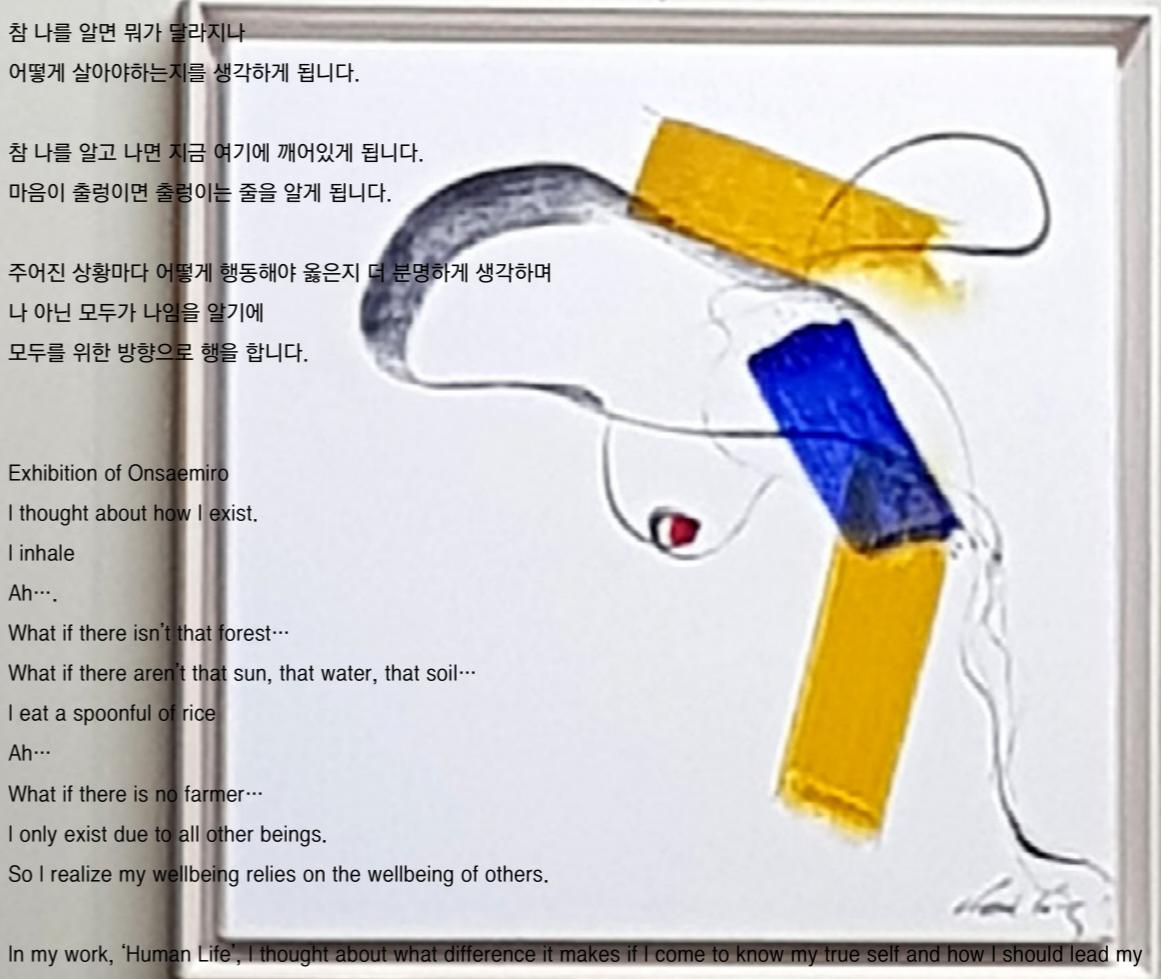
Ah…

What if there is no farmer…

I only exist due to all other beings.

So I realize my wellbeing relies on the wellbeing of others.

In my work, 'Human Life', I thought about what difference it makes if I come to know my true self and how I should lead my life. Knowing my true self makes me awakening to here and now. I come to be aware of the shaking of my mind when it shakes. I act for all other, knowing that they are me also and thinking clearly what the best way is in each given moment.





PIETERJE VAN SPLUNTER (NL) 피터체 반 스푸伦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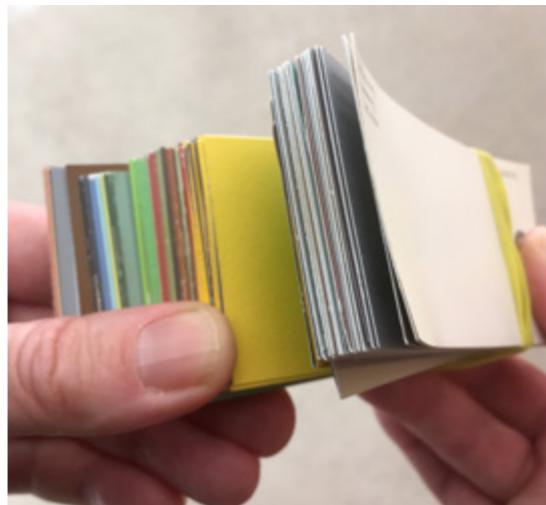


Pieterje van Splinter – The colors of the DM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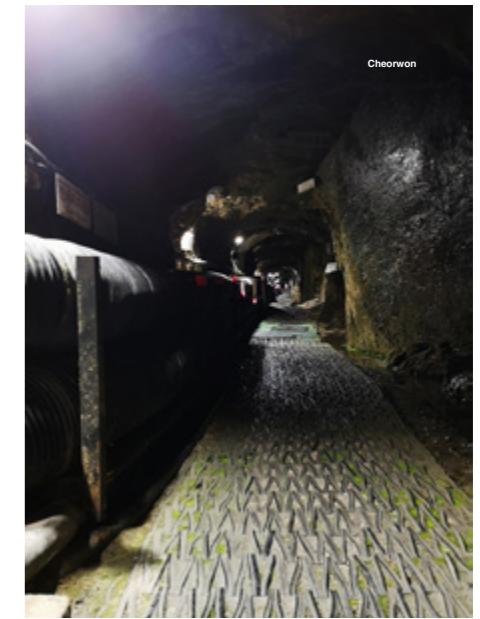
As an artist you can show a social or political event or situation, but you can hardly escape commenting on it. As a Dutch artist in a Korea that was divided by Western powers, it seems to me that some restraint is appropriate. Rather than to comment on the political situation, I wanted to give some beauty to a troubled area by making a more observing contribution.

In my current work, I focus on 'the potential of color' in paintings, video's and spatial installations. In line with this, I decided to do a research into the colors of the DMZ. A personal report from my research and observations that show a poetic reflection of this area as a color chart or an imaginary map. In Dutch there is a painterly expression for a landscape with a troubled history, it's called "Schuldig Landschap" which means something like "Guilty Landscape". It indicates a beautiful landscape where nevertheless terrible things have occurred. Although the landscape can only be innocent, there are many human traces and signs that show we enter a no go area or no-mans land. These traces and signs, carry the colors I found, between the yellow green rice fields and grey blue skies, the roadblocks, the monuments, the flags, the concrete and their camouflage. All this things have their colors. These colors distract from their origin become a silent emotional language which reflects the DMZ.

www.pieterje.net



MARTIN R. WOHLWEND (LI) 마틴 홀웬드



Cheorwon

Multimedia Installation
Size variable
2019

Cheorwon's endless, purgatorial circuit is an allusion to Ed Adkin's *Good Wine*, a vicious cycle of sadness.

Martin R. Wohlwend lives and works in Liechtenstein, studied ar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hina and Switzerland, and teaches painting at the Liechtenstein School of Art. Originating in painting, his main interest today lies in the transformational power of participatory installations and interventions, with which he illuminates imbalances in society and at the same time explores possible solutions.

Wohlwend's installation *Cheorwon* constitutes a subsequent dialogue with Ed Atkins' *Good Wine*, and thus examines the absurdity of political and social behavior in relation to the DMZ. The multimedia installation, here situated in the archive of the Sinpung Elementary School, features two of the notorious tunnels of the DMZ. The audio is unaltered from the original track with the only exception, that every now and then a single tone from a keystroke references the piano of *Good Wine*. Having visited Ed Atkins' exhibition *Old Food* just prior to his visits to the DMZ, Wohlwend was overcome with corresponding emotions. *Cheorwon* offers an investigation into this circumstance.



협업 | 이지송 LEE JI SONG _ 영상 및 편집 Video editing
김수철 KIM SU CHEOL _ 영상, 퍼포먼스 Video Performance
지 박 JI PARK _ 첼로 Cello



돈돌라리_동이 틀 것이다. Dondolari_The whole sky is bright.



HANNES EGGER 하네스 에거 [IT]



Many people ask me what I have exhibited in South Korea. As part of the project "ONSAEMIRO" of the artist network Nine Dragon Heads and the artist group Shuroop I spend with other 30 international and local artists ten days exploring the DMZ (demilitarized zon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n we showed the artistic results of the research in an exhibition at various locations in Suwon.

In response to the many barriers in the DMZ, I created an invisible, 5.5-long and 3.25-meter-high wall that intersected the courtyard of the historic elementary school and could be physically perceived by sensitive people.

On the stage of the former school theater, on the other hand, I installed an audio performance, which questioned the visitors about the infinity (as the opposite of the limitation).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한국에서 전시 한 것을 묻습니다. 아티스트 네트워크인 Nine Dragon Heads와 Shuroop 아티스트 그룹의 프로젝트 "ONSAEMIRO"의 일원으로 남북한의 DMZ (비무장 지대)를 탐험하기 위해 10 일 동안 다른 30 명의 국제 및 현지 아티스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술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원의 여러 장소에서 전시 된 연구의

DMZ의 많은 장벽에 부응하여 나는 역사적인 초등학교의 안뜰을 고려하는 보이지 않는 5.5 길이와 3.25 미터 높이의 벽을 만들었고 민감한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인식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전 학교 극장의 무대에서 나는 오디오 성능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에게 무한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제한의 반대).

여기 이 마당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벽으로 인해 외부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 벽의 길이는 5.50m, 높이는 3.5m입니다.

만약 조심스럽게 그리고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면, 당신은 벽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벽의 틈으로 밖을 보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벽에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세요.

This courtyard is cut by an invisible wall. It is 5.50 m long and 3.25 m high.
If you are sensitive and careful, you can feel the wall and find the gap that passes through it.
Be careful not to hit the wall!

Hannes Egger
Invisible Wall
2019





**흔재된 일상의 하루가 시작된다.
삶의 반짝이던 모든 순간의 빛과 그림자
그 경계 너머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

내 주변 공간 속 수집된 기억과 내 주변에 존재하는 사물들은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스스로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가볍고 쉽게 무심하게 버려진 사물 대한 다시 바라보기를 통해 나는 새로운 시각적 해석을 만나게 된다. 즉 사물이 엉켜있는 혼잡함을 비집고 들어가 각 개체의 정체성을 찾는다. 버려진 사물 던져진 물건에 불과하지만 그 이면에 아주 멋진 상상과 예측치 못한 이미지와 감성이 형성되는 나만의 재해석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 자신의 삶을 반영하고 투영되는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 될 수 있다.

나는 드로잉을 하지 않았다. 페인팅도 하지 않았다. 단지 그 사물이 지닌 고유의 색과 형태를 그대로 공간의 프레임으로 엮었다. 이러한 시도와 상상의 결과는

나를 흥미롭게 한다. 우연성과 반복이 드러내는 시각적 상상을 공간과 프레임을 통해 입체적 평면적 표현 방법으로 자유롭게 시도하고 싶은 것이다.

소비사회의 풍요함 속에서 환경과 예술의 관계성, 리 마인드 예술에 대한 이해와 접점을 통한 일상 속 친근한 소재가 지닌 색과 형태를 그대로 드러내며 이러한 연결성을 아날로그적인 감성으로 조형미를 구성하고 다양성을 부여하며 공간에 스토리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고민들은 어쩌면 그 경계너머의 존재를 찾는 여행일 수도 있을 것이다

**The day of mixed daily life begins.
The Light and Shadow of Every Time of Life
I don't know what exists beyond that boundary.**

The memories collected in my surrounding space and the objects that exist around me may be themselves in the repeated time.

I see a new visual interpretation by looking back at things that are light and easily abandoned, that is, I find the identity of each individual by entering the congestion of things. It is only an abandoned object, but behind it, I find my own reinterpretation of a very wonderful imagination, unexpected images and emotions.

This can be reborn as an art work that reflects and reflects one's life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I didn't draw, I didn't paint. I just framed the unique colors and shapes of the object into the frame of space.

It makes me interesting: I want to freely try visual imagination revealed by chance and repetition through space and frame in a three-dimensional flat expression method.

In the richness of the consumer society,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 and art, understanding of Lee Mind Art, and the color and form of familiar materials in everyday life through contact points are revealed as they are, and this connection is formed in space by constructing formative beauty with analog sensibility and giving diversity.

These worries may be a trip to find the existence beyond the boundary.



세상의 생명은 오묘하고 알 수 없는 신비로 가득하다.

내가 인간형 고치를 짓는다면 어떤 형태일까 상상해본다. 모두 상상의 산물로 만들어지는 고치이므로 자유롭게 유희하듯이 작업을 한다. 까마득한 과거의 시간을 기억하는 몸 세포(클립)들이 반응하며 작업을 조율한다는 미묘한 기분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사랑과 죽음이 직조해내는 슬픔이 인간의 운명이지만 고치 형상을 창작하면서 삶의 관계망 속에서 받아온 상념을 다스리고 사유하며 견고하고 예민해지고 싶었으리라.

인간의 길이 미궁에 빠질 때 우리는 다시 자연을 본받고 돌아보게 되는 것인가 보다.

The life of the world is full of mysterious and unknown mysteries.

If I build a humanoid cocoon, imagine what form it is. It is a cocoon made of a product of all imagination, so I work freely, like a play. I am caught up in the subtle mood that the body cells that remember the past past time react and coordinate the work. The sadness of love and death is the destiny of human beings, but through the creation of Cocoon, I wanted to be mindful, rigorous, and sensitive to the thoughts I had in life. When the human path falls into a labyrinth, we look back upon nature.

이지송 LEE JI SONG



DUO A&U

김미영Kim Miyoung, 김정열Kim Jeongyeol, 김억중Kim Ukjoong, 전광준Jeon Gwangjoon

Duo A&U Group

Kim Miyoung, Kim Jeongyeol, Kim Ukjoong, Jeon Gwangjoon

My performance is made of the magical mix of letters of folk tales and poems wrote by Ibrahim Spahic and participants from the NDH Project from the world and with different smells and tastes to tell or sing the traditional song of their country. The link diversity between the artist is made of rice picked from the DMZ environment

Time is for Peace, Art , Freedom

PEACE
Buddhists
tree
temples
and
king's
castle

under
floral
lantern
light

washing
giving
player
big
b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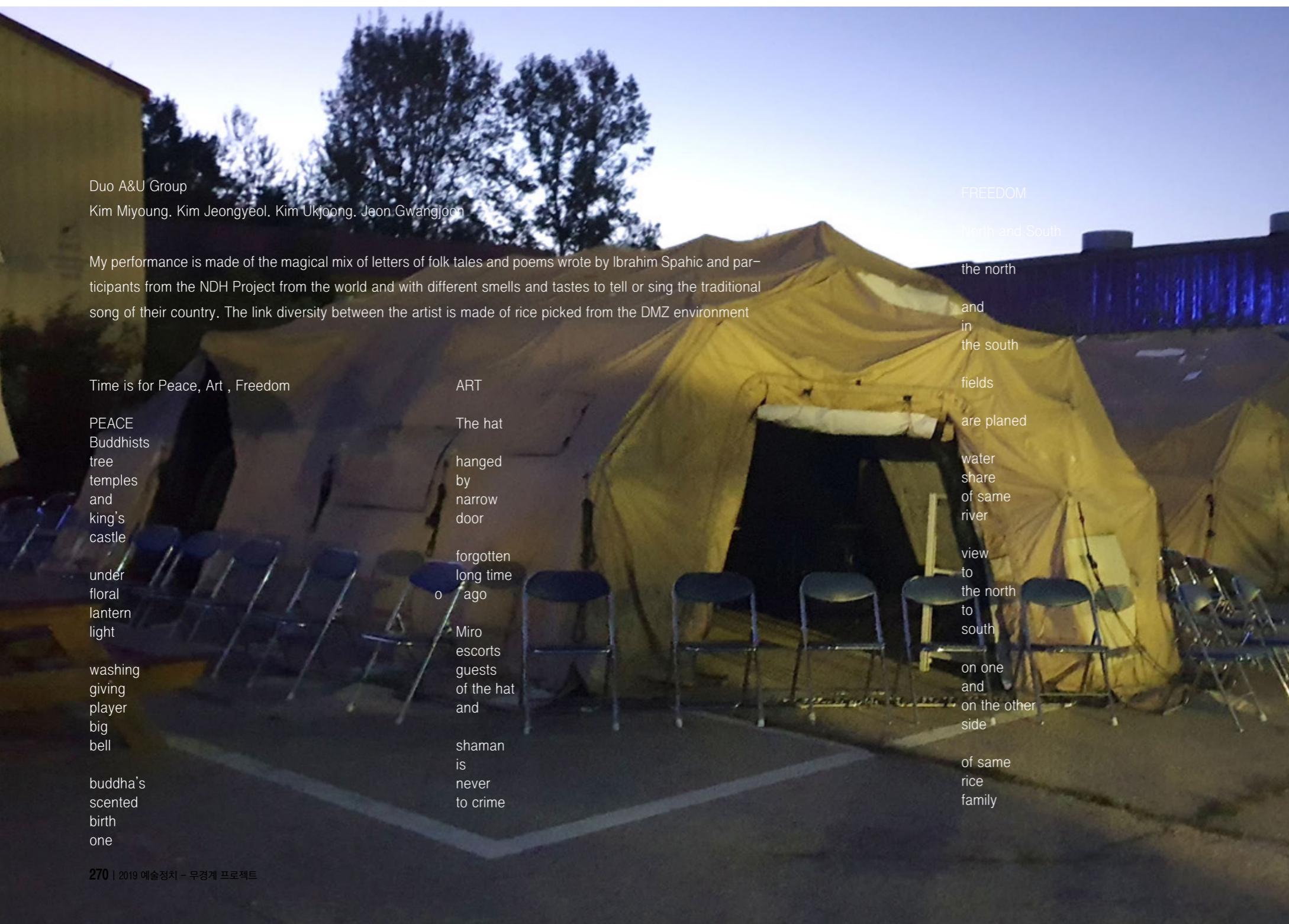
buddha's
scented
birth
one

ART

The hat
hanged
by
narrow
door
forgotten
long time
0 ago
Miro
escorts
guests
of the hat
and
shaman
is
never
to crime

FREEDOM

North and South
the north
and
in
the south
fields
are planed
water
share
of same
river
view
to
the north
to
south
on one
and
on the other
side
of same
rice
family



프레젠테이션 PRESENTATION

수원전통문화관 Suwon Cultural Foundation 10.01(TUE) 09:00~12:00

발표자 Presenter : 김준호 Kim Jun Ho, 박지현 Park Ji Hyun, 최세경 Choi Se Kyung, Hannes Egger (IT) 하네스 에거

Yoko Kajio & Jason Hawkes (AU) 요코 카지오&제인스, Susanne Muller (CH) 수잔 뮐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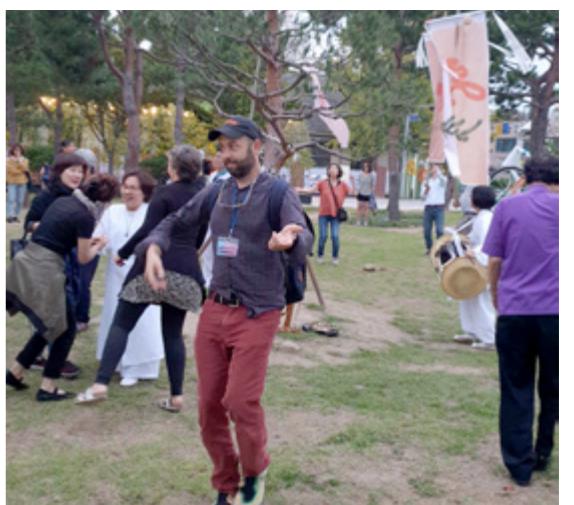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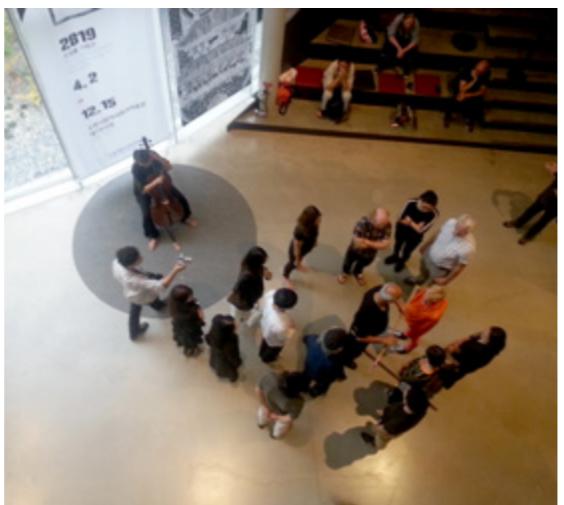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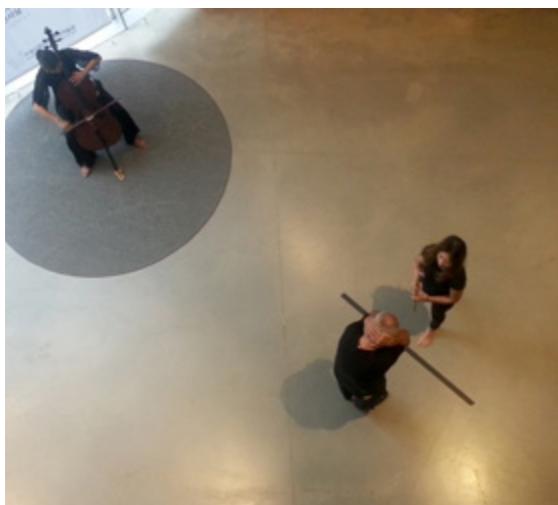
퍼포먼스 PERFORMANCE

수원화성 일대 및 수원시립미술관 1층 전시홀 10.01(TUE) 15:00~

Suwon Museum of Art, 1F Exhibition Hall, Suwon Hwaseong Fortress 10.01(TUE) 15:00~
지 박 Ji Park, Josephine Turalba (PH) 조세핀 투랄바, Denizhan Ozer (TK) 데니잔 오저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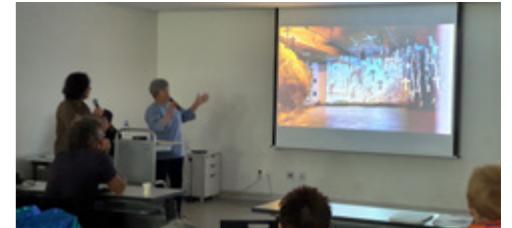
수원시립미술관 잔디밭 Suwon Museum of Art_Outdoor

손채수 Shon Chae Soo



프레젠테이션 PRESENTATION

수원시립미술관 2층 세미나실 10.02(WED) 오전 10~12시
Suwon Museum of Art 2F Seminar Room 10.02(WED) 10:00~12:00



발표자 Presenter

이윤숙 Lee Youn Sook

홍채원 Hong Chae Won

온 주 On Zoo

김수철 Kim Su Cheol

Gabriel Adams (USA) 가브리엘 아담스

Harold de Bree (NL) 하롤드 드 브레

Gordana Andjelic (HR) 고르다나 안젤리치

Josephine Turalba (PH) 조세핀 투랄바

언론보도

2019-09-29일자 e수원뉴스 김소라 기자



'2019 DMZ국제 예술정치-무경계프로젝트 온새미로'가 열린 행궁동 일대

21개국에서 온 국내외 60명의 작가들이 DMZ를 함께 걷고 작품을 만들어내다

DMZ국제예술정치-무경계프로젝트 온새미로 10월 6일까지 행궁동 일대에서 전시 및 퍼포먼스 이뤄질 예정

예술은 경계를 허무는 일이다. 정치적인 이념, 갈등, 마음의 벽, 남과 여, 종교 등 자신만의 성을 무너뜨리는 일이기도 하다. 수원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 단체인 슈룹은 2017년부터 3년간 DMZ무경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DMZ를 걸으며 경계를 무너뜨리는 창조적인 예술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들의 활동을 눈여겨 본 Nine Dragon Heads라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지닌 예술가 그룹이 함께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온새미로'를 학두로 삼아 진행한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예술그룹인 슈룹과 다국적 네트워크인 나인드래곤헤즈와의 협력이라는 점이 흥미진진하다. 전 세계의 예술가들도 주목하는 곳이 바로 DMZ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21일부터 4박5일간 DMZ를 함께 걸었던 21개국의 예술가들

바로 '2019 DMZ국제 예술정치-무경계프로젝트 온새미로'라는 이름의 놀라운 프로젝트다. 21개국에서 온 28명의 작가와 국내작

가 총 60여명이 대한민국의 DMZ를 걷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9월 21일부터 4박 5일간 강화에서 고성까지 걸으며 퍼포먼스 및 전시를 했다. 그리고 수원에서 최종적인 컨퍼런스, 퍼포먼스, 전시 등을 이어나간다. '온새미로'는 원래 '갈라지거나 쪼개지지 않은 원래의 온전한 자연상태'를 일컫는 우리말이다.

예술의 힘을 믿으며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내면의 에너지를 응축시키고 있었다. 모두 모양은 다르지만 지향하는 바는 분명 하나가 될 수 있다. 29일 오전 10시부터 행궁동의 예술공간봄에서는 세계각국에서 온 28명의 작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짧은 질문을 했고, 예술가들의 모습을 눈과 카메라에 담았다. 전세계에서 DMZ라는 특수한 시공간을 지난 대한민국은 예술가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무경계 프로젝트에 참여한 예술가들 모습 무경계 프로젝트에 참여한 예술가들 모습

사실 '예술정치-무경계 프로젝트'를 통해서 예술가들은 DMZ의 모든 철책선이 제거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지길 염원하였다. 250km에 달하는 남북한의 철책은 우리의 마음 속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짓는다. 정치, 이념, 종교, 남녀, 돈, 지위, 지식 등 자신이 지난 경계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간다. 철책과 경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결국 지구공동체로서의 존재의식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실현하는 일과도 연결된다.

가장 아픔을 지닌 장소, 죽음과 단절과 미움이 있는 이곳이 회복과 평화의 장소가 되길 바라는 맘은 모두의 바람이었을 것이다. 연대와 동행, 온전함을 회복하고자하는 전세계 예술가들의 흥미진진한 예술작업은 10월 6일까지 행궁동 일대에서 퍼포먼스 및 전시로 이어진다.

29일 수원화성박물관 영상실에서 컨퍼런스를 진행하면서 이번 '2019 DMZ국제 예술정치-무경계프로젝트 온새미로'의 개막식이 이뤄졌다. 무경계라는 주제를 어떻게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으로 풀어내는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오고 갔다. 또한 이건용 작가의 퍼포먼스는 신체 드로잉을 통해서 벽을 허무는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 관람자들에게 창조적인 의식을 일깨웠다. 이어서 실험공간UZ와 예술공간 봄, 신풍초등학교 강당 사료실에서 전시관람을 했다.



엄청난 프로젝트에 참여한 분들은 모두 자비로 비용적인 후원이 하나 없이 참가했다. 체류비 및 항공료 등. 그리고 어떤 재단, 단체, 국가의 도움 없이 예술가단체들의 협업으로 힘겹게 이루어낸 일이다. 누군가의 뜨거운 창작과 예술, 특히 세상의 단단한 벽에 틈을 내는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제적인 예술가들의 행사를 수원 행궁동 일대에서 진행한 것만으로도 주목할 일이다. 예술그룹 슈룹을 30년간 이끌어나가며, 무경계 프로젝트를 시작한 김성배 작가는 "모든 예술은 우리 내부에서 나온다. 또한 나의 힘으로 특히 걷기를 통해서 온 몸으로 느끼면 좋겠다.

는 가운데 중요한 본질이 흘러나오게 된다. DMZ는 매우 상징적인 공간이다. 그 자체가 예술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 남과 북이 화해 모드가 되어 예술가들이 북으로 갈 수 있는 시대를 꿈꾼다. 우리 삶의 모든 경계를 허무는 일이 예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10월 6일까지 이어진다. 퍼포먼스 및 전시는 모두 DMZ를 함께 걸었던 국내외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이루어진다. 21개국의 60명 작가들이 각자 풀어낸 평화는 어떠한 형식과 모양일까. 250km의 DMZ를 걷고, 온 몸으로 느낀 예술가들의 아름다운 작품을 함께 관람하며 생각의 경계를 허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언론보도

당신의 경계는 무엇입니까?

2019-10-03 e뉴스 김소라기자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면에서 국경은 존재한다. 예술정치-무경계 프로젝트는 국제예술단체인 Nine Dragon Heads와 예술 그룹 '슈룹'과 함께 '온새미로'라는 이름의 거대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온전함, 끊어지지 않음 등을 뜻하는 '온새미로'는 연대와 공유, 동행을 주제로 국경을 뛰어넘는 예술을 표현했다. 다큐멘터리, 제작, 스케치, 설치작업, 영상, 사진, 퍼포먼스, 인터뷰, 아카이브 등으로 이루어졌다.

10월 6일까지 예술공간 봄, 실험공간 UZ, 신풍초등학교 사료실 등에서 전시와 퍼포먼스가 이루어진다. 21개국에서 온 28명의 작가와 국내작가 총 60여명이 대한민국의 DMZ를 걷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예술가들이 각자의 영감으로 무경계를 표현했다. 9월 21일부터 4박 5일간 강화에서 고성까지 함께 걸었던 기억과 느낌을 바탕으로 '철책'을 어떻게 걷어낼 수 있는가를 나타냈다. 종이학 천 마리로 평화와 무경계를 표현한 스위스 작가의 작품 10월 1일 신풍초등학교 강당 사료실에서 프로젝트의 프레젠테이션이 열린 현장을 찾았다.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에 대해 관람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이었다. 전세계에서 온 작가들이 DMZ라는 특수한 시공간을 어떻게 재해석했을까 궁금했다. 그 중 스위스에서 온 다니엘리 디 막달레나의 작품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자유를 위한 하나의 소원'이라는 종이학으로 표현한 작품이었다.



"종이학은 희망이나 바램, 염원을 나타냅니다. 1000개의 학을 접으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뜻을 담고 있죠. 999마리의 학은 본국에

서 접어왔고, 지금 전시를 하면서 마지막 1마리 학을 접었습니다. 학은 경계를 넘어 이곳 저곳으로 날아다니는 생명체입니다. 또한 비무장지대는 천연기념물이나 보존해야 할 자연들이 많습니다. 학을 좋아하여 학춤에도 매력을 느낍니다. 한국적인 학을 형상화 한 1000마리의 종이학으로 무경계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모든 작가들은 상상력과 창조성을 재료로 삼아 작품을 만들어냈다. 그 가운데에는 DMZ의 철책이 제거되길 바라는 마음이 들어 있다. 또한 250km의 철책을 걸으면서 살피고 관찰하고 수집해 온 자연물로 다양한 작품도 만들어냈다.

'Rest in the cocoon'이라는 작품은 한지와 송진으로 고치를 표현했다. 온주 작가는 "나 자신이 인간형 고치를 짓는다면 어떤 형태일까. 인간의 길이 미궁에 빠질 때 자연을 본받고 돌아보게 된다"고 설명한다. 고치에서 탈피하여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로 형질변화하는 데에서 평화를 생각하게 된다.

정치, 이념, 종교, 남녀, 돈, 지위, 지식 등 자신이 지닌 경계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간다. 철책과 경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결국 지구공동체로서의 존재의식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실현하는 일이다. 가장 아픔을 지닌 장소, 죽음과 단절과 미움이 있는 이곳이 회복과 평화의 장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꿈이다. 전 세계에서 방문한 작가들은 행궁동 일대를 걷고 보고 느끼면서 수원을 아름답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예술공간 봄이라는 공간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1980년에 지어져 방앗간, 오락실, 건설사무소, 가정집으로 쓰였던 곳으로 슬럼화되어가는 마을에 예술로 활력을 불어 넣은 곳이다. 2005년, 바로 옆집에 대안공간 눈이 개관을 하였고 2014년에는 예술공간 봄이 탄생하게 되었다. 2014년 국제협업 아트프로젝트 '신화와 예술맥놀이 - 행궁동에서 신화를 풀어놓다'를 통해 예술공간 봄 외벽은 아메리카 4개국(콜롬비아, 미국, 브라질, 멕시코)의 신화이야기 그려져 있다. 현재 대안공간 눈의 운영은 종료되었고, 예술공간 봄의 운영을 통해 행궁동을 예술로 만들어나가고 있다.

쇠락한 원도심 오래된 골목길을 예술로 재탄생한 공간은 'DMZ 국제 예술정치-무경계프로젝트'와도 자연스레 정신이 이어진다. 우리 삶의 모든 경계를 허무는 일이 예술이기 때문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10월 6일까지 이어진다. 예술공간 봄, 신풍초등학교 강당, 실험공간 UZ에서 전시된 작품을 보면서 모두 각자에게 무경계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좋겠다.

언론보도

2019-10-10 중앙일보 최범 디자인 평론가

잇따르는 DMZ 프로젝트
공간에 대한 호기심이나
분단과 대립 차원 넘어서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해

옛날 사람들은 배를 타고 바다 멀리 나가면 세상 끝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했다. 땅이 평평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어느 공동체나 그들이 상상하는 세상의 끝은 있었다. 아마 현대 한국인에게 그것은 비무장지대, 즉 DMZ가 아닐까. DMZ, 그 곳은 한국인에게 세상의 끝이다. 그 세상의 끝이 의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몇 년 전 강원도 양구의 을지전망대를 갔었다. 사실 나는 그때 휴전선을 처음 봤는데, 미안하지만 헛웃음이 나왔다. 이게 진짜 휴전선인가. 동행한 작가의 말처럼 영화 '트루먼 쇼'가 떠올랐다. 물론 휴전선은 가짜가 아니다. 그것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그것을 가짜인 것처럼 느꼈을까. 그 동안 분단과 전쟁과 대립이 불러일으킨 저 거대한 정념들의 무게에 비하면, 막상 전망대 위에서 바라본 그곳은 그저 하나의 적막한 풍경, 그것도 대단히 어설픈 무대 장치에 지나지 않아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은 현실이 아닌 가짜 현실, 심지어 미국의 역사가 대니얼 부어스틴의 말처럼 언론이 만들어낸 '가짜 사건(pseudo-event)'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었다. 그 비장소적인 장소, 비현실적인 현실이 말이다.

사실 한반도의 허리에는 오래전부터 경계선이 그어져 있었다. 임진왜란 때 명군과 왜군 사이에 이미 한반도 분할에 대한 협상이 있었고, 구한말 러일의 충돌 시에 재시도 되었으며 마침내 1945년 이후 지금과 같이 현실화되었다. 그러한 역사적 사정까지 살피면 지금의 휴전선은 단순한 남북의 경계선을 넘어선다. 어쩌면 그것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문명과 문명, 제국과 동맹이 충돌하는 역공간(liminal space)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DMZ는 경계라기보다는 차라리 심연이다. 그것은 블랙홀이다. 한국인의 정신적, 문명적 상상력은 모두 그곳으로 떨어지고 빨려 들어가서 죽는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한국인에게 세상의 끝이다. 거기에서는 온갖 이데올로기와 갈등이 분출되고 음모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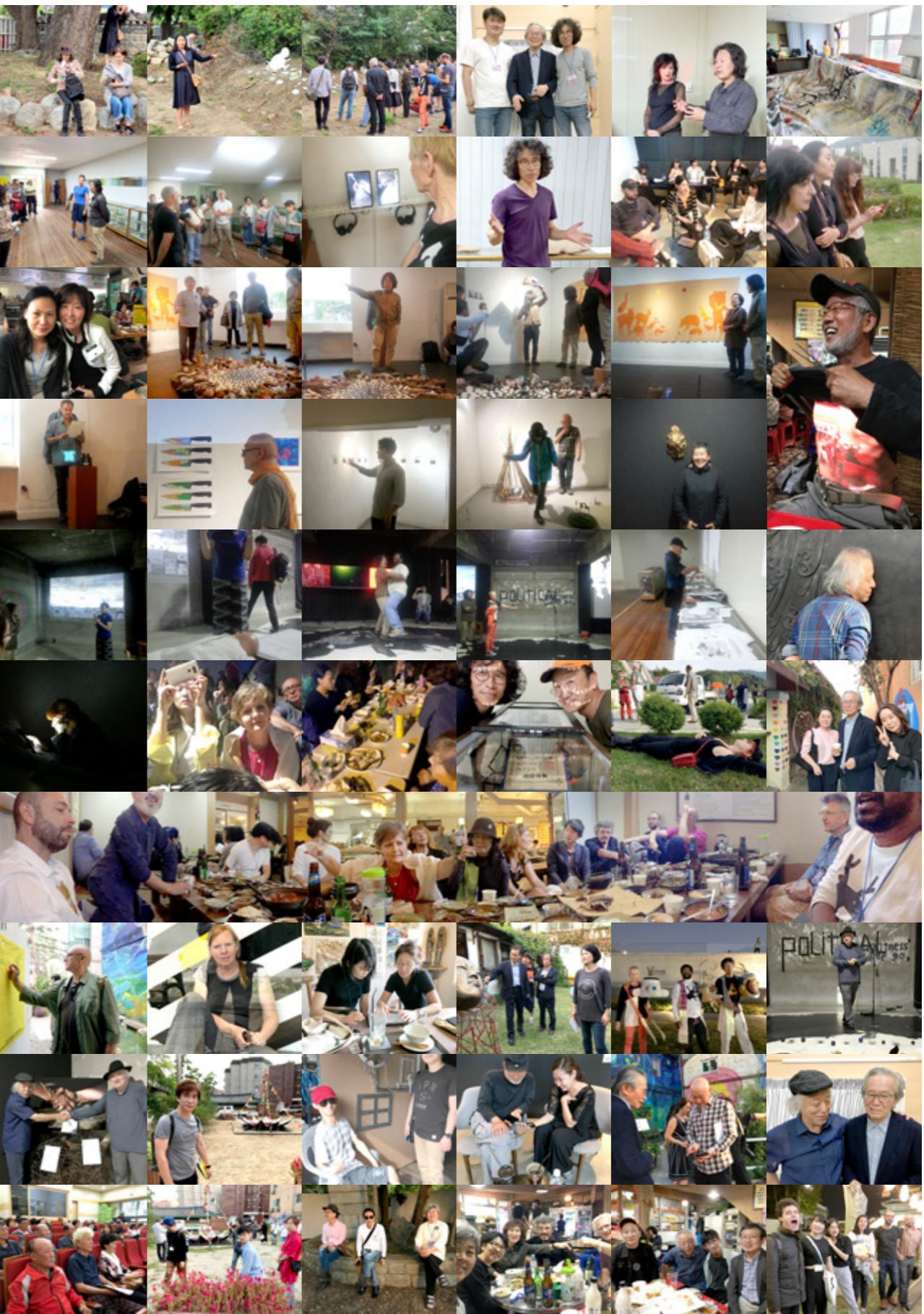
분열이 획책된다. DMZ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남북 분단과 대립, 경계라는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대신 거기에서 문명의 단층과 함께 몰린 구멍을 발견해야 한다.

예술가들이 DMZ로 달려가고 있다. DMZ를 주제로 하는 예술 프로젝트들이 부쩍 늘어났다. DMZ는 예술도 빨아들이는 블랙홀인가. 미답의 장소에 예술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비어 있는 세계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 때문만이라면 곤란하다. 사실 DMZ를 대상으로 한 예술 활동은 1990년대 초부터 있었다. 당시 서양화가 이반씨가 주축이 된 비무장지대 예술문화운동협의회라는 것이 결성되어 비엔날레 형식의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근래에는 가히 DMZ 예술 레시라고 불려야 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왜, 예술가들은 DMZ로 달려가는가.

나는 DMZ를 장소나 공간으로만 보려는 접근이 그리 발본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곳은 말머리에서 지적했듯이 장소라기보다는 차라리 비장소이며 비현실적인 현실이다. 얼마 전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프로젝트(2019 DMZ 국제 예술정치-무경계 프로젝트 '온새미로')의 간담회에 참석한 한 외국 큐레이터는 이렇게 말했다. "외국에서 접하는 DMZ의 상황은 긴장감을 넘어서는 무시무시한 곳이지만, 실제 DMZ의 현장은 일종의 관광지로 상품 판매 등도 진행해 굉장히 놀랐다"며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의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그는 정치적이든 문화적이든 우리의 식견과 생각, 기대로 인한 국경은 어디에나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과연 경계가 그어진 곳은 어디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DMZ는 정말 거기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일까. 칸트는 계몽이란 이성을 과감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지금 우리에게 DMZ라는 이름의 심연을 과감하게 들여다볼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쟁과 평화와 경계에 관한 판에 박힌 인식을 넘어서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준 관념에 구멍을 뚫어 그 안을 들여다볼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출처: 중앙일보] [최범의 문화탐색] DMZ, 심연과 예술



『阿修羅판』

ASURA Fighting

김수직 SUJIC KIM

2019.11.02(Sat) – 11.30(Sun)

일상에서 흔히 보여지는 스치는 풍경, 자글스레 흐르는 물소리, 뭉개구름, 바람이 부서져 떨어지는 소리..., 이러한 이미지들은 삶의 조각을 보여주는 듯하다. 그날의 감정에 따라, 보이는 이미지들은 시각적 감흥이 변한다. 이러한 시간과 공간 사이에 난 혼란스럽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순리順理를 거스를 수 없는 존재이다. 생명은 탄생이 있고, 반드시 죽음을 맞는다. 삶을 영위하며 수많은 고통, 번민, 갈등, 가식, 간섭, 분노, 기쁨, 슬픔, 미움, 욕망, 사랑 등의 혼란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 인간의 끊이지 않는 갈등은 정신 생활을 혼란하게 하고 내적 조화를 파괴한다. 자신과의 싸움이다. 싸움은 끊이지 않고, 늘 진행형이다. 삶은 대부분 상반적 구조와 그 것의 상호 조화, 순환으로 이루어졌다. 굴레이다.

난 어릴적부터 아버지가 농아(聾啞)셨다. 주변의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할 쯤으로 기억 되지만, 혼란의 시작은 그 시절로 기억 된다. 내가 혼란을 모티브로 시작한 것은 대학을 입학하면서이다.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서로 반대성향의 상황에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왜 다른 것일까?

인간은 목적과 이상이 모두 다르다. 혼란한 마음을 통해, 인간의 내적 갈등이 서로의 조화를 이루어 평정심을 유도하려 한다.

阿修羅道는 불교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혼란의 세계를 말한다. 그 속의 阿修羅는 불교의 호법선신, 귀신 등 三面六臂의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다중성격과 매우 싸움을 좋아하는 욕심 많은 惡神으로 불린다. 지금의 나人間의 마음이 아닌가 한다.

난 이런 지속되는 혼란의 길이를 극도로 험측해서 보여주려 하고 있다. 낙서로 얼룩진 스크린을 부착하고, 여러대의 빔을 겹쳐 투사하고, 아크릴 원형 거울을 사이사이 매달아, 상이 반사되어 유동적이고 전체적으로 혼란한 상황을 연출한 작업이다.

The Realm of Asu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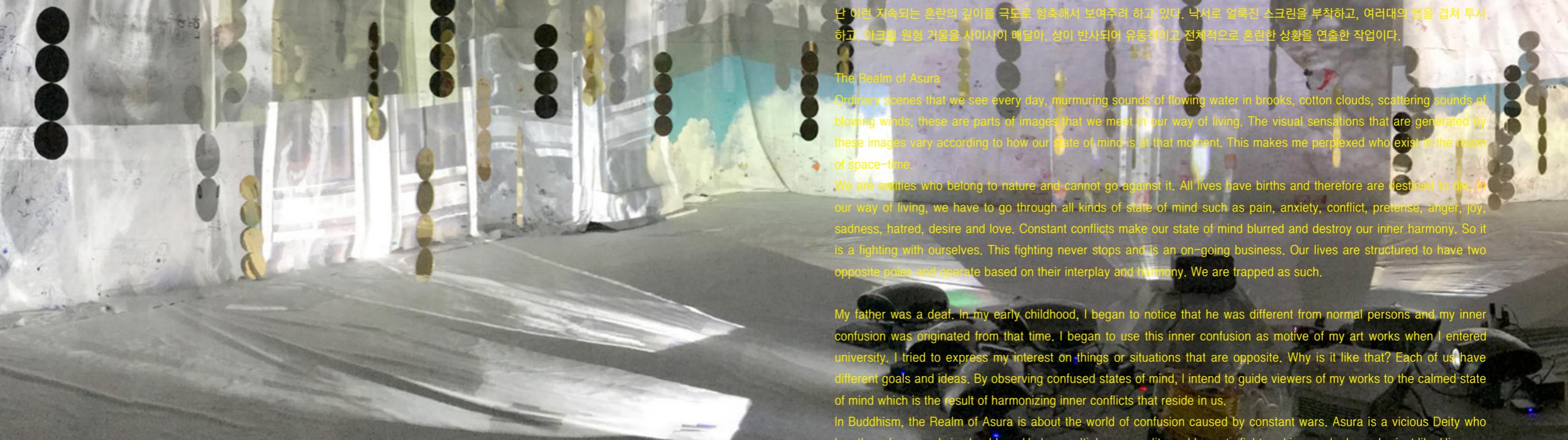
Ordinary scenes that we see every day, murmuring sounds of flowing water in brooks, cotton clouds, scattering sounds of blowing winds, these are parts of images that we meet in our way of living. The visual sensations that are generated by these images vary according to how our state of mind is at that moment. This makes me perplexed who exist in the realm of space-time.

We are entities who belong to nature and cannot go against it. All lives have births and therefore are destined to die. In our way of living, we have to go through all kinds of state of mind such as pain, anxiety, conflict, pretense, anger, joy, sadness, hatred, desire and love. Constant conflicts make our state of mind blurred and destroy our inner harmony. So it is a fighting with ourselves. This fighting never stops and is an on-going business. Our lives are structured to have two opposite poles and operate based on their interplay and harmony. We are trapped as such.

My father was a deaf. In my early childhood, I began to notice that he was different from normal persons and my inner confusion was originated from that time. I began to use this inner confusion as motive of my art works when I entered university. I tried to express my interest on things or situations that are opposite. Why is it like that? Each of us have different goals and ideas. By observing confused states of mind, I intend to guide viewers of my works to the calmed state of mind which is the result of harmonizing inner conflicts that reside in us.

In Buddhism, the Realm of Asura is about the world of confusion caused by constant wars. Asura is a vicious Deity who has three faces and six shoulders. He has multiple personality and loves to fight and is greedy. I may be just like Him.

I intend to show in such a condensed way the depth of constant confusion. I put as a screen white clothes that are full of scribbles and shoot multiple images via projectors. I hanged round acrylic mirrors which reflect projected images on screen and by doing so, I tried to create a state of confusion that is parallel to our confused state of mind.



이지송
백성준
김수철

終
印
文

이지송
백성준
김수철

2019.12.07(Sat) - 12.28(Sat)
Opening 12.7(Sat) 17:00



슈룹 예술정치 무경계 프로젝트 3년을 돌아보며...

DMZ 비무장지대의 철조망을 걷어내 중간 지점에 둥글게 둉쳐 놓자는 상상으로 시작한 예술정치-무경계 프로젝트! 2017~2019 3년간 비무장지대 서쪽 강화도에서 김포, 파주, 연천, 철원을 거쳐 동쪽 고성까지 DMZ 250km를 걷고, 기록하며 주변 지역의 생·태·활을 직접 체험하고, 현장 퍼포먼스뿐 아니라 수원으로 돌아와 작업으로 풀어내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김포, 강화구간은 최단거리에서 강 너머 북쪽 풍광을 바라보며 철조망을 곁에 두고 걸을 수 있는 구간으로 유난히 거센 바람소리를 들으며 걸었다. 이 남과 북을 가로막는 철조망으로 인해 희생된 많은 생명들의 울음소리가 철조망 사이사이에서 아주 강한 떨림으로 전해졌다. 바람, 잡초, 곤충들과 철새들이 자유로이 이쪽과 저쪽을 오가며 철조망을 가로막은 인간들을 조롱하는 듯 했다. 모든 강의 조상이라는 조강 이야기와 흥수 때 떠내려 온 소 이야기, 과거 나루터가 있었고 번성했던 마을 이야기 등, 참 많은 삶의 역사와 스토리들이 곳곳에 살아있었다.

2017 무경계-바람전에서 나는 경계로 인해 희생된 영혼들의 울부짖음을 철조망에 걸린 수많은 십자가와 영상, 설치 작업을 통해 위로하는 의식을 한 달 간 진행했다. 측백나무 통로를 거쳐 향을 맡으며 전시장 안으로 들어와 비무장지대 영상과 천정에 매달린 십자가 사이사이로 한 바퀴 돌아 나가도록 연출된 전시공간은 무경계를 위한 지역, 국가 간의 경계 뿐 아니라 이웃, 이성, 종교, 이념의 무경계를 위한 바람이기도 했다. 수원의 순교성지 북수동성당 봄리화랑에서의 연장 전시와 경기 여성연대 2018 평화 걷기 행사에 초대되어 고색뉴지엄에서 체험과 함께 진행한 무경계 바람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무경계에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경계를 없애는 일이 절실히 때문이었을 것이다.

2019년 온새미로를 화두로 NDH 다국적 네트워크 작가들과 함께 진행한 국제 무경계 프로젝트는 더욱 의미 있었다. 작가들 간의 경계를 허무는 일부터 시작해 함께 4박 5일간 서에서 동으로 걸고, 먹고, 자며, 소통하고 퍼포먼스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과정 자체가 무경계 온새미로의 실천이었다.

나는 무경계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3년간 DMZ 구간 뿐 아니라 제주, 러시아, 쿠바, 페루,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 곳곳을 여행하며 무경계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사진, 영상 기록과 함께 소품, 자연물을 채집했다. 2019년 국제 무경계 프로젝트 '온새미로' 전에서는 이렇게 3년간 모은 수집품을 둥근 원의 형상으로 설치했다. 이구아수 폭포물, 카리브해 모래와 바닷물, 남아메리카 원주민의 나무조각, 파타고니아 깔라파테 고사목, 아따카마 사막 모래와 나스카라인이 새겨진 돌, 우유니 소금사막의 소금덩어리, 러시아 수즈달 광장에서 주은 돌덩이, 제주 해안가의 어망 쓰레기, 태평양 · 대서양의 조개껍질, DMZ 각 구간 구간 식물, 열매, 곤충의 고치집 흔적, 철조망에 매달려 있던 녹슨 방울, 끊겨진 철조망 까지 모든 소품들이 섞여 하나의 원을 구성했다. 이것은 해바라기 꽃 형상으로 무경계 온새미로를 상징하는 이번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이다.

그동안 현장에서 체험하며 느끼고 기록된 DMZ는 각자의 시각과 표현 방법으로 다양하게 실험되고 연구될 것이며 각자 삶의 영역에서 사람, 환경, 자연, 사회, 정치, 권력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경계를 걷어내기 위한 실험과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이제 오랜 분단의 경계를 넘어 한반도의 최고봉 백두산까지 걸어서 가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Looking Back Over Three Years of 'Shuroop Art Politics – Project Border Crossing'

The art politics-project border crossing that began with the imagination that the barbed wire fence of DMZ is rolled up and rounded at the middle point! For three years(2017~2019) walking and recording DMZ 250km from Gimpo, Paju, Yeoncheon, Cheorwon to the eastern Goseong from the Ganghwa-do west of the Demilitarized Zone to experience the lively environment of the surround-

ing area. In addition to the on-site performance, we went back to Suwon to release the work. The Gimpo and Ganghwa section can walk from the shortest distance overlooking the river north with the barbed wire. We walked while listening to the unusually loud wind. The cry of many lives sacrificed by the barbed wire blocking the north and south was transmitted as a very strong trembling between the barbed wire. The winds, weeds, insects, and migratory birds that traveled freely from side to side seemed to mock the humans who blocked the barbed wire. There are many stories of life and history, including the story of the Jogang(the ancestors of all the rivers), the stories of cattle swept down in the floods, and the towns of the past that had a ferry and thriving villages. In the "2017 Border Crossings-WISH" Exhibition, I performed a month-long ritual to comfort the cries of souls sacrificed by boundary through numerous crosses barbed wire, images, and installations. The exhibition was directed through a citrus pathway, smelling and entering the exhibition hall, making a round between the image of the DMZ and the cross suspended from the ceiling. It was a desire not only for borders between regions, but also for borderlessness of neighbors, reason, religion and ideology. The extended exhibition took place at Poly Gallery of Buksudong Cathedral also known as a martyrdom in suwon. Also Invited to the Gyeonggi Women's Solidarity 2018 Peace Walking Event, the exhibition was held with the experience at the Gosaeknewseum. Many people could sympathize with the exhibition because it was necessary to remove the boundaries. The international borderless project with NDH multinational network artists in 2019 with "Onsaemiro" was more meaningful. Starting with breaking down the boundaries between the artists, the process of walking, eating, sleeping, communicating, performing performances and presentations together from west to east for four nights and five days was the practice of border crossing Onsaemiro.

During the three years of the border crossing project, I traveled not only in the DMZ section but also in Jeju, Russia, Cuba, Peru, Bolivia, Chile, and Argentina, and performed performances to announce the project. And I gathered small things and natural objects with photographs and video records. In the 2019 DMZ international Art Politics – Project Border Crossing 'Onsam Miro 2019', The objects collected for three years were installed in the shape of a round circle in the exhibition hall. Iguazu Falls, Caribbean sand and seawater, wood carvings of Native South Americans, Patagonia calafate dead trees, stones of Atacama desert sand and a stone emblazoned with nascarine, salty blocks of Uyuni salt desert, stone blocks from Suzdal Square in Russia, Fishing Net Garbage on Jeju Coast, Pacific · Atlantic Shells, plants and fruits from each DMZ section, traces of cocoons of insects, rusty bell hanging on barbed wire, and broken barbed wire were all mixed together to form a circle. This is the final result of this project, which symbolizes the border Crossing Onsaemiro in the shape of a sunflower.

The DMZ, which has been experienced, felt, and recorded in the field, will be experimented and studied in various ways, each with its own perspectives and expressions. I believe that work will continue. It remains for us to walk beyond the boundaries of long division to the highest peak of Mt. Paekdu on the Korean Peninsula.

조각가 이윤숙 SCULPTOR, LEE YOUN SOOK

3년 무경계 프로젝트_DMZ답사 및 전시행사에 관한 참여작가로서의 경험과 생각

오늘 나는 2017년 여름 무경계 프로젝트를 알고부터 3년간 148마일 DMZ를 걸으며 답사하고 경험하며 느낀 점을 간략하게나마 1292자로 적어볼 참이다. 1292라는 숫자는 2015년 5월 5일 경향신문 이기환 논설위원 글에서도 나오는 1953년 정전협정문에 명시된 '임진강변~동해안까지 모두 1292개의 말뚝을 박아놓고, 이 말뚝을 쭉 이은 선을 기준으로 남북 2KM씩 후퇴한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자 글자 수를 여기에 맞추기로 했다. 최초 정전협정문에는 휴전선이 선으로 그어진 것이 아니라 지도상에 점으로만 존재했다는 것이 흥미롭고 안타깝다. 점에서 시작되어 분단 70년 동안 선이 다시 면이 되고 입체로, 영토로 경계 지어진 분단국가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번 무경계 프로젝트는 경계가 된 선이 경계가 없는 점으로 되돌아가는 계기가 되어 남북 서로가 평화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국내작가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의 작가들과 함께 전시하고 예술로 같은 마음을 담은 축제였다고 생각된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2005년부터 '풍경에 대한 시각적 표현'을 주제로 작업해오고 있었다. '풍경 속 풍경' 또는 '도시풍경'을 시작으로 또 사회적으로 객관화 된 역사 속에서의 '인식적 풍경'으로 내 주변의 '풍경'이 작품소재였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 답사를 통해 얻은 결과물이나 텍스트들을 통해 'LANDSCAPE'라 타이틀로 작품들을 제작하고 함께 전시를 통해 발표한 것도 '또 다른 풍경'을 찾는 계기인 것이다. 다시 말해 DMZ답사 길에서 만나는 어떤 풍경들을 화면(画面)에 옮겨 또 다른 풍경을 찾고자 했다. 어떤 길은 좁고 비탈길이며 또 어떤 길은 넓고 내리막 길이었다. 한가로운 가을, 산, 나무, 높은 구름, 깊은 계곡, 물, 크고 작은 돌, 시원한 바람,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햇살이 함께하는 풍경들이었다. 이 '또 다른 풍경' 속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시에 나오는 서정성이거나 우리 남북이 갖는 서로의 동질성, 또는 민족 정체성을 찾는 하나님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번 답사를 통해 처음 만나는 작가분들도 많았고 지역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를 챙겨주고 도와주는 마음들이 내가 찾는 동질성이고 민족 정체성과 별다를 바 없음을 느꼈다. 어쩌면 남북이 서로 만났을 때 서로 편견없이 예술로서 교감을 이룬다면 희망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날도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3년에 걸쳐 무경계프로젝트를 함께 하게된 시간들이 나에게는 너무나 뜻깊은 경험이었다. 끝으로 이 글을 통해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해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반겨준 무경계 동지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Three-year Borderless Art Project_Experience and thoughts as a participating artist on DMZ exploration and exhibition events

Today I am going to write 1292 words of my experiences of exploring and experiencing the 148-mile DMZ for three years from knowing the 2017 Summer Borderless Project. The number of 1292 is 1292 piles from the banks of the Imjin River to the east coast of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which was also mentioned in the article by Ki-Hwan Lee editorial commentary of May 5, 2015. I will retreat. ' It is interesting and regrettable that the ceasefire was not a line in the original Armistice Agreement, but only a point on the map. From the point, for 70 years of division, the line became cotton again and became a divided country bordered in three dimensions and territory. Therefore, this borderless project hopes that the two Koreas can go to peace as the opportunity to return the

bordered line to the borderless point. I think it was a festival.

Personally, I have been working on the theme of 'visual expressions of the landscape' since 2005. "Landscapes" around me, as "cognitive landscapes" in socially objectified history, starting with "landscapes" or "cityscapes," were the material of my work. That is why it was the opportunity to find 'other landscapes' by producing the works under the title 'landscape' and presenting them through the exhibition. In other words, I tried to find another landscape by moving some of the landscapes that I met on the DMZ road. Some roads were narrow and sloped; others were wide and downhill. It was a scene of calm autumn, mountains, trees, high clouds, deep valleys, water, big and small stones, cool winds, cold air and hot sunshine. It is hoped that what I want to express in this 'other landscape' will be an opportunity to find the lyricism of poetry, the homogeneity of our two Koreas, or the national identity. There were many artists who met for the first time through this expedition, and I felt that the minds that care for and help each other, regardless of region or age, are homogeneous and different from my national identity. Perhaps if the two Koreas meet with each other an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s art without prejudice, it will soon be a day when hope can be turned into reality. So the three years of working on borderless projects have been very meaningful to me. Lastly,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the borderless comrades who prepared this project and welcomed them with warm hearts.

신희섭 SHIN HEE SEOP

무경계 프로젝트와 함께한 시간여행

수원 실험공간 UZ! 그것은 궁금한 이었다. 공간의 이름이 흥미로웠고 다양한 작가 군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 공간과 함께한 시간이 벌써 1년이 조금 지나고 있다. 내가 이 장소를 알게 된 건 SNS상에서 알게 된 섭경 김성배관장의 개인전이 첫 만남의 계기가 되었다. 오픈 일에 방문하여 그의 작업 퍼포먼스를 처음 보게 되었다. 바닥을 온몸으로 밀며 동그란 원을 한 바퀴 돌며 들숨 날숨으로 밀고 쉬기를 거듭하며 작업이 완성 되었다. 캄캄한 지하공간에는 관람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광활한 우주의 함축과 얼룩진 무늬들이 묘하게 바닥의 기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차가운 바닥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 뒤 나는 이 어진 전시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었다. 그 동안 개인전과 그룹전을 거치며 형식적이고 균일화된 화이트큐브 공간 전시에 무미건조함을 느끼고 있었다. 개인전 외에 실험적인 그룹과의 교류를 기대하고 있던 나는 “슈룹”과의 만남 “온새미로”라는 의미를 담고 활동하는 이 그룹과의 우연한 만남은 필연 이었다. 어둡고 캄캄한 공간에서 새롭고 다양한 작가의 생각과 상상을 펼쳐지고 구현되는 “예술의 장소” 그렇게 무경계 프로젝트는 흐르고 있었다. 3번의 전시에 동참하며 만나진 작가들의 교류 속에 어색한 첫 만남을 뒤로하고 어느덧 함께 하며 친근함이 무르익고 있었다. 답사, 주제별 전시, 퍼포먼스, 설치, 회화, 영상, 컨퍼런스등 묵묵히 진행과 결과를 마무리하는 과정이 편안함으로 다가온다. 아쉽게도 “2019 DMZ 국제예술정치 무경계 프로젝트” 답사에는 동참하지 못했지만 번개답사에서는 점심 후 동대문 성곽 길을 걸으면서 이화동 어느 커피숍에서 나눈 한 잔의 커피, 휴식과 대화, 대학로 한 컨 갤러리 전시를 둘면서 낯선 만남으로 시작해 어느덧 친근함으로 다가오는 편안함은 무엇일까? 특히 “2019 DMZ 국제 예술정치 무경계 프로젝트”는 슈룹과 나인드래곤즈가 협업한 이번 프로젝트는 해외 작가와 국내작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규모 전시였다. 전시기간 동안 각자의 역할 분담으로 통역, 전시공간, 컨퍼런스, 퍼포먼스 등이 화성행궁 주변에서 펼쳐졌다. 특히 국내의 어느 미술관에서 이런 기획을 할 수 있는가? 실험공간 UZ, 예술공간 봄, 신풍초 강당 주변 등에서 열린 전시는 기존환경을 그대로 이용하고 설치된 전시로 벽면 형 전시에서 벗어난 주변 환경을 이용한 방법을 통해 그들의 공간과 환경을 바라보는 자연스러운 시선의 차이를 느끼게 되었다. 자발적, 자립적으로 기획한 단단한 진행력으로 행동한 성공적 전시로 기록 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작가들과의 만남과 아쉬움 헤어짐 뒤에는 말은 잘 통하지 않아도 작품으로 느낌으로 그들을 감성과 행위를 짐작할 수 있었다. 무경계프로젝트는 가공되지 않은 날것을 순수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교감하는 그려함 인 것이다. 이러한 행동 실험예술은 비움과 채움을 반복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보이지 않는 마음이 존재하는 전시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3년간의 무경계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경계를 허물고 스스로 다가가며 열린 마음으로 주변의 비워진 벽면 바닥 천정 이 모든 것이 자연 예술의 공간 영역 안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바라봄으로써 행동 예술을 향한 철학적 실험성을 지닌 시간 여행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Han Young-sook on Time Travel with Boundaryless Project

Suwon Experimental Space UZ! It was a curiosity. The name of the space was interesting and a variety of writers were formed. A little more than a year has passed already with this space. The fact that I got to know this place was the first time that the personal exhibition of Kim Seong-bae, the head of the police department, was held on social networking sites. It was his first time to see

the performance of his work when I visited the opening job. The work was completed by rolling around the floor and breathing down the circle. Viewers began to see in the dark underground space. The vast connotations and mottled patterns of the universe were strangely forming the flag of the floor. And there was warm warmth on the cold floor. Then I naturally joined in the ensuing war. In the meantime, through individual and group competitions, I was feeling dull in the formal and uniform white cube space exhibition. Looking forward to interacting with experimental groups in addition to individual exhibitions, I had no choice but to have a chance meeting with the group, which is active with the meaning of “oncemi.” In a dark and dark space, a “place of art” project was flowing, unfolding and embodying the thoughts and imaginations of new and diverse writers. Amid the exchanges of writers who met with each other in the three exhibitions, they left their awkward first meeting behind, and were already together, and their familiarity. Exploration; exhibition by subject; performance; installation; painting. The process of silently proceeding such as videos and conferences and finishing the results comes with comfort. Unfortunately, what is the comfort of the “2019 DMZ International Art and Political Boundary Project?” but in the lightning survey, as you walk down the street of Dongdaemun Castle after lunch, as you circled the exhibition of a cup of coffee, rest, conversation, and a gallery in Ewha-dong, starting with a strange encounter and emerging familiarity? In particular, the “2019 DMZ International Art and Political Boundary Project” was a large-scale exhibition in which both foreign and domestic writers voluntarily participated. During the exhibition period, interpreters, exhibition spaces, conferences and performances were held around the Hwaseong Haenggung Palace due to their division of roles. What kind of art museum in Korea would you dare to do such a project? Exhibitions held around the experimental space UZ, art space spring, and the Shinpoongcho auditorium showed a difference in the natural way of looking at their space and environment through using the existing environment and using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way from the wall-shaped exhibition. It should be recorded as a successful display of self-organized and self-organized solid progress. After meeting with foreign writers and breaking up with them, I could guess their emotions and actions through their work even though they did not speak well. A borderless project is such that it communicates unprocessed weather with pure eyes. These behavioral experimental arts will have to repeat emptiness and filling, and lead to an exhibition of mutual understanding and invisible minds. Through three years of borderless projects, we break down invisible boundaries, approach ourselves, and open-mindedly look at the emptied wall floor ceiling around us as an extended concept within the realm of natural art, so that it is time travel with philosophical experimentation towards behavioral art.

한영숙 Han Young Sook

예술정치-새로운 세상 끝에서 찾다.



지난 7월호에서 '예술정치-무경계 프로젝트와 촌탁(忖度)'이란 내용을 게재하면서 우리시대 생존의 대안으로 DMZ(Demilitarized Zone)이 전 세계 예술가가 참여하는 열린 장소와 화두로 써, 더욱 큰 의미 생성의 장이 되길 바란다면 끝맺음을 하였다. 이번호에는 '예술정치-무경계 프로젝트'가 '연대', '공유', '동행'의 정신으로 시작 후 3년차 결과와, 예술인으로써 새로움을 찾는 접근방식은 시대적 문화 활성화 예술적 네트워크로 희망적 메시지를 같이하고자 한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한국예술위원회 국제교류 예술협업 프로그램과 경기도 수원문화재단 등 여러 기관에서 예술정치-무경계프로젝트 제안서가 기금 후원 퇴짜를 맞은 것이다. 스위스 대사관과 군사정전위원회에 순수 예술가들의 판문점

방문 행사 취지에 후원을 적극 요청하였으나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여러 가지 난항들이 많았지만 여기서 멈춤은 새로운 세상을 찾아가는 예술가 정신에는 맞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기획 운영진, 작가들이 백방으로 뛴 결과 선배작가와 개인들로부터 충분치 않지만 필요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고, 해외 작가들의 현신적 참여는 프로젝트 진행에 큰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2017년 1월 경기도 도라 전망대와 제3땅굴, 이어 김포 철책 도보를 시작으로 판문점JSA-임진강 생태탐사-노동당사-양구 DMZ 편치불-전망대&땅굴-금강산 통일전망대-DMZ 최북단 마을답사로 강화도 서해에서 화진포 동해 안까지 2년간 총25차례에 걸쳐 약250Km를 도보로 이어진 장정의 대미를 장식하고 '2019 예술정치-무경계프로젝트 온새미로' 메인 행사 단계에 들게 되었다.

다음 단계로 해외 20개국에서 온 30여명의 작가와 국내작가 33명이 대한민국 DMZ를 걷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 2019년 9월22일부터 4박5일간 강화에서 고성까지 답사를 통해 퍼포먼스 및 현장 전시를 개최하였고, 군사분계선 DMZ의 지리적, 정서적, 사회 현상들로부터 비롯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잔상들을 찾으며 체험하고 수원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어 수원에서는 실험공간 UZ, 구)신풍초등학교, 예술공간 봄, 수원화성박물관, 수원전통문화관, 수원시립미술관, 수원성 화성 일대에서 최종적인 컨퍼런스, 프리젠테이션, 설치, 퍼포먼스, 전시 등을 9박 10일 일정으로 이어가면서 "갈라지거나 쪼개지지 않은 원래의 온전한 자연 상태"를 일컫는 우리말 '온새미로'를 완성하였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입증되기 전에는 배를 타고 멀리 나가면 수평선 넘어 세상 끝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였다. 어느 공동체나 그들이 상상하는 세상의 끝은 있었다. 대한민국 현실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상상의 끝은 어디일까, 그것은 비무장 지대, 즉 DMZ가 아닐까, 그곳은 한국인은 물론 세계인들이 세상의 끝으로 생각하며 그 끝을 의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철책과 경계를 뛰어넘는 지구 공동체로서의 존재 의식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실현하는 일로 연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전 세계의 예술가와 한국 예술가들은 DMZ의 특수한 시공간을 지난 대한민국 여기서 예술적 의미를 찾고 있는 것이다.

"저희들이 숙박하는 캠프그리브스는 최전방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출입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참가자 모두 신분증 소지 절대 필수이며, 출입하는 모든 참가자들의 신상명세서와 현장 규칙 및 차종과 텁승자 미리 통보....." 등 군사

분계선이란 환경의 특수성에 많은 안내문을 공지하며 철저한 준비 작업을 주문하듯이, 현재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 협력 등 평화 정책에 정부로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결국 예술가들이 DMZ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예술가들이 DMZ로 달려가고 있다. DMZ를 주제로 하는 예술 프로젝트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DMZ는 예술도 빨아 들이는 블랙홀처럼 한국에만 존치하는 남북 분단의 철책선, 상상의 세계에 예술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비어있는 세계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 때문이라면 곤란하다.

DMZ에 대한 예술가의 인식은 남북 분단과 대립, 경계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현장의 역사성에서 문명의 단층과 힘들된 구멍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예술정치-무경계프로젝트 온새미로'가 3년이란 시간에 걸쳐 참신한 예술성과 진정한 자세로 현대문명에 존재한 세상의 끝, 상상의 세계에서 현실적 예술을 입히고 있는 것이다.

예술의 행위는 DMZ에서 어떤 힘을 만들 것이며 그 곳에서 예술가들은 흥분과 지식, 경험을 가져오고 또한 어떤 것을 얻고 올 것인가? 예의문을 가지면서 예술의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은 가장 예측 불가능했던 방법들과 결정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편견이 없는 실험적인 공간을 DMZ로 보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술정치-무경계프로젝트'가 제기하는 질문과 답변이며 선행적으로 찾는 것들이다. 경계가 지어진 한반도의 분단 현실은 예술을 통해 다시금 우리 눈으로 직시하게 한다. 이에 '예술정치'라는 화두를 바탕으로 지금 우리는 경계 안의 제한된 선택을 넘어 모든 경계들을 다시 인식하는 것이며 그 경계를 걷어 넓 수 있는 정치적 방법 모색과 실천 행위를 자유롭게 실험, 연구하고 예술을 넘어 다방면의 관점과 소통할 필요성을 느낀다.

예술은 정치적 이념, 갈등, 마음의 벽, 남과 여, 종교 등 자신만의 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번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전 세계에서 채집한 다양한 자연물을 통해 장소, 지역, 국가의 경계를 넘어 온 인류가 하나 되는 온새미로의 원형을 찾아보고자 한다."는 작가의 변을 읽을 수 있듯이, 무경계가 갖는 삶과 예술의 무한 지평에 대해 깊은 자각과 성찰의 계기로 상상의 세상을 찾아 무한대의 역량을 펼치기를 참여 작가로서 기대해 본다.

'예술정치-무경계 프로젝트 온새미로'의 3년간 프로젝트 총 집합체 도록이 곧 마무리 된다.

글_김결수(작가) / *예술리뷰잡지 사각 www.sagaknews.com



예술에 있어서 무경계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3년 전 수원의 예술가 그룹인 슈룹이 시작한 3년간의 무경계-예술정치 프로젝트를 곧 마무리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는 약 2년 동안 군사분계선과 근접해있는 오솔길을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걸었고 실험공간 슈룹에서 전시를 해오고 있다. 내가 슈룹을 알게 된 것은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몇 달 후였다. 내가 그 동안 알고 있던 다른 예술가 집단과 여리 면에서 매우 달랐기 때문에 나는 슈룹과 슈룹의 활동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내가 슈룹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것은 슈룹은 예술 세계에서 어떤 지위나 자리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것인데 이점은 내가 나의 삶에서 추구해온 것과 맥락이 같다. 슈룹의 예술가들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경계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나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 결코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문제투성이의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군사분계선을 따라 나있는 길을 걷고 분계선 안에 있는 전망대에서 북쪽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하루빨리 통일이 되기를 우리는 기원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가령 나라간의 경계는? 한 나라 안에 존재하는 경계는? 사회 속에 존재하는 경계는? 개인들 간의 경계는? 우리 자신들 속에 있는 경계는? 경계는 응당 분열 혹은 파편화를 가져온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경계는 모든 인간행위의 결과다. 우리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다. 내 생각에는 이러한 경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시작의 원천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18세기 독일에서 바움가르텐이 미학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고 궁극적으로 미학은 철학의 중요한 한 분야로 자리를 잡았다. 미학은 아름다움에 대한 철학적 탐구이다. 원래 이 말(Aesthetics)의 본래의 의미는 '감수성'이었다. 그런데 바움가르텐에 의해 '아름다움의 맛'이란 의미로 바뀌었다. 톨스토이는 '예술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는 바움가르텐의 아름다움에 대한 해석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그는 바움가르텐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론은 아름다움을 표피적이고 경박하게 만들 뿐이라고 했다. 그의 책에서 톨스토이는 무엇이 아름다움인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베토벤의 음악이 그의 초기 시절부터 교향곡 3번 영웅에 이르면서 점차 나빠졌다고 말했다. 영웅 교향곡은 베토벤이 그 곡을 거대함과 장식성으로 가득 채움으로서 아름다운 느낌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그가 긴 여행에서 돌아오면서 마을 입구에 들어섰을 때 들었던 것이 아름다웠는데 그것은 동네 아낙네들의 합창 소리였다. 내가 톨스토이의 이 책을 알게 되었을 때 큰 놀라움이 있었다. 그 이유는 나도 그의 예술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매우 예외적인 관점이었고 지금도 아직은 많이 공유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예술은 감수성에 관한 것이지 아름다움의 맛에 관한 것은 아니다. 이 감수성은 무경계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가장 필요한 인간의 능력인 직관력, 공감력, 유연성을 넓히는데 도움을 준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여러 경계들로 인해 우리의 안과 밖에 존재하는 갈등, 대치와 분열을 다루는데 있어서 예술이 그 선봉장으로 나설 수 있다고 믿는다.

What is the meaning of Border Crossing in art?

We are about to conclude the three years art project titled Border Crossing-Art Politics which was initiated three years ago by Shurup, an artist group based in Suwon city. As parts of this project, we had walked the trails in parallel with DMZ from the Western tip to the Eastern tip for about two

years and have been doing exhibitions in the Experimental Space of Shurup. It was several months later after the project started when I came to know Shurup. I became intrigued by this Shurup and its activity since, in many ways, it was quite different from any groups of artists that I had known. What I liked about it is that it doesn't look for gaining any status or establishing any position within art circle and this aspect is in line with what I have pursued in my way of living. While I have been sharing time with artists of Shurup, I have had many opportunities to ask myself what Mugyeong-gye(Border Crossing or No Border) means to us in our time. It is not an easy question to answer at all. However, it may be the most fundamental one in this troubled world. When we walked trails near DMZ and visited lookout posts in DMZ where we could look into North Korea, we naturally aspired to have unification with North as early as possible. At the same time we can interpret such situation figuratively. For examples, what about borders among countries in this world? What about borders within a country? What about borders within a society? What about borders among individuals? What about borders in ourselves? Borders predicate division or fragmentation. All of borders mentioned above are results of human activities. We created them all. So I reckon that, in order to deal with this issue, we need to get back to the very first source of origin, which is us. Baumgarten who lived in 18th century Germany began to mention aesthetics which became one of main branches of philosophy eventually. It is a philosophical investigation on the beautiful. The word, aesthetics, meant 'sensibility' originally. The meaning changed as 'taste of beauty' because of Baumgarten. Tolstoy wrote a book titled 'What is art?' in which he harshly criticized Baumgarten's interpretation of beauty. He said that Baumgarten's theory only made beauty superficial and shallow. In his book he attempted to tell us what beauty is all about by taking examples. First he described how Beethoven's music had gone bad from his early period to the time when he composed symphony no.3 'Erotica'.

He said that Erotica lost a real sense of beauty since he made it full of grandiosity and embellishment. What he heard at the mouth of village returning from a long journey was beautiful, which was the sound of female choir in the village. It was a big surprise for me to come to know Tolstoy's book since I shared similar idea about art with him and also his perspective on art was very exceptional at that time and even nowadays it is not widely accepted yet. So art is about 'sensibility', not 'taste of beauty' for me at least. This sensibility helps us broaden our capacity for intuition, empathy and flexibility that are the most needed human capacity for u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Mugyeong-gye. Therefore I believe that art can play a role of vanguard in dealing with conflicts, confrontations and divisions both inside and outside of us that are caused by above-mentioned borders.

이정태 LEE JUNG TAE

2019 DMZ 국제 '예술정치-무경계 프로젝트'/ 온새미로 전체 행사 일정표

일시	내용	장소	참고사항
2018.10월	2019년 슈룹 & 나인드래곤헤즈 국제 DMZ 무경계-온새미로전 협업 의논	수원 실험공간 UZ	NDH 박병우 감독, 제시, 마그다, 일리코, 폴 던커, 수원 방문
10~12월	한국예술위원회(ARCO) 문화예술 국제교류 협업사업 및 공간지원 기금 신청	실험공간 UZ	결과: 기금지원 무산
2019.3월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 발전기금 신청	실험공간 UZ	결과: 기금지원 무산
4.19~20	2019 국제 DMZ 무경계 워크숍	DMZ(NDH) 답사 및 워크숍, 실험공간 UZ, 수원화성박물관	NDH 박병우 감독, 제인, 조세핀, 마틴, 키타자와 참가
4~8월	국제 DMZ 현장 답사(4박5일)	경기도 김포, 파주 캠프그리브스, 강원도 화천, 양구, 고성	숙박 및 식당 예약
4.25	운영위원회 발족과 사업예산 논의 감독: 김성배 공동 운영위원장: 이지송, 이윤숙 기획_큐레이터: 김수철 진행: 홍채원, 최세경	실험공간UZ	김성배, 김수철, 이윤숙, 최세경 홍채원
7.11	예산 집행과 사용 항목 논의	실험공간UZ	김성배, 김수철, 최세경
7.26	퍼포먼스 및 프레젠테이션 장소 섭외	수원시립미술관 1층 전시홀 및 2층 세미나실	최세경, 홍채원
7.29	전시회 장소 섭외	신풍초등학교 강당 사료실	이윤숙, 홍채원
8~9월	경기도 강화도 DMZ 사전답사	김포, 강화, 교동도	김성배, 김수철, 이강대, 홍채원
8.26	개막 컨퍼런스 및 퍼포먼스 장소 섭외	수원화성박물관 1F A/V 영상실	홍채원
9.1	전시 및 행사 총 진행 안건 국내 참가 작가 전시공간 답사 및 공간 배정 논의	커피숍 이데알레 신풍초 강당, 실험공간 UZ, 예술공간 봄 및 행궁동 일원	강길원, 강민정, 김성배, 김수철, 김준호, 박지현, 손채수, 신희섭, 오은주, 이강미, 이윤숙, 최세경, 한영숙, 홍영숙, 홍채원
9.9~18	전체 행사 리플렛 편집 및 교정	편집회사 사람들	강길원, 김성배, 김수철, 이윤숙, 최세경, 홍채원
9.15	프레젠테이션 장소 섭외	수원 전통문화관	홍채원
9.17	수원 전시 공간 현수막 설치	신풍초 강당, 실험공간 UZ, 예술공간 봄	강길원, 김수철, 김성배, 박지현, 오은주, 홍채원, 최세경
9.17~21	나인드래곤헤즈 외국작가 개별 입국	서울(인사동)	

일시	내용	장소	참고사항
9.21 토	슈룹 & 나인드래곤헤즈 상견례 & 오리엔테이션	서울 '팔레드 서울' 갤러리 옥상파티: 오후6~9시	바리톤 임준식, 베이시스트 송미호, 장소협찬: 이선엽 대표
9.22 일	DMZ 답사(4박5일) 출발 강화도 역사박물관~교동도 철책코스 도보 5.5KM~연미정~김포~고양~파주 임진각~ 통일대교~캠프그리브스	출발: 경기도 강화 역사박물관 2019, 9.22(일) 오전 9:30 경기도 파주 DMZ 캠프그리브스	슈룹, 나인드래곤헤즈
9.23 월	DMZ 캠프그리브스 워크숍	장단콩 마을 답사	프레젠테이션, 행위, 설치
9.24 화	파주~연천 UN군화장장~철원 백마고지~노 동당사~화천	경기도~강원도	화천 아쿠아틱리조트
9.25 수	화천 평화의 댐~양구 편치볼~을지전망대~ 제4땅굴~인제~고성	강원도	고성 금강산촌도
9.26 목	고성 금강산 통일전망대~최북단마을 명파 리(점심)~왕곡 전통마을~수원	강원도 고성~경기도 수원 도착	수원 복수동 베니키아 호텔 숙박
9.27~28	전시 설치	실험공간 UZ, 예술공간 봄 신풍초 강당 사료실	
9.29 일	2019 국제 무경계-온새미로전 개막 컨퍼런스 & 퍼포먼스 전시: 국내외 작가 총 66인	수원화성박물관 영상실 행궁동 일대 및 수원시립미술관 옥상 실험공간 UZ, 예술공간 봄, 신풍초 강당 사료실	NDH 총 33인 무경계 총 33인 *기간간담회: 예술공간 봄
10.1 화	프레젠테이션 & 퍼포먼스	수원 전통문화관(오전9~12시) 수원화성 일대 및 수원시립미술관 1층 전시홀(오후5~6시)	
10.2 수	프레젠테이션 & 퍼포먼스	수원시립미술관 2층 세미나실(오전 10~12시) 및 수원화성 일대	
10.3 목	예술공간 봄 전시종료 & 작품철수	예술공간 봄	
10.6 일	전시 종료 & 작품철수	실험공간 UZ, 신풍초 강당 사료실	종파티: 종로빈대떡
11월	도록 제작 논의 및 편집	편집회사사람들	강길원, 김성배, 김수철, 최세경, 홍채원
12.21	도록 발간 & 출판기념회	실험공간 UZ	

2019 DMZ 국제 ‘예술정치-무경계 프로젝트 ‘온새미로’

슈룹_SHUROOP 예산집행 내역

	수입	내역	지출	내역
4월	130만원	개인 후원금(3인)	130만원	워크숍 총 진행비
9~12월	3,300만원	후원작품 판매금	1,000만원	행사 총 숙식비
	300만원	작가 참가비(30인)	200만원	차량 대절비
	200만원	DMZ 답사 참가비(20인)	1,300만원	행사 총 진행경비
	250만원	개인 후원금(5인)	250만원	홍보물 제작비
	456만원	특별전시 후원금	1,750만원	전시도록 제작비
			364만원	참여작가 자체 경비
	총 수입		총 지출	
	4,636만원		5,000만원	

나인드래곤헤즈_NDH 예산집행 내역

	지출	내역
4월	900만원	항공권 및 답사, 숙식비
9~10월	3,000만원	항공권(28인)
	500만원	DMZ 답사
	1,200만원	한국 체류 숙박비
	900만원	TASK FORCE 경비지원
	450만원	DOCU TEAM 경비지원
	50만원	재료 구입비
	총 지출	
	7,000만원	

후원 관련 참고사항

금번 2019년 ‘무경계-온새미로’ 국제전 행사에 참가한 국내외 작가 및 관계자 70여명의, 정성어린 후원금 및 진행 물품과 생생한 사진, 영상 촬영 그리고 소중한 전시 장소와 차량의 교통편 제공 등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도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큰 도움을 주신 이건용 선생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9년 “무경계 서울산책”

In 2019, “Art Politics–Project Border Crossing/ Winter Walk”

2019. 1.1

김성배 김수철 이윤숙 홍영숙 홍채원

서울시청~광화문~서촌~청전 이상범 고택~인왕산~자하문~청와대~삼청동~인사동~종로~을지로~명동



2019년 무경계 서울 산책

2018년 연말에 무경계 프로젝트의 마지막 행사로 24 시간 SNS의 페이스 북을 기반으로 하여 전 세계를 상대로 요란 법석한 퍼포먼스를 한판 뛰고 뺀어 있다가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2019년 무경계의 활동 무대는 서울이고 이에 따른 사전 답사를 새해 아침부터 시작한다는 지령 이었습니다.

시청 역에서 집결한 일행은 매서운 2019년 초하루 겨울 아침의 바람을 헤치고 광화문에서 첫 기록으로 지나가던 외국 남성에게 카메라 셔터를 눌러달라고 부탁하며 함께 포즈를 잡았습니다. 또한 드로잉 퍼포먼스를 위해 언 손을 녹여가며 스케치를 하였습니다. 그 후, 우리는 광화문 돌담길을 따라 서촌의 먹자골목을 지나면서, 대한민국 근대 문화 가옥인 청전 이상범 고택을 찾아 우리의 아날로 그 네비게이션을 작동시켰습니다. 서촌 동네를 천천히 헤매는 걸음으로 산책하듯이 우리는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청전의 한옥 고택에서 우리는 차가운 마룻바닥 때문에 발바닥이 얼어울 정도로 둘러보고 난 후, 인왕산을 향하여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겨울 추위도 응원하여 주는 듯 햇빛이 따사로이 비추는 정오의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계단과 바위를 뛰어넘고 기어올라 마침내 인왕산 정상에서 “2019년 무경계 온새미로”의 깃발을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실험미술의 서울 지점을 선포하였던 것이지요.

하산 후, 우리는 뜨거운 칼국수와 동태찌개로 점심식사를 했고 이어서 우리의 행선지는 근처에 위치한 청와대 점령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을 향했던 우리의 발걸음은 신분증을 챙겨오지 않은 일부의 불찰로 접근이 금지되는 바람에 미수로 그치고, 우리는 천천히 북촌을 향해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청와대 점령 불발을 슬퍼하는 듯 따뜻했던 겨울 햇살은 자취를 감추고 어느새 찬바람으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 막는 듯 했지요. 그러나 우리는 경복궁에 근접한 청와대 앞마당의 섹시한 자태의 불새 조형물 앞에서 허날의 재도약을 약속하였습니다. 정초에 문 닫힌 국립현대미술관 뒷마당에서 내려와 휴식을 취한 우리는, 인사동으로 다시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수많은 인파에 일행들이 헤어질까봐 서로 부르고 팔짱을 끼며 천천히 걸어 청계천의 베를린 장벽 기념 조형물 앞에서 우리는 또 다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쇠심이 박힌 단순한 콘크리트 벽 조각이지만, 대한민국 서울 도심지의 조형물로 우리의 분단 현실을 되새기게 하며 겨울바람 속에 버티고 서있었습니다. 콘크리트 조각은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한 상징물처럼 보였고, 우리는 또 다시 명동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늦은 오후에 우리는 이름 난 삼계탕 집을 향해 명동 구석구석을 정처 없는 발걸음으로 헤매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끝낸 일행들과 다시 만나 귀가하기 위한 시간은 오후 7시 무렵으로 우리는 지하철 4호선 명동 역을 향해 다시 헤매다가 무사히 지하철역에 도착 할 수 있었습니다. 정초에 만난 우리는 서울 산책을 시작으로, 수원 발 무경계 프로젝트의 공간적 확장을 기획하며 돌아오는 일정으로 분주한 하루였습니다. 이 순간, 우리의 야망은 미래를 대비하여 밝게 빛나고 눈이 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SEOUL Trip for the ‘Art Politics–Project Border Crossing’ in 2019

At the end of 2018, the last event of the ‘Art Politics–Project Border Crossing’ was a kind of SNS, Facebook project for 24 hours. This project was planned as a major achievement announcing the ‘Art Politics–Project Border Crossing’ across the world, regardless of language barrier. At the end of the project, I was called that the next stage of the ‘Art Politics–Project Border Crossing’ in 2019 would be to expand its space to Seoul, the capital of Korea.

For the preliminary exploration of this plan, some of our members gathered in the City Hall station and moved together

toward Gwanghwamun, the central gate of old Seoul, Korea in the morning of the New Year Day, 2019. As a starting place of Gwanghwamun, we asked a passing foreigner to take picture of us and join with us to leave records despite of the harsh wind on Jan. 1st, 2019. We also sketched the cityscape for a drawing performance, melting frozen hands with hot breathing air. After that, we walked along the wall of Gwanghwamun constructed with heavy stones and passed through the alley of Se-chon food street markets. Our own analog navigation was the only method to search for the house of Cheong- Jeon, Sang bum Lee, called the modern cultural house of Korea. We walked slowly as if we were strolling the village to look around its neighbors. At last, we arrived at the house of Cheong- Jeon, Sang bum Lee, called Han-Ok, a Korean old style house. After we looked enough around the inside structure of house and enjoyed Cheong- Jeon’s art works until our foot was frozen because of the cold floor, we left for the Mount In-Wang again. It was the time of noon when the sun shines was brightly warm as if it supports our steps despite of the winter cold. We walked and climbed up countless stairs and rocks, and finally we was able to lift the flag of the ‘Art Politics–Project Border Crossing’, “ONSAEMIRO” in 2019, from the top of Mount In-wang. This meant, finally, we proclaimed the Mount In-Wang as a Seoul branch of our experimental art.

After came down the mountain, we had lunch with hot Korean style noodle and fish stew and then our destination was decided to occupy the nearby Blue House of Korean president, called Cheong-Wa-Dae. For this challenge, we walked toward the route of Mount Buk-An, the back mountain of Cheong-Wa-Dae. Unfortunately, our attempt were stopped and banned from the inspectors of house because some of us did not prepared ID cards. This resulted our route to change toward Buk-Chon, a village around Kyung-Bok Palace. At this moment, the warm sun shin seemed to hide our footsteps and blocked our way by cold wind as if mourning our failure of occupying the Presidential House. Despite of our heavy steps, a sexy Fire-Bird sculpture had been captured our sightin the front gate of Blue House nearby Gyeong-Bok Palace. In front of this monumental sexy fire bird, we promised to occupy the presidential house again in a near future.

To continue our walking, we moved toward the backyard of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t the museum was closed in a day of new year. We took a short break in the backyard of museum and performed an imprompt happening to fun ourselves. After that, we moved slowly again following the route of In-Sa-Dong. We had to hold our arms each other not to be scattered among the crowded public. After passing the street, we stopped again in front of the memorial of the Berlin Wall in Cheon-Gye-Cheon, a central river penetrating the city of Seoul. It is a simple concrete piece of Berlin wall, standing in a time of cold winter that reminded us the divided reality of our country as a memorandum of unified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late afternoon, when the sight of street started to get dark, we were wandering around the corner and corner in Myung-Dong street to find a famous restaurant of chicken soup, called Sam-Gye-Tang. It was a late afternoon of 7 o’clock when we ready to go back home after dining, arrived at the line 4 Myeong-Dong subway station. This was our busy schedule of New Year, 2019 to set a plan for the expansion of branches from Su-Won to Seoul as a form of ‘Art Politics–Project Border Crossing’. At this moment, our ambition seemed to be shone brightly and snowed in anticipation of the coming future.

작가 흥영숙 ARTIST HONG YOUNG S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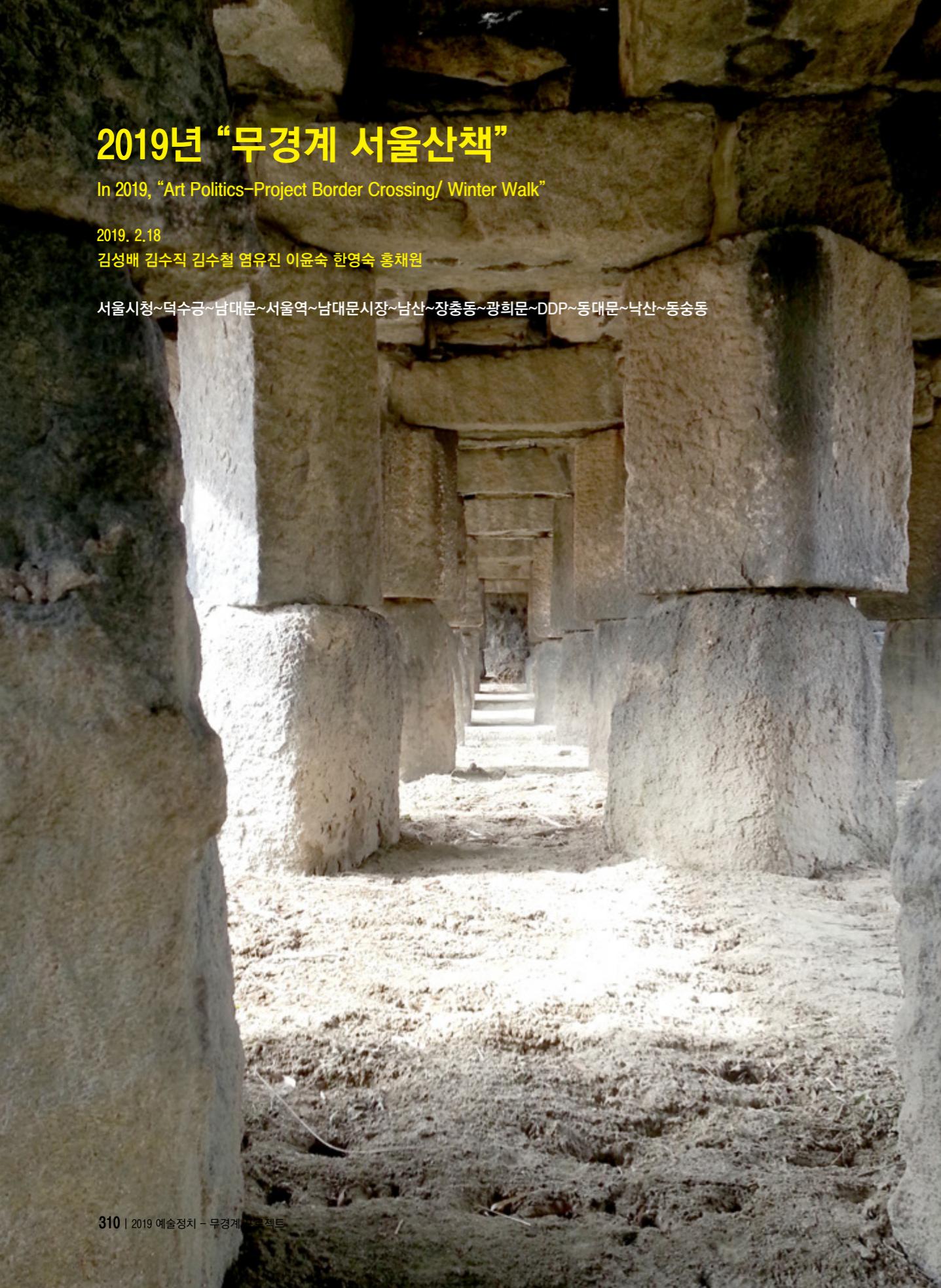
2019년 “무경계 서울산책”

In 2019, “Art Politics–Project Border Crossing/ Winter Walk”

2019. 2.18

김성배 김수직 김수철 염유진 이윤숙 한영숙 홍채원

서울시청~덕수궁~남대문~서울역~남대문시장~남산~장충동~광희문~DDP~동대문~낙산~동숭동





남산에서 바라본 이왕산, 삼각산.

북한산, 도봉산과 서울 동경

이윤수 + 김수철 그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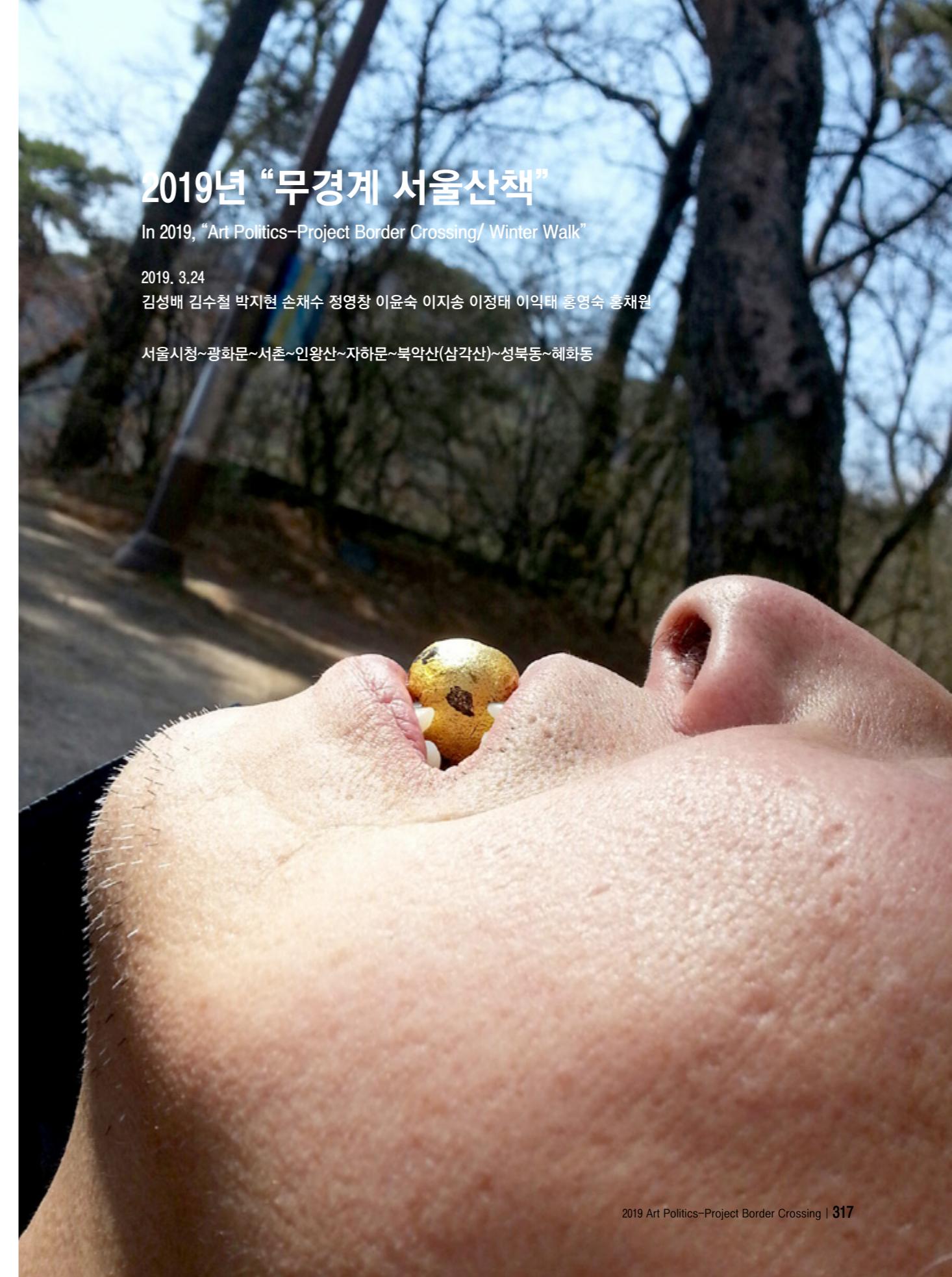
2019년 “무경계 서울산책”

In 2019, “Art Politics–Project Border Crossing/ Winter Walk”

2019. 3. 24

김성배 김수철 박지현 손채수 정영창 이윤숙 이지송 이정태 이익태 흥영숙 흥채원

서울시청~광화문~서촌~인왕산~자하문~북악산(삼각산)~성북동~혜화동





2019 예술정치–무경계 프로젝트 ‘온새미로’

주 쇠 : 슈룹 ShurooP

기 획 : 김수철

편 집 : 김성배, 김수철, 홍채원, 최세경

교 정 : 편집인 외 이지송, 이윤숙, 이정태

번 역 : 이정태, 홍영숙, 강민정

디자인 : 강길원

인 쇠 : 편집회사사람들(031.241.2091)

발 행 : 실험공간 UZ_2019년 12월

협 찬 : 수원시립미술관, 수원전통문화관, 수원화성박물관, 신풍초등학교 사료보존회

*나인드래곤헤즈의 박병욱 감독, 마그다 구를리 큐레이터의 도움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온새미로_‘갈라지거나 쪼개지지 않은 원래의 온전한 자연 상태’를 일컫는 순 우리말

2019 Art Politics–Project Border Crossing ‘ONSAEMIRO’

Organize : SHUROOP

Planning : Kim Su Cheol

Editing : Kim Sung Bae, Kim Su Cheol, Hong Chae Won, Choi Se Kyung

Proofreading : Editors and Lee Ji Song, Lee Youn Sook, Lee Jung Tae

Translation : Lee Jung Tae, Hong Young Sook, Kang Min Jung

Design : Kang Kil Won

Printing : Edit Company Peoples

Published by Experimental Space UZ_December 2019

Supported by Suwon Museum of Art, Suwon Cultural Foundation, Suwon Hwaseong Museum A/V Hall,

Shinpung Elementary School Auditorium

*Special Thanks to, Director Park Byung-Uk & Curator Magda Guruli of Nine Dragon Heads.

@Onsaemiro_Traditional Korean phrase meaning the original whole natural condition neither split nor broken.



Nine
Dragon
Heads



예술공간 봄
ART SPACE BOM

이 도록에 게재된 모든 자료는 발행인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사, 전제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All materials in this book will not be used by a third party without consent by the publisher.

